현대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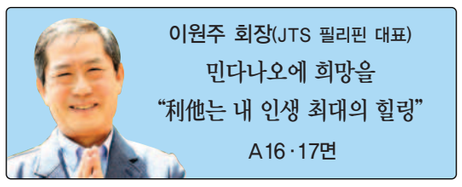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045호 2015년 5월 21일 목요일

불기 2559년 단기 4348년(음력 4월 4일) · 주간



이원주 회장(JTS 필리핀 대표)
민다나오에 희망을
"利他는 내 인생 최대의 힐링"
A16·17면



금주의 법구-〈숫타니파타〉
모자라는 것은 소리내지만
가득찬 것은 소리가 없다
지혜로운 자는 가득찬 연못과 같다.



봉축도 통일된 마음으로

오색의 옷차림에 하나된 마음으로 율동을 하는 불자들의 모습이 아름답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5월 16일 동국대 운동장에서 열린 연등회 어울림마당에서 불자들은 하나된 마음으로 부처님오심을 봉축했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는 5월 16~17일 서울 동국대와 종로, 조계사 일대에서 연등회 연등축제를 개최했다. 광복70년 기념 통일 · 평화 기원 세계 간화선 무차대회와 함께 열린 이날 연등회는 31만 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여법하게 성료됐다. 글 · 사진= 노덕현 기자

법석·축제 '한마당' 30만 佛子 '한마음'

16일 간화선 무차대회 · 연등회 성대히 개최
전국 불자 광화문 결집… 불교 위상 높여

깨달음의 법석과 부처님이 오신 것을 축하는 축제의 자리가 한데 어우러졌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인 5월 25일에 앞서 진행된 축제인 연등회와 '광복 70주년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는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한국불교 사상 최대 법석을 보여줬다.

조계종은 5월 16일 광화문 광장에서 '광복 70주년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의 메인 행사인 '간화선 무차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광화문 광장은 종단을 넘어 전국에서 운집한 31만 명의 불자로 가득찼다. 간화선 무차대회에서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법어를 통해 철저히 공부해 자신의 본래 마음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대중들에게 당부했다.

이어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마음 평화 수행법으로 '간화선'을 제시했다.

진제 스님은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화두를 들고 오로지 간절한 화두의심 한 생각에 푸욱 빠지도록 하루에도 천번만번 반복해서 챙기고 의심하면 대지혜와 대안락, 대자유와 대평화를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와 사회의 안정을 위해 희생된 영령과 세월호 참사, 네팔 지진 희생자에 대한 애도도 잊지 않았다.

이에 대해 스님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되신 모든 영가 분들과 네팔 대지진 참사로 희생되신 모든 영가 분들,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위하여 희생되신 모든 영가들께서도 삼독의 애착과 집착을 다 내려놓고 부처님의 극락정토에서 안락을 누리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간화선 무차대회는 불교적 통일 담론을 담은 '2015 불교통일 선언'과 앞서 열린 세계 종교인 평화회의에서 채택한 '세계평화 기원문'이 각각 발표됐다.

이날 대회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영상 메시지를 보내 눈길을 끌었다. 박 대통령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오랜 분단의 고통을 마감하고 새로운 통일시대를 여는 것은 시대적 사명"이라며 "그 길에 불교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이 되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기부처 오심을 찬탄하는 축제의 장인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도 화려하고 성대하게 치러졌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자승, 이하 봉축위)는 5월 1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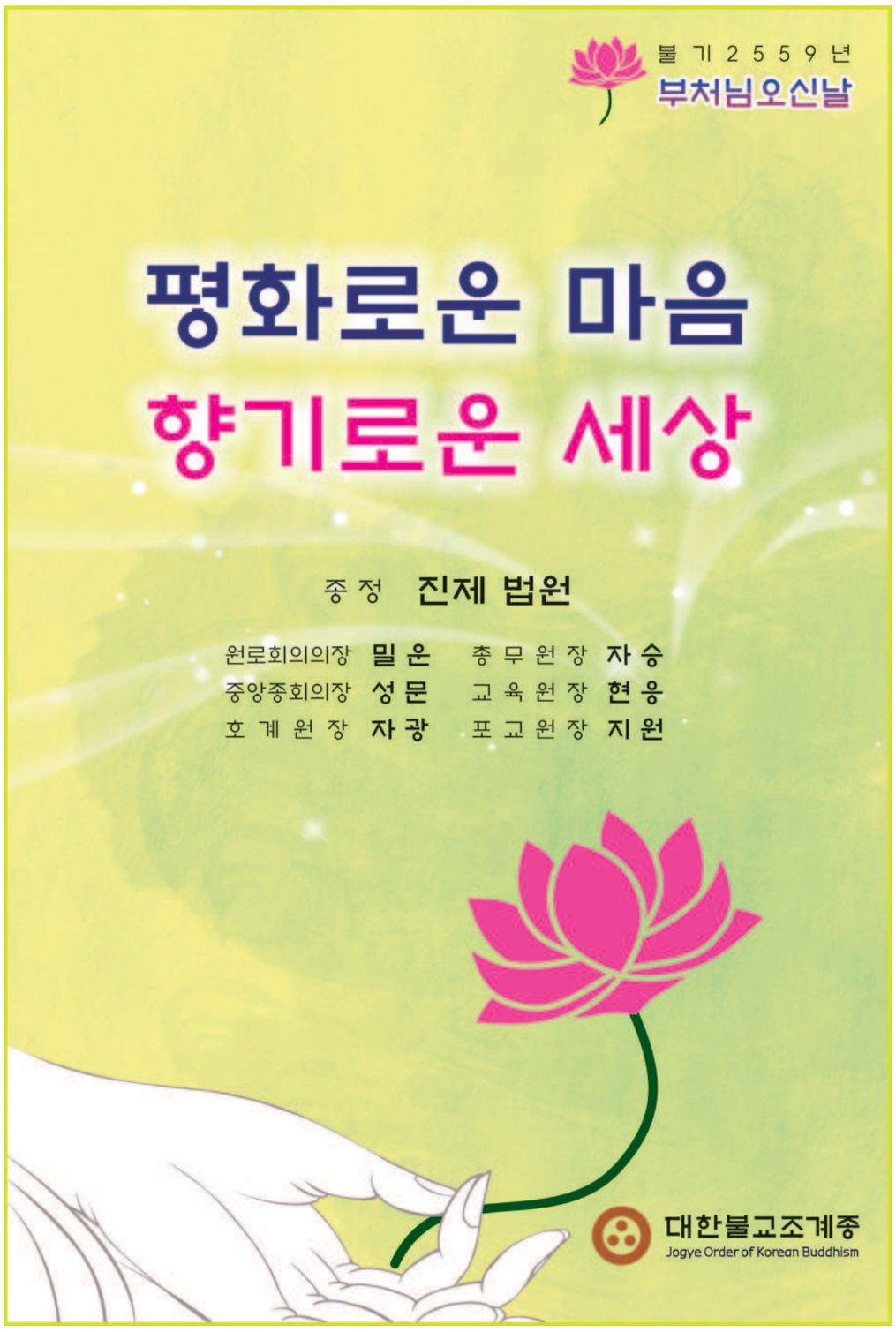
진제 스님, '본래면목' 법문
통일선언 · 평화 기원문 발표
연등회 등 봉축행사도 진행
10만 오색연등 도심 수놓아

오후 6~8시 서울 동대문과 광화문 광장 구간에서 제등행렬을 진행했다.

연등회의 백미인 제등행렬에는 사찰별로 준비한 장엄등과 개인등 10만여 개가 서울 도심을 장엄했다. 제등행렬에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태극기 등이 행렬등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었으며, 이번 등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한마음선원은 한마음등, 평등공법등까지 다양한 모양의 장엄등을 선보여 주목 받았다.

한편 불기 2559년 연등회는 5월 17일 서울 조계사 앞 우정국로에서 열린 전통문화마당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특별취재팀=신성민 · 노덕현 기자
정혜숙 · 박아름 기자



2015 불자대상 수상자 정연만·김현집·구본일

25일 봉축법요식서 시상



정연만



김현집



구본일

불기 2559(2015)년 불자대상 수상자에 정연만 환경부 차관, 김현집 육군 제3야전군사령부 사령관, 구본일 BTN불교TV 대표이사가 선정됐다.

조계종 불자대상 선정위원회(위원장 자승)는 5월 13일 회의를 열고 제12회 불자대상 수상자를 결정해 발표했다. 시상식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조계사에서 봉행되는 부처님오신날 봉축 법요식에서 진행된다.

불자대상 선정위원회는 "정연만 불자는 공무원불자연합회 부회장 소임을 맡으며 공무원 조직 내 신도조직 활성화 및 불교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며 "또한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재직 시부터 현재까지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 업무를 총괄하며 자연공원 내 전통문화유산의 보전과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현집 사령관에 대해서는 "국군불교총신도회 회장 소임을 맡아 간부불자의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했고, 종단 및 군종교구, 신행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군

네팔 지진 현장서 "예수 믿어라"

개신교NGO 굿피플 소속 의료진, 영어 선교 전단 뿌려 '물의'

네팔 언론 비판 기사 게재
SNS도 "네팔인 모욕" 성토
단체 사과했지만 '망신' 초래

대지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네팔에서 활동 중인 한국 개신교계 NGO가 선교활동을 펼쳐 논란이 되고 있다. 다시금 한국 개신교 특유의 공격적 선교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지 매체 온라인하바르는 5월 12일 보도를 통해 한국 국제 개발 NGO인 굿피플의 선교 행위에 대한 비판 기사를 게재했다. 굿피플은 여의도순복음교회를 만든 조용기 목사가 총재로 있는 개신교계 단체이다. 이에 따르면 굿피플은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캠프를 만들고 약을 나눠주며 기독교 선교 문구가 적혀진 영문 책자를 함께 전달해 문제가 됐다.

온라인하바르는 "굿피플이 피해자들에게 '오직 주님만이 세상을 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영문 책자를 배포했다"면서 "이들은 이번 지진을 개신교 선교의 기회로 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매체는 응급처치를 받기 위해 캠프를 찾았으나 치료를 받을 수 없었고, 심지어는 "개종을 하면 쌀을 준다고 했다"고 고발하기도 했다. 또한 현장의 말을 빌어서 "유일신인 개신교를 믿지 않고 다신교인 힌두교를 믿어 지진이 일어난 것"이라는 막말도 쏟아냈다고 지적했다.

이 기사는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네팔 현지인들의 비판과 성토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네팔 언론 온라인하바르가 한국 NGO를 비판한 기사

실제 아이디 'Siris Bahadur Ghale'는 "네팔인을 모욕했다"고 분노했으며, 아이디 'Ram Krishna Dangol'은 "그들은 가짜 기독교인이며 거짓 선지자다. 말도 안되는 선교에 화가 난다. 네팔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그들을 쫓아내야 한다"고 성토했다.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굿피플은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굿피플은 사과문에서 "굿피플 본부 및 네팔 지부에서 제작한 것이 아닌, 굿피플과 관련이 없는 일반 교회에서 영어로 제작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의료진을 굿피플의사회에서 제명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면서 "한 개인의 돌발 행위이지만 굿피플 구호 현장에서 발생한 일인 만큼, 굿피플 역시 심히 책임을 통감하며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선학원에 '특별교구' 등 제안

추진위, 6개항 제안… 종회의석 배정 등 내용 담겨


조계종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법등)는 5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분과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발표했다.

법인 등록을 놓고 선학원과 갈등을 빚고 있는 조계종이 선학원에게 대승적 차원의 2대 요구와 6개 제안을 내놨다. 주요 골자는 선학원을 특별교구화하고 이사장과 이사에 대한 징계를 풀어주는 것 등이다.

조계종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법등)은 5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분과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을 발표했다.

이날 조계종이 선학원에 제안한 사안은 2002년 양측의 합의 사안을 기조로 2대 요구와 6개 제안으로 압축된다. 2대 요구는 '대한불교조계종' 명칭 사용과 법인관리법에 명시된 '이사 1/4를 총무원장 복수추천' 조항을 받아들일 것이다.

6개의 제안으로는 △선학원 이사장 · 이사 징계 사면 △선학원 특별교구화 △중앙종회의석 2석 배정 △원로의원 1석 배정 △분원장에 대한 선거권 · 피선거권 제한 풀기 △정관 변경시 종단 승인 의무 삭제 등이 발표됐다.

이 같은 요구와 제안 합의 사항은 4월 28일 총무원장 · 종회의장 · 호계원장 등과의 회동을 통해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추진위원회는 난망했다.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장 법등 스님은 "지난 2002년 조계종 · 선학원의 합의가 깨진 것은 양측 모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객관적으로 볼 때도 이번 제안은 조계종에게는 화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통 큰 제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제안이 받아들여지면 선학원과의 관계에서 팽배해진 불신의 요소를 끊어내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분원장 권리제한 사항 풀고
이사장 · 이사 징계 원상회복
이사 1/4 총무원장 복수추천
'조계종' 명칭 사용 요구도

선학원, "또 다른 분열 행위"
법인관리법 폐지 입장 고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전부 동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법등 스님은 "우선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중앙선원을 선학원에 개설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겠다. 해볼 수 있는 방안을 다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선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가 내놓은 제안은 그간 회자됐던 대승적 방안을 모아놓았지만 실현을 위해서는 남겨진 숙제가 적지 않다.

우선적으로 선학원 이사회가 제안 사항을 수용할지가 관건이다. 어디까지나 제안 사항이지 법적 장치까지 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설사 선학원 이사회가 조계종의 요구와 제안 사항을 받아들여도 종단 중앙종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선학원 특별교구화와 원로회의 · 중앙종회 의석 배정 등의 사안은 중앙종회에서 의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안 사항으로 내놓은 이사장과 이사의 징계를 풀어내는 과정 역시 제도적으로도 난제다.

이에 대해 법등 스님은 "법을 개정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불가능하다. 양측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종회의 의결이 문제라면 종회의원들을 내가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득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선학원은 조계종의 제안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법적 한계가 명확한 제안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의미다.

재단법인 선학원(이사장 법진)은 5월 15일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진회의에서 조계종 제안에 대해 '법인관리법'과 종헌 제9조 3항을 폐지하지 않는 한 일체의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번 조계종의 제안은 또 다른 선학원의 분열과 분란을 획책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태고종, 합의 위한 대중공사 이뤄질까

도산스님, 조건부 대중공사 제안
비대위 "제명 의원 포함 맞지않다"

태고종 내홍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총무원장 도산 스님이 중앙종회와 비상대책위원회에 법륜사 개방과 '종도 대중공사' 개최를 제안했다.

도산 스님은 5월 1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부처님오신날 이전에 양측의 동의하에 경찰병력을 철수시키고 법륜사를 개방하고 총무원과 중앙종회, 전국 종무원장 및 비상대책위 등을 포함한 전 종도가 참여하는 '종도 대중공사'를 통해 종단 정상화 대책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중앙종회는 부당하게 제명시킨 지역구 종회의원 8명을 즉시 복권하고, 보궐선거를 조속히 시행하라"면서 "종헌 · 종법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된 중앙종회에서 총무원장 불신임을 의결할 경우 즉각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도산 스님의 '종도 대중공사' 제안에 태고종 비상대책위원회(총무원장 권한대행 종연, 이하 비대위)은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제명된 종회의원 복권에 대해서는 입장 차를 보였다.

비대위는 5월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도산 스님이 제안한 '종도 대중공사'는 종단 정상화를 위해서는 좋은 방안"이라며 "심도 있게 논의해 종단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명 의원 복권에 대해서는 "대중공사를 제안하면서 또 다시 종회와 비대위가 불법을 자행했다고 작위적 사견을 주장하는 것은 종단 안정을 걱정하는 행동과 상반된다. 제명된 의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결됐다"고 일축했다.

한편, 법륜사는 양측의 합의하에 5월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개방한다.

김주일 · 신성민 기자

"네팔 구호, 재건에 초점"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단, 11일 귀국 보고회

공생회 · 프라미스 등 활동 계속
불교단체에 성금 답지 이어져

조계종이 향후 네팔 재건과 복구에 구호역량을 집중한다. 현재 구호NGO의 홍수에 있는 네팔의 여건을 고려해 중복 구호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다.

네팔 지진 긴급구호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단(단장 각평)이 5월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장에서 귀국보고회를 개최하고 구호활동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지난 4월 27일 네팔 현지에 파견된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단(단장 각평)은 5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현지주민들에게 구호물품을 배분했다.

봉사단의 구호물품 배분이 이뤄진 곳은 네팔 정부가 지정한 12개 최우선 식량지원 지역 중 하나인 신두팔촉(Sindhupalchowk) 지역으로 네팔 수도 카트만두 북쪽 약 60km 떨어져 있다.

봉사단이 현지에서 구매한 15만 달러 상당(한화 1억 6000만원)의 긴급구호키트는 쌀, 납작쌀, 소금, 콩, 라면, 식용유, 전통차, 설탕, 밀가루, 비누 등 10가지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봉사단은 125톤 분량의 구호키트 5천개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가구에 하나씩 전달했다.

오지 지역에 긴급 구호를 진행한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단은 2차 지원은 마을 재건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렸다.

조계종 긴급재난구호봉사단장 각평 스님은 "보름 뒤 우기가 시작되면 현지 상황은 더욱 어려워진다. 우기 이후에 2차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실무회의를 통해서 논의를 더 진행해야겠지만 단순한 물품 지원이 아닌 자립을 위한 재건에 초점을 맞추려 한다"고 밝혔다.

추가 여진이 발생한 상황이지만 한국불교계 국제구호 단체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진참사 이후 가장 먼저 구호활동을 전개한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는 5월 10일 지진 진앙지 인근인 다딩 지역에 위치한 날랑 지역 주민들에게 쌀 1만kg과 콩 500kg 등의 식량을 지원했으며 다른 피해지역으로 이동해 2차 구호에 나섰다.



조계종 긴급재난구조봉사단이 5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더 프라미스(이사장 법등)은 국제 보건의료단체인 메디피스, 지역 단체인 하스티 등과 협력해 바떼단다 지역에서 의료 봉사를 지원하고 긴급 구호품을 전달했다. 5월 11일에는 상임이사 묘장스님을 비롯해 국제팀 인원을 추가로 파견돼 다딩 지역 인근을 돌며 의료 및 천막 지원을 진행했다.

불자들의 온정이 담긴 성금도 곳곳에서 답지 중이다. 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의협의회(회장 우송)는 5월 1일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네팔 지진피해 긴급구호기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이어 동화사(주지 덕문) 1000만원, 수덕사(주지 정묵) 2000만원, 고운사(주지 호성) 1000만원, 화계사(주지 수암) 1000만원, 호국지장사(주지 도호) 500만원, 전주 금선암(주지 덕산) 500만원 등 전국의 사찰들이 자비행에 동참했다.

지구촌공생회에는 기금모연을 위한 계좌를 개설한 지 10일 만에 1억 원이 모연됐으며, 불교국제구호단체를 중심으로 천태종, 진각종 등 종단과 BBS, BTN 등 불교계 방송기관도 성금을 모연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법인 인가 종단

사단법인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종정대행 도 선

승정원장 석벽봉 고 문 석암도 원로원장 석법령 종회의장 석혜령

원로위원 석월타 원로위원 석지관 원로위원 석대원 원로위원 석일장
원로위원 석혜암 원로위원 석화담 원로위원 석일우 원로위원 석석천

호법원장 석대원 의전원장 석의담 교육원장 석남산 포교원장 석보광
기획원장 석일두 총무원장 석도선 비구니회장 석혜담 연수원장 석대공
문화원장 석도명 사정원장 석법혜

창원중앙종무원장 석청강 영덕중앙종무원장 석지공 예천중앙종무원장 석명허
강원중앙종무원장 석성만 성주중앙종무원장 석홍재 경기중앙종무원장 석재현
김천중앙종무원장 석경만 충북중앙종무원장 석선학 포항중앙종무원장 석체법
전북중앙종무원장 석덕진 광주중앙종무원장 석아도 충남중앙종무원장 석문공
안산중앙종무원장 석현공 제주중앙종무원장 석경만 인천중앙종무원장 석지일
전남중앙종무원장 석청우 풍기중앙종무원장 석일현 영천중앙종무원장 석만허

총무부장 석도흥 교육부장 석정허 사회부장 석청암 호법부장 석성보
포교부장 석도명 교무부장 석보현 비구니부장 석용정 문화부장 석도명
의전부장 석성담 중앙포교부장 석효성

문화국장 석보성 사서국장 석성덕 사서특보 석성만 기획국장 석성각
사회국장 석원각 종무국장 석보각 연수국장 석함월 비구니국장 석지현
의료봉사국장 석성진 포교국장 석성우

사단법인 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석도선

■ 종립미래로봉사회
회 장 학 산(이종길)
부회장 진불심(이순심)
총 무 심진화(차영란)
임 원 대도심(어월순)
임 원 법화심(김막두)
종립예술원 원장 묘 각(이재인)

■ 총무원포교국장
포교국장 석지명
포교국장 석법성
포교국장 석성운
포교국장 석혜공
포교국장 석태허
종립예술원 부원장 보연화(유희연)

■ 법사승단임원
경남원장 도혜 대구국장 혜련 울산원장 법광 재무국장 덕운
충남원장 보인 종무국장 혜명 경북원장 성호 국제국장 도원
포항원장 명성 부산국장 혜성 충북부장 상학 청도국장 지천
대전부장 정민 울산국장 상학 경기부장 덕산 포항국장 득원
전남부장 혜명 구미국장 혜진 강원부장 성월 화순국장 보정
재무부장 자운 포교국장 청운

■ 각 종무원 국장
사업국장 석민허 연구국장 석경담 역경국장 석청허 홍보국장 석동운
복지국장 석용운 의식국장 석운담 교화국장 석지허 지도국장 석청도
관리국장 석지도 조직국장 석견성 조사국장 석담월 호계국장 석원호
규정국장 석성공 사정국장 석도운 감찰국장 석성도 재무국장 석노담
총무국장 석원경 의전국장 석운경

■ 총 본 산 : 경북 영양군 수비면 계2리 58-1번지 대표전화 054)682-5808 / 팩스 054)682-9848
■ 총 무 원 : 서울 서대문구 홍제 3동 279-26 2층 대표전화 02)3217-4611 / 팩스 031)963-1688

조계종 고시위원회 2 · 3급 승가고시 확정

조계종 2 · 3급 승가고시가 오는 10월 24일 오전 10시와 10월 23일 오전 9시 김포 중앙승가대에서 각각 실시된다.

조계종 고시위원회(위원장 지안)는 5월13일 회의를 열고 2 · 3급 승가고시 세부일정을 확정했다.

2급 승가고시는 '논술'과 '설법시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1교시가 진행되고 2교시에는 수행이력 평가와 개별면접이 실시된다. '논술'은 6개 주제 중에서 승가고시 당일 3문제가 출제되며 응시자는 하나를 선택해 2000자 내외로 논술하면 된다. '설법시연'은 세대, 직능 및 기타 영역 등 설법대상자와 주제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응시자는 고시 당일 접수처에 설법문안 요약문을 제출해야 한다.

비구 중덕 또는 비구니 정덕 법계 수지 후 10년이 경과한 자로서 연수교육 누적점수 150점 이상을 취득, 1999~2000년 구족계를 수지하고 비구 중덕 또는 비구니 정덕 법계 수지 후 6년이 경과한 자로서 교육 · 수행 · 수임경력 중 4년 이상 경력을 갖추고 연수교육 누적점수 150점 이상이면 지원 가능하다.

3급 승가고시는 주관식(단답형) 문제와 논술, 수행이력 평가 및 면접으로 구성된다. 주관식은 조계종 홈페이지에 공지된 예상문제집에서 50문제 출제된다. 논술은 6개 핵심주제어 중에서 승가고시 당일 3문제가 출제되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문의 (02)2011-1809

신성민 기자

군 · 병원 법당에 불서 1천5백권 자비나눔

진흥원, 포교활성화 사업 일환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칠)에서는 5월 14일,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불교 포교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전국 군법당과 병원법당에 불서 1,500여 권을 전달했다.

전국 군법당 140곳과 병원법당 25곳에 전달한 불서는 도서출판 솔바람과 도서출판 민족사, 불광출판사, 도서출판 운주사에서 발행한 〈부처님 생애〉 〈나라를 구한 스님 사명대사〉 〈교양으로 읽는 불교〉 〈성지에서 쓴 편지〉 등 단행본과 만화불서 20종 1,500여 권이다.

한편, (재)대한불교진흥원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해 △2013년 전국 병원법당 및 전국 교도소에 만화불서 1천여 권을 △2014년 전국 교도소와 군법당 장병들에게 1천8백여 권을 지원하는 등 자비 나눔을 위한 불서보급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정혜숙 기자

"지구 환경문제, 지혜 · 자비 연대로 풀자"

녹색불교콜로키엄, '생명권과 생태민주주의' 1차 포럼

환경문제는 전지구적 화두이다. 탄소발자국 등의 개념이 확산되며 정부와 기업들이 앞다투어 미래 성장 동력으로 대안에너지, 탄소 절감 제품들을 연구 · 개발하고 있는 것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이다. 또한 생명의 권리와 생태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들도 차츰 활발해지고 있다. 이 같은 생명권, 생태민주주의와 불교적 함의를 찾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생명평화녹색불교콜로키움는 5월 14일 화쟁문화아카데미에서 '제1차 생명평화녹색불교 포럼–생명권과 생태민주주의 그리고 불교'를 열고 생태민주주의와 불교의 상호 관계를 논의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중앙승가대 불교사회과학연구소 상임연구원 재마 스님은 상호관계성을 중점을 두는 불교가 생태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재마 스님은 '불교의 생명사상 및 생명관의 시각'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모든 생명은 서로 중층적으로 교섭하면서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며 "모든 구성원의 번영과 상호커뮤니케이션에 중점을 두는 사회이념인 생태민주주의를 꽃피울 종교로 불교가 꼽히는 이유다. 생태민주주의는 불교의 지혜수행과 자비수행을 통해 구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혜수행은 연기와 사성제, 팔정도를 깨달아 탐욕과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표이며, 자비수행은 분노와 적의, 성냄, 불만 등을 다스리기 위한 긍정적인 마음을 일으키는 것에 목적을 둔다는 게 재마 스님의 설명이다.

스님은 "지혜수행은 법계연기의 세상에서 공동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수적인 수행이고, 자비수행은 이러한 공동선을 일으키기 위한 실천적 마음가짐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지구적 생태문제의 해결은 이 같은 지혜와 자비의 연대가 해결할 수 있다고 재마 스님은 주장했다.

재마 스님은 "불교의 생명은 초목을 포함한 모든 생명 있는 것과 함께, 연기를 통해 상호작용하는 무정 등의 삼라만상을 포함한다"면서 "전 지구적 혹은 개별 지역의 환경문제, 폭력, 전쟁 등의 갈등과 반목상황에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지혜와 자비의 연대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명평화녹색불교콜로키움는 5월 14일 화쟁문화아카데미에서 '제1차 생명평화녹색불교 포럼–생명권과 생태민주주의 그리고 불교'를 열고 생태민주주의와 불교의 상호 관계를 논의했다.

재마 스님, 불교 생명사상 조명

"지혜는 공동선, 자비는 실천관

지혜 · 자비 확대가 생태문제 해법"

생명 상호관계서 실마리 찾아야

이어 토론자로 나선 박병기 한국교원대 윤리교육과 교수는 객체를 강조한 생명의 권리보다 생명 상호의존과 흐름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교수는 "불교적 관점에서 생명권에 관한 논의를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불교가 생명의 종교이다'와 같은 일반적 명제를 쉽게 수용해서는 안된다"며 "너무 쉽게 그 명제를 받아들임으로써 생명존중 문화의 확산을 위한 불교의 역할 등 실천적 쟁점에 관한 고민이 소홀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생명의 권리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권리라는 것은 서구사회에서 개별화된 개인과 개체를 중시하는 개념으로 불교와는 맞지 않다"면서 "생명을 권리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기본 속성인 상호의존성, 끊임없이 이어지는 흐름으로서의 과정성 등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자연스럽게 지혜에 근거한 자비행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혜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비전연구소장도 생명을 '권리'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동물보호활동가가 생명권을 이해하는 방법'을 주제로 발제한 김 소장은 "권리라는 개념은 초점을 여전히 '나'에 맞추게 한다. 그러나 보살핌의 윤리는 인간과 생명을 독립된 개체를 넘어 관계 중심적으로 살펴보게 한다"며 "동물을 함부로 죽여서 안 되는 이유를 생명의 권리가 아닌 보살핌의 윤리와 관계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안건훈 강원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생태민주주의와 미래세대의 권리', 한면희 성균관대 초빙교수가 '미래세대와 자연생명존중, 국제적 성공사례'를 주제로 발제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봉은사, 불교계 최초 국악합주단 창단

11명 단원 구성해 14일 첫 공연 매주 목요일 정기무대

한국 국악의 아름다움을 전할 국악합주단이 불교계 최초로 창단돼 첫 선을 보였다.

봉은사(주지 원학)는 최근 11명을 단원으로 한 '봉은국악합주단'을 창단하고, 5월 14일 경내 종루옆 잔디마당에서 첫 공연을 진행했다.

봉은국악합주단은 김회경 예술감독과 안승철 지휘자를 중심으로 공개오디션을 통해 가야금, 거문고, 대금, 피리, 해금, 아쟁, 북, 장구, 소리꾼 등 11명으로 구성했다. 소리꾼은 남도창을 하는 이이화 씨와 경서도민요 이미리 씨가 선발됐다.

봉은사 잔디마당에서 펼쳐진 첫 공연은 봉은사 합창단과 함께 '찬불소리 꽃바람에 흩날리다'를 주제로 40여분에 걸쳐 진행됐으며, 점심시간 봉은사를 찾은 직장인들과 관람객, 신자들이 참여해 흥겨운 국악 가락을 감상했다.

진행 마이크를 잡은 소리꾼 이미리 씨는 공연을 기다리는 청중들을 향해 "젊은 국악인들의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얼씨구'하고 추임새를 넣을 때, '좋다'라고 외치면 감동은 더 커진다"며 관람객의 호응을 유도했다.


서울 봉은사는 최근 11명을 단원으로 한 '봉은국악합주단'을 창단하고, 5월 14일 경내 종루옆 잔디마당에서 첫 공연을 진행했다.

첫 공연에서는 아바의 '댄싱 퀸', 이선희의 '인연' 등 대중곡과 경기민요 메들리인 '노래가락', '청춘가', '뱃노래'에 이어 봉은사 합창단과 함께 '사리여', '산사의 봄', '삼세인연', '부처님오신날' 등 찬불가가 선보여졌다.

첫 공연을 이끈 안승철 지휘자는 "부처님오신날을 앞둔 첫 공연이어서 뜻 깊었다"며 "법당이나 도량에 울려퍼지는 찬불국악곡을 듣고 불심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첫 공연의 소회를 밝혔다.

이날 공연과 관련, 김회경 예술감독은 "악기편성과 레퍼토리를 다양하게 연출해 법당음악에 국악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확실하게 보여 주겠다"며 "젊은 국악인들을 위해 자리를 마련해 준 봉은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봉은국악합주단은 매주 목요일 오후 12시 30분 봉은사에서 '찬불소리 꽃바람에 흩날리다'를 주제의 공연으로 대중과 만날 계획이다. 신성민 기자



부처님오신날 홍보대사 동자승

서울 조계사(주지 원명)는 5월 11일 조계사 앞마당에서 동자승 단기출가 보리수 새싹학교 삭발수계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계식에는 전계사로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이 나서 박선우, 박성배, 신도영 등 총 9명의 아이들에게 계를 전했다. 동자승들은 삭발수계식을 시작으로 '보리수 새싹학교'의 출가생활이 시작됨과 동시에 불기 2559년 부처님오신날 행사인 자비의 선물 전달식, 연등 점등식, 경찰정법회, 연등행렬 등에서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했다. 글 · 사진= 노덕현 기자

동국대의료원 · 고양시 주지協 상호 지원 협약 맺어

동국대학교의료원은 지난 13일 명성세미나실에서 고양시주지협의회 회장 보산 스님)와 고양시 조계종 신도연합회(회장 이금석)와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고양시 조계종주지협의회 스님과 신도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동국대병원은 의료지원 등의 행사를 지원하고, 고양시 조계종 사찰과 신도는 병원 홍보 등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그 시작으로 고양시주지협의회와 신도연합회는 동국대일산병원 발전기금 5000만원 기부를 약정하였고 1차로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방문한 동국대학교 총장 보광스님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력하여 개원 10주년을 맞은 동국대일산병원에 대한 기대와 애정이 많은 만큼, 최고병원을 만들기 위해 교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격려했다. 신성민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 국 사

佛紀 2559年 乙未年 Buddha's birthday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

회 주 성타 관 장 종상
주 지 종우 학 장 덕민
부 주 지 정문 총 무 종천
교 무 정수 재 무 성명
사 회 정빈 포 교 탄경
문 화 성요 신도회장 이영숙

부설기관
- 분당 포교당 석가사
- 불국사 문화회관
- 성림 어린이집
- 불국 성림원(노인요양시설)
- 불국 유치원
- 경주장애인종합복지관

대 중 일 동

■ 경상북도 경주시불국로 385 TEL 054)746-9912~4 / FAX 054)746-1476



일 주 문



부처님오신날 경로잔치

도선사 조실 현성 스님은 5월 13일 서대문구청에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지역어르신 150명을 대상으로 국악 공연을 겸한 경로잔치를 개최했다.



네팔돕기 성금 3만불 기탁

한국불교태고종 부산 천불정사 주지 고담 스님은 5월 10일 네팔 돕기 성금 3만불을 불교TV 부산지사에 기탁했다.



송광사 템플스테이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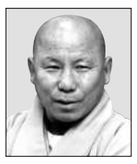
순천 송광사 주지 무상 스님은 5월 29일~31일 오후 4시 산사체험관에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템플스테이-스님, 계십니다' 를 진행한다.



제16회 세월호 치유 길상음악회

서울 길상사 주지 덕운 스님은 5월 25일 저녁 7시 길상사 극락전 앞에서 '제16회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하는 길상음악회' 를 진행한다.

정광학원 이사장에 원일 스님



불교 종립학교인 정광학원 정광중·고등학교 이사장에 원일 고불총림 백양사 주지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학교법인 정광학원은 지난 5월 4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제12대 이사장에 원일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정광학원 당연직 이사인 백양사, 화엄사, 송광사, 대흥사, 선암사 주지스님 등이 참석했다. 정광학원은 광복 후에 불교교육을 통한 대중포교와 국가사회의 동량이 될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백양사 만암스님의 발의로 백양사, 송광사, 화엄사, 대흥사, 선암사 등 광주 전남지역 5대 본사의 재산출연과 협의를 통해 1946년에 설립된 광주 유일의 불교종립 명문사학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운문사 승가대학장 흥륜 스님 입적

흥륜 청도 운문사승가대학장 스님이 5월8일 오전 11시 27분 운문사 삼장원에서 입적했다. 영결식은 5월 10일 운문사서 봉행됐다. 세납 74세, 법납 53세. 흥륜 스님은 1994년과 2002년에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다. 사찰 행정에도 뛰어나 2002~2006년 운문사 제14대 주지 소임도 맡았다. 2006년~2012년 동안 운문사 강주로 역임하고 2012부터는 운문사 학장도 맡아 왔다.

"우리도 세계인 도움으로 희망 가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 네팔 돕기 성금 기탁 '훈훈'

"우리도 피해자로 힘든 삶을 살았지만 전 세계인들의 도움을 받아 희망을 가졌습니다. 작은 정성이 지진으로 모든 것을 잃은 네팔 국민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네팔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 성금을 기탁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후원 시설인 경기 광주시 나눔의집에 거주하는 김군자(90) 이옥선 할머니(89) 등 3명은 5월 12일 서울 광진구 영화사에서 열린 '네팔 강진 피해 구호 성금 전달식' 에서 국제구호NGO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에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이사장 월주 스님 등 스님들이 참여해 할머니들의 자비행을 축원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 10명이 정부가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과 나눔의집 후원금 등을 십시일반으로 모은 것이다. 10명의 나눔의 집 할머니들은 네팔 지진 발생 직후 고통 받고 있는 네팔 이재민들의 소식을 듣고 생활안정지원금을 성금으로 내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할머니들 쉼터인 나눔의지구촌공생회는 전달받은 성금으로 네팔 대지진 긴급 구호물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3명은 5월 12일 서울 영화사에서 네팔 강진 피해 성금 전달식을 가졌다.

김군자, 이옥선 할머니 등 3명 500만원 지구촌 공생회에 전달 나눔의 집 할머니 10명 십시일반 모아

지원 및 피해지역 복구활동에 사용할 계획이다. 성금 전달식에서 할머니들은 그동안 전세계의 많은 이들이 위안부 피해에 대해 관심을 가져준데 대한 작은 보답이라고 말했다.

김군자 할머니는 "방송 보도를 통해 네팔 현지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니 마음이 아파 성금을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많은 돈을 내지는 못했지만 부족한 부분은 많은 국민들이 (성금을 통해) 채워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른 할머니들도 "지진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네팔 국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며, 작은 정성이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지구촌공생회는 카트만두 보우더 지역에 총 24,000L의 긴급 식수를 지원했으며, 이번 지진의 최대피해지역인 신두팔촉 지역에 식량을 포함한 구호물품(13,000kg)을 우선 지원했다.

지구촌공생회는 5월 10일부터 17일까지 카트만두, 다딩, 신두팔촉 지역으로 확대하여 2차 구호활동을 벌인다. **노덕현 기자**

제주 지역 포교 활성화 '청신호'

지원 스님, 포교사단 제주단장 오태숙 포교사 임명

지난 4월 2일 조계종 포교원으로부터 창단 승인을 받은 포교사단 제주지역단의 단장이 임명돼 본격적인 활동 채비를 마쳤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5월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포교원장 집무실에서 오태숙 포교사단 제주지역단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날 자리에서 지원 스님은 "포교에서 중요한 것은 자비의 마음을 갖는 것"이라며 "언제나 스스로를 낮추고 남을 배려해 자비의 마음으로 다가야 한다. 제주지역단도 이를 염두하고 포교해달라"고 당부했다.

오태숙 제주지역단장은 "제주는 불자들이 많은 곳이었지만 해방 이후 이웃종교가 유입되면서 교세가 줄었다"면서 "제주지역단이 출범한 만큼 제주불교 활성화에 책임을 갖고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지역단은 2011년 1월 서울경기지역단에서 분리된 제주직할팀을 기반으로 창단됐다. 지난해 3월 제주직할팀 분야별연수에서 제주지역단 출범 필요성이 제기돼 구체적인 조직구성 및 관리방안이 논의됐


사진 왼쪽부터 오태숙 포교사, 지원 스님

으며 올 3월 포교사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창단이 결의됐다. 포교원은 4월2일 포교원 회의를 열어 제주지역단 창단을 승인했다.

한편, 포교사단 제주지역단은 6월14일 오후 2시 관음사에서 출범식을 봉행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스스로 이미 부처라는 자각 갖고 실천 하길"

KBS 등 언론인불자회, 여의도서 봉축탑 점등식

KBS 불자회와 언론인 불자연합회는 5월 11일 여의도 잠사회관 앞 의사당대로서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 여의도포교원 현진 지도법사 스님, 금동수 KBS 부사장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봉축탑 점등식을 열었다.

점등식은 장웅 KBS 아나운서의 사회로, 삼귀의례와 반양심경 봉독, 발원문 낭독, 한국불교차인중앙회 회원들의 헌다 공양, 여의도 포교원 합창단의 축가 공양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포교원장 지원 스님은 "스스로가 이미 부처라는 자각을 갖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법문했다.



이번에 세워진 봉축탑은 8미터 높이로, 불국사 석가탑을 모양과 크기에서 실물 상태로 본뜬 것이다. 봉축탑은 5월 31일까지 불을 밝힐 예정이다. **김주일 기자**

세민 스님, 명예문학박사 학위 수여



한서대는 5월 13일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의원인 세민스님〈사진〉에게 명예문학박사학위를 수여했다.

세민 스님은 1981년 일본 경도 불교대학을 졸업하고 1989년 동국대학교에서 불교학과 박사과정을 마쳤으며 2010년 중앙승가대학교에서 명예철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해인사 주지, 조계사 주지, 한국불교문학연구원 이사장 등을 맡으며 한국불교의 발전에 기여했다.

특히 세민대종사는 불교발전을 위한 탁월한 공적을 남겼다. 1993년 총4권의 한국불교의례자료총서를 발간했으며, 또 동판 팔만대장경 간행을 추진해 우리 불교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데 기여 했다. 한국전쟁으로 소실된 원심원사 복원 및 중창불사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한 조계사 성역화 사업도 그의 업적 중 하나다. **김주일 기자**

'나누우리' 네팔에 2만 달러 전달



국제구호단체인 태고종 (사)나누우리(이사장 도산스님)는 BTN불교TV(대표이사 구본일)에 네팔 지진피해 돕기 성금 2만 달러를 전달했다. 나누우리 이사장 도산 스님(태고종 총무원장), 부이사장 만우스님, 국내구호 담당 이사 진송스님, 마이산 탑사 주지 진성스님은 5월 13일 BTN을 방문해 나누우리 긴급지원금 1만 달러와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금액을 더한 총 2만 달러를 네팔 지진피해 돕기 성금으로 쾌척했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개교 109주년' 수계 법회



5월 12일 동국대(총장 보광)는 서울캠퍼스 본관 중강당에서 개교 109주년 동국인 수계대법회를 열었다. 이사장 일면 스님이 전계사로 나선 이날 행사는 재학생 및 교직원 6백여 명이 참석해 약 190명이 계를 받았다.

일면 스님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부처님 오신 날을 며칠 앞두고 부처님 제자가 된 참으로 성스러운 날"이라며 "살다보면 오계를 어길 때도 있겠지만 그 순간마다 참회하는 마음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佛紀 2559年 乙未年 Buddha's birthday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 정 홍 산 현 불

종 도 모 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 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이타심 실천할 때 통일 결실 맺어”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조계종이 주최하는 광복 70주년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에는 캄보디아 승왕 떼쁘엉 스님을 비롯해 스리랑카 니얀고다 시암종 말루와타 부종정 스님, 호주의 수뜨아모 스님과 빤야빠로 스님, 네팔의 남걀 타망 스님 등 20여개국서 220여 종교지도자가 내한했다. 서울 홍은동 그랜드 힐튼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룸에서는 주요 불교지도자 스님들의 인터뷰가 있었다. 이들은 저마다 세계 종교인들이 힘을 합해 평화를 위해 앞장서야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일 · 박아름 기자**



떼쁘엉 스님(86·캄보디아 승왕)



남북교류 앞장서는 것 종교인 역할
불교는 대세에 휩쓸리지 않는 것
자연스런 화합 분위기 조성 중요

우리 캄보디아는 과거 상당히 위험하고 어려운 시절을 겪었습니다. 폴포트라는 사람에 의해서 공산화 되던 때 약 800만명 인구 중 절반이 죽어나가는 고통스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당시 저도 체포돼 감옥살이와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낼 당시 많은 정계 사람들과 힘을 합쳤습니다. 그분들의 협력이 공산 정권을 물리치고 캄보디아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때부터 불교를 다시 부흥시키고, 문화와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국가를 새로 건설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중요하고도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또 종교적으로 한국과 불교 교류를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국 불교 종단에서도 다양한 도움을 주어 많은 사찰을 증축 보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생각한 것이 ‘한국에 이 빚을 갚아야 한다’ 는 것입니다. 제가 2007년 임진각에 가본 다음에는 더욱 그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남쪽과 북쪽이 서로 교류하고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것은 종교인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단연 한국 종교인뿐만 아니라 세계 모두의 종교인들이 힘을 합한다면 남북통일과, 세계 평화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규모와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 두 명이 왔다 해도 300명의 역할을 해낼 수 있고, 300명이 왔어도 두 명의 역할 밖에 못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것은 화합을 위한 결론을 도출해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과 내일, 이 자리가 분명 그 해답을 제시해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불교의 특징은 어떤 사건이나 대세의 흐름에 쉽사리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불교적 관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억지스럽게 만든다고 이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흘러가는대로 함께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자리와 문화를 조성한다면 평화는 당연히 찾아올 것입니다. 결과는 항상 걱정하는 것보다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 어떤 결론을 만들어 놓고 그 결론에 따라가기 급급하지 말고, 서로 좋은 마음으로 발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결론이 따라올 것입니다. 즉 한반도 통일의 문제도 너무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조율을 통해 언젠가 그 염원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타심을 실천할 때 더 나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 위해선 부조리 파괴 급선무

니얀고다 스님(68·스리랑카 시암종 말루와타 부종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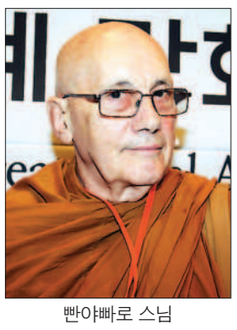
이번 행사는 세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광복70주년 기념 대법회, 둘째는 남북 간의 통일 발원을 위한 대법회, 마지막으로는 세계 평화를 위한 행사입니다. 남북 간의 평화통일을 기대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나 정치 등 여러 가지 한국사회가 이룬 발전을 스리랑카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하루 빨리 한반도가 한 민족, 한 나라로 통일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남북통일이 되면 세계에 발전에 보탬이 되는 힘 있는 나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불교에서 봐도 화합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상입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화합으로 인해 여러 가지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큰 기원대회를 여는 동안에 남북 간에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수행을 통해 각자가 자신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그런 수행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개인적인 수행을 모든 분들이 한다면 화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스리랑카도 얼마전까지만 해도 분쟁국가 였습니다. 내전이 종식된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원래는 정부와 반군들 사이에 예로부터 평화적 합의가 있었지만, 반군들은 합의만 하고 행동은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과 함께 시암종 스님들이 협력해 정부에 지속적인 요청을 했고, 합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스리랑카 내전 종식이 이뤄질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런 노력이 없었다면 반군의 폭동이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시암종의 강력한 요청으로 반군들과 정부의 갈등이 종식될 수 있었습니다. 시암종의 스님들과 스리랑카 다른 종단의 모든 스님들이 힘을 합쳐 평화를 이뤄낸 것입니다.

대중들의 화합을 위해서는 부조리를 파괴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 스님들도 북측의 사람들에게 불교 사상을 전파할 수 있다면 좀 더 빨리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강제로는 절대 할 수 없고 지혜를 짜내 자연스런 방법으로 불교의 사상을 포교해야 합니다.



수뜨아모 스님



빤야빠로 스님

자비심 발현, 평화통일 지름길

수뜨아모 스님(64·호주불교연합회 회장)
빤야빠로 스님(76·호주불교연합회 부회장)

한국 간화선을 어느정도 알며, 또 어떻게 평가하는지요?

중국의 젠 명상법(선 수행)이 한국의 간화선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간화선은 사마따, 위빠사나 적인 요소들이 한데 어우러진 것이라고 봅니다. 명상은 마음수행법이 무엇이냐 묻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마음챙김 수행법에 따라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스스로 발견하게 하고 이것이 인간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생각하지 않고 모두가 똑같은 수행법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기원대회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자리는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시간입니다. 참선을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무척 중요합니다. 약 10여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참선에 대해 관심을 많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탐진치를 없애고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게 수행법을 널리 포교해야 합니다. 세계로부터 많은 고승들이 모인 이 거대한 행사가 그것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교는 온 세상을 자비롭게 사랑합니다. 나와 남을 나누고, 분리되고, 분단되는 세상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와 남을 분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꾸려 노력하기 전에 내 스스로가 변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비의 마음을 갖고 상대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그 노력을 할 때 상대는 변화할 것입니다. 협력은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고통스런 이들에게 존재감 심어주자

남걀 타망스님(46·네팔 남걀린포체 재단 설립자이자 현 회장)



우리는 어떤 식으로 고난을 헤쳐나가야 할지 최대의 노력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특히 인간성 회복을 하루 빨리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대회가 바로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회를 통해 사람들의 행복과 평화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팔에는 지진 재난 복구 활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심지어 며칠 전에도 또 한 차례의 여진이 있었습니다. 특히 고립된 산 속에서 구호활동에 방치된 사람들을 위해 네팔 불교계는 약과 임시 주거 공간을 마련해 줄 뿐 아니라 그 유가족들을 보살피고 가족을 잃은 슬픔을 치유하며 물질적으로, 또 심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사찰들의 피해도 심각합니다. 1천개 넘는 사찰이 파괴되었는데 개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들이어서 특히나 더 피해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원이 무너지면서 많은 스님들도 입적하셨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스님들이 피해로 돌아가셨는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재난 속에서 우리 불자들은 기도뿐만 아니라, 고통 속에 살아가는 많은 이들에게 존재감을 찾게 해주고, 삶의 원동력을 다시 얻을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은 조언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웃어주고, 집을 잃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불자들이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팔에서 역사적으로 힌두교가 가장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실제로 40프로 이상이 불자입니다. 히말리아 쪽 지역 주민들은 오히려 불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힌두교인들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불교의 사상이 만연히 퍼져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존재는 사랑과 평화로 이루어집니다. 불자들은 더욱 자비와 인간 존재의 실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교는 하나의 종교로서 역할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의 근본 가치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와 인간의 삶을 돌아봄으로서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불교가 세계평화에 일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와제인 앤토니 세네라 제임스 코왈스키

간화선 수행은 선 수행 원형 잘 보존

제임스 코왈스키(65·세인트 존 더 디바인 대성당 주임사제)
앤토니 세네라(66·세이크리드 하트대 총장)
바와제인(59·세계종교지도자협의회 사무총장)

한국과 미국 불교의 차이점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코왈스키 사제=사실 미국서 한국 불교를 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미국인들에게 불교는 달라이라마로 대표되는 티베트 불교가 유명합니다. 하지만 각 나라간 불교의 차이점보다는 유사점이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 불교를 접하고, 한국 불교가 세계 속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세네라 총장=미국은 60~70년 전에는 개신교가 유행했으며, 50년 전에는 가톨릭, 지금은 힌두교와 불교 등이 새롭게 떠오르며 종교 다원주의가 부상되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 말한대로 달라이라마와 티베트 불교가 유명하고 한국 불교는 유명하진 않지만, 삶의 목적과 영적인 목마름이 항상 갈구되는 미국 사회서 한국 불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느낍니다.

바와제인 총장=분명한 점은 미국서도 현재 불교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라이프스타일을 넓히기 위해 불교는 좋은 방편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 스님들을 만났을 때 불교도는 줄고, 개신교는 늘고 있다고 걱정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국 불교는 오래된 지혜와 가치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한국 불교는 그만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간화선 수행은 선 수행의 원형을 잘 보존하는 수행법이기 때문에 극단적 성향의 뉴욕과 미국인들에게 좋은 영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 대한불교 승가종

佛紀 2559年 乙未年 Buddha's birthday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

종정 월인

원로원장 **혜공** 종회의장 **혜륜** 총무원장 **법수**
재무원장 **무착** 포교원장 **도안** 총무부장 **도일**

범음범패교육원장 **법수** 승가종법사대학장 **원해**
비구니범음교육원장 **법관** 승가종총본산승가사주지 **선견**
월인문도회문장 **법종**

서울종무원장 **정행** 부산종무원장 **봉산** 대구경북종무원장 **지운**
대전종무원장 **법지** 울산종무원장 **도성** 경남종무원장 **월곡**
강원종무원장 **부루나** 전남종무원장 **선궁** **종도일동**



2015년 4월 11일 호국연무사 5천 장병 수계법회

(사) 대한불교승가종 총무원장 법수

■ 총무원 : 부산시 금정구 구서2동 177-15번지 ■ 전화 051)552-8554. 556-0278~9 / 팩스 051)556-8551

佛紀 2559年 乙未年 | 전면광고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 | A6

항상 부처님의 바른 법을 빛내는 길은 으뜸가는 지혜를 믿어 즐기고
수행은 무소와 같으며 '나'가 없어야 한다. 〈열반경〉



한국불교태고종

종정 혜초

승정원 원장 남파
부원장 법장

원로회의의장 덕화
수석부의장 법달
차석부의장 지족

중앙종회 수석부의장 지홍

호법원 부원장 상묵

총무원 원장 도산
부원장 호명
총무부장 대각
교무부장 상진
재경부장 정묵
문사부장 성인
규정부장 지담
사서실장 현광

종도일동

■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 31 (사간동 112)
전화 02)739-3450~4 팩스 02)739-3470

대한불교천태종

봉 부처님오신날 축

종정 김도용 대종사

총무원
총무원장 변춘광
총무부장 김월도
교무부장 방경혜
교육부장 정장호
재무부장 정월중
사회부장 지설혜
규정부장 조용문

원로원
원로원장 전운덕
원로간사 주정산

종의회
종의회의장 이문덕
종의회부의장 김무원
김형구

감사원
감사원장 김용암
감사위원 엄행주

종정사서실장 박덕수

참의원장 김학송
금강대학교총장 한광수



대한불교 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세상을 정화하는
자성의 등을 밝히자

총 인성초
통리원장 회정



총기 44년
불기 2559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불교총지종

종령 효강 대종사
통리원장 법등

중앙종의회 의장	수현	중앙교육원장	화령
사감원장	법상인	동해중학교 이사장	법등
총무부장	인선	서울경인교구 교구장	법우
재무부장	우인	대구경북교구 교구장	안성
교정부장	원당	부산경남교구 교구장	정인화
사회부장	지정	충청전라교구 교구장	지정

중앙종의회 의원 · 법장원 · 총지종보 및 종보통신원
총지종 유지재단 · 밀교 연구소 · 각 교구 신정회 일동
전당건설 위원회 · (재) 사회복지재단 · 만다라요양원 · 바라밀공부방 · 초록어린이집
통리원 임직원 · 각 사원 주교 및 스승 · 일원어린이집 · 포레스타7단지 어린이집

불교총지종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25길 35 (역삼동) | Tel. 02)552-1080~1083 | Fax. 02)552-1082 | www.chongji.or.kr

---

사단법인 ## 대한불교 원융원(종)

圓融宗 四大綱領

圓融無碍 一O相 眞理體得 圓通融和 道義社會建設
圓滿融通 人格完成 圓融會通 理想世界實現

總務院長 원찬 배진호

원로원장 설봉 성인
원로위원 원정 성관.
원선 체의. 법성
승정원장 원산 평신
종정사서실 홍법
종회의장 해안
부의장 원경 도현
종회위원 송운.원홍.태상.담원.
원묘.체명.체선.건우.
진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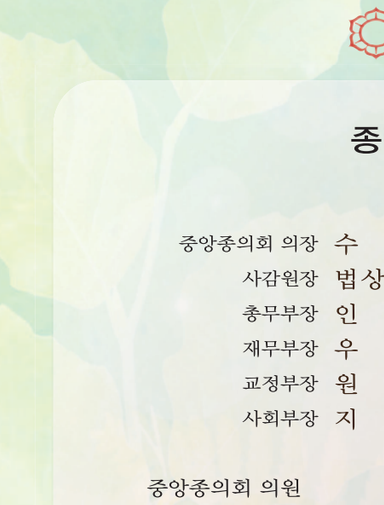
부원장 원법 해주
규정원장 혜광
문화원장 원효
포교원장 원담 해운
전국비구니회장 선덕
전국비구니부회장 진월
사회부장 진광
총무국장 명진

충남종무원장 의성 부산종무원장 혜철
경남종무원장 우담 경북종무원장 성군
전라종무원장 혜천

■ 총무원 : 서울시 구로구 구로 2동 704-39호
전 화 : 02)853-0531~2 / 팩스 02)853-0533

봉 불기 2559년 부처님오신날 축

대한불교관음종 창종50년 새로운 50년을 준비합니다!


태허조사 근영

대한불교관음종 개산조 태허 대법사는 묘법연화경에서
제시한 삼대 사상
즉 우주(宇宙)의 통일적 진리
구원(久遠)의 인격적 생명
현실(現實)의 인간적 활동을 통하여
인간사회를 행복과 평화의 세계로 이끌어 간다고
갈파하셨습니다.

우리 후학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한 수행과 정진 속에서
태허 대법사의 정신을 이어가고
사람 행복, 인류 평화를 위한 생활불교 그리고
보살운동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대한불교관음종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63가길 31(숭인동)
www.kwanum.or.kr T:02)763-0054 / F:763-5851



“이웃 아픔 껴안는 등 밝히고 영령들 왕생 발원을”

이웃을 위한 등을 밝히자

진제 스님
조계종 종정



부처님 오시는 길을 아름다운 등으로 장엄합시다. 사바에 몸을 나투시니 인간 세계가 환희에 젖음이요, 이로 좇아 억조창생(億兆蒼生)이 활로를 찾음이로다. 일곱걸음 걸음마다 연화장세계를 나툼이요.

천상천하유아독존 일체개고아당안지(天上天下唯我獨尊 一切皆苦我當安之)라 하시니, 이로 좇아 만 중생이 생사를 다해 마쳤고 지옥과 천당이 자취를 감추었으며 고통이 안락으로 번뇌가 지혜로 돌아가며 사바에 어둠이 걷히고 진리의 대광명이 주야로 빛을 발함이라.

집집마다 문을 나섬에 서울로 통하고 집집마다 부처님과 보살님이 맞이함이로다. 사바에 서광이 처음 깃든 오늘은 부처님께서 강탄하신 날입니다.

이는 참으로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니, 나를 위해 등을 밝히는 이는 어둠에 갇히고 남을 위해 등을 밝히는 이는 부처님과 보살님께 등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반도통일과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등을 밝히고 모든 이웃의 아픔을 같이하는 등을 밝히고 모든 유주무주 영령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등을 밝혀 다 같이 부처님 오시는 길을 아름다운 등으로 장엄합시다.

그러면 부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신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바가 어둡다 하나 사바 또한 꿈과 환이거늘, 어찌 어둡고 밝음을 논하며, 마음을 밝히라 하나 이 마음은 본래로 밝아 있음인데 어찌 다시 밝힐 것이며, 마음을 찾으라 하나 한 순간도 잃어버린 적이 없어 항상 쓰고 살고 있거늘, 어느 곳에서 이 마음을 찾겠습니까. 그러면 모든 사부대중이시여, 부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신 참 뜻을 아시겠습니까?

불개고불삼천계(拂開古佛三千界)요
지출군생일편심(指出群生一片心)이로다.

옛 부처와 삼천세계를 잡아 엶이요,
뭇 중생의 한 조각 마음을 가리켜냄이로다

분단 걷어내고 생명 소중히 여기자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존경하는 불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오늘은 모든 존재의 존귀함을 선언하신 부처님께서 오신 날입니다. 천상천하(天上天下) 유아독존(唯我獨尊).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셔서 처음 걸으신 일곱 걸음은, 모든 인류에게 크나큰 자비이고 사랑입니다.

모든 만물이 이미 부처의 성품을 갖추었으니, 무명의 어둠을 떨쳐내고 바른 마음과 바른 노력으로 사람답게 살아가라는 축복의 순간을 열어주신 날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이지만 안타깝게도 분단으로 7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남북이 서로 대립하고 살아온 70년의 세월은 너무나 큰 아픔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아픔을 걷어내야 합니다. 스스로가 하나 되고자 하는 일심으로, 서로간의 대화와 교류를 통한, 신뢰를 쌓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제 갈등과 반목의 분단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우리 종단은 공존과 상생, 그리고 합심이라는 3대 통일 방안을 제시해, 남과 북이 화합하고 하나 되자는 불교 통일선언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6일에는 세계 각지에서 오신 200여 고승 대덕스님들과 30만에 이르는 불자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간화선 무차대회를 열어 남북통일과 세계평화를 기원하였습니다. 이제 세계는 남북이 따로 없고 동서가 따로 없습니다. 나와 남이 따로 있지 않으며, 지구촌 모든 나라의 문제는 곧 우리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최근 큰 슬픔에 처해있는 네팔 국민의 슬픔도 우리의 슬픔입니다. 그들이 어서 빨리 절망에서 일어나도록,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야겠습니다. 우리들의 가슴 속에도, 세월호가 남긴 상처가 아직 채 아물지 못합니다. 어린 영혼들의 목숨과 맞바꾼 ‘안전한 나라’, ‘생명이 우선한 사회’를 향한 작은 한 걸음 조차 제대로 내딛지 못합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 모두가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를 향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신라 의상스님은 ‘한 티끌의 먼지 속에도 천지의 요소가 함께 있고, 짧은 한 생각이라도 만년의 기억으로 이어진다’ 고 하셨습니다. 한 사람 일생은 우리 모두의 역사와 무관치 않으며, 지금 우리의 한 생각은 미래 후손들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항상 돌아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화쟁으로 인류 상생의 공동체를

혜초 스님
태고종 종정



석가모니부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현신하신 것은 우리와 부처가 하나의 진리체임을 보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이상향의 세계는 대 자유, 대 평등, 대 평화와 화합의 맑고 밝은 현실정토 세계, 즉 부처의 세상이었으나 오늘의 우리는 무지의 업연으로 혼돈과 무질서가 춤추는 어둠의 세상 속에서 한없이 헤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하기에 부처님 오신 거룩한 날을 값지고, 불교발전을 위해 크게 발분서원(發憤誓願)하는 날로 승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원력으로 우리 모두 빈자일등(貧者一燈)의 설화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자신의 불성을 일깨우고 중생의 어둠을 사르는 지혜와 자비의 마음으로 등불을 밝혀서, 화쟁의 마음 길 열어 인류 상생의 공동체를 영위하도록 합시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동체대비 사상을 몸소 실현하고자 하신 부처님의 삶과 말씀을 오늘에 되새겨 자신을 반성하고, 중생사회를 밝혀 가는 주인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처님 마음이 아님 없음을 인지하고, 항상 만나는 이웃들과 진솔한 마음으로 살아 있는 부처님 대하듯 하면, 그 곳이 바로 부처님 세계이며, 정토세상의 실현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본래 부처 성품을 구족합시다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 스님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시며 지혜의 선각자이신 부처님께서는 일체중생의 행복과 영원한 자유의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자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사바세계가 결코 어두운 세계가 아니요 희망의 빛이 함께하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세계임을 정각으로 증명하시고 깨달음의 요체(要諦)와 대승의 방편으로 참된 진리의 세계를 열어 보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본래 부처의 성품을 구족하고, 만물의 생명이 나와 다르지 않다는 동체대비(同體大悲)의 가르침은 무명(無明)을 깨치고 탐욕과 번뇌에 묻힌 우리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되었습니다.

천만 불자와 국민 여러분, 부처님께서는 우리 곁에 오시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처님 혼자 뛰어났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낱낱의 존재를 가리키는 것으로 실로 모든 생명이 존엄하고 존귀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무한한 물질 추구와 배금주의는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는 욕망으로 내몰아 생명을 경시(輕視)하고 정신적 가치를 훼손하며 자연의 질서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재해(災害)는 결국 우리가 만들어낸 인재(人災)인 것입니다. 나아가 자신만 잘살고 행복하면 된다는 배타적 이기주의는 계층 간 대립과 갈등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고 남을 이롭게 함이 나의 행복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리고 “보살은 본래 병이 없으나 중생이 병들기 때문에 보살도 병이 든다”는 자비의 마음을 실천할 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의 길은 결코 멀리 있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 오심은 더욱 빛나네

도용 스님
천태종 종정



부처님은 지혜와 자비로 오셨으니 세상이 고해이기에 부처님의 오심은 더욱 빛납니다. 탐욕과 성냄으로 얼룩진 사바의 오늘 나를 내려놓고 남을 위한 불공과 기도를 해야 합니다.

모든 생명은 서로서로 연결되어 존재합니다. 남의 불행을 함께하고 나의 행복을 나누어야합니다. 근심과 걱정 그리고 아픔을 잠시 잊고 오늘은 우리 모두 환하게 웃으며 부처님을 맞이합시다. 진흙 속에서라야 연꽃이 피는 것이니까요.

보시자획복(布施者獲福)이 요
자심자무원(慈心者無怨)이며
위선자소악(爲善者消惡)이 고
이욕자무뇌(離欲者無惱)니라.

베푸는 이는 복을 받고 자비로운 이에게 원수는 사라지며
선을 행하면 악업이 녹아지며 욕심을 버리면 근심이 없어지느니라.

정도(正道)의 세상 열어갑시다

성초 정사
진각종 총인



오늘은 부처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남녀노소 모두 함께 마음의 등불을 밝혀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고 공양 예배합시다. 세사(世事)의 뭇 고통을 어루만져 주시려 시공을 넘어서 나날이 여기 오시는 부처님의 원력에 동참하여 귀명합시다.

부처님은 청정하여 오고감이 자재하여 온 법계에 지혜와 자비를 두루 베푸시나 이 땅에는 여전히 아상이 물결쳐서 내 것 네 것 분별하여 다툼이 쉬지 않고 옳고 그름 시비가 멈추지 못하니 부처님의 이타자리의 실천에 참여합시다.

지상의 강물이 맑고 고요하면 하늘의 달이 천강(千江)에 나타나듯이 중생의 심성에 부처될 꽃 곧 피워서 공익을 내새워서 사리를 채우는 비법의 관행을 공도(公道)가 바로 서는 정도 사회로 밝혀갑시다.

병고와 가난과 불화의 중생고(衆生苦)가 사바의 예토에 널리 가득할 때 진각성존이 진각의 종문을 높이 세우고 참회하고 심인 밝히는 법문을 베풀어서 육행(六行)을 실천하고 현세를 정화하는 은혜의 세상을 펴신 뜻도 이와 같습니다.

룸비니 동산에서 화신을 나타내어 생명 존중의 말씀을 짐짓 펴시었으니 귀천이 세상살이에 걸림이 없고 빈부가 상생하여 공존하도록 군생이 동체대비의 큰 품을 열어서 온 세상이 밀엄국토가 되도록 정진합시다.

자기를 보면 이웃도 보입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춘광 스님



불자와 국민 여러분! 온 세상에 환희와 축복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만생명이 눈을 뜨니 오늘은 좋은 날,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근본 자리가 불성의 자리요, 우리 삶의 터전이 불국정토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하나의 진리를 팔만사천의 법문으로 열어 보이셨으니, 하루 속히 무명을 깨우쳐 깨달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중생심을 벗어 던지지 못하여, 불타는 집안에서 중생놀음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를 만났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주머니 속 보배구슬을 알지 못하며, 병고를 씻어줄 약을 주어도 먹지 않고, 목이 말라도 우물을 파지 않습니다.

만물의 영장을 자부하는 인간 세상에 단 하루도 전쟁과 테러와 살상의 폭력이 그치지 않고, 단 한 순간도 거짓과 탐욕의 그림자가 지워지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폭력은 폭력을 불러오고 욕망은 또 다른 욕망을 불러오건만, 폭력과 욕망의 수레에서 내려올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수레가 눈앞에 있어도 타지 않고, 칠보로 장엄된 자비의 수레를 받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마음자리를 한 번 더 들여다봅시다. 한 번 더 들여다보면 지혜의 눈을 뜨고 광명의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불타는 집에서 빠져 나올 수 있고, 주머니 속 밝은 구슬을 꺼내 가난을 면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보면 이웃도 보입니다. 지금 네팔은 지진으로 인한 엄청난 재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난타의 등불’을 켜는 마음으로 네팔 돕기에 동참해 아름다운 불보살의 길로 나아갑니다.

자리이타의 등불을 켭시다

효강 정사
총지종 종령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모든 인류의 마음 속에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기를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먼저 네팔의 대지진으로 목숨을 잃은 모든 분들의 극락왕생과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비로자나부처님께 지심으로 서원합니다. 지금 세계는 네팔과 일본의 대지진, 화산 폭발, 태풍 등 자연재해와 환경오염, 그리고 중동 IS의 테러와 전쟁 등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정복하고 우주를 정복하겠다고 큰 소리 쳐온 인간들이 막상 자연의 변덕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나와 남, 나와 자연을 분리하여 생각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 지를 우리는 자연재해, 환경오염, 테러와 전쟁을 통하여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 불자들은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부처님의 본불성(本佛性)과 자리이타(自利利他)의 등불을 켜야 합니다. 내 자신은 물론 가족과 이웃, 나아가 일체중생 모두가 부처님의 본성을 간직한 고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는 지혜의 등불, 이웃과 사회를 위해 사랑과 봉사를 다짐하는 원력의 등불, 불퇴전의 용맹심으로 대자대비(大慈大悲)를 실천하기 위한 정진의 등불을 켜야 합니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의 지혜로 사회의 어둠을 밝히고, 일체중생을 고통에서 해방하는 자비의 등불을 밝히시길 바랍니다. 성도합시다.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옴마니반메훔.

부처님은 온 법계에 가득차

남정 스님
대한불교총화종 종정



불신충만어법계(佛身充滿於法界)
보현일체중생전(普現一切衆生前)
수연기감마불주(隨緣起感靡不周)
이항처차보제좌(而恒處此菩提座)

부처님은 온 법계에 가득 차 있으며
항상 모든 중생들 앞에 나타나시네
인연따라 다달아서 두루 보살펴 주시고
그리고 여기 항상 보리좌에 계시네

생명 하나하나에 동등한 진리세계 구축을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비로자나 부처님의 찬란한 여명이 온 누리에 드리우고 그 자비와 온정이 일체유정을 감싸 안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진리로 오셨습니다. 인류의 큰 스승이시며, 지혜의 선각자이신 부처님께서는 진리의 등불을 밝히고자 모든 고락(苦樂)을 여의었습니다.

그 앞에 선 자, 높고 낮음의 지위가 없고, 크고 작음에 분별이 없으며, 청정자성(淸淨自性)의 보궁(寶宮)이 되어 보고 듣는 경계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의 집착함을 여의는 대자재(大自在)의 인연은 만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대자대비의 큰 원력으로 승화되어 나와 너로 시작하는 시방삼세의 모든 경계를 초월한 수승한 가르침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은 결국, 과거 불은(佛恩)의 가르침을 잃고 눈앞의 이익에만 탐착하여 스스로가 정해놓은 경계들을 넘지 못하며, 남의 불행을 기회로 삼고, 남의 행복을 질투의 대상으로 여기며, 본래의 청정한 자성(自性)을 망각한 채, 탐진치 삼독의 노예가 되어 두터운 업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우리 본연의 자성은 바로 부처님의 진실한 모습이요, 일체가 본래 하나라는 본심(本心)을 일깨워 줍니다.

바로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다시금 시방삼세를 초탈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우리 본연의 청정자성을 밝혀 비교하고 차별하는 경계의 굴레를 벗어나서, 우리 세상이 빚어내고 있는 깊은 갈등과 고난의 고리들을 끊고 온 세상의 모든 생명하나 하나가 그 존재의 가치로써 대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불국정토를 만들어 갑시다.

“아까운 것 없이 무엇이나 베푸는 마음을 씁시다”

영원한 깨달음 빛을 봉축합니다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



인연이 지혜로운 불자 여러분! 복덕을 갖추기 위해 정진하시는 불자여러분! 원력을 세우고 인생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불자여러분!

오늘은 부처님오신날 인류의 스승이시며 생명의 빛으로 오신 부처님께 귀의하며 봉축합시다. 모든 생명들이 한결 같이 깨달음의 모습으로 발전하고 하나같이 부처님을 닮아가려는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부처님 같이 아까운 것 없이 무엇이나 베푸는 마음을 씁시다. 부처님처럼 깨끗하고 편안한 마음을 보입시다. 부처님처럼 고뇌와 괴로움을 참고 견뎌 내는 마음을 갖춥시다.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은 삶이 평안과 행복이 넘치는 깨달음의 등불을 밝힙시다.

고통 받는 이에게 자비희사를

총지종 통리원장 법등 정사



요즈음 전 세계는 이상 기후와 화산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부처님의 탄신지가 있는 네팔은 대지진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네팔은 81년 만에 수도인 카트만두를 중심으로 약 7,200여명의 사망자와 1만 2천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상태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빈부의 차이와 소통과 화합의 부족으로 많은 갈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갈등의 화합은 가장 좋은 방편이 서로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마음과 물질을 서로 나누어 어려운 이들에게는 용기를 전하고, 내 자신의 복덕을 증장하는 부처님 오신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존귀한 님 오심은 중생구제

국제선불교조계종 종정 목탁 스님



초파일 사라나무 꽃들은 밑동에서 끝까지 한 빛으로 되어 가지와 가지, 꽃과 꽃 사이에 5색 벌과 아름다운 새소리로 어우러지는 룸비니 동산은 흡사 하늘 동산과 같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괴롭게 살아가는 모두의 새로운 탄생, 새로운 삶을 기약하는 거룩한 축복이 왔습니다. 부처님의 탄생으로 출가와 고행은 깊고도 높아 중생이 가름하기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려 고통의 세상에 나투셨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맞아 다시 한 번 참회와 정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자비로 베풀어라

불교조계종 종정대행 혜인 스님



계율청정 금구성언(戒律淸淨 金口聖言)

언제나 계율을 청정하게 지키고 항상 마음으로 부끄러워 할 줄 알아 나쁜 법은 생사의 근본임을 알아라. 음식의 양을 알아 수행할 수 있을 만큼 건강해야 한다. 항상 만족할 줄 알며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한다. 항상 자비로 베풀어라. 항상(生死) 죽음을 염두에 두라. 착한 벗과 함께 하고 신, 구, 의(身, 口, 意) 삼업으로 좋은 생각을 하라. 항상 공부(佛法)하라. 모든 삼업은 항상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 국민은 평화롭고 세계는 화평하다. 남산은 푸르고 산새들 노래하고 하늘은 푸르고 한강은 유유히 흐른다. 밤하늘 은하수별이 빛난다.

선의 씨는 행복을 만드네

대한불교무량종 종정 혜안 스님



세간의 등불 온 인류의 스승 부처님 오신 날 사월 초파일, 부처님 옆에 두고 따르지 않은 이 만날 수 없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르침 따르는 자 항상 옆에 있다네.

천강유수 천강월(千江流水 千江月)

법신청정 광무변(法身淸淨 光無邊)

한 개의 달그림자 강물 따라 다비치 듯이 부처님 자비광명 끝도 없다네. 악(惡)의 씨가 중중해도 수행에 따라 운명이 바뀌는 법, 누세업장 소멸되면 진면목이 부처일세. 영원한것이 어데 있는가 모두가 한때일 뿐 부질없는 탐욕은 어제도 오늘도 지옥을 만들고 한 알의 선의 씨는 행복을 만드네.

마음의 형식을 떠나 수행하자

(사)대한불교승가종 종정 월인 스님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뜻은 모든 생명의 불성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지혜와 자비의 등불을 높이 받들어 마음껏 봉축하고 사랑과 나눔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너와 나라는 분별심을 버리는 것이 그 첫 걸음입니다. 이러한 분별 망상이 사라질 때 우리는 참 불자가 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오직 자기의 불성을 믿고 나아간다면 어떠한 난관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하나임을 알아야 합니다.

항상 상구보리 하화중생하며 자연의 이치와 같이 부처님 마음으로 수행하고 정진합시다.

이웃과 함께 정진합시다

(사)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청봉 스님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들이 번뇌와 무명 속에서 벗어나 일체 중생의 깨달음을 이루도록 하기위해 오신 것입니다. 부처님의 큰 가르침을 받들어 자비와 나눔을 적극 실천하고 인류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이 되도록 모든 불자들이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理)와 사(事) 구분 없고, 정(正)과 사(邪)를 초월하는 자비 행으로써 오로지 이웃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정진해야 하겠습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다시 한 번 봉축하며 법신광명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발원하옵니다.

대승사상과 자비정신 실천을

(사)대승불교본원종 종정 대화 스님



불기 2559년 전 음력 4월 초8일 부처님께서 우리들의 본래면목이 부처임을 깨우쳐 주고자 지혜의 등불 들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모든 생명이 부처로 다시 태어나게 된 거룩한 생신입니다.

다 같이 마음의 등불 밝혀 봉축하고 부처님의 대승사상과 자비정신을 실천하여 이 땅 위에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부처님 세상 극락정토를 실현합시다. 우리 모두의 가슴에 부처님의 자리이타 정신과 자비광명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발원합시다.

어두워진 미혹을 걷어냅시다

(사)한국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선 스님



자등명이라 하는 것은 중생들 각자 자신의 마음속에 탐진치 삼독으로 어두워진 미혹을 걷어내고 자비광명을 밝혀서 진리를 체득하며 인과응보의 이치를 깨달아 고를 여의고 낙을 얻어 밝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광명의 등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부처님오신날, 이 좋은 날에 지나간 일을 원망하고 남에게 탓을 돌리지 말고 스스로 반성하여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 부처님의 대자대비의 지혜로 사회의 아픔을 치유하고 함께 행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자타일시성불도’ 향해 정진하세

(사)대한불교금강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법산 스님



친애하는 불자 여러분! 인류의 큰 스승이시며 사생의 자부이신 부처님께서는 사바세계 중생들의 진정한 삶을 찾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룩하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신 2559주년을 진심으로 경하 드립시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80세의 생애를 오로지 중생들을 위해서 길에서 태어나셔서 길에서 열반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말로써 하는 유명무실한 보살행을 하지 말고, 나를 낮추는 하심(下心)의 도리로써 실천 수행하는 대승보살도가 됩시다.

마음의 지혜에 등불 밝히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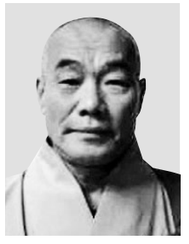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정 지공 스님



오늘은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하늘과 인간의 가장 높고 귀한 스승이시며 모든 중생의 자비로운 어버이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고통의 바다에서 허덕이는 우리네 중생들을 열반의 저 언덕으로 인도하려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더럽고 추한 사바세계에 오신 뜻은 우리 모두에게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위한 것입니다. 혼탁한 현세에 흔들리지 말고 각자 지혜의 등불을 밝힙시다.

나날이 새로운 날입니다

(재)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보현 스님



나날이 새로운 날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십시오. 해야 할 일도 많고 이루어야 할 일도 많고 달려가야 할 곳도 많지만 멈춘 적 없고 돌아본 적 없이 욕망과 욕구의 질주에 동행해 온 자신을 어루만지며 이젠 사랑한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자신은 당신의 무관심에도 묵묵히 당신의 사랑과 눈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햇살 따스한 양지에 자신을 드러내어 한껏 껴안아 보십시오. 외면한 만큼 눈물이 가슴을 밀쳐 오를 것입니다. 동행하십시오.

자주 주인공을 찾고 불러라

대한불교삼론종 종정 혜승 스님



아인산하봉삼독(我人山下逢三毒)
역순도중우팔풍(逆順途中遇八風)
혹고분연난제지(惑苦紛然難制止)
야의빈환주인공(也宜頻喚主人公)

아상과 인상 산 아래에서 삼독을 만나고 역경이나 순경의 도중에 팔풍을 만나서 미혹과 고통이 분분해 제지하기 어려울 테니 또한 마땅히 자주 주인공을 불러야 하리라. 부처님오신날 참된 성품을 찾는 주인공이 되자면 주인공을 자주 불러야 한다. 주인공은 참된 불성(佛性)을 회복하면 그대로 부처가 된다. 따라서 중생에서 부처가 되는 것은 주인공 자리만 잘 살피면 된다.

깨치고 나면 업장도 여래실상

현대불교조계종 종정 벽운 스님



영가 선사께서 말씀하시길 고지식하고 어리석으며 도량 좁고 미련하니 빈주먹 손가락에서 실로 마음 쓰려 하는구나.

손가락 가지고 달이라 하니 공을 베풀어도 부질없고 깨치고 나면 그 질긴 업장도 본리 여래의 실상이요.

깨치지 못하면 빚도 갚아야 하리 불속에서 연꽃을 피워내면 내내 시들지 않나니 대중들이여 불꽃 속에서 연꽃을 피우시라.

마음 속 무명을 씻어냅시다

(사)대한불교해동종 종정 혜봉 스님



을미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차 있는 무명을 씻고 지혜를 얻어 고통의 늪에서 벗어나고 자리이타의 정신으로 시방세계를 밝힙시다.

우주는 불보살님과 사생구류의 유정과 무정물이 서로 주체적으로 교류하고 상즉상입하면서 주반구족의 화엄세계를 연출하는 법계입니다. 이 축복된 우주에서 함께 더불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사회의 모든 분야가 희망적으로 달라져야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대립과 갈등을 치유하고 미래 지향적인 자세로 성숙한 화합의 모습을 갖춰가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나무석가모니불

공존공생의 삶을 열어가기를

한국대승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취운 스님



봉축을 맞아 부처님의 삶과 말씀을 오늘에 되새겨 자신을 반성하고 이 중생사회를 밝혀가는 주인공이 되어야겠습니다. 탐진치에 물들어 거짓에 가득차고 미혹한 자신을 참회로 놓아버리고 참된 자기를 바로 봅시다. 내 안의 본래 청정을 되찾아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 내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사느냐가 소중한 것임을 알아야겠습니다. 모든 생명체와 산하대지가 공존공생하도록 바로 행하도록 합시다.

분별심 떨치고 평화와 공존을

한국불교원융교단 개산대법주 마정 스님



해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거룩한 법음(法音)을 전하지만 작금의 세계는 도처에서 살생의 포화가 멈추지 않고 독재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국민들은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끝나버린 동서양의 이데올르기 경쟁은 다시금 미일 중러로 대표되는 신냉전시대로 긴장을 고조시켜 가고 있으니 이 얼마나 위태로운 일입니까? 항상 부처님을 염원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부처님 법음(法音)에 귀 기울인다면 세계일화(世界一花)를 이루고 안심입명(安心立命)에 이르는 거룩한 불국토가 성취되는 날을 맞이할 것입니다.

무소의 뿔처럼 진리의 길 갈뿐

(사)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운남 스님



변화하는 마음 즉 망심으로 인하여 탐진 치 삼독이 쌓입니다. 삼독을 해체하기 전까지는 절대 삼계를 벗어 날 수 없다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실천보다는 입으로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실천이 없는 지혜는 진리가 아닙니다. 즉 행이 따라야 하는 것이죠. 진정한 나를 찾기 위해서는 무소의 뿔처럼 묵묵히 진리의 길을 갈 뿐입니다. 을미년 부처님 오신 날 올곧이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불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봉사와 평등, 나눔을 실천하세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이사장 총무원장 경원 스님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 뜻은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입니다. 눈만 뜨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살육에 대한 참혹한 소식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법은 자리이타 동체대비로 서로를 위하고 나누고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고 서로를 탓하며 미움과 원망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들의 존재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범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갈등과 반목을 타파하고 오늘 부터는 사랑과 봉사와 평등과 나눔을 실천합시다.

물질만능주의 극복합시다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우석 스님



오늘은 자비하신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559년이 되는 날입니다. 모두 다함께 부처님의 탄신을 경배하며 경축합시다. 이 세상에 오신 부처님은 어리석고 무지한 중생들을 고뇌에서 해탈의 길을 갈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질만능주의에 파묻혀 참된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다가가지 못하고, 인간 본연에 의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탐욕과 아집에 빠져 옳고 그름도 모르는 채 부귀영화에만 목을 매는 아둔한 중생입니다. 오늘 만은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한번쯤 되새겨 참 나를 찾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탐욕과 번뇌 녹이고 자비 가득한 세상 만들자"

자비심으로 불도 인도해야

대한불교불입종 종정 면철 스님



일운소우(一雲所雨)에 칭기종성(稱基種性)하여 이득생장(而得生長)하니 화과부실(華果敷實)하느니라 〈법화경 약초유품〉 중

한 구름에서 내리는 비를 맞으나 그 종자는 성품에 맞게 생장하여 꽃과 열매를 맺느니라. 초목은 아름다운 꽃을 피워, 보는 이의 마음에 아름다움과 기쁨을 알게 하며, 과실을 열어 배고픈 이를 구제해 줍니다. 부처님이 사바에 오신 일은 어리석음으로 욕망과 괴로움에 길 잃은 중생들에게 꽃이 되시려고 오셨습니다. 모든 불자들은 본인의 자리에서 본인의 일과 본인의 수행을 하고 나아가 구석진 곳에 눈을 돌려 중생구제의 손을 내밀어 자비심으로 불도에 인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꽃비 날리는 룸비니 동산에서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현불 스님



꽃비 날리는
룸비니 동산은

우리 중생들의
깨달음의 고향

여기 이곳에
바람으로 태어났다

세상의 아름다운 벗이 되어
삶의 정물 그리고 싶다

향락으로 보내기엔 아까운 시절

대한불교승가회 총재 무공 스님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하며, 우리도 부처님같이 마음을 밝혀야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부처님의 마음이 둘이 아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수행하여 부처님 같이 성불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몸 받기 어렵고, 부처님 법 만나기는 더욱 어렵다고 합니다.

이처럼 소중한 인연으로 이어진 지금 향락의 세월을 보내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겠습니까? 탐욕과 번뇌를 녹여버리고 자비가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나갑시다. 우리 주위에서 고통 받는 모든 어려운 이웃들에게 부처님오신날 위로와 자비를 베풉시다. 불자님의 가정에 붙은이 충만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혜와 선정을 닦아 갑시다

대한불교조동종 종정 지명 스님



아함경에서 부처님 말씀!

선정(禪定)이 없으면, 지혜(知慧)로울 수 없고, 지혜가 없으면, 선정을 닦을 수 없다. 도(道)는 선정과 지혜로부터 얻어지나니 거기에서 비로소 열반(涅槃)에 이르게 되느니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세존의 가르침에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이 본래 부처임을 깨달아, 세상을 밝히는 등불을 켜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산, 아집, 명예, 학벌, 외모〉가 아닌 바로 그 사람의 인격 자체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다툼과 경쟁이 사라지고,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 극락정토가 되는 것입니다. 시대를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가 보이는 살기 좋은 세월이 열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조각 밝은 빛 드러내리

(사)한국불교종단연합회 총재 각성 스님



모든 산이 한 빛이요.
물 또한 전체가 법신이로다.

본래 말과 글로 부촉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강제로 마음 법을 전하는 체 하는 것은 네가 이미 법을 받아 가져갔으니 마음 법을 다시 어찌 말하랴 별빛 하나있어 어둠을 밝힌 밤 모든 산이 한 빛이요 물 또한 그러하네.

한 조각 밝은 빛 온 몸을 드러내리.
섣달 밤 핀 매화는 눈 쌓인 뒤의 가지로다.

가르침을 실천하라

세계승가회 회장 수완나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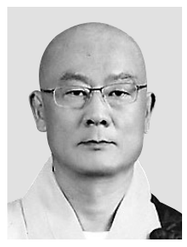
진리는 불생불멸이요, 부증불감이라. 자성 그대로가 진여요, 빛나는 그 마음이 부처인데 어느 곳에서 부처를 찾고 있습니까.

부처가 화신(化身)을 이룬 이치도 중생을 구하고자함이거늘 중생들이 오늘날 해탈에 이르지 못함은 고귀한 가르침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을미년 불탄(佛誕)을 맞이하여 오로지 붓다의 가르침에 눈을 뜨고 귀를 기울여, 일체의 불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소중한 법연으로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동체대비로 서로를 아끼세

(사)대한불교원융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



이 사바세계는 혼탁하고 어둡고 두렵습니다. 이 어둠을 걷어내고 밝은 광명으로 부처님께서 오셨습니다. 탐진치의 무명 속에서 고통 받고 신음하는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그 고통 받는 중생들을 구하시고자 이 땅에 나투신 것입니다. 너무나 기쁜 날입니다. 일찍이 부처님께서는 우리 중생이 행복하게 사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자리이타 동체대비로 서로를 위해 나누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오신 참뜻을 다시 한 번 헤아려 참 불자로 거듭 납시다.

자비심 일념으로 화합을

(사)대한불교대원종 종정 신풍 스님



사기자막독(已起者莫讀)하고
미기자방기 (未起者放起)하라

이미 일어난 생각은 더 이상 지속하지 말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생각은 일으키지 말라. 사바에 오신 부처님의 큰 뜻을 바로 진리 진실 화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빈자일등' 이라 하여 물질에 구애됨이 없고 오로지 부처님을 향한 자비심의 일념으로 등을 달고 심중소고소원을 비는 것이 우리 불자의 한결같은 마음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한마음을 내어 불국토 건설에 매진토록 합시다.

따뜻한 손길은 곧 수행입니다

(사)임제불교조계종 종정 지암 스님



무명(無明)과 끝없는 욕망 속에 갇혀 있는 불성(佛性)을 일깨워 중생을 다시 부처로 태어나게 하였고, 고통 속에서 큰 깨우침을 일으켜 모든 생명을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한 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세상의 모습은 나와 이웃과 자연은 모두가 부처의 성품을 갖고 있으며, 결코 둘이 아닌 하나의 몸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 힘든 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보내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찾아가는 수행입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자

(사)대한불교금강조계종 종정 법호 스님



부처님오신날을 찬탄합니다. 삼계가 두루 열리고 작약과 수련이 활짝 핀 앞뜰에 벌과 나비가 춤추고 저 건너 산에서는 꾀꼬리 소리 요란한데 어찌 몽환 속에 피는 공화를 혼자서 잡으려 애를 씁니까. 만물은 원래부터 한 뿌리입니다. 사바의 참모습은 수억만 년 동안 비춰주는 해와 같고 티없이 맑은 창공과 같아 청정한 것인데 분별심을 일으키는 마음에서 하나가 열이되고 열이 백이되고 그로써 욕심과 고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두가 분별심을 버리고 더불어 하나가 됩시다.

상락아정 무위도를 이룬다네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종정 능인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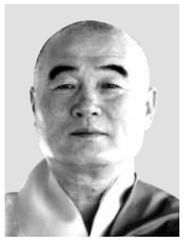


을미년 사월초파일 산천초목이
푸르니 등불이 밝아지는 도다.
번뇌가 가득한 어리석은 중생을
사바세계 염불소리로 세척하니
삼계대도사 부처님이 출현하사
상락아정 무위도를 이룬다네.

삼세제불 역대조사 명훈 받들어 내외 청정하여 계율성곽 높이 쌓아 불생불멸 이 불국토에 함께 하여 오욕팔풍 역순경계 사라지는 도다.

연못 연잎의 빗방울처럼

(사)한국불교종단연합회 회장 무산 스님



가을 물길 높은 하늘에 아득히 짙푸르고
흰 갈대꽃에 밝은 달이 오가니 산천수목
모아가 비로자나요, 사바세계가 변하여
화장세계로다.

횡성 갑철에 아카시아 꽃비 내리고 오월의 새소리는 부처님의 참 법문이로다. 양안에 버들 꽃은 바람에 눈같이 날리고 연못의 연잎에 빗방울이 구슬 되었네. 밝은 달은 이즈러진 일이 없는데, 중생의 차별성이 초승달은 이즈러져 보이고 보름달은 둥글게 보인다네.

자성을 깨우치고 성불의 길로

(사)대한불교염불종 종정 성인 스님



부처님오신 날을 맞아 자리이타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번뇌와 무명 속에서 헤매는 일체 중생의 깨달음을 위해 부처님께서 이 땅에 나투신 참으로 거룩한 날입니다. 우리도 부처님의 혜명을 받들어 자비와 나눔을 앞장서 실천합시다. 빈부 격차는 날로 심해지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 한치 앞도 모르며 성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픔을 치유하고 밝은 내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처님 법을 높이 받들고 실천하는 방법만이 유일한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온갖 부처님 만나게 해

대한불교화엄종 총무원장 화응 스님



부처님은 화사한 광명으로 우리 곁에 항상 계시었습니다. 화엄경에 이르길 '믿음의 마음은 때(구)가 없어 마음을 깨끗하고 교만을 멸제하고 공경의 근본이다' 고 하고 '믿음은 썩지 않는 공덕의 종자요 깨달음을 이끌어 주며 수승한 지혜를 쌓게 하고 온갖 부처님을 만나게 한다' 고 했습니다. 서로 믿고 이해하는 마음이 열릴 때 세상은 화기애애한 꽃을 피울 것입니다. '믿음의 세상' 을 펼치는 굳은 신심으로 무장해, 불신의 벽을 허물고 반목의 시각을 깨뜨려 화합상생의 길을 열어 갑시다.

바람 또한 그 이상 없어야 하느니

(사)한국불교연화조계종 종정 연화 스님



우리는 모두 업보중생. 한 생각이 미하면 업보따라 윤회하고 한 생각이 청정하면 걸림 없는 바람이어라. 바람 또한 그 이상이 없어야 하느니라. 부처님오신날은 모든 이들이 행복과 희망이 가득하기를 다시 한 번 부처님 전에 간절히 발원해 봅니다. 정진하고 정진합시다. 이러한 고통과 혼란을 치유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배우고 실천하면 됩니다. 나와 우리 가족, 우리 사회가 바로 되기 위한 발원과 함께 자비와 지혜의 등불을 밝히면 이 암흑세상은 밝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 이타행 본받아야

해동불교임제조계종 총무원장 동진 스님



부처님 자비광명이 온 세상에 두루 하기를 발원합니다. 오직 중생의 행복을 위해 고행 하신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실 때까지 이타행을 실천하시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갈수록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행보다는 말(言)이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구업만 잔뜩 쌓아놓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이타의 실천 행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돌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서로의 갈등과 대립이 사라지는 극락정토를 만들어 나갑시다.

우주 천지가 내 마음일세

(사)대한불교삼보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법장 스님



여래의 거룩한 말씀, 여래장 진리의 법향기, 여래의 광명을 밝히는 봉축의 기쁨을 나누며 여래의 사자후 화합대중이 됩시다.

이 땅에 불국토 원력으로 만국의 아픈 한 치유되어 대한민국 빛나게 하소서.

하늘땅이 한 몸이요 내 마음이 주인이니 좋은 말하는 사람 하늘 문이 열리고 나쁜 말하는 사람 지옥문이 열리니 허공중에 허튼소리 독이 되어 찰나순간 지옥세상 만드나니 오는 부처 마다 말고 환영하며 가는 부처 자유롭게 놓아주세! 나무아미타불

편견과 아집 없는 곳에 불성 발현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회장 송산 스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부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을 실천하지 않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그저 이 세상에 왔다가 다시 윤회에 떨어지게 됩니다. 불법(佛法)을 예경하는 온전한 정신을 가지지 않는 다면 온전한 대도에 접근조차 할 수 없습니다. 편견과 아집이 없는 곳에 불성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을미년 부처님오신날 내 안의 부처를 찾기 위해 정진 합시다. 사월초파일 부처님 오심을 다시금 봉축하며, 이 땅의 평화로움을 위해 두 손 모아 합장합니다.

스스로 허물 돌아보는 기회

(사)대선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승 스님



인도 룸비니 동산에서는 오늘도 변함없이 봄소식을 보내옵니다. 먼저 사월초파일 부처님 오심을 봉축 드리며, 세상의 모든 중생들이 성불하기를 한 마음으로 기원 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생을 끝없는 구도로 사바세계의 중생들에게 진정한 삶의 길을 제시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나 자신에서 비롯되었으니 남을 탓하기보다는 스스로의 허물을 돌아보아야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즉 부처님께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자비와 지혜를 베풀고 나누어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도록 합시다.

만상이 일심이라

(사)국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성철 스님



일심(一心) 만상(萬像)이요, 만상이 일심이라.

이것이 우주와 더불어 쌓이고 덮혔으며 일월(日月)과 더불어 빛을 발하여 진대지(盡大地)가 진소식(眞消息)을 하리라. 한 생각 당처에 한없는 보배가 바람따라 백운 가운데 꽃피더라. 결제에 결제가 없고 해제에 해제가 없는 것이 진정한 제제라고 했는데 금일 대중은 어떠한가?

물심현상이 무상함이니 이는 생멸하는 법이로다. 우리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생멸을 마치어 적멸로 즐거움을 하리라.

“부처님이 우리 곁에 오신 것은 인류의 큰 기쁨”

건학 109주년 맞아 미래 위해 힘찬 발검음 내딛자

동국대 이사장 일면 스님



친애하는 동국가족과 불자 여러분! 눈이 부시도록 푸른 오늘, 불기 2559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수행하고 깨달음을 얻어 설법으로 중생을 제도하신 분이셨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동떨어진 교리로 중생을 교화하시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진리에 이르는 길을 가리켜 주는 분이지 우리들을 진리에 데려다주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진리를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개인의 권리를 강조만 할 뿐 정작 이런 투철한 자기성찰과 반성에는 소홀하여 많은 갈등과 번뇌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국인 여러분! 올해로 건학 109주년을 맞은 우리 동국대학교는 이제 새로운 100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에 섰습니다.

물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다보니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도 잠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모두 마음의 티끌을 털어내고 미래를 향하여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야 하겠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지혜의 등불이 온 누리를 환하게 비추는 오늘, 건학 109주년을 맞은 우리 동국대학교와 동국인 가족, 그리고 불자님의 마음속에 부처님의 자비로운 말씀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비인재 배출하는 명문사학으로 발전시킬 것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



성스러운 사월 초파일을 맞이하여 우리 동악에는 백화가 다투어 피며, 남산자락은 생기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처님은 불교라는 한 종교의 창시자이기에 앞서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몸소 체험하고 그 자각을 선언한 최초의 인간이었습니다. 생명과 존재의 실상을 깨닫고 지혜와 자비의 길을 열어 보인 구도자였습니다.

돌이켜보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던 기간은 팔십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끼친 영향은 세월이 지날수록 빛을 더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일찍이 이 지상에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살았다는 사실은 우리 인류와 중생에게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과 수행을 통하여 불성을 밝힐 수 있으며, 모두가 깨달은 자가 될 수 있다는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이 땅에서 실천하기 위해 1906년에 설립된 우리 동국대학교가 올해로 건학 109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국대학교는 종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 25만여 명에 이르는 우수한 인재들을 배출하는 명문사학으로 이 나라와 사회를 선도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동국대학교를 새로운 대학과 대학다운 대학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더 이상 오랜 역사와 전통에 안주하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참사람 열린교육으로 지혜롭고 자비로운 인재를 양성하고 교수들과 교직원 학생, 동문과 재단, 불교계는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단결하고 동국의 중흥을 위해 한 걸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동안 동국발전을 위해 동참해주신 모든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 오신날은 화합하는 날

(재)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



만나는 사람마다 부처님이 되고 마주치는 풍광마다 경전이 되는 날입니다. 퇴근하는 아버지의 가슴에도, 살림하는 어머니의 가슴에도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들딸의 가슴에도 서광(瑞光)이 장엄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갑과 을이 없는 종단, 갑과 을이 없는 사회 부처님 오신날은 모두 갑이 되는 날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염원하는 등불을 밝히니 휴전선 너머 길이 열리고, 현해탄 건너 바닷길도 열리는 날입니다. 빈자일등(貧者一燈), 천년만년 꺼지지 않는 비원의 등불을 밝히니 모두가 부처님 되어서 섬김을 받읍시다.

세세생생 부처님 말씀 의지하길

(사)대한불교법상종 총무원장 해월 스님



세세생생 변함이 없는 부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부질없는 말에 귀를 열어 현혹되지 말고 언제나 성실하게 부처님 법을 전하며 자기를 낮추고 정진의 자세로 살아갑시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음을 일찍이 부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오직 자신의 불성을 믿고 굳건한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처음부터 열매를 맺는 나무는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해 간다면 시방세계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와 자비로 등불을 밝히면서

(사)대한불교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스님



불멸등혜장명등(不滅燈兮長明燈)
인인개개인인등(人人皆皆人人燈)
장명등혜불멸등(長明燈兮不滅燈)
세세년년세세등(世世年年世世登)

지혜와 자비로 무명의 어두움을 밝혀 주시는 부처님, 우리가 마음속에 등불을 밝히고 지난 세월의 잘못을 참회하고,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를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내려 주소서.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진정한 참 나를 찾읍시다

(사)대한불교율사조계종 종정대행 총무원장 청파 스님



석가모니부처님께서는 생명이 약동하는 봄날 오셨습니다. 뭇 중생들을 위한 대자대비하신 원력과 무량한 복덕으로 무명에 가려져 삼독에 물들어 있는 우리 중생들을 제도하셨습니다. 자비의 등불, 지혜의 등불을 밝힙시다. 무명이라는 어둡고 어두운 곳을 밝혀 진정한 참 나를 찾읍시다. 아집과 편견과 이기심을 버리고 참 나를 찾아 남과 이웃을 위하고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불은이 충만하기를 먼저 기원 드립니다.

거룩한 날, 행복한 날 되자

대한불교법성종 종정 덕암 스님



부처께서 무명의 어둠을 밝히려 오셨습니다. 넘치는 욕망으로 번뇌가 쌓이고 쌓이면 불성은 사라지고 사악이 번성하여 갈등과 대립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고통은 불화와 대립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고통은 불화와 대립으로 이어져 넘치는 번뇌로 나와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부처님 오신날 오늘 하루 만이라도 부처님을 닮아가며 스스로 부처임을 알아야 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세상의 주인입니다. 내 가족을 넘어 이웃과 세계의 안녕을 위해 기도합시다. 나무 석가모니불.

여래장 종자 연등 밝히세

(사)호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유심 스님



불자님들은 여래장 종자 연등을 밝히는 것을 스승으로 삼아 우리 몸은 실체가 없다는 것과 색과 공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불성은 오고감이 없는 불생불멸이며, 한번 태어난 육신은 지, 수, 화, 풍 사대로 제자리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 전생, 금생, 후생에 영혼은 여여한 세계에서 금강석 같은 본래자리를 밝힐 것입니다.

자유인으로 생사고해 벗어나자

대한불교선종 총무원장 정관 스님



이 땅에 부처님이 오신지 2559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사바에 부처님이 오신 뜻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오로지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정진할 것을 다시금 다지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8정도의 실천과 6바라밀행으로 부처님의 사상과 이념을 수행해왔습니다. 또한 부처님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의 목적은 이고득락에 있습니다. 즉 영원한 자유를 얻기 위함입니다. 이제 탐 진 치의 삼독을 내려놓고 자유인이 되어 생사고해에서 벗어납시다. 이 땅의 모든 고귀한 생명들이 고해에서 벗어나기를 부처님께 기원 드립니다.

봉축 의미 다시 새기는 기회로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장 혜봉 스님



불기 2559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합니다. 사람이 만족할 줄 모른다면 오직 더 많은 것을 구해서 죄악만 키우는 결과가 됩니다. 보살은 오직 지혜 닦는 일에만 정진해야 할 것을 압니다. 거룩한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밝은 눈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중생은 부처가 아니므로 허물도 많고 실수도 있는 법입니다. 이것을 알고 깨달아 고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오신 뜻을 다시금 새겨 나 자신을 먼저 돌아봅시다.

대립 떠나 정진하는 불자 되길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지민 스님



이천만 불자 여러분! 산과 들에 푸른 생명이 약동하는 5월, 인류의 위대성을 최초로 설파하신 아기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신지 2천6백여 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맞는 불자들의 가장 큰 축제날인 사월초파일은, 고통 가득한 사바 중생을 위해 부처님께서 일대사인 연으로 오신 의미 깊은 날입니다. 인류의 참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고통바다에서 갈 곳 몰라 하는 중생을 위한 길을 걸으시며 중생 모두를 부처님 되는 길을 일러주신 참다운 스승이셨습니다.

수 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행복의 등불을 밝힙시다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 회장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을 위한 사부대중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달 재앙에 가까운 지진으로 7천여명의 국민을 잃은 부처님의 나라 네팔의 조속한 재건을 위해 전 국의 불자여러분 모두 한마음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해마다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이야기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지고 개인주의로 인한 폐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며, 현대 사회는 도덕성이 요구되는 많은 분야에서 불교의 참여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불자들은 굳건한 의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로 책무 다하는 계기로

김상인 공무원불자연합회 회장



나와 남이 다르지 않고, 둘이 아님을 잘 인식하고 있는 우리 부처님 제자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하루하루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우리 공무원불자들이 앞장서서 마음의 미혹을 떨치고 자신의 마음자리를 살펴보면서 맡은바 직분에 충실 한다면, 이 나라 모든 국민이 보다 편안해지고, 우리나라는 더 밝은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며, 우리 모두 마음의 등불을 환하게 밝혀, 온 세상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붓다처럼, 처음처럼

심익섭 교수불자연합회 회장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투신 이유는 모든 중생들에게 깨달음을 열어 보여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인간 모두에게 일체 중생이 곧 불성이라는 축복을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이미 부처님께서는 세태의 변화를 예언하시고 깊은 연민의 정으로 중생을 이끌어주셨습니다. 부처님이 이 땅에 화신으로 출현하신 의미를 되새기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다시한번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처님은 오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곁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붓다처럼 살아가시고, 처음처럼 깨어나십시요!

자비실천에 불자들 힘 모으자

백효흠 대불련 총동문회장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대불련 총동문회에서는 2017년 창립 50주년을 준비하며 금년에는 〈3.3.3〉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불련과 대불련 총동문회, 사단법인 대불이 하나가 되어 3000명의 대불련 동문을 더 발굴하고 전국 300개 대학에서 젊은 불자들의 함성이 매아리 치도록 지회를 더 건설하여 젊은 대학생 불자들의 터전을 잘 가꾸어 보자는 것입니다. 기도와 정진을 통해 튼튼한 대불련의 기반이 될 것을 발원합니다.

기도와 자비로 성불할 수 있는 좋은 인연을 놓치시지 않기를 간절히 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등불처럼 불심 피어나길

박순 불교여성개발원장



5월은 부처님오신날. 오! 부처님. 상서로운 빛, 환희의 미소로 불교여성개발원 저희 곁에 축복으로 오신 님! 님께 사계의 공양미를 두 손 모아 바칩니다. 일심으로 예경하고 우러러 합장합니다.

이 작은 공간 자비실, 지혜실, 교육관에서 이루어지는 귀한 인연 뒤로 미루지 않고 받고 싶은 그 누구든 너와 내가 당신이 되거라 하소서! 내가 되거라 하소서!

이 세상 머무는 그날까지 큰 기쁨으로 안고 따뜻함을 나누는 5월의 오늘처럼 찬란한 열정이 거리마다 피오르는 등불이 되게 하소서! 온 천지에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초파일, 불자님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지혜와 복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미혹을 걷어내는 봉축으로

윤기순 종교세계신문 발행인



부처님이 오신다. 빛으로 오시고 원음(圓音)으로 오시고 법신(法身)으로 오신다. 부처님은 육체의 질곡과 마음의 미혹을 깨우쳐 주시고 오직 인간이 본래부터 자유인이요, 완전자임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이다. 우리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대아의 마음의 문을 열자 ‘나’라는 허구를 자각함으로써 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오늘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봉축하는 의미로 바로 이러한 인류최대의 자유자재인을 기리는 데에 그 뜻이 담겨있다. 부처님 오심의 봉축행사가 불교인만의 행사가 아니라 민족의 대축제가 되도록 고양시켜 부처님이 인간해방을 선언했듯이 민족의 축제로 승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쟁에도 타인 돌아보는 마음을

이채은 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



부처님의 혜명慧命을 이어받은 저희 대학생 청년 불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진정한 불자로서 살아가기를 서원합니다. 더불어 광복 70년, 분단 70주기를 맞는 올 해, 불국정토 건설과 함께 민족 통일의 큰 뜻을 두고 있는 저희 KBUF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이 땅에 참된 생명가치와 평화의 기운이 돌기를 기원합니다. 항상 대학생 불자들을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하기를 기원하며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늘 깨어있는 대학생 불자로서 포교와 인재 양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네팔 지진 참사의 피해자들에게 위로와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佛紀 2559年 乙未年 | 전면광고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 | A11

스스로 깨끗한 이가 되고 서로 이해하고 맑고 깨끗한 사람들과 함께 살도록 하라.
그곳에서 사이좋게 지혜롭게 그리고 고통과 번뇌를 없애도록 하라. 〈숫타니파타〉



(사) 대한불교 무량종

종 정 정혜안 사서실장 김보인
원로원장 양지은

총무원장 보운 교육원장 보산 감찰원장 정담 포교원장 지관
중앙종회의장 법우 부 의 장 보월. 보일 사무총장 보성
고시위원장 현장 종책자문위원장 종성 선관위원장 보아

총무부장 보상 재무부장 보혜 교무부장 정은 사회부장 자운 호법부장 정목
총무국장 보정 재무국장 정혜 교무국장 보선 사회국장 보림 포교국장 정심

■ 총 림 : 부산시 사하구 괴정 2동 314-7 은암천불정사 / 전화 051)292-4586
■ 총본산 : 경남 하동군 적량면 삼화실로 748-8 칠보정사 / 전화 055)883-7771.7790

大韓佛教 佛入宗

宗 正 勉哲
元老院長 正 觀
總務院長 鏡 岩

교육원장 지학 종회의장 법진 종회부의장 상운

총무부장 보성 역경부장 혜광 재무부장 묘훈 사회부장 봉산
감찰부장 송광 호법부장 무각 포교부장 서희

법화불교 교육대학 학장 혜광 법화사상연구소 소장 혜광
영남범음범패 교육대학 학장 대원

■ 총본산 : 충북 제천시 봉양읍 옥전길 125 송화사 / 전화 043)653-4800 / 팩스 043)653-5858
■ 총무원 :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 30 안길4 / 전화 043)653-4848 / 팩스 043)642-6660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종 정 석진 지공
원로의장 학산 혜천
재단이사장 총무원장 경원

원 로 : 무찰. 봉암. 혜운. 원각. 동봉. 덕봉. 혜성. 원각. 해월. 대륜

재단이사회
재단부이사장 일명
재단상임이사 혜광
이 사 혜운 경담 법도화 자비행
감 사 혜천

종회의장 법선
종회부의장 고봉
종회의원 도혜 도정 석경 지연 일명 청호 무착 혜등 혜일 보은 일운 우담 도우

호계원장 법성
교육원장 법해
포교원장 현암
감사원장 석성
선거관리위원장 보성
총무부원장 용운
총무부장 승원
교무부장 경담
재무부장 일명
홍보부장 해동
총무국장 원공
재무국장 덕운

교구종무원장
강원동부 보해
경기남부 대각
경기북부 도허
경북교구 법경
경남교구 승원
대구교구 고봉
대전교구 경담
부산교구 령산
울산교구 도현
전북교구 지명
제주교구 제법
충남교구 호원

■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세검정로 6길 76-9,일붕선원 1층 / 전화 02)991-8175,8904
전송 02)991-8176 www.ilbung.org

(사) 대한불교염불종

종 정 월담성인

종회의장 혜안 성묵
원로의장 무초 정락
총무원장 만공 호조

미국종무원장 용월 도황 경기종무원장 호암 대인 경북종무원장 성묵
기획원장 설담 보현 포교원장 수미 길상 문화원장 정견
사서실장 조능 교육원장 조해 호법원장 조구

총무부장 조반 호법부장 조관 기획부장 조초

종도일동

■ 총무원 : 충북 제천시 수산면 봉화재길 5 화엄사
전화 043)652-0331 팩스 043)653-0332

사단법인 대한불교해동종

종 정 혜봉
원로원장 범준
위 원 고산. 경호. 대명. 보현

총무원장 송산 총무부원장 도현. 보성
총무부장 덕광 교무부장 무연 재무부장 도은 사회부장 현무

중앙종회의장 보장 부 의 장 수운. 호경
중앙종회의원 서봉. 삼자. 혜언. 원철. 혜광. 수진. 법우. 지선. 혜가. 혜공. 연각. 지인. 보련. 이타

중앙사정원원장 정화 부 원 장 지성 사정부장 백파
중앙포교원원장 혜일 부 원 장 보단 포교부장 법공
중앙교육원장 공덕 교육부장 무진 중앙선원장 현법
중앙복지봉사원장 무량 부 원 장 무봉 복지봉사부장 지연

서울교구종무원장 서봉 부산교구종무원장 삼자 경기인천교구종무원장 혜언
경남동교구종무원장 원철 경남서교구종무원장 혜광 경북대구교구종무원장 수진
전북교구종무원장 법우 전남교구종무원장 혜공

중앙법사단장 무진 법사단부단장 혜등 법사단총무 혜련
비구니회회장 법인 (사)해동자비원장 덕광 국제교화원장 공덕
용인소년의집원장 무봉 (사)해동자비원부산지사장 장양숙

종도일동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1로 211-5 / 전화 031)262-1577 / 팩스 031)263-1353

사단법인 대승불교본원종

종 정 大和 梵海 사서 경산
부종정 범용 총무원장 만혁 사서 해인

원로의장 대원
원로의원 대월. 관곤 대봉. 보명

교육원장 무공 감찰원장 대능
연수원장 대광 포교원장 청운
염불원장 광수 복지원장 보경

총무부장 법성 교무부장 자관
재무부장 성문 사회부장 정오
감찰부장 도일 포교부장 용담
복지부장 지연 조직부장 원광

경북교구종무원장 청산 대전교구종무원장 지천
강원교구종무원장 진묘 충북교구종무원장 대월
경기부천종무원장 성인

종회의장 대운 종회부의장 청산. 지명
종회의원 원각. 승준. 부용. 지선. 관공. 혜은. 혜경. 지명. 혜원. 진묘. 수혜. 자관. 정대 성문. 용담. 현문. 심공. 시원. 성인. 광덕. 해인. 진광명. 청련행. 법륜해. 한명화 광명화. 대각화. 대광
전국신도회장 신장호

종도일동

■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417-3 / 전화 02)391-4376 / 팩스 02)379-2746

재가불자들이 말하는
간화선 무차대회

수행하는 불자로서 기대됩니다



임주현(50) 씨

광주에서 아침 8시에 출발해 대회에 참여했다. 처음 열리는 행사이다 보니 인터넷으로 기사를 조회하며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다. 간화선에 관심이 많고 늘 수행하는 불자로서 이번 대회는 흥분되지 않을 수 없다.

31만 대중 운집 감동 그 자체



진인자(69) 씨

서울 능인선원 신도로 언론에 소개된 간화선 무차대회 예고기사를 관심있게 지켜보다가 이렇게 참여하게 됐다. 광화문 광장에 31만 사부대중이 함께했다는 것은 감동 그 자체다. 가슴이 벅차오른다. 매일 108배 참회기도를 20년 동안 했는데 참선은 아직 어려운 거 같다. 그저 수행하는 스님들을 옆에서 뵙는 것만으로도 기쁘다.

여기가 바로 불국토인 듯



박지혜(59) 포교사

조계종 포교사(속초 신흥사 신도)로 포교사단 진행 봉사자로 참여했다. 너무 장엄하고 웅장한 행사로 1700년 한국 불교 역사를 한눈으로 보여주는 듯하다. 스님들의 수행 방편, 간화선을 보여주는 행사에 불자 비불자 모두 함께할 수 있어 기쁘다. 여기가 바로 불국토인듯하다.

한국 불교, 관심 갖게 됐어요

아쑤미나(벨기에, 여)

"우연히 주말 나들이를 왔다가 진귀한 풍경을 보게 됐다. 이 행사 덕분에 한국 불교에 흥미를 갖게 되어서 무척 감사하고 흥분된다. 특히 스크린에 영어 자막을 제공해주는 것은 사소할지 모르나 이 축제가 세계인들을 위한 자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자막이 끊김 없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스님 법문을 이해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아만(벨기에,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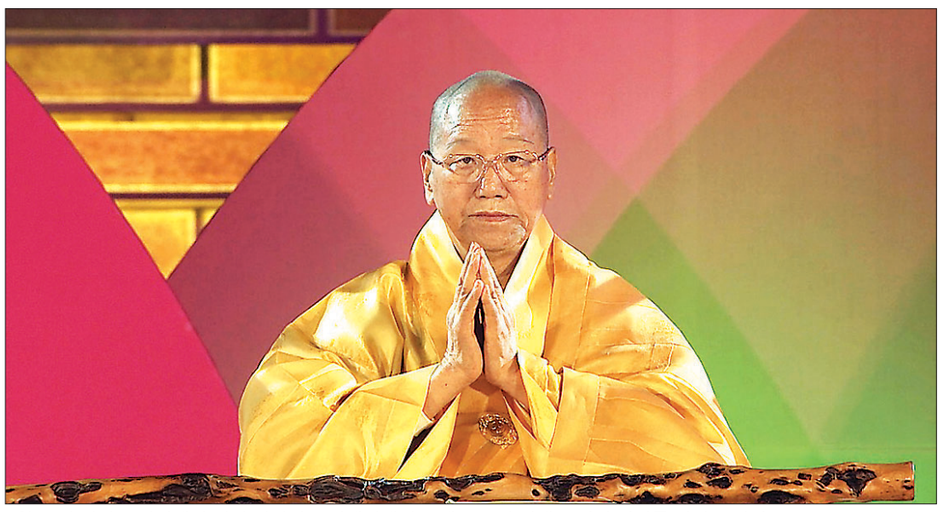
"이런 행사에 처음 참석하게 됐는데 불교가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다니 매우 놀랍고 함께 하게 되어 행운이다"

정혜숙, 박아름 기자

참나 깨닫는 수행은 마르지 않는 '福樂'

조계종 종정 진 제 스님 간화선 무차대회 법어

5월 15~17일 '광복70주년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가 성대하게 진행됐다. 이번 대회의 하이라이트는 16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간화선 무차대회'였다. 이날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대중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갖게 하는 '간화선' 수행에 대해 설했다. 스님의 법문을 요약·정리했다. 〈편집자 주〉



5월 16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간화선 무차대회에서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법어를 설하고 있다. 사진=BTN불교TV 생중계 캡쳐

古佛未生是誰主〈고불미생시수주〉오
寥寥寂寂體平安〈요요적적체평안〉이라.
大千世界共一家〈대천세계공일가〉요,
情與無情同一體〈정여무정동일체〉로다.

옛 부처가 나기 전에 누가 우주의 주인공인고?
고요하고 고요해서 그 체성은 평안한지라.
온 세계가 한 집이요
정이 있고 정이 없는 모든 만물이 한 몸이로다.

대중여러분께서는, 방금 산승이 말한 그 주인공을 아시겠습니까?

이 주인공은 天地萬物의 근본이요, 일체중생의 마음자리입니다.

이 근본자리는 텅 비어 고요함이나 분명하고 분명한 자리입니다.

온갖 망령된 생각들을 즉각 내려놓는다면, 바로 그 자리가 본래의 마음자리며 본래의 참모습인 것입니다. 미혹하면 중생이요, 항상 밝아 있으면 부처이기에, 범부와 성인이 근본자리에서는 둘이 아님이요, 그대로 광명(光明)이요, 생명이요, 평화요, 대자유입니다.

그렇기에 누구든지 마음을 깨달아 참나를 찾으면 영원한 행복과 대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곧 부처요, 사람이 곧 부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곧 부처임을 깨달아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삶을 사는 일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서원입니다.

옛 성인이 말씀하시기를 "가는 곳 마다 주인이 되면, 서 있는 그 자리가 모두 진리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모든 번뇌망상을 놓아버리고 참나를 깨달아 세상의 주인이 되면 언제 어디서나 걸림 없는 대자재의 삶을 살게 됩니다. 번뇌에 미혹할 때는 고해의 사바세계가 있으나 참나를 깨달으면, 시방이 공(空)하여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바로 해탈열반의 삶을 실현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원력으로 중생을 위해 겨자씨만한 땅에도 피를 흘리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하셨으니, "중생이 아프니 나도 아프다"는 유마거사의 말씀이 오늘날 이 지구촌 인류에게 장군죽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 혼자만 구원 받으면 되고, 모든 잘못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는 오늘의 사회풍조 속에서 인격도야의 실천행이 더욱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면 참나를 깨달아 영원한 행복과 대지혜와 자비를 얻고자 하면 어떠한 자세를 갖추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 이에 대해 산승이 만인에게 여섯 가지의 나아갈 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망령된 생각 즉각 내려놓으면
그 자리가 바로 본래 마음자리
참나 찾는 마음가짐 '육바라밀'

마음의 평화는 '간화선' 수행으로
천만번 반복 의심 '일념삼매' 들자

첫째는 보시로써 만복과 덕행을 쌓아야 함이요,
둘째는 지계로써 청정하고 성실하여 품행을 단정히 해야 함이요,
셋째는 인욕으로, 마음에 일어나는 온갖 분별심을 이겨내어 장애를 걷어 내는 것이요,
넷째는 정진으로, 일체처 일체시에 화두를 잘 참구하여 중생의 미혹한 마음을 닦는 것이요,
다섯째는 선정으로, 그렇게 마음을 닦아 온갖 두려움을 없애 참된 평화를 얻는 것이요,
여섯째는 지혜로, 일체를 다 알아 무애자재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섯 가지 나아갈 길을 지극한 마음으로 금쪽 같이 받아 행하시면 필경에 진리를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대중의 화합과 행복한 정토사회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산승은 금일 이 무차법회의 자리를 빌어 지구촌의 참된 평화와 인류의 영원한 행복을 위해,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는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화두참선을 통하여 참나를 깨닫는 '간화선'이라는 마음닦는 수행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인류문화의 정수인 간화선은 어떻게 닦는 것인가? 간화선은 화두를 챙겨 간절히 의심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니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 이 화두를 들고 일체처 일체시에 가나 오나 앉으나 서나 챙기고 의심할지니, 오로지 간절한 화두의심 한 생각에 푸욱 빠지도록 하루에도 천번만번 반복해서 챙기고 의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문득 일념삼매에 들어 크게 죽었다가 홀연히 살아나게 되면 마침내 마음의 고향에 이르러 대지혜와 대안락, 대자유와 대평화를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나를 깨닫는 그 속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복락이 있는 것이니, 그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지중하고 지중한 가치입니다.

그러면 모든 분들께 대오견성의 희망을 드리고자, 간화선 참선수행을 잘 해서 진리의 경지를 깨달아 그 살림살이를 자유자재로 쓰다 가신 옛 도인들의 일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90여년 전, 한국불교의 중흥조이셨던 경허선사의 상수제자인 혜월선사(慧月)선사로부터 심인법(心印法)을 전해 받은 77대 조사인 운봉(雲峰)선사라는 대도인이 계셨습니다. 운봉선사는 법을 이은 뒤에도 제방 선원을 두루 다니시면서 한 철 한 철 여법히 수행에 몰두했습니다.

한 번은 경기도 망월사에서 "삼십 년 결사를 하자"하여 제방에서 발심한 스님들이 40여 명이 모였습니다. 당시에 조실스님으로는 용성(龍城)선사를 모셨고, 선덕으로는 훗날 조계종 초대 종정을 지낸 석우(石友)선사를 모셨습니다. 입승(立繩)은 운봉선사께서 맡아 모든 대중이 밤과 낮으로 여법히 참선정진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법회가 있어 용성 조실스님께서 법상에 오르셔서 법문하시기를,

"나의 참모습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도 보지 못함이요, 대대로 내려오는 모든 도인 스님들도 보지 못함이니, 여기에 모인 모든 대중은 어느 곳에서 나를 보려는고?" 하고 멋진 법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답이 없는 가운데 운봉선사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답을 하였습니다. "유리 독 속에 몸을 감췄습니다" 이렇게 멋진 답을 하니, 용성선사께서는 아무런 말없이 법상에서 내려와 조실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대목을 가지고 40여 년 전에 산승의 스승이자, 운봉선사의 법제자이신 향곡(香谷)선사께서 산승에게 물으시기를, "만약 진제 네가 당시의 용성선사가 되었다면, 운봉선사가 '유리독 속에 몸을 감췄다' 고 답할 때에 무엇이라 점검하고 법상에서 내려가겠는고?" 하시니 산승이 즉시 답하기를, "사자가 멋진 답을 하셨습니다" 하니, 향곡선사께서 매우 기뻐하셨으니, 전광석화와 같은 바른 안목을 갖춘다는 것은 천고에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와 같이 법에 대한 스승과 제자의 안목이 줄탁동시에 이루어질 때 점검과 인가가 원만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한국의 신라와 같은 시대인, 중국의 당나라 시대에는 위대한 방거사(龐居士) 일가족 도인이 있었습니다. 부처님 선법이 유래한 후로, 세속 사람들 가운데에 방거사의 안목을 능가할 만한 안목을 갖춘 사람은 드뭅니다.〈중략〉

어느 날 방거사가 가족과 함께 방에서 쉬고 있다가 불쑥 한 마디 던지기를, "어렵고 어려움이여, 높은 나무 위에 일백석이나 되는 기름통의 기름을 펴는 것과 같구나" 하니, 방거사 부인보살이 그 말을 받아서 하는 말이 "쉽고 쉬움이여, 일백 가지 풀끝이 모두 불법의 진리이구나" 하고 반대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딸 영조가 석화전광으로 받아서, "어렵지도 아니하고 쉽지도 아니함이여, 피곤하면 잠자고 목마르면 차를 마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모이신 모든 대중은 방거사 일가족을 아시겠습니까? 방거사가 말한 "어렵고 어려움이여, 높은 나무 위에 백 통의 기름을 펴는 것과 같구나" 한 것은 어떠한 진리를 표현한 것이며, 방거사 부인보살이 말한 "쉽고 쉬움이여, 일백 가지 풀끝이 모두 불법의 진리이구나"한 것은 어떠한 진리를 표현한 것입니까?

또, 영조가 말한 "어렵지도 아니하고 쉽지도 아니함이여, 피곤하면 잠자고 목마르면 차를 마신다." 한 것은 어떠한 진리의 세계를 드러낸 것입니까?

이 세 마디에 모든 성인과 모든 도인께서 설하신 법문이 다 들어 있으니, 이것을 가려낼 줄 안다면 모든 성인과 모든 도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입니다. 〈중략〉

만약 산승이 방거사 일가족이 한 마디씩 할 때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좋은 차를 다려서 한 잔 씩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차를 한 잔씩 드린 것은 법문을 잘 해서 드린 것입니까? 아니면 잘못해서 드린 것입니까?

대중은 아시겠습니까? 우리 조국에서 산화하신 영령들, 지난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되신 모든 영가분들과 네팔 대지진 참사로 희생되신 모든 영가 분들,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위하여 희생되신 모든 영가들께서도 삼독의 애착과 집착을 다 내려놓고 부처님의 극락정토에서 대안락을 누리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진리의 한 마디를 선사하고자 하노니 잘 받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다시 나뭇가지에 새 움이 자라서
봄바람에 어지러이 쉬지 못함이로다.

佛紀 2559年 乙未年 Buddha's birthday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

봉 축

한국대승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취운 사정원장 혜관
호계국장 금강 사회국장 성군 감찰국장 도일 교육국장 용주
비구니종무원장 덕산 비구니총무국장 덕심

불국사(봉진) 지장사(광영) 금정사(덕심) 법성사(법룡) 문수사(성묵) 용주사(용주)
지성사(지성) 청호암(혜인) 당포사(종철) 성불사 칠성암(사우) 운고사(운고)
동방사(법운) 불현사(대공) 용연사(취암) 여래암(경담) 보문선원(보문) 천운사(선봉)
천광정사(취운) 동방원(법운) 불심정사(혜관) 쌍암사(덕산) 약불암(혜각) 구룡암(대공)
대왕정사(혜월) 미정사(운선) 미륵정사(미정) 칠성암(무설) 무심사(보명) 보우선원(성군)
개남사(도일) 보광정사(자공) 약불암(무여) 약수암(법륜) 공덕사(선혜) 은진정사(고경)
도심사(도안) 쌍암사(향광) 백련암(문정) 화성암(성화) 극락정사(석도) 금강사(금강)
쌍봉암(쌍묵) 종단승려, 신도일동

■ 종단 입종 안내
– 대상 : 사찰 및 종도 (승려, 법사, 포교사)
– 문의 :
총무원 051-514-8766
직 통 010-9706-1103

■ 총본산 :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1150, 불국사 (055-521-1236) ■ 총무원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 361, 천광정사 (051-514-8766 / 010-9706-1103)
■ 사정원 :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59번길 30-8 불심정사 (052-275-5539)

불교, 통일과 세계평화를 선포하다

16일 간화선 무차대회서 통일선언·평화 기원문 발표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이루는 과정은 '참 나'를 찾는 수행의 과정과 같습니다. 오늘 한국불교가 통일선언을 발표하는 것은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현실에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광복 70주년을 맞아 열린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의 메인 행사인 간화선 무차대회에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불교의 염원과 의지를 담은 '2015 불교 통일선언문'이 선포됐다. 이와 함께 간화선 무차대회에 앞서 열린 세계 종교인 평화회의에서 채택한 '세계평화 기원문'도 발표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5월 16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간화선 무차대회에서 '2015 불교 통일 선언'을 대중에게 발표를 통해 공식적으로 알렸다. '2015 불교 통일선언'은 지난해부터 불교의 통일 담론 개발을 목적으로 연구와 성안 작업이 이뤄졌다.

간화선 무차대회에 맞춰 성안된 '2015 불교 통일 선언'은 불교의 연기 사상을 바탕으로 공존과 상생, 합심을 기조로 하고 있다.

자승 스님은 선언을 통해 "남과 북의 영토가 하나 되는 물리적 통일에만 모든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통일은 '땅의 통일'과 함께 '마음의 통일'을 이뤄내는 것"이라며 "자신만의 견해와 고집을 내려놓고 상대방과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 비로소 화해와 공존은 가능해지며, 상생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은 마음의 본 바탕인 일심(一心)과 합심(合心)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다. 합심의 마음문화는 남북갈등, 남남갈등, 계층갈등,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불국정토의 통일국가를 만드는 바탕이 될 것"이라며 "이제 불교는 중생을 향한 자비심으로 장대한 통일의 여정에 나서고자 한다. 지혜로운 이 길로 모두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참석대중은 '세계평화 기원문'을 통해 기도와 수행의 힘으로 평화를 이룩할 것을 서원했다.

대중은 기원문에서 "역사상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진 수많은 대립과 갈등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면서 "세계 종교인들은 이 시대 마지막 분단의 아픔을 품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고, 지구촌의 모든 갈등과 대립을 종식시켜 인류의 행복과 세계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기원문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상호 존중과 이해가 세계평화의 지름길임을 자각하고 수행에 힘쓸 것 △종교적 테러 반대하며 종교간 대화에 협조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존을 위해 실천 △온 인류가 자비와 사랑의 심성을 계발토록 노력 △지구촌의 고통받는 형제에게 인도적 지원 활성화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세계평화 기원문'은 간화선 무차대회에 앞서 열린 세계종교인 평화회의를 통해 채택됐다. 이날 자리에는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을 비롯해 19명의 해외 고승과 이웃 종교인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진제 스님은 네팔 지진 참사에 애도를 표하고 "여러분께서는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인 대한민국의 한가운데에 자리하고 있다"며 "자비롭고 지혜로운 부처님의 가르침인 평화를 논할 수 있는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하다"고 대회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우리 종교인들이 뜻을 모아 초종교적인 화합과 평화의 정신을 담아 인류에게 큰 희망을 안겨줄 세계평화기원문을 만들어 내자"고 당부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2015 불교 통일선언 주요 내용

연 기
남·북은 서로를 비추는 거울. '서로 의지하고 있다'는 연기법은 상호 존중의 실천법.

공존·상생
진정한 통일을 마음의 통일. 화해 공존을 위해서는 자기중심적 사고방식 탈피.

합 심
합심의 마음문화는 갈등을 해소하고 불국정토 통일국가를 만드는 바탕이 될 것.

'공존·상생·합심' 통일선언 기조

"마음 통일이 진정한 통일" 강조

자비심으로 통일 여정에 나서자

참석 종교인 채택한 평화 기원문

"수행·기도로 평화 이룩" 의지 담아

"전쟁·사고 희생영가, 극락왕생 하소서"

17일 조계사서 수륙대재… 한국전·세월호·네팔 희생자 위로

한국전쟁과 세월호 참사, 네팔 지진으로 희생된 모든 영가들을 위로하고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법회가 열렸다.

조계종은 5월 17일 조계사에서 '광복 70주년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 행사로 '한국전쟁 희생자를 위한 수륙 무차대재'를 개최했다.

이날 수륙대재는 관욕과 삼귀의례, 반야심경 봉독, 총무원장 인사말, 종정 법어, 추모사의 순으로 진행됐다. 위패를 안치하는 '헌좌안위'에서는 한국전쟁 참전국뿐 아니라 중국, 세월호, 네팔 희생자 위패를 함께 이운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수륙대재에서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법어를 통해 "삶과 죽음은 한조각의 취모검이며 이는 부처님의 마음"이라며 "모든 유주무주 영가들이 집착과 원한, 미련을 내려놓고 극락세계에서 진리의 낙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설했다.

이에 앞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전 희생자를 추모하고 한반도 갈등을 치유하길 바랐다.

자승 스님은 "분단된 한반도의 갈등은 아직도 치유되지 못한 채 이 땅에 남아있다. 오늘 수륙도량은 남과 북을 비롯해 한국전쟁에 참전한 모든 국가들의 영령들을 영원히 고통 없는 열반으로 인도하고자 한다"면서 "더불어 이번 네팔의 지진 참사로 인한 희생자와 지난해 세월호 사건의 희생자, 그리고 가족들 모두 함께 위로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진제 스님 "미련놓고 진리를 누리라"

참전국 대사 등 대중 500여 명 참석



조계종은 5월 17일 조계사에서 '광복 70주년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 행사로 '한국전쟁 희생자를 위한 수륙 무차대재'를 개최했다. 사진=노덕현 기자

참전국가를 대표해 연단에 오른 로니 엠브레흐츠 주한 네덜란드 대사는 광복과 분단 70주년을 맞는 올해가 남과 북이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자리잡길 기원했다.

엠브레흐츠 대사는 "네덜란드는 한국전쟁 당시 UN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병력을 파견했고 미국 2사단에 배치돼 횡성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결국 전쟁기간 동안 네덜란드 군인 123명이 산화했고, 46명의 한국 군인이 함께 목숨을 잃었다"면서 "네덜란드는 국가기념일인 5월 4일 이들을 추모하고 기리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횡성에 기념비를 세우고 기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2차대전 종전 70주년이지만 한국에서는 분단이 시작된 시점"이라며 "광복과 분단 70년을 맞는 이 시기에 남과 북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수륙대재에는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을 비롯해 원로의장 밀운·부의장 명성·원로의원 원경·혜경·총무원장 자승·종회의장 성문·동국대 이사장 일면·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전국비구니회장 명우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 기원대회 이모저모



5월 16일 간화선 무차대회에 앞서 세계 종교 지도자와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분향소를 찾은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이 세월호 유가족을 안아주고 있다.

"어린 영혼들 극락왕생하도록 기도할 것"

진제 스님 등 세계 종교 지도자들 세월호 분향소 방문

5월 16일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과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한 세계 종교 지도자 10여 명은 세계 간화선 무차대회 참석에 앞서 광화문 세월호 분향소를 방문했다. 지도자들은 분향소에 헌화한 뒤 합장으로 애도를 표했다.

이날 자리에서 전명선 세월호 피해자가족대책위원장은 진제 스님에게 "세월호 사태는 수많은 어린 생명들을 앗아갔다. 부디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며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위해 힘써줄 것"을 간곡히 청했다.

이에 진제 스님은 "죽어간 아이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미어진다"며 "어린 영혼들이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불자들의 마음을 한 데 모으겠다"고 답했다.

박아름 기자

31만명 운집… 한국불교 힘 보여주다

종단협 소속 종단도 동참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5월 16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간화선 무차대회'였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 교구본사와 수말사에서 상경한 불자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태고종·천태종 등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속 종단 사찰들도 대거 동참했다.

대회 주최 측은 스님 1만 명을 포함해 사부대중 31만 명이 동참했다고 최종 집계했다.

신성민 기자

현충원 참배 등 의미있는 행사 '다채'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는 5월 15일 환영 만찬으로 공식적인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대회에서 눈길을 끌었던 요인 중 하나는 해외의 고승과 이웃종교인들이 200여 명이 참석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환영 만찬에서도 이번 대회가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의 초석을 다지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16일에는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을 비롯한 220명의 해외 각국 고승과 이웃종교인들은 서울 현충원을 찾아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평화를 기원했다. 200여 명의 대규모 세계 종교인들이 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하는 것은 극히 드문 사례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과 해외 고승 220명은 5월 16일 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이날 진제 스님은 방명록에 '남북평화통일 세계평화(南北平和統一 世界平和) 무운생령상(無雲生嶺上) 유월낙파심(唯月落波心)'라고 휘호를 남겼다.

신성민 기자

지구촌 곳곳에서 자비심이 가득한 사랑으로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알고

같이 울고, 웃으며 땀 흘려 봉사해 온 35년의 세월들

世界佛教 法王廳

세계 곳곳에서 인간방생, 중생구제를 사명으로 알고 국내를 비롯하여
지구촌 후진국 빈민촌의 어둠과 고통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는 불교 지도자들이
군소종단의 통합을 염원하며 함께 정진하는 한국 군소종단들의 모임체입니다

INTERNATIONAL BUDDHISM LEADER ASSOCIAION

2015년 부처님 오시날을 한마음 한뜻으로 봉축하며
한국불교의 화합과 발전을 발원하옵니다

사단법인 : 세계 불교 법왕청. 종교법인 :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大韓佛教108宗正聯合會. 大韓佛教宗團總聯合協議會. 韓國佛教高僧長老團.
世界佛教考試委員會. 大韓佛教大宗師聯合協議會. 韓國佛教元老長老團. 韓國佛教
나라사랑 聯合協議會. 韓國佛教宗團人權委員會. 국제붓다봉사단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 대표전화 02)733-5665. 733-5670 / 팩스 02)733-5615 / H.P : 011-229-6061

“不立文字와 문맹 혼돈 말자…공부하는 풍토를 ”

제언-간화선 대중화



조계종이 5월 16일 광화문에서 개최한 ‘간화선 무차대회’에 참가한 스님들이 광장에서 선정에 들고 있다.



신규탁
연세대 철학과 교수
한국선학회 회장

당나라 시대에 새롭게 일어난 신흥 불교였던 남종선도 당나라 말엽을 지나면서 나름대로의 전통이 생기고, 송나라 시대에 들어서는 지난 시대의 선사들이 남긴 수행이 일종의 ‘기준’으로 굳어져갔다. 그 ‘기준’ 중의 하나가 이른바 ‘화두’ 내지는 ‘공안’이다. 이것을 기준 삼아 선승들은 서로의 수행을 점검했다. 그리고 뒷날 송나라 시대 이후에는 ‘화두’를 마음속으로 관찰하는 ‘간화선’이 등장하였다.

당나라 시대의 선사들이, 특히 혜능이나 마조를 포함한 남종에 속한 선사들이, ‘간화선’을 실천했는가? 그렇지는 않았다. 이들에게는 선배나 스승이 사용했던 이야기를 재료로 하여 후배 수행자들을 지도하는 방법을 쓴 경우는 있지만, 자기 자신의 수행을 위해 ‘화두’를 드는 일은 없었다. 그들이 분명 참선은 했지만 그것이 반드시 간화선이라고 단정할 만한 문헌적 근거는 없다. 다만 뒷날 간화선을 주장하는 송대 선가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화두의 재료거리로 당나라시대 남종선 계통의 선사들의 언행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간화선의 대두에는 분명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아무리 언어나 문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려고 했던 선이라고 해도, 그것이 만들어진 시대와 지역의 역사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선의 출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만 당시 선사들의 대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분명하게 말하건대, 선을 초역사적이고 초이성적으로 이해하려는 태도는 금물이다. 사상이 늘 그 시대와의 관계 속에 형성되듯이, 선사상도 시대적인 추이 속에서 생성된다. 그 당시에 있었던 여러 선풍들과 교류하면서 그것을 비판 극복하는 과정에서 변화한다.

그럼 그 배경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면 첫째는 불교 교학의 발전이고, 둘째는 당시 지성계와의 교류이다. 후한 말기에서부터 한문으로 번역된 경전은 당나라시대를 거치면서 정비되어간다. 이런 경전들을 바탕으로 당시 불교계 인사들은 교학적 논의들을 축적해가는 동시에, 그들은 당시 지식인들과 교류를 하면서 인생의 문제를 비롯하여 나아가 역사를 평하고 또 문학을 논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전통 사상인 유학사상과 또 노장사상 등이 불교사상과 만나면서 당시 지성계는 더욱 풍요해진다.

당시 선사들과 교류를 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지식인들이다. 소위 말하는 ‘먹물’들이다. 책 읽기에 있어 이미 저마다 한 경지를 이룬 사람들이다.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선은 이런 독서인(讀書人)들 사이에 유행했고, 그 유행에 참여했던 선사들은 모두 뛰어난 학자들이다. 시를 알고 역사를 알고 철학을 알고 불교를 안다. 이런 고급 교양을 몸에 익히고, 그런 바탕 위에서 소위 ‘진리’를 탐구하고 그것을 몸소 실천하려고 한 사람들이다. 그러다보니 자연, 그들에게는 ‘지식을 넘어서는 지혜로’, 또 ‘남의 흉내를 넘어서는 자신만의 창작으로’, 그리하여 ‘세상의 가치를 넘어서는 한 차원 높은 가치 추구로’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선사들의 대화는 긴장감 있고 박진력 있고 생동감 있게 진행된다. 그러다 보니 자연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문어체(文語體) 보다는 실제로 현장에서 쓰였던 대화를 그대로 옮겨놓은 구어체(口語體)로 기록된다. 게다가 방언이나 속어 등의 사용으로 생동감과 전달력을 높이고 있다.

이들이 하는 이야기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발견된다.

첫째, 자신의 체험 밖에서 얻을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경전이나 타인의 체험에만 의존하는 것을 매우 경계하고 있다. 즉, 당나라 시대 선사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견성(見性)’을 강조한다. 이런 전통은 이미 〈육조단경〉에서부터 선명하게 드러난다. 수행자 각자마다 부처가 가지고 있는 것과 똑 같은 지혜와 덕을 간직하고 있으니 그것을 깨치라고 한다. 이런 인간 이해는 이른바 법성종(法性宗)의 교학에서는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나며, 특히 법성종의 대표적인 교학인 화엄교학에서는 이 점이 더욱 극명하다. 당나라 시대의 남종선을 전개한 선사들의 생각들에도 인간에게는 누구나 불성(佛性)이 있음을 전제한다. 이 점은 당나라 시대의 선사들은 물론 그 후의 역대 선사들도 마찬가지이다. 화엄교학을 모르고는 선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둘째, 남에게 선을 묻고 도를 묻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것도 앞의 첫째와 연관이 있다. 깨달음이란 남에게 물어서 될 일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체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은 당나라 시대의 많은 선사들과 그 후의 선사들에게 공통으로 나타나는 견해이다. 자신이 몸소 체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체험할만한 훌륭한 그 무엇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체험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 자신 속에 고유하게 있다는 것이다.

간화선의 역사적 배경 알아야
당대 지성인과 교류 속에 발달
교학적 기반 위에 수행 함께 해야

셋째, 경전이나 주석서를 반성적 사유 없이 외우고 논쟁하는 것을 금기시하고 있다. 이것도 넓은 범위에서 보면 자기의 체험이 아닌 남의 것을 가지고 겉모습만 더듬는 어리석음을 비판하는 것이다. 경전도 그것이 부처님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남의 말이라고 선사들은 생각했다. 이런 생각은 당나라 시대 후 많은 선사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경전이라고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의 체험이 결여되고 남의 말에만 의존하는 것까지도 비판한다. 선사들이 교학의 3장을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의 체험이 결여되었으면 그 말이 교학에서 왔건 선학에서 왔건 모두 비판의 대상이다. 이 점은 송대의 선사들이 교학의 3장이면 무조건 모두 비난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자기반성이 없이 외워대는 경·률·론 3장이 우리들의 인생살이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넷째, 선방에 앉아서 명예와 이익을 구하는 것을 나무라고 있다. 세속에 뜻을 두지 말고 부지런히 수행할 것을 강조하는 것은 거의 모든 수행자들이 한 목소리로 당부하는 말이다.

당나라 시대 생산된 선사들의 대화에는 이상에서 거론한 주제들이 많이 등장한다. 이런 주제들을 소재로 선사들은 저마다 상황에 따라 대화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교화한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은 각 문파 별로 기록 정리하여 후세에 전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선사들이 남긴 어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이 되는 학문적 훈련이 있어야 한다. 많은 독서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불립문자(不立文字)’와 ‘문맹(文盲)’을 혼동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선의 전통이 굳건해진 송나라 시대 이후 선사들이 교류했던 당시 지식 관료들을 보면, 그들이 대단한 지식인들이었음을 단박에 확인할 수 있다. 무식해서는 절대로 선사들의 대화를 이해할 수 없다. 책을 읽어야 한다. 물론 그 독서에도 요령과 순서가 있다. 그 중 하나를 소개한다.

전라도 순창 구암사의 백파 긍선(1767-1852) 선사께서는 〈선문수경(禪文手鏡)〉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선종 문하에서 나온 말이나 문구를 찾아 궁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천안목(人天眼目)〉과 〈선문오종강요(禪門五宗綱要)〉와 〈선문강요집(禪門綱要集)〉을 반드시 제일 먼저 구하여 읽되, ……. 그런 다음에 〈선문염송집(禪門拈頌集)〉과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과 4집(集) 등에 나오는 말과 문구를 읽으시오.”

〈선문수경(禪文手鏡)〉은 제목이 말해주듯이 ‘선 관계 문헌을 독서할 때에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라는 뜻이다. 손거울로 수시로 자신의 얼굴을 살펴볼 수 있듯이 말이다. 〈인천안목〉은 송나라의 승려 회암 지소 스님이 지은 것으로, 임제·위앙·조동·운문·법안 등 선문 5종의 주장이나 그에 대한 평창 등을 엮은 책이다. 이 책은 고려에도 수입되어 그 후 조선에서도 여러 번 출판되었다.

그리고 〈선문오종강요〉는 조선시대 환성 지안 스님이 편집하고 그의 문인 함월 해원 스님이 보충하여 숙종15년(1689)에 출간하였다. 이 책 역시 임제·운문·조동·위앙·법안 등 선문 5가의 종요를 모아 엮은 책이다. 한편, 〈선문강요집〉은 고려의 진정 천책 스님의 저술이라고 하나 저자는 불확실하지만, 조선시대 승려들에게 인기를 끈 책이다.

다음으로 〈선문염송집〉은 보조 지눌 스님의 제자인 고려의 진각 혜심 선사가 편집한 책이고, 〈경덕전등록〉은 송나라 시대에 편찬된 책으로 조선시대 승려들의 과거시험 과목으로 채택될 정도로 이 나라 독서인들의 사랑을 받았던 책이다. 끝으로 ‘4집’이란 조선시대 후기 이후 강원 이력의 교과서로 사용되던 네 종류의 책이다. 고봉 원묘 스님의 〈고봉화상선요〉, 보조 지눌 스님의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규봉 종밀 스님의 〈선원제전집도서〉, 대혜 종고 스님의 〈대혜종고서장〉이다.

다행스럽게도 ‘간화선’을 지켜야겠다는 종단적인 ‘슬로건’은 살아있으니, 진정 간화선 수행으로 불조의 은혜를 갚으려 한다면 독서를 해야 한다. 봉선사 월운 강백에 의해 〈조당집〉(2권), 〈경덕전등록〉(2권), 〈선문염송·염송설화〉(10권)가 한글로 번역 출판되었다. 종문을 계승하려면 이것을 꼼꼼히 읽어 화두의 전말을 반드시 외워두고, 그런 다음 옛 선사들은 이 화두를 어떻게 가지고 놀았는지(拈弄) 검토해야 한다. 그런 뒤에 몸소 간화 수행을 해야 한다. 그리하여 오늘의 살아있는 입장에서 자신의 소리로 중생을 제도해야 한다. 죽반지기(粥飯之氣)로 세월을 녹여서도 안 되고, 흔드는 주장자의 의미를 착각해서도 안 된다. (咦)…….

봉 완전한 가르침, 붓다선으로 해탈하라 축

세계승가회를 이끄는 거룩한 님들

대승왕 뿐냐싼또. 회장 수완나. 한국단장 수밋다. 한국승왕 현지선사.
대승왕비서장 싯달라. 의전실장 설원스님. 포교국장 여원스님. 복지국장 능공스님.
문화국장 도원스님. 연수국장 태현스님. 심리상담국장 초원스님. 홍보국장 능가스님.

고따마가 완전한 붓다를 이루신 수행법 – 붓다선 공개특강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2시 ~ 5시
장소: 나란다대학 선열당 (분당선 태평역 2번 출구에서 750m 직진. 성남시 수정구 태평산부인과 뒤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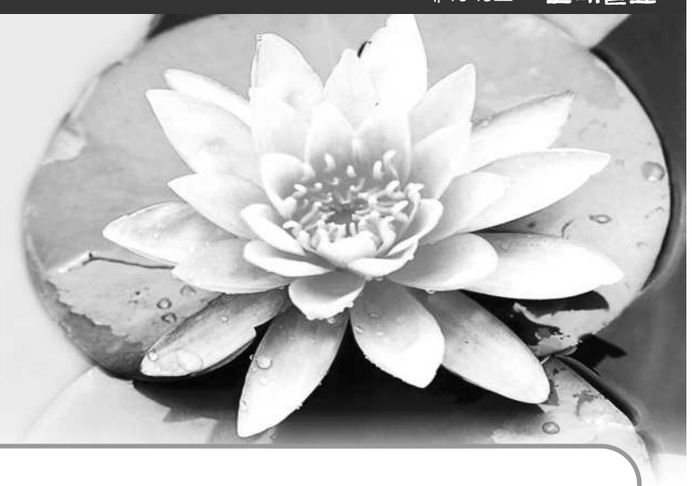
세 계 승 가 회

홈페이지 : http://www.worldsangha.org 전화 : 070-7717-2276

佛紀 2559年 乙未年 | 전면광고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 | A15

올 때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고 갈 때 또한 빈손으로 간다. 아무리 많아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오직 지은 업만 따라갈 뿐이다 〈자경문〉



대한불교 삼론종

종 정 혜승
부종정 인 봉

승 정 혜공, 향운, 은곡, 진봉, 지운, 지심, 명산, 명재, 해불

총무원장 지민 종회의장 지경
종회부의장 해산
총무부원장 혜관
총무부장 성우 교무부장 정현
규정부장 혜암 사회부장 무간 재무부장 송광

사정원장 명산 사정부원장 정산
포교원장 명재 포교부원장 보명
문화원장 지향 문화부원장 지학
수선원장 지화 수선부원장 성덕
기획원장 성각
교육원장 남륜

서울경기교구원장 보명 충남교구원장 지향
충북교구원장 지허 경남울산교구원장 해산
전라남북교구원장 명재 대구경북교구원장 어산

중앙종회
종회의원 명재 보명 일선 지향 성현 성각 일천
정연 어산 정산 보광 지화 지연 자원
성우 성덕 무간 혜암 혜인

종도 일동

■ 총본산 : 충북 충주시 대가미 15길 11 우암정사 (2층)
전화 043)857-0108 / 팩스 043)847-0118

佛紀 2559年 乙未年 Buddha's birthday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

승려 분한신고 실시공고

(사)대한불교법상종은 종단을 재정비하여 이를 토대로 종단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승려 분한신고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본 종단 소속 전 종도스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기한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가. 신고기간 : 2015년 6월1일~7월30일까지
나. 신고대상 : 본종단 소속 전 종도스님 및 법사님
다. 신고장소 : 총무원
우)456-881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텃골길 105
전화 031)677-9950 / 팩스 031)677-9953
*신고 시 사찰분담금 및 승려의무금 미납자는 필히 납부 바랍니다.
*기간내 분한 미신고자는 종헌, 종법에 의거하여 승적 자동 말소됨을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5일

(사)대한불교 법상종
총무원장 해 월

입 종 안 내

사단법인 대한불교 법상종에서
본 종단의 발전과
종지. 종풍 선양에 함께 하실 승려와
사찰을 모시고자 합니다.

안내

• 입종대상 : 본 종단의 발전과 종지. 종풍 선양에 함께 하실 승려 및 사찰 (법사님 포함)

• 문 의 : 본 종단 총무원
우)456-881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텃골길 105
전화 031)677-9950 / 팩스 031)677-9953
010-4772-6011(총무원 휴대폰)

2015년 5월 25일

(사)대한불교 법상종
총무원장 해 월

불.법.승

(사) 대한불교삼보종

1세종정 멸공 대종사
부 종 정 회천 원로원장 금산 원로부원장 정공
총무원장 법장 호법원장 법천 종 회 의 장 정수

부 원 장 법경 고시원장 해룡 교육원장 홍인 문화원장 도광
감찰원장 법도 포교원장 법륜 염불원장 청산

교구원장 수산. 법인. 보산. 불광. 해원. 용현. 법융. 지훈. 법송. 지원. 도연. 도륜. 천광. 정륵. 수원. 해국 (16교구)

총무부장 평산 교육부장 도오 교무부장 도월 재무부장 법진
포교부장 혜수 호계부장 청파 규정부장 도철 교화부장 해운
총무국장 지일 문화국장 해공 포교국장 도원 교육국장 도선
조사국장 도석 사회국장 도암 홍보국장 강천 염불국장 진각
전산실장 진행 기획국장 청붕 사서국장 도율 사 무 장 손은진

■ 총무원 : 경남 김해시 호계로 499번길4 (2층) ☎ 055)338-0089, 334-1122
사울사무소 ☎ 070-7124-3403

봉 불기 2559년 부처님오신날 축



대한불교조동종 전종도 일동

(사) 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법인 운남
종회의장 법보 일봉
감찰원장 법운 성연

연수원장 법신 노정 교육원장 법기 무여
포교원장 법천 덕일 기획실장 법장 원해

서울종무원장 심우 경기동부종무원장 무상 경기서부종무원장 교령
강원종무원장 탄해 충청종무원장 혜능 전라종무원장 덕운
군산종무원장 덕일 경북종무원장 탄영 경남동부종무원장 진공
경남서부종무원장 일봉

총무부장 진공 사회부장 진성 호법부장 진각 교육부장 진산
재무부장 성각 연화부장 정혜 문화부장 공덕 교무부장 원봉
총무국장 화련 사회국장 화선

■ 총본산 : 서울시 중구 신당동 333-250번지 흥도사
■ 총무원 : 경남 창원시 회원구 양덕1동 산 30-4번지 천연암 / 전화 055)253-1074

(사)대한불교 금강종

제2세 종정 무학당 송천 대종사

총무원장 겸 종정권한 대행 법 산
승정원장 무상 대종사 원로원장 월서 대종사

교 육 원 장 정산 포 교 원 장 덕산 감 찰 원 장 학산
고 시 원 장 혜신 참 선 원 장 법일 사 정 원 장 법영
복 지 원 장 법영 문 화 원 장 덕일 불교대학장 유일환
비구니원장 지명 국제교류원장 정무

중 앙 종 회 의 장 일타
중앙종회부의장 일각. 현우
중앙종회사무총장 정견

총무원장 서서실장 정유
총 무 부 장 정연
총 무 국 장 정휴

서울특별시교구원장 반야지(서원암)
대전광역시교구원장 정 무(지장암)
대구,경북교구원장 세 현(광원사)
울산광역시교구원장 덕 일(도성암)
충청남도교구원장 정 견(백련암)
경상남도교구원장 덕 산(광천사)
전라북도교구원장 월 서(삼불사)
전라남도교구원장 혜 신(남해사)

■ 총무원 : 대전광역시 유성구 송강동 294-4(일성사) / 전화 042)935-2279,524-2149
팩스 042)526-2149 / 사무총장 HP 010-5381-0779

‘증오와 갈등’의 땅 민다나오에 희망을…

이원주 회장 (JTS 필리핀 대표·前 필리핀한인총연합회 회장)



이원주 대표는 … 1954년 경남 고성서 태어났으며, 고성종합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0년 부산 조광무역 필리핀 법인 직원으로 필리핀에 첫 발을 디뎠으며, 1987년에는 ‘케이 리 패션’(Kay Lee Fashion)을 설립해 미국 의류회사인 바나나리퍼블릭과 폴로 등에 납품하며 필리핀서 손꼽히는 의류 생산업체를 일구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세계한인무역협회 필리핀 회장을 역임했다. 2003년에는 법륜 스님이 이사장으로 있는 JTS 지부인 ‘JTS민다나오’를 설립해 민다나오섬에 현재까지 학교 46곳의 건립, 운영을 지원 했다. 또한 2005년부터 현재까지 JTS필리핀 대표를 맡고 있다. 2010년에는 필리핀한인총연합회 회장으로 선출돼 2년 임기를 마쳤다. 2011년에는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World– OKTA)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개최한 기념식서 지식경제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현재는 기존 ‘케이 리 패션’을 정리하고 최근에 새로 설립한 의류회사인 ‘LHK creation’ 대표로 있다.

필리핀서 분쟁지역으로 뉴스 도마위에 가장 많이 오르는 곳이 바로 민다나오다. 수도인 마닐라서 비행기로 1시간 20분 걸리는 민다나오는 남한보다 조금 넓은 면적에 2천만이 사는 필리핀 최남단의 섬이다. 원주민들 낙원이던 민다나오에는 14세기 이웃나라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등서 건너온 무슬림 5백여 만명이 산다. 16세기 스페인 식민지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등장한 이후, 미국 식민지(1899~1945)시대에는 무슬림을 궁지에 몰면서 무슬림 분리투쟁이 본격화했다. 2000년대 들어와 평화의 기운이 감돌지만 간헐적 충돌이 계속돼 민다나오는 그 지역 사람들도 출입을 꺼린다. 누구에게도 가기 쉽지 않은 땅이다.

이런 곳을 매달마다 찾는 이가 있다. 필리핀서 의류 회사로 성공한 기업인인 이원주(62) JTS 필리핀 대표다. 한 달에 5일 정도는 민다나오에서 지낸다. 그동안 완공한 학교를 돌며 학용품과 구급약 등을 전하기 위해 소리 소문없이 민다나오를 찾는다. 그가 이 곳에 나타나면 원주민이 두 손 들어 환영하고 길을 안내하며, 반군은 총을 메고 마중 나온다. 상식적으로 상상이 안간다. 하지만 사실이다. 비결이 무엇일까. 그들과 함께 먹고 생활하며 그들의 일원이 되어 교육 불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지 원주민들은 그를 이방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대한다.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이 민다나오 산악마을과 정글에 그가 세운 학교만 46개다. 물론 혼자한 일은 아니다. 국제구호기구인 (사)JTS(Join Together Society=이사장 법륜 스님)의 지원을 받는다. 이 대표는 필리핀지부인 ‘JTS 민다나오’를 2005년 창립한 뒤 현재까지 대표를 맡으며 자원봉사를 진두 지휘한다. 이 대표는 돈만 대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 원주민과 함께 건축자재를 나르며 학교 벽돌을 쌓아 올렸다. 모든 것을 동체대비의 마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해나갔다.

이런 그가 궁금했다. 잘나가는 회사 대표가 뭐가 부족해 위험한 분쟁지역인 그 먼 곳을 매달 찾는지, 또 재정 후원만이 아니라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직접 학교 짓는 일에 동참하는 지 묻고 싶었다. 그 곳에서 무엇을 얻고자 한 것일까 궁금했다. 그런 명성을 익히 듣던터라 지난 몇 년간 이 대표가 한국에 올때마다 몇 번의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자신이 좋아서 하는일이라 내세울 것이 없고 바쁘다는 이유로 고사했다. 간절히 원해서 였을까 그런 그를 4월 27일 서울서 어렵사리 만날 수 있었다. 전날 구미종합체육관서 열린 정토회 1천일 결사 행사에 참석차 귀국 한 것이다.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로 이 대표는 정토행자가 된 배경부터 말머리를 풀었다.

“본격적으로 정토행자가 된 것은 2008년 부터입니다. 막사이사이상 수상차 필리핀에 오신 법륜 스님을 만나면서 민다나오 봉사에 참여했고, 그 이후에 정토행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요. 물론 개인 신행생활은 그 이전인 2003년부터 시작 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긴 시간은 아니지만 명상과 108배를 했지요. 출장 갈 때를 제외하고는 지금도 매일 하려고 합니다. 예전엔 출장가서도 꼭 했는데 룸메이트가 있을때에는 상대편에게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음속으로만 합니다. 나 좋다고 남에게 불편을 줄 수는 없으니까요.”

이어 이 대표는 10여년 이상 수행을 해보니 상대를 이해하는 폭이 많이 넓어지는 마음의 변화를 느꼈다고 피력했다. “수행을 하기 전에는 내가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남의 말을 잘 듣질 않았어요. 제가 원래 내성적이면서도 급하고 고집이 셌거든요. 내 생각과 다르면 화도 많이 냈지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나만 옳다는 아만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수행하며 알게 됐습니다. 상생과 중용 이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후에 갈등이 심했던 필리핀한인총연합회의 회장직을 맡았을 때도 이 가르침은 큰 도움이 됐습니다.”

2010년 필리핀 한인회는 회장 선거로 분열과 갈등이 깊어졌었다. 이때 평소 이 대표의 봉사정신과 인품을 눈여겨 본 원로들과 교민회 간부들이 한인회를 화합으로 이끌 적임자라며 출마를 적극 권유한 것이다.

민다나오섬에 평화의 전령사

10여년간 학교 46곳 건립… 반군도 반겨
한달에 5일 생활, 학용품 및 약품 보시
2008년부터 전통마을 보존 사업도

필리핀서 성공 일군 ‘제2의 인생’

의류회사 30년 운영… 연매출 3천만달러
두 번의 큰 위기 성실과 신뢰로 극복
2010년 한인연합회장 선출…갈등 봉합

“한인총연합회가 생긴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지만 갈등이 있었습니다. 한인회 안에서 역할 분담이 제대로 안 돼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컸지요. 총연합회가 지역한인회를 위해 해준 게 뭐 있냐며 볼멘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우선 회장에 선출되자마자 2011년부터 봉사하는 마음으로 5개 지역 한인회를 모두 순회했습니다. 발로뛰며 그들의 고충과 어려움을 듣기 시작했더니 어느정도 갈등이 봉합되더군요. 또한 제가 한인회장에 나설때 일부 기독교 신도들의 반대가 있었지요. 불교신자가 한인회장을 한 것은 제가 처음이었거든요. 많은 기독교인들, 특히 선교사들이 저의 회장직 수행에 대해 우려를 많이 했는데, 제가 오히려 다른 종교 행사도 차별하지 않고 모두 가니까 나중에는 경계심을 풀더군요. (웃음) 무슨 종교든 남을 존중하면서 내 마음가짐을 똑바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종교가 다르면 어떻습니까?”

그의 부업(?)인 민다나오 봉사 얘기로 다시 화제를 돌렸다. JTS가 학교를 짓는 곳은 주로 산 속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군과 군의 경계로 행정력이 잘 미치지 못한다. 그러다보니 정부 지원도 전무하다. 가뜩이나 재정이 빈약한 필리핀 정부에서는 소수를 위해 지원할 여력이 없다.

“저희들이 2003년 처음 학교 짓는 일을 시작할 때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법륜 스님이 막사이사이상을 받을 당시 심사위원장인 안토니오 대주교가 남북이 대치하는 한국서 대북 사업을 활발히 하신 법륜 스님의 노하우를 필리핀 분쟁지역에도 펼칠 수 없겠느냐고 요청해서 시작됐습니다. 법륜 스님은 문맹퇴치가 급선무라는 것을 깨닫고 학교 건립에 팔을 걷어 부치셨습니다. 처음에는 JTS가 뭐하는 단체인지 모르니까 지역민들이 부정적이었지요. 다른 NGO단체들이 처음에는 돕겠다고 해놓고 실제로 도움준 것이 없기 때문에 현지인들도 외부인들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일일이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진심을 알렸더니 조금씩 문을 열더군요. 처음 시작한 곳은 달라각이란 지역이었지요. 초등학교 교실이 모자라 학생들이 대충 나무를 잘라 만들어 나무 그늘 밑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있던 가건물을 새로 짓고 화장실도 만들어주었지요. 지금도 교실이 생겨 너무 좋아하는 맑은 아이들의 눈망울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곳은 가톨릭 신자들이 대부분인 지역이었다. 1차 사업을 시작으로 2차부터는 가톨릭과 원주민이 섞여 사는 지역, 그 이후는 원주민과 무슬림이 사는 지역 등 범위를 점점 넓혀 가면서 종교와 관계없이 정말 어려운 곳만을 찾아갔다. 학교 말고도 병원, 보건소 등은 물론 2008년부터는 전통마을보존사업도 하고 있다.

“전통마을보존사업을 실시한 딸란딕 부족은 전통적인 고유 문화를 제일 많이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전통악기, 춤, 솔트페인팅이라고 돌이나 흙에서 채석을 해서 그림을 그리는 전통문화, 전통 민간요법 등등. 또 자기들만의 말과 글도 있더군요. 충분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본부에 보고 하니 법륜 스님께서 전통문화보존을 지원해보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업대상으로 꼽았는데, 처음에는 부족장이 만나주질 않았어요. 무작정 만나줄때까지 기다렸지요. 간신히 만나 JTS 취지를 소개 하면서 설득을 했지요. 우선 마을에 있던 문화센터 수리부터 하자는 결론을 냈어요. 건물이 대충지어져 거의 다 쓰러져 가고 있었거든요. 이왕 해줄 거 제대로 해주자고 마음먹고 원활한 협조가 이뤄지려면 친해지는 것부터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찾아 갔어요. 한번 가면 보통 4박 5일동안 함께 먹고 자면서 노력했죠. 그랬더니 결국 마음을 열더군요. 그동안 흘린 땀은 보람이라는 보상으로 되돌아 오더군요.”

민다나오가 분쟁지역이다 보니까 주변에서는 갈때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냐고 걱정을 많이 한다는 이 대표는 인간 사는 곳은 모두 매한가지라 진심을 보이면 그들도 마음을 연다고 답했다. “학교 지을 곳을 찾다가 정글서 한번은 길을 잃었어요. 길을 찾아 헤매는데 무더위에 물도 떨어지고 이러다 정말 산 속에서 죽는거 아닌가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해질무렵 나무 위서 사람이 하나 내려오는거에요. 말도 안하고 손짓으로 따라오라해서 가니까 10여 명이 박격포와 총을 들고 웁디다. 그리곤 “Welcome(대환영)”이라며 반갑게 맞더군요. 혹시

대한불교 총화종

佛紀 2559年 乙未年
Buddha's birthday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

종정 전남정

부종정 이남은. 최만재 총무원장 김혜각

종회의장 백만우 종회부의장 정경옹 교육원장 김법만 호계원장 이만오
감찰원장 김혜암 문화원장 이지수 선원장 신본원 복지원장 김지산

사회부장 성조향 호법부장 박지광 재무부장 김지오 교무부장 윤해원 감찰부장 김정산
조사부장 김지현 교육지도부장 김성담 문화부장 양혜원 문화관리부장 손지원

서울북종무원장 이혜인 경기동,남종무원장 김법만 경기서종무원장 김혜암
대전종무원장 김해송 울산종무원장 백만우 강원1교구종무원장 정혜산 강원2교구종무원장 허승효

경남동종무원장 이광덕 경남서종무원장 김월광 경남중종무원장 이도언 부산종무원장 박지광
전남,광주종무원장 김현산 제주종무원장 김청해

유발승 회장 이지수 유발승 총무 전지명

외 임원 및 종도 일동

봉 축 사



대한불교총화종
총무원장 **혜각**

오늘은 부처님 오신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해탈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것입니다.
우리 불자 모두는 화합과 평화를 위해 부처님을 맞이합시다.
부처님 오신날 부처님 자비광명이 우리 국민 모두
그리고 우리불자 가정 가정마다
부처님 불은(佛恩)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 중생 모두는 본래 부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창신동 93번지 2층
전화 02)743-0066, 8338 / 팩스 02)743-8448
www.chonghwajong.or

“利他는 내 인생 최대의 힐링”



2010년 필리핀 한인총연합회장에 선출된 이원주 대표



이원주 대표는 법륜 스님과 함께 민다나오섬에 학교짓는 일이외에 전통마을 보존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공사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는 이원주 대표



이원주 대표가 민다나오섬 학교공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길을 잃을까봐 미리 마중을 나온거에요. 정말 말은 안통했지만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학교 사업이 순항만 거듭된 것은 아니었다. 학교를 짓다가 중단한 무슬림 지역도 있었다. 건축 자재 인수 때문에 오해가 생겼는데, 자신들 잘못은 인정 않고 의심하면서 문제를 삼았다. 하지만 이 대표는 힘들때보다는 보람있을때가 더 많다고 털어놓는다.

“네 시간 넘게 정글을 헤치고 온 우리들을 위해 원주민들은 장작불 위에 삶은 카모테(고구마) 한 솥과 야생 커피를 끓여 내놓습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접이지요. 이들에겐 더 이상 내놓으려야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세 끼 모두 카모테로 해결하거든요. 이들도 쌀밥을 먹고 싶지만, 카모테 한 부대 지고 먼 길을 내려가 봐야 한 가족의 한 끼 먹을 쌀도 구하기 어렵기에 포기합니다. 삼나무껍질을 벗겨서 이들이 하루에 버는 돈은 30페소. 우리 돈으로 7백~8백원에 불과합니다. 그 돈으로 여덟아홉이나 되는 식구들의 한 끼 먹을 쌀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생활은 궁핍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도 고구마 한쪽에 안분자족하는 이들을 지켜 보면서 또 자신들의 얼마되지 않은 식량마저 우리들에게 나눠주는 그들의 모습에서 가진 것이 많다고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큰 가르침을 받은 거지요. 한번은 여러 번 갔던 마을에서 쌀을 구해 놓은 적도 있었습니다. 밥이 나오기에 무슨 반찬이 나올까 하고 기다리는데, 원주민들이 교대로 방에 들어와 우리 얼굴 한 번 밥 한 번 쳐다보고 그냥 나가더군요. 1시간 지나서야 돌돌 굴러다니는 그 설익은 쌀밥이 식사대접의 전부란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비싼 쌀을 사려고 그먼 시장에 나가 고구마를 팔았을 생각을 하면 어찌 고맙지 않겠습니까.”

이 대표는 눈시울을 적셨던 감동의 순간이 또 있다고 들려줬다. “우리가 만들어준 학교의 학생들이 졸업 할 때입니다. 졸업생이 많이 나온 가나안 지역에 22살 먹은 졸업생이 있었어요. 16살에 입학 해 말이 초등학교 졸업이지 거의 나이만 따지면 대학생이에요. 그런데 그 친구가 졸업하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봉사자들이 모두 얼싸안고 기쁨과 보람의 눈물을 흘렸지요.”

원래 이원주 대표의 본업은 의류회사 사장이다. 경남 고성이 고향인 이 대표는 부산의 조광무역에 취직해, 1980년 해외법인 직원 선발에 지원한 게 필리핀과 인연을 맺는 계기가 됐다. 말단직 기계공으로 입사한 이 대표는 ‘배울 수 있는 건 모두 배우자’는 심정으로 와이셔츠 원단을 재단해 바느질하고, 포장해 실어 보내는 전 과정을 부서별로 찾아다니며 묻고 어깨너머로 배웠다. 성실함을 높이 평가받은 그는 마닐라 공장에 1년간 파견되는 기회를 얻었고, 이를 계기로 1983년 미국 의류회사로부터 필리핀 공장의 매니저를 맡아달라는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 다시 필리핀으로 왔다. 그는 3년 반이 지나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인 파트너와 둘이 소자본으로 여성의류 하청공장을 차렸다.

지난 30여년간 운영한 ‘코리아’의 ‘케이’와 ‘이원주’의 ‘리’를 합성해 사명을 지은 ‘케이리패션’서 여성 의류를 만들어 바나나리퍼블릭, 폴로 등 미국 유명 브랜드에 납품하며 필리핀서 손꼽히는 성공한 한인 기업인이 됐다. 현재는 기존 ‘케이리패션’을 정리하고 마닐라 인근에 종업원 1천여명을 거느린 2년전 새로 설립한 의류회사 ‘LHK creation’ 대표로 있다.

사업 초기 자본 부족으로 어려움도 많았다. 신용장을 받느라 1주일 동안 은행을 드나들며 통사정을 해야했다. 때로는 납기를 맞추려고 열흘간 밤샘작업을 하고서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었다. 큰 위기도 두 번씩이나 겪었다. 잘나가던 회사가 노조원들의 불법파업으로 폐업신고를 하고 소송에 휘말렸다. 2008년부터 불어닥친 주 수출국인 미국 금융위기 여파로 주문이 줄면서 또 한번의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이 대표는 사업을 하면서 거짓말과 변명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거짓말과 변명은 일시적 위기는 모면할 수 있어도 잘못은 또 다른 잘못을 낳기에 결국 발목을 잡는다는 평소 비즈니스 철학 때문이었다.

이렇게 자신이 맨손으로 기업을 일군 것처럼 이제는 전쟁과 가난으로 얼룩진 민다나오에 희망을 전하는 전령사가 되려한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아프면 치료받아야 하고 배고프면 먹어야 하잖아요. 또 아이들은 일단 배워야 합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그들보다 조금 나은 위치에 있으니 도울 뿐입니다. 남을 돕기 위해서는 돈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열심히 벌으려고 노력했고 가치있게 마음 편히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아깝지 않게 썼고 앞으로도 죽을때까지 잘 회향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사실 이 대표의 봉사는 민다나오가 처음이 아니다. 이 대표는 민다나오를 알기 전인 1996년부터 필리핀 빈민을 돕는일에 앞장서 왔다. 피나투보 화산 재해를 입은 난민들을 비롯해 필리핀 대학 · 고교생에게 장학금도 주었다.

이렇게 보시행의 원을 세우고 이를 실천에 옮기며 사는 이 대표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행복론에 대해 들려 주었다. “행복이라는 것은 자신이 어떻게 느끼느냐의 문제입니다. 자꾸 불행할 요구 조건을 걸면 모든 것이 다 불행해집니다. 우리들이 행복하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런 행복한 마음을 갖는 것을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들에게 그 행복을 전파할 수 있으니까요. 민다나오 봉사 역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민다나오 지역 민들에게 내가 더 감사한 일이죠.”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전법일기

나눔공동체 선우, 비상 꿈꾸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많은 인연들을 만나고, 그 인연 속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고, 그 경험 속에서 보람있고, 즐거웠던 것들을 나누려고한다. 그 까닭은 나눔이 갖는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나눔을 통해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은 반이 된다는 것을 누구나 경험해서 알기 때문에 나눔의 가치는 고귀함 그 자체일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도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찾아볼 수 있다. 부처님의 고귀한 마음이라고 하면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비심’이라고 말씀들을 하신다. 왜 ‘자비심’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며, 가장 고귀한 마음일까?

‘사무량심(四無量心)’이라고 모두 들어봤을 것이다. 이 ‘사무량심’을 범어(산스크리트어)로는 ‘브라흐마비하라’, 한역으로는 ‘범주(梵住)’라고도 한다. 그 뜻은 ‘고귀한 곳에 머묾’이다. 즉 ‘가장 고귀한 곳에 머무는 네가지 마음’이라고 해석하셔도 좋고, ‘네가지의 마음으로 가장 고귀한 곳에 머묾’이라고 하셔도 좋다. 핵심은 바로 네가지의 마음인 ‘사무량심’은 가장 고귀하고, 가장 고귀한 사람이 쓰는 마음이며, 가장 고귀한 곳으로 이끌어주는 마음인 것이다.

우리 불자님들께서 가장 고귀하게 생각하는 부처님의 마음인 ‘자비심’이 바로 사무량심 가운데 ‘자(慈) 무량심’과 ‘비(悲) 무량심’이다. 여기에 ‘희(喜) 무량심’과 ‘사(捨) 무량심’을 합치면 자(慈) · 비(悲) · 희(喜) · 사(捨)의 ‘사무량심’이 된다.

자(慈)는 자애를, 비(悲)는 연민을, 희(喜)는 더불어 기뻐함을, 사(捨)는 내려놓음으로 평온과 평등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귀한 마음인 ‘사무량심’을 가지고 저는 ‘나눔명상(Sharing Meditation)’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이 프로그램을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학장이신 ‘종호 스님’과 박사과정 수료 이상의 제자들 모임에서 발표하고 수행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보았다. 그리고 나눔명상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불교방송(BBS)에서 ‘나눔명상’ 수행을, BTN에서 ‘나눔명상’에 대해 소개하게 되었다.

이로써 성불암에서 인연이 되어 그동안 함께 수행과 봉사를 해왔던 모임 ‘선우(禪友)’와 제자들의 모임인 ‘선우YB’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나눔명상’이 비로소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난 확신한다. 소중하지 않은 인연은 없다는 것을! 물론 내게 상처주고 아프게 하는 인연이 없었을리 만무하지만 이 인연 또한 매우 귀하다. 왜냐면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견디는 방법과 그 어떤 상처도 치유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상처를 주는 인연도 귀한데 내 곁에서 도와주고 함께 동행해주는 인연은 얼마나 귀하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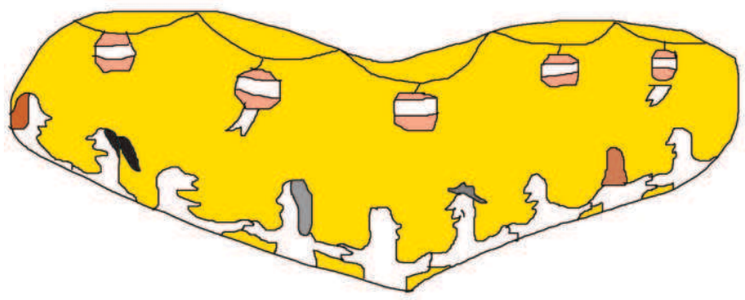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이처럼 귀한 인연이 바로 지금 내 곁에서 함께 해주고 있다. 바로 ‘선우’와 ‘선우YB’ 그리고 성불암을 찾아주시는 불자님들이시다. 귀한 인연이 되어 함께 해주시는 불자님들과 나는 지금 ‘나눔공동체 선우(禪友)’라는 법인을 준비중에 있다. ‘선우’와 ‘선우YB’가 주축이 되어 ‘사무량심’ 즉 ‘자비희사’라는 마음을 사회에 나누려고 하고 있다. 이 마음이 담겨 있는 수행이 바로 ‘나눔명상’이다.

‘나눔공동체 선우’는 ‘나눔명상’을 통해 소외되어 있고, 힘들어 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보며 나 역시도 저렇게 아파했었음을 이해하면서 보듬어 안고, 괴롭고 힘든 상황을 함께 벗어나며 누구나 평등한 가치 속에서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마음을 나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려 한다.

난 믿는다. 간절해지면 결국 이루어진다는 것을! 원효스님께서도 “믿음이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던가.



법찬 스님 (서울 성불암 주지)

한 가지 소원은 꼭 들어주시는



禪本寺

선본사 갓바위 부처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수행 정진하며
좋은 부처님 법을 따라 우리 이웃들에게 더 많이 전해주시고
내가 사는 사회 전체의 행복을 위해
가장 먼저 스스로 서원을 세우길 바랍니다

- 주지 성본 합장 -





기도 및 불사안내

● 2015년 부처님오신날 연등불사

법당등(유리광전,대웅전,삼성각,극락전) 동참금 10만원

도량등 동참금 5만원 길등 동참금 3만원

● 12지 석등불사 모연접수

● 경전불사 모연접수

대한불교조계종 직영사찰 선본사 갓바위

주소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갓바위로 699(대한리 587)

전화 053-851-1868~9

佛紀 2559年 乙未年 | 전면광고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 | A18

세 종류의 벗이 있으니, 이롭지 않은 것은 없애 주는 벗, 이로운 일은
만들어 주는 벗, 어려울 때는 버리지 않는 벗이라네. 〈불소행찬〉



현 대 불 교 조 계 종

종 정 **벽운**
부 종 정 **성주 혜원**

원 로 원 장 **효덕** 총 무 원 장 **동화** 교 육 원 장 **해인** 종 회 의 장 **성해**
포 교 원 장 **도선** 문화예술원장 **원욱** 비구니원장 **정철** 포교사단장 **원각**

총무원 임원, 각교구장, 종회의원 종도 명단

법성. 성문. 법진. 연담. 법연. 법인. 천봉. 고암 성광. 시광 보운. 고천. 광운. 해초. 해원. 흥덕. 고암. 농해. 상락. 해일. 자현. 혜선. 효정. 정혜. 화진. 고산. 성진. 혜광. 월산. 해광. 자행. 혜초. 자명. 명안. 자산. 수경. 성안. 도헌. 법인. 성수. 진광. 진각. 진국. 묵현. 현공. 우하. 현광. 도관. 종진. 삼관. 해성. 대산. 수암. 화림. 진오. 종진. 수월. 명호. 혜연. 정관. 승주. 도연. 연화. 자운. 미서경. 여의주. 보현행. 보리심. 수월화. 천수화. 천모성월 외 종도일동

본 종단 입종을 적극 환영합니다

■ 총무원 : 대전 동구 은어송로 86-100 보광사
■ 총무원장 주지 동화 : 010-8552-7108 / 전화 042)284-3929

맑고 향기롭게!! 불국정토 구현의 선도 교단!
지계청정 지관쌍수 화합대중

한국불교 원융교단
총본산 무문총림 영평사

증명대법주 **법원**

개산대법주 **마 정** 부대법주 **정 림**
본산중앙회 회장 **보 당** 부 회 장 **법 인**

사무총장 **석초오**

조계선림 제1본산 법주 **혜조** 조계선림 제2본산 법주 **보당** 조계선림 제3본산 법주 **법인**
조동선림 본 산 법주 **정림** 임제선림 본 산 법주 **원돈** 정토선림 본 산 법주 **법천**
화엄선림 본 산 법주 **금화**

금오선원 원장 **석장현** 용봉학림 강주 **석혜조** 영산율원 율주 **석혜안** 행자교육원 원장 **석대허**

〈사찰등록 입종등록 받습니다〉

■교단 : 서울 중랑구 망우3동 120-7 / 전화 02)496-3952~3 / FAX 02)496-3951
■총림 :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 산44 / 전화 031)676-3960 / FAX 031)676-2960

(사) 대한불교종단진흥총연합회

총 재 **혜 정** (사단법인 대한불교일승종 종정)
부 총 재 **혜 안** (대한불교무량종 종정)
무 송 (사단법인 대한불교화엄선종 종정)
우 담 (중앙불교조계종 종정)
회 장 **송 산** (사단법인 대한불교해동종 총무원장)
부 회 장 **정 림** (사단법인 수미산문조동정종 총무원장)
마 정 (임제선학원종무총리)
사무총장 **법 봉** (사단법인 대한불교승가종 前총무원장)

이 사 **법 인** ((사)대승불교육조조계종 총무원장)
향 운 (대한불교법보조계종 종정대행)
법 천 (대한불교정토조계종 총무원장)
법 성 (국제불교선덕종 총무원장)
일 초 (사)대한불교삼계종 총무원장)
대 명 ((사)대민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무 각 (대한불교통일조계종 총무원장)
정 일 (한국불교근본해동종 총무원장)
대 일 (대한불교법륜종 총무원장)

■ 총무원 : 경기도 안산시 보개면 신장길 79-42
전화 : 031)675-0307, 676-3960 / 회장 핸드폰 010-8930-1578

해동불교 임제조계종

총무원장 **혜륜 동진**

종 회 의 장 **벽 송**
장 로 의 장 **진 성**
호 법 원 장 **벽 안**
교 육 원 장 **법 산**
감사(찰)원장 **벽 송**
문 화 원 장 **자 원**
포 교 원 장 **종 문**
전국비구니회장 **무 운**

대외협력원장 **보 현**
총 무 부 장 **벽 산**
감사(찰)부장 **일 현**
재 무 부 장 **약왕보살**
사 서 실 장 **상 범**

서울교구원장 **보 현**
울산교구원장 **혜 운**
경북교구원장 **현 담**
경남교구원장 **명 각**
강원교구원장 **원 광**
광주교구원장 **정 인**
부산교구원장 **지 익**
충북교구원장 **무 운**
충남교구원장 **봉 정**
대전교구원장 **천 장**

종 도 일 동

해동불교임제조계종 총본산 극락사

■ 경남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172-1번지 / 전화 055)855-0191

佛紀 2559年 乙未年 Buddha's birthday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

(사) 대한불교 율사조계종

종정대행 **청송 청파** 고문 **법성 혜암**
총무원장

감찰원장 **동일 학봉**
문화원장 **원효 동암**
교육원장 **백천 동담**
포교원장 **혜각 동성**
사회원장 **덕진 도광**
복지원장 **무관 도원**
사서실장 **동판**

기획실장 **영산 동우**
총무부장 **선법 태산**

부산교구 **동암 원효**
충남교구 **도진**
경남교구 **대비**
경기교구 **덕진 도광**

종회의장 **대공 동곡**
종회부의장 **도진 동영**
종 회 의 원 일동

종도입종을 환영합니다

제출서류 : 등본3통, 사진(3×4)3장, 이력서3통

■ 총무원 : 경남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459-2번지 시례마을
전화 055)336-0108, 323-0108 / 핸드폰 011-595-6522 / 010-8939-6522

사단법인 한국불교연화조계종

종 정 **운허당 연화 대종사**

원로원장 **무여당 정각 대종사**
총무원장 **무불당 도심 대종사**

종 도 일 동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하북면 용연리 659 숲골2길 37 대인사
전화 055)375-2076 팩스 055)375-8808

佛紀 2559年 乙未年 | 전면광고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 | A19

은혜로운 마음으로 재물을 덜어 널리 베풀어도 한 순간도 미련을 남겨 후회하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벗을 만나 피안에 이르러 즐거우리라. 〈증일아함경〉



(사) 대 선 불 교 조 계 종

초대종정 **범왕 동산 대종사**

승정원장 **적연 운암** 총무원장 **현묵 혜승** 교육원장 **적공 현덕**
비구니회장 **법희**

재무부장 **보각** 감사부장 **용산 일원** 총무부장 **도응**
규정부장 **혜동** 사회부장 **영각** 문화부장 **법성**

부처님의 혜명을 이어나갈 대덕큰스님,
법사님들을 입종을 환영합니다

■ 총무원 : 대구 남구 봉덕동 531-1 기원정사 / 전화 : 053)472-7006, 7005

사단법인 대한불교 금강조계종

종 정 **법호 서호**
부종정 **법두 수암**
승정원장 **법상 심곡**
원로원장 **법두 수암**
총무원장 **법웅 정관**

포교원장 **법봉** 교육원장 **해진**
문화원장 **법경 월명** 복지원장 **법수 청운**
기획실장 **진명** 총무부장 **원도** 총무국장 **무경**
사회부장 **정광** 사회국장 **월행** 교육부장 **심공**

부산교구종무원장 **원도** 경남동부종무원장 **법경** 경남서부종무원장 **진명**

사단법인 대한불교금강조계종에 입종하실 종도님을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총무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총본산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조산리 237 성불사 / 총무원 : 경남 창녕군 창녕읍 조산리 237
■ 전 화 : 055)532-4414 / 팩스 055)532-4413, 010-3507-2837

公益法人 大韓佛教 華嚴宗

總務院長 **華 應**
中央宗會議長 **大 烋**
宗務處長 **梁威燦**

大本山 **藥 師 寺**
(약사추모관운영)
신 도 일 동

仁 川 佛 教 新 聞
發行人 **華 應**

財團法人 **華 嚴 僧 伽 奬 學 財 團**
公益法人 **大 韓 佛 教 華 嚴 宗 奬 學 會**
理事長 **韓 相 湖 (華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풀무로 48(간석동 12-3) TEL 032)429-4441 / FAX 032)429-4445
■ 서울사무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5길 32-5(청진동 삼선빌딩 406호)
TEL 02)730-0798 / FAX 02)730-0799

(사)임제불교조계종

종 정 **적진 지암**
부종정 **석혜안. 석자은**

원 로 원 장 **석진도** 원로위원 **석지언. 석법성**
비구니회장 **적공. 자은** 종회의장 **지훈**

총무부원장 **제현** 포 교 원 장 **행화** 문 화 원 장 **지공**
복 지 원 장 **보원** 사 회 원 장 **경오** 조 직 원 장 **묘화**

서울종무원장 **재현** 경기종무원장 **보국** 경북종무원장 **법인**
인천종무원장 **적심** 전북종무원장 **법공** 경남종무원장 **자공**
부산종무원장 **혜주** 전남종무원장 **혜관** 충북종무원장 **보진**
광주종무원장 **범산** 충남종무원장 **보공**

전국신도회총회장 **나용수(원만)**
지 역 신 도 회 장 **장순자(극락화)** 문화사회복지원장 **박봉근(해산)**
지역신도부회장 **김정순(묘연화)** 건 설 사 회 원 장 **김동만(성덕)**
지 역 신 도 총 무 **김도연(덕화행)**

■ 총본산 : 전남 여수시 돌산읍 강남1길 26번지 청암사
전화 061)644-7273, 010-3807-8428

사단법인 한국불교 선조계종

종 정 **지선**
총무원장 **법성**

종도 일동

■ 총본산 : 대구 북구 작원길9(팔달동) 성불사 / 전화 053)322-0567, 010-6537-0567



사단법인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종 정 **법 운**

제 9기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5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라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비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 강 ■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 초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 9길 28(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TEL 054) 974-2605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佛紀 2559年 乙未年 | 전면광고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 | A20

지혜로운 사람은 나쁜 말을 버리고 바른말을 항상 즐기어 쓰나니 그러한
아름다운 말을 쓰는 사람은 곧 열반을 얻으리라. 〈정법염처경〉



社團法人 대한불교 대원종
社團法人 정통불교 조계종

종 정 정허당 신풍 총무원장 비상 대광

원로원장 정봉 부원장 청량 범왕
원로위원 법교 대경 지성 대원
연수원장 민재 부원장 범수
감찰원장 청량 범왕 부원장 법조
포교원장 도암 부원장 원효
호법원장 법경 부원장 대원
불교예술원원장 소연 부원장 도이
비구니회장 대광 사무처장 성원 종정사서실장 법수
대원신풍불교(승가)대학학장 신풍 부 학 장 민재 대광

총무부장 혜조 규정부장 혜정 교육부장 정법
재무부장 도하 사회부장 성화 홍보부장 우연
기획실장 대각

부산교구종무원장 민재 전남교구종무원장 법정
경남동부교구종무원장 도각 강원교구종무원장 각오
충남교구종무원장 대오 경남서부교구부원장 경득
대원종법사단장 수안 신풍사신도회회장 이정민(청암)
대원종신도회회장 신우연 대원종전국신도회총무 김임숙



▸신규사암 등록하실 스님 항상 환영합니다. 행자승 모집합니다.
역학(철학, 사주관상, 성명학, 풍수지리)
대원승가(불교)대학 및 불교의식 교육생 모집합니다.
▸지역교구 종무원장 하실 스님 초빙 환영합니다.
▸역학 철학 풍수지리 속성 개인지도.
▸신규사찰 등록 환영 사찰이나 포교당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 총무원 : 경남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 994 대한불교 대원종 총무원 신풍사 종정 정허 신풍
총무원 055)346-2908 / 무료전화 080-3030-5959 / 팩스 055)346-2909 / 큰스님 直 010-8548-8608
휴대폰 011-869-8608 / 대한불교 대원종 홈페이지 DW108.com / E메일 asp8990@naver.com

※본 종단은 승려증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승려제명 및 종단에서 발행한 제반증서 무효처리(폐기소각처리)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보 현 사서실장 청묵

종회의장 용주 포교원장 지웅 교 육 원 장 석천
호계위원장 대화
호법국장 경오 사무총장 청호 비구니회장 혜양
총무부장 대명

경기종무원장 성문 부산종무원장 해강 대구종무원장 효상
강원종무원장 혜성 경남종무원장 청강

재단법인 한국불교 중흥교원 한국불교 조계종
총무원 : 인천광역시 계양구 오류동 155-2번지 불광사 010-8524-8080

(사) 한국불교 법안조계종

2세 3대 종정 운경당 선응 대종사
총무원장 원 광

종회의장 법장 호법원장 승선 승정원장 영암 승정부원장 성암
교육원장 도문 포교원장 광월 승 정 원 대현 승법 본자 법안
총무부원장 법신 비구니원 설운 효상 용주 원진
총무부장겸 재무부장 성진

각 교구 및 전 종도 일동

종도모집 안내

■ 입종서류
- 입종 등록 신청서 1부 (총무원 비치)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 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사진(반명함판) 4장

■ 총무원 :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로 33 금룡사 / 전화 031)-333-2088. 010-3776-5015(총무원장 직통)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석가탄신일을 봉축합니다.
부처님탄생지 네팔룸비니에서 세계불교문화올림픽을 개최한 종단이며 현재 천재지변으로 고통받고 있는 네팔 라마스님들을 돕도자 하오니 각 사찰에서 구호의 손길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명예종정 일파당 각암대종사
대 종 정 고봉당 지산대종사
종 정 혜강당 능인대종사
총무원장 대웅당 혜송

문도회장 혜천 원로의장 범아 종회의장 법장 법계고시위원장 혜암
승정원장 덕암 사정원장 두현 승가대학장 지우 중앙선원장 혜광
교육원장 무아 포교원장 효천 율원원장 도안
호계원장 용진 염불원장 상호 문화원장 영봉
사서실장 청아 총무부장 인연 비구니부장 홍신 재무부장 수연 교육부장 법연
호법부장 광명 사회부장 도법 규정부장 도신 문화부장 연제

경기교구종무원장 인덕 인천교구종무원장 진각 경남교구종무원장 무척
충북교구종무원장 길상 충남교구종무원장 지원 대구교구종무원장 법천
경북교구종무원장 원각 부산교구종무원장 심공 울산교구종무원장 무정

종도모집중 현 종도 425명. 등록사찰수 389개 사찰

■ 총본산 :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로5길 197번지 각황사 053)325-0400 팩스 053)325-4848
■ 대본산 :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1040번지 도선사

사)세계불교조계종

종정 총무원장 권한대행 보 성 자 현

종회의장 덕 산

포교원장 정각 교육원장 혜명 감찰원장 원광
총무부장 법광 조직부장 성운 사회부장 도애
문화부장 인봉 비구니회 회장 혜성 규정부장 보현

종 도 일 동

■ 총무원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국로 777번기 29(주교동) 031)962-5237

대한불교 선종

종 정 효 담
총무원장 정 관

재무부장 행 우 포교부장 효 은 사회부장 인 호
홍보부장 행 수 호계부장 심 인 감 사 무 구

경주교구 중앙종회의원
종회의장 무초
의 원 용현 무구 행우 효은 심인 행수

포항교구 중앙종회의원
의 원 혜문 일우 일웅

울산교구 중앙종회의원
의 원 무초 행삼

직할교구 중앙종회의원
의 원 인호 효웅

영천포교원 중앙종회의원
의 원 법인성

경주교구임원
종무원장 용현
교육국장 법운
재무·사회국장 행수

포항교구임원
종무원장 혜문
재무국장 일웅
사회국장 행화

울산교구임원

영천포교원
포교원장 법인성

■ 총무원 : 경상북도 경주시 동방동 831-99번지 / 054)701-0505

佛紀 2559年 乙未年 Buddha's birthday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

총재 **각성** / 회장 **무산** / 전국지부종단관리위원장 **무공** / 대외협력위원장 **성철**

한국불교조계종총무원 총무원장 대봉
금강불교조계종 이사장 활안
무궁화무한월드 회장 애무린
대한불교무량종 종정 혜안
일관도광명문화재단 이사장 광명
대한불교조계미륵선종 총무원장 설송
생활불교범행종 총무원장 지광
대한불교금륜조계종 종정 청해
대한불교승가회 총재 무공
환국불교조계종 종정 아산
한국거창배왕석예술문화연구원 위원장 석호
마애삼존불상무량정토성지순례봉찬회 회장
우리불교우리절용암산미륵사 총무원장 청송
고려대장경진흥원유지재단 이사장 장수
대한신불교현아 종정 일강
대한불교단체총연합회국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성철
한국불교조계종 종정 정암
대한불교조계선종 이사장 지암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서울지부지회장 청산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부산지부지회장 구암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대구지부지회장 지영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인천지부지회장 석수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광주지부지회장 만봉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대전지부지회장 태대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울산지부지회장 월정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강원지부지회장 월광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경기남부지부지회장 일오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경기북부지부지회장 광명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경남지부지회장 청광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경북지부지회장 설송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전남지부지회장 동화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제주지부지회장 경흥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충남지부지회장 정섭
대한민국전통민속문화예술협회 강원지부지회 장병대
한국불교약불조계종 종정 불광
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인
대한불교대선종 총무원장 대봉
법사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해동
달마선원예술문화진흥원유지재단 이사장 청광
대한불교신인종 종정 보인
대한불교천우종 총무원장 지암
환단도 이사장 태대
한국불교천신종 종정 정암
백산소도삼신문화재단중앙본부 이사장 일광
전통사찰조계종 총무원장 진상
해동불교임제조계종 총무원장 동진
대한불교해탈종문화재단 종정 대광
환국불교환인종 종정 아산
대한불교마야종 종정 정암
대한불교위앙종 종정 위산
정토불교조계종 종정 일오
한국종교무교천왕종 종정 송월
한국도교본산수성궁 회장 금란
세계불교달마조계종 종정 태일
대한불교호국조계종 종정 무량수
대민불교조계종 종정 일공
국제대성황문화재단 이사장 환인
대한불교구생종 총무원장 원당
한국불교조계종종단연합회중앙본부문화재단 이사장 월정
진언불교 종정 도성
법행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광
대불교조계종 종정 청해
한국불교교조계종 총무원장 법천
대한불교승정원문화재단 원장 현각
한국호국불교조계종 종정 혜륜
금산문화재단 이사장 길주
대한불교유마종 총무원장 무허
한국생활불교보림종 총무원장 운장
천지신명봉양회 회장 성덕
대한불교종단단체사암총연합회 회장 도광
한국무교총본산 회장 일강
한정연무교총연합회 회장 일광
무궁화어머니재단 회장 뮤린
한국고건축진흥원예술문화재단 회장 광선
한국불교조계교종 종정 법성
대한선불종 종정 명조
대원불교유심종 종정 법일
한국범종교단체연합회 종정 청산
지역복지교정협의회 종정 인산
대한불교달마선종 종정 현광
대한불교의성종 종정 의성
대한불교해탈종총본산소원사문화재단 회장 동환
대한불교태선종연합 종정 태선
한국불교동방조계종 총무원장 법성
대선불교조계종 종정 동산
세계불교약사종 종정 인산
대한불교전법조계종 총무원장 일웅
한국불교원각종 종정 혜철
월드불교법왕청 종정 청암
대한불교가야조계종 종정 혜산
대한불교팔만종 종정 운월
대한불교연화종 종정 동원
대각불교조계종 종정 혜남
용화세계미륵종 종정 월단
대한불교불광종 종정 청원
법왕불교조계종 종정 보문
세계불교지장선원종 종정 혜봉
사회복지재단황손보살의집 원장 지영
해탈불교조계종 종정 대광
박정희육영수추모제례진흥회재단 회장 대광
법천불교종단연합회 회장 법천
해동불교화엄종 총무원장 영관
대한불교약사법사종 총무원장 약산
한국불교원효종 종정 법민
대한불교구화종 종정 구화
세계불교승가회 회장 원당
동도해인대법국미륵진법강원 회장 해인
목멱사랑회 회장 재연
중앙불교조계종 종정 우담
한국고건축예술문화진흥원 회장 태인
대한불교대각종 종정 만청
선법륜종 총무원장 월암
대안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월
현대불교미륵종 총무원장 원공
세계불교화엄종 종정 월담
대원불교조계종 종정
한국불교내외종 종정 청담
대한불교관음성종 총무원장 관행
미타불교조계종 종정 월산
대한불교조계종봉정선원 총무원장 법기
한국전통불교천부종 총무원장 서광
한국불교미타종 이사장 원상
대한불교금강여래종 총무원장 연화
법신불교정법종 총무원장 법통
대한불교반야종 총무원장 지법
대각교단대한불교현수종 총무원장 금화
정통불교조계종 종정 신풍
한국불교현조계종 총무원장 도현
대한불교법인종 종정 만오
대한불교선조계종 종정 기복
세계선불교조동종 총무원장 공산
대한불교약사여래종 총무원장 법환
대한불교천왕종 총무원장 해인
임제불교조계종 종정 지암
대한호국불교소림선종 총무원장 연화
세계불교종단연합회 회장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현불
선종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명
대한불교반야수교원 총무원장 월성
천지대학일월용봉신선도문화재단 이사장 선학
세계불교대각종 종정 보각
한국선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현
삼신신앙봉천재단 재단장 진순
참좋은인연문화재단 이사장 밀허
한국불교천불종 총무원장 혜담
통일불교조계종 종정 벽암
한국불교나한종 종정 대보
한국불교법인선원덕선사 이사장 도운
세계평화불교연맹 이사장 혜승
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선
한국생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도선
한국불교승가종단연합회 회장 지암
현대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동화
임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암
대한불교연합조계종 총무원장 혜일
대한불교신조계종 총무원장 금당
해동대한불광종 종정 법경
한국불교청동불상예술연구원 원장 청담
대한불교임제선원문화재단 주지 법현
대한불교조계종금강회 주지 청광
대중불교조계종문화재단 종정 향덕
세계불교국제연맹재단조계종 총무원장 향덕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총무원장 원광
대한불교일월여래종 원장 해월
대한불교원조계종 총무원장 만오
세계평화재단법황청 총무원장 태산
한국전통범종연구소 소장 광식
대한불교밀인수증회 주지 덕천
한국불교미술원보응문도회 사장 규진
한국불교환인종 종정 정안
대한불교전국비구니진흥회 이사장 일경
세계불교만불종 종정 일월
세계불교세심종 총무원장 범행
대불조계종 총무원장 대명
대한불교대각조계종 총무원장 부건
한국전통불교천불종 총무원장 만봉
대한불교여래종 종정 혜담
한국법화종 종정 법천
대한불교가야법사종 종정 혜법
대한불교일월조계종 총무원장 장원
동방선도총본산 도령 이지영
용화사월대도 도주 용화
해동불교금강종 총무원장 해원
대한불교법운종 종정 지암
대한불교연지조계종 종정 황봉
한국불교종단단체협의회 회장 성철
한국도교삼청관문화재단 도장 대도
세계불교승가회한국본 회장 보각
대한불교본조계종 총무원장 불광
천지불교태극종 종정 법성
대한불교통합조계종 총무원장 해봉
한국불교금강종 총무원장 진공
대한불교조계종국제승가총연맹 종정 혜산
대한불교용산조계종 종정 철산
한국불교화엄지장종 총무원장 영암
반야의세계진법불교조계종신선등지문화복지재단 종정 진표
대한대승불교조계종 종정 성범
석가불교조계종 종정 대각
대한호국무불천지종 종정 청산
유신불교조계종 종정 금강
대한불교조계종통합불교연합 이사장 영월
환국신앙천신교 종정 법안
세계불교법황청 종정 법열
대한불교염불종 종정 벽암
세계불교선종 총무원장 무상
정법대승불교조계종 종정 고림
한국불교조견종 총무원장 성문
대한불교법인통합조계종 총무원장 지현
조선불교조계종 종정 중천
한국전통민속문화협회강원도교구 교구장 만오
대한용화불교칠성산신종 총무원장 천공
대성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현
대한불교보현종 총무원장 영사
세계불교법사종 종정 청하
21세기디지털불교미륵대도 종정 흑성산
대한불교태고종 총무원장 현송고림
대한불교승가조계종사회복지협력봉사단 총무원장 월암
사회복지법인대한불교단체총연합회복지재단 이사장 도광
대한불교대조계종 총무원장 대공법해
대현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청각
불대한불교조계종 종정 운봉
대한불교법음종 종정 청암
세계불교조계종 종정 자현
생사참사랑실천회(웰다잉) 회장 보성
한국고미술문화재진흥협회 회장 무산
문화예술불자연예인협회 위원장 운봉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 회장 각성
대성불교조계종 총무원장 거목
실천생활불교진흥원 원장 경산
대한불교불조계종 총무원장 혜암
대한불교서각종 총무원장 법운
강원율사율원승가교육원 원장 월성
대한불교조계종승가회 회장 경보
포항시불교사암승가연합회 회장 법진
대한불교연화조계종 총무원장 일경
한국불교염불선종 총무원장 영운
사회복지법인대한불교보현종영사복지재단 원장 영사
한국전통문화총연합회충남교구 교구장 태극
한국전통문화총연합회강원도교구 교구장 신명
대한불교유가종 총무원장 법륜
대한불교원각회보리원 원장 각화
대한불교반야선종 총무원장 도우
한국대중불교불이종 총무원장 도원
한국불교선조계종 총무원장 법성
마하야나불교조계종 회장 청송
한국전통승복양공진흥회 회장 여래심
대한불교연화종용남사 주지 법성
한국불교태극조계종 총무원장 해도
대한불교용화조계종 종정 능견
자비실천운동본부 총무원장 해광
종단세계선불교 종정 안심
대한불교국제중도선 종정 동천
대승불교삼론종 종정 석봉
한국불교효예종 총무원장 법진
한국불교성지종 종정 원담
한국불교성지종 총무원장 금당
마하야나승가조계종 총정 청송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원봉
문무대왕대제보존진흥협회 회장 운담
중생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성문
대연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연
대한불교해인삼보종 총무원장 해인
법신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무허
화쟁교단분황종 종정 현불
한국불교염불선종 총무원장 영운
대한불교근본조계종 총무원장 성공
홍지문화재단 원장 홍지
사회복지법인산촌마을사람들복지재단 이사장 인봉동인
한국불교의식문화교육진흥협회 총무원장 일관
국제고미술교류진흥협회 회장 성철
대한불교삼계조계종 총무원장 해공
대한불교일붕조계종 총무원장 진공
한국불교선화종 총무원장 법산호원
육영수생가보존회등육영수여사탄신숭모제례보존회 대표 법성동방
국제불교조계종직할제1교구본사청일사 총무원 장성철
한국불교대각종 총무원장 대각
국제불교금륜종 총무원장 청광
한국불교금륜종 총무원장 청광
한국고미술국제진흥원 이사장 도현
대한불교선화조계종 총무원장 혜원
사회복지법인세계불교복지재단자비원 원장 강현자
지장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지공
한국불교조계종사회복지실천자비원 원장 명진
대한불교승가문화예술진흥회 회장 현불
대한불교칠불종 총무원장 혜선
대한불교천불종 총무원장 지선
대한불교조계종금강회원응사 회장 진해
대한불교칠여래종 총무원장 진성
대한불교묘법연화종 총무원장 만오
사회복지법인대한불교전국불자총연합회태승사복지재단 재단장 혜원
대한신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연운
한국불교조계종총본산태승사 총무원장 혜원
행복세상만들기운동본부 본부장 혜봉
세계불교선불종 총무원장 무상
한·중고미술국제진흥원 원장 도현
사회복지법인수암사마야복지재단 총무원장 운산
한국불교전법조계종 총무원장 도현
한국전통민족불교소원사 총무원장 해원
자비실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보륜
대한불교대원종 종정 신풍
한국불교천불종 총무원장 무진

"중생정재의 합리적 관리와 통합불교의 일불제자 구현"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연합회

우 110-858 /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909호
전화 : (02)2198-5022 (代), 2198-5023~4 팩스 : (02)2198-5025 H.P : 010-4167-3666 E-mail : jonggyo119@hanmail.net http://kntga.or.kr

"생전예수재, 무형문화재로 가치 충분"

한국정토학회, 조계사와 '무형문화유산으로의 생전예수재' 학술대회

"봄에 뿌린 한 알의 씨앗은 가을에 가서 천만 개의 씨를 맺는다. 예수재를 지낸 공덕 또한 이와 같으니라." 〈불설관정수원왕생시방정토경〉

수륙재, 영산재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불교의례인 생전예수재(生前豫修齋)에 대해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열렸다. 생전예수재란 '생전에 미리(豫) 닦는(修) 재(齋)' 의식으로, 죽은 뒤에 실천할 불사를 살아 있을 때 미리 닦아 사후 명복을 빌기 위한 불교 의식이다.

서울 조계사(주지 원명)와 한국정토학회(회장 신규탁)는 5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생전예수재'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먼저 현재 문화재위원이기도 한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은 기조강연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생전예수재의 가치를 강조했다. 스님은 특히 생전예수재가 수륙재나 영산재와는 다른 독창적인 특징이 있음을 역설했다.

보광 스님은 "생전예수재는 다른 의례와 비교할 때, 실행의 기간이 길고, 본인이 직접 재를 주관하는 수행 중심 의례"라며 "49일간 참회하고 7일마다 한 번씩 참여해야 하는 웰다잉 의례"라고 밝혔다. 스님은 이어 "수륙재나 영산재와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한 차별과 특색이 있기에 독립된 무형문화재로 가치가 충분하며, 더 이상 원형이 변형되기 전에 문화재로 지정해 보존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홍윤식 교수도 '예수재의 의례와 그 의미'의 기조강연에서 "예수재는 사후에 심판을 받게 되는 불교만의 생사관인 시왕사상이 반영된 의례"라며 이에 대한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함을 강조했다.

이성운 동국대 겸임교수는 '한국불교 생전예수재의 특성'에서 "10세기 경부터 시왕사상에 입각한 사후 칠칠재나 명부 시왕에 권공하여 명복을 비는 신앙이 발달했다. 현재 생전예수재가 일상 예수로 의미가 축소되었지만,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영산재와 수륙재 등 종합의례들이 재정리되고 신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현행 생전예수재의 설행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불찬범음연구소장 혜일 스님은 '생전예수재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에서 "현재 생전예수재는 조선시대 거행된 절차에 비해 축소돼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설행목적과 무관하게 본질을 벗어난 재의식이 진행될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따라서 전통의 바른 전승을 위해서는 절차만이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전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현행 생전예수재는 전생의 빚을 갚는 목적보다 상세선망 부모님과 인연 있는 망자를 청해 공양을 베푸는 천도재 같은 역할로 전환되고 있다"며 "명부시왕전에 바칠 금은전과 수, 생전 수 만큼 위패를 모시고 있으며, 설행 시간 가운데 절반 이상





5월 9일 세미나에 앞서 열린 생전예수재 시연 모습(사진 위)과 이날 발표를 통해 문화재 지정 가능성을 밝힌 문화재위원 보광 스님(사진 아래 오른쪽).

망자를 청하고 모시는 시련(侍輦), 대령(對靈)과 목욕시키는 관욕(灌浴) 그리고 공양을 베푸는 시식(施食)에 할애하고 있다. 이런 점이 전통에 맞게 다시 제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학술세미나에서는 조계종 의례위원장 인묵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의 생전예수재 '화청' 시연도 진행됐다.

정토학회장 신규탁 교수는 인사말에서 "한국인의 문화 속에 긴 세월 동안 역할을 해온 생전예수재는 우리의 중요한 문화재 중 하나"라며 "특히 죽음을 준비하는 한국인의 생사관이 반영돼있다"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은 "생전예수재는 부처님의 수행과 나눔의 의미를 실천하는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보살도 정신을 잘 계승한 것"이라며 "생전예수재가 지금 불교계에 전할 수 있는 메시지를 발굴하고 이를 현대에 맞게 보급 전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불교 대중화 길, 영화 속에"

정재형 동국대 교수, '영화와 불교의 만남' 학술세미나서

"불교는 불교영화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을 버리고, 다양한 영화 장르 속에 불교사상을 담아내는데 집중해야 한다.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하는 계기를 제공해야 한다."

최근 인터스텔라를 비롯해 많은 영화가 불교적 내용을 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그동안 불교영화라는 범주를 넓혀 불교사상을 영화 속에 반영하는데 불교계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방문화대학원대 불교문예연구소(소장 차차석)는 5월 12일 동방대에서 '영화와 불교의 만남' 주제 학술세미나를 열고 영화 속 불교적 세계관에 대해 고찰했다.

이날 정재형 동국대 영화영상학과 교수는 '불교와 영화,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는 주제 발표를 통해 불교가 대중성을 가미하는데 영화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화두를 던졌다.

정 교수는 먼저 '달마야 놀자'를 비롯한 대중영화를 언급하며 "불교영화를 불교를 소재로 한 영화로 한정짓지 말고, 적극적인 해석으로 불교영화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 불교사상을 영화적으로 녹여내는 기법이 부족하다. 사실 영화는 가장 불교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가 예로 든 '달마야놀자'는 조직폭력배들이 사찰로 피신하며 겪게되는 내용을 담은 코미디 영화다.

정 교수는 "스님이 벌칙으로 깨진 빈 독에 물붓기를 시키고 이에 주인공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욕망추구에 대한 불교의 해답을 의미한다"며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영화 속에 불교 사상을 담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재형 동국대 교수(사진 가운데)는 5월 12일 열린 세미나에서 불교영화의 지평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교수는 "최근 외국영화에 나오는 다양한 내용도 불교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불교적으로 보는 사고를 확장시켜야 한다"며 "기독교 영화로 알려진 〈사랑과 영혼〉의 '인과응보' 등은 불교적 해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윤광봉 히로시마대학교 명예교수도 "불교적 분위기를 위한 촬영기법이나 편집, 무대장치, 음향, 연기와 배역을 어떻게 연출하느냐에 따라 불교영화 내지는 불교적 영화는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권 교수는 "두 작품은 공통적으로 영화 속에서 불교를 모티브로 한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다"며 "전통적인 불교영화지만 그 내부에는 대승불교와 소승불교 각각의 특징이 있다. 전통적으로 불교영화라고 평가받는 영화들 또한 이러한 사상적 배경을 세분화해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차차석 불교문예연구소 소장은 대중과 함께 소통한다는 점에서 영화와 불교는 같은 방향성을 지닌다고 평가했다.

차 소장은 "불교가 지향해야할 방향은 대중성이며 이는 영화 속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율장연구회, '십선계와 보살계' 의미 고찰

조계종 계단위원회 산하 율장연구회(회장 무관)는 5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십선계와 보살계'를 주제로 제3회 계율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영축총림 통도사 율주 혜남 스님은 '십선계와 보살계'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삼업(三業)을 다스리기 위한 십선계의 의미에 대해 고찰했다.

혜남 스님은 "테라바다 계통의 계율은 승단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시는 그러한 행동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계율을 제정해 가르치는 계로서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가르친다"며 "하지만 보살계는 근본계로서 범계한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려서 제정한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성불하시고 최초에 이 계를 결정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십선계는 우리들의 몸가짐과 말씨, 마음가짐을 바르게 갖도록 가르치는데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며 "테라바다 계통의 계와 대승계의 중간에서 삼업을 골고루 다스림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사硏, 〈한국불교사연구〉 6호 발간

한국불교사연구소(소장 고영섭)는 최근 '한국불교사연구' 제6호를 펴냈다.

이번 호에는 '임란 호란 전후의 불교상과 사회상' 기획논문으로 △이정철 국학진흥원 교수의 '광해군 대 경기선혜법 성립과 확대 요구' △오경후 선리연구원 연구원의 '광해군 · 인조 연간 승역(僧役)의 실제' △원영상 원광대 교수의 '선조왕손 일연상인에 대한 연구' △고영섭 동국대 교수의 '조선후기 고승의 비석 건립과 문집 간행' 등이 실렸다.

'분황 원효와 동아시아 유교사상가의 만남'을 주제로 한 특집논문으로는 △이유진 동국대 외래교수의 '분황 원효와 회암 주희' △최재목 영남대 철학과 교수의 '원효와 왕양명의 사상적 문제의식과 그 유사성' △고영섭 동국대 교수의 '분황 원효와 퇴계 이황의 만남과 대화' △김경호 전남대 HK교수의 '율곡 이이의 불교적 사유방식' △방인 경북대 철학과 교수의 '원효와 다산의 철학사상 비교' 등이 실렸다.

노덕현 기자

〈중국불교판화전집〉에 한국판화 100점 실려

고판화박물관(관장 한선학)은 5월 13일 베이징 고궁박물원 도서관장이며 중국 판화의 권위자인 웡리엔시(翁連溪)가 주편한 〈중국불교판화전집〉에 원주 명주사 고판화박물관이 소장한 중국판화 100여점이 수록됐다.

이에 수록된 소장품으로는 명나라 헌종(憲宗) 성화(成化) 13년(1477) 판각 불정심다라니경(佛頂心陀羅尼經)과 청나라 때 판각한 대세지보살판화가 있다.

한편, 이 전집은 중국국가출판기금을 바탕으로 10년간의 편집기간을 거쳐 만든 대작으로, 크기가 가로 27.0, 세로 37.5



㎝인 대형이다. 전집은 한화 2천만원에 육박하는 고판화 사상 중국 역대 최대 규모의 출판으로 꼽힌다.

노덕현 기자

천태종 70주년 기념 한중일 천태수행 조명

천태불교문화연구원은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개산 70주년을 기념해 6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단양 구인사 광명전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 · 중 · 일 3국 천태종 총본산의 개산(開山)과 수행종풍'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쉬스치 중국 국청사 천태종불학원 교수의 '천태산 국청사와 천태지자대사' △구와다니 유겐 일본 예산학원 학감의 '히에이잔(比叡山) 엔랴쿠지(延曆寺)와 사이초대사(最澄大師)' △권기종 동국대 명예교수의 '소백산 구인사와 상월원각대조사' △장펑레이 중국인민대 불교와종교학이론연구소 소장의 '고려 의통(義通)과 송초(宋初) 천태종의 중흥' △다케가쿠포 일본 연력사 말사 구법사 주지의 '엔랴쿠지(延曆寺)의 수행과 문화' △인천 황룡사 주지 세운 스님의 '구인사의 수행 종풍과 문화' 등이 발표된다.

(02)3460-5226~8

노덕현 기자

[사단법인 등기번호 234121-0001373]

총본산 인터넷 주소 : www.dwbk.net

사단법인 대원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석가여래정법안장 제 77세
정산 석청봉 대종사





◈ 입 종 안 내 ◈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 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총본산 : 경남 양산시 주진동 656번지 불광사 총무원장(직) 010-3565-2462 혜오 원장 스님
  총 무 원 070-4187-4747
  종정예경실 055)364-4747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계좌번호 : 농협 351-0227-1551-63
예금주 : (사) 대원불교 조계종

종 정 정산 석청봉 (종정실 예경실장 : 석무량 / 종정실 사서실장 : 석달오)
(사) 아시아 태평양전쟁 희생자 대한추모회. 총재 /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상임위원장

원로의회
최고고문 석홍섭
원로의장 석무공
원로부의장 석보행
원로의원 석무겸 석원정 석덕오 석수오

승정원
승정원장 석원정

중앙종회
종회의장 석덕오

호법원
호법원장 석원명

감찰원
감찰원장 석법현

사정원
사정원장 석법경

호계원
호계원장 석초오

문화원
문화원장 석설산

포교원
포교원장 석혜광

기획원
기획원장 석지혜

교육원
교육원장 석월오

교구종무원
구미종무원장 석혜광
전남종무원장 석법진
전북종무원장 석설산
진주종무원장 석덕오
마산종무원장 석법경
강서종무원장 석해륜
대전종무원장 석법오

총무원
총무원장 석혜오
사무총장 석혜주
부 원 장 석용암
총무부장 석윤오
교무부장 석성오
사회부장 석현오
재무부장 석성현
동원부장 석법원
정보부장 석법주
행사부장 석관오
의전부장 석명오
비구니회회장 석도현

중앙위원회
전국비구니회장 석도현
전국신도회회장 노세주
중앙정책위원장 황정재
중앙무술위원장 엄태일
종단봉사회회장 대자비
종단예술위원장 이선혜

부산 제 2 총무원
총무원원장(직) 010-3565-2462
혜광사(종무소) 051)505-2461
혜광사(팩 스) 051)516-2461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614- 6
부산지부 제 2 총무원 혜광사

佛紀 2559年 乙未年 Buddha's birthday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

직지인심 견성성불을 체득하고 대승사상 지장보살행을 용으로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종지로 삼고 있는
(사)대원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광사에서는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 나갈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만약 본 총무원을 사칭하며 금품, 또는
물품 판매를 강요하는 자가 있으면 즉시 총무원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佛紀 2559年 乙未年 | 전면광고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 | A23

중생의 목숨을 해치지 않고 남에게 음식을 베풀면 이 두 가지 인연으로
그 수명은 길어진다네. 〈금강명최승왕경〉



대한불교조계종
아차산 **영화사**

(사)지구촌공생회
광진노인종합복지관
복지법인 나눔의 집
위 단체는 영화사에서 후원합니다

조실 송월주 스님
사부대중 일동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 9번지
TEL 02)444-4321, 7215

대한불교조계종
청 계 사

회 주 대궁 종상
주 지 성 행
신도회장 자비화
사부대중일동

- 청계사 부설 -
지적장애인생활시설 녹향원
의왕시립희망나래종합복지관

■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11번지
TEL 031)426-2348, 2221 / FAX 031)426-3666
http://www.chungkeisa.com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인류무형문화유산
유네스코세계무형문화 유산 등재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천년고찰 **봉원사**

회 장 석선암
보유자 김구해
부회장 이기붕
총 무 조혜산
교 무 김태호
재 무 조효광
사 회 이석천
사무장 임혜담
봉원사 대중일동
관음회 화엄회 합창단 일동

■ 서울시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전화 02)392-3007~8 전송 02)393-9450
www.bongwonsa.or.kr

대한불교조계종
중부제일의 독성기도 도량
삼각산 **삼성암**

주 지 수봉 세민
사부대중일동

음력 초하루 신중3일기도
음력 초삼일 독송3일기도
음력 16일 산신기도

■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산164-5번지
전화 02)988-9300

대한불교조계종
영 국 사

조 실 월 서
주 지 청 원
사부대중 일동

■ 충청북도 영동군 양산면 영국동길 225-35
TEL 043)743-8843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진관사**

회 주 진 관
주 지 계 호
사부대중일동

[부설] 보현정사 포교원 , 코끼리 유치원,
사회복지법인 진관무위원,
진관지역아동센터
불광노인복지관 · 불광데이케어센터
(사)진관사국행수륙재보존회,
진관사 산사음식연구소,
구파발 어린이집
기자촌어린이집

■ 서울시 은평구 진관길 73
TEL 02)359-8410 / www.jinkwansa.org

부처님 오신 날
대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 미륵정토종
미륵정토사
무한참나선원

사부대중 일동

■ 미륵정토사 : 충남 공주시 계룡면 양화길 19
TEL 041)855-3566
■ 무한참나선원 : 서울 성북구 보국문로 94
TEL 02)912-1050

대한불교조계종
승 가 사

주지 정호
신도회 일동

■ 서울시 종로구 비봉4길 213(구기동)
TEL 02)379-2996 / FAX 02)391-9975

대한불교조계종
불암산 불암사

주 지 일 관
총 무 법 륜

■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산로 190
TEL 031)527-8345

[불암사 부설]
송산노인종합복지관
관 장 법 일

■ TEL 031)852-2595

(사)대한불교무량종 인천지원
비 룡 정 사

주지 박보산
신도 일동

■ 인천시 중구 선린동 57-7

"장기기증 희망등록으로 마음기부 하세요"

불기 2559년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합니다.



장기·인체조직 기증희망등록
환자후원사업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생명존중사업

(사)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황일면
생명나눔실천본부 TEL.(02)734-8050 www.lisa.or.kr

대한불교원효종 전북교구
미 타 사

불기 2559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주 지 경 오
신도회장 무량화(김미경)
총 무 원행심(김명자)
사부대중 일동

■ 전북 정읍시 마곡로 141
TEL 063)533-1373

대한불교조계종
해 운 정 사

주 지 도 무
신도회장 박대성
사부대중 일동

■ 부산 해운대구 우동2로 40-6
TEL 051) 746-2256
FAX 051)741-8882
홈페이지 : www.seon.or.kr

대한불교조계종
노 적 사

주 지 동인 종후

■ 경기도 덕양구 대서문길 311-35 (북한동 331)
TEL 02)353-5016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서산 부석사

소원성취 기도 영험도량 템플스테이 상시운영
주 지 주 경
사부대중일동

■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부석사길 243
TEL 041)662-3824, 010-7734-3824
www.busuksa.com

대한불교조계종 전법도량
신 흥 사 청소년 수련원

부처님 교화공원
템플스테이사찰
신흥사 불교대학
주 지 오성일
대중일동 · 신도일동

■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신흥사길 17-34
TEL 031)357-2695, 357-3916

대한불교조계종
수 안 사

회 주 세 민
사부대중일동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68길 30
TEL 02)587-4677 / FAX 02)522-5666

진실로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현대불교 입문' (마츠다니 후미오 저, 정병조 前금강대 총장 편역)

16. 인간적 애(愛)에 관해서 ㊦

자기의 의소는 자기뿐

붓다가 늘 강조하면서 설명한 무아(無我)의 가르침이란 과연 자기를 사랑하면 안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일까. 그것은 인간에게 있어 자기 자신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는 것과 전혀 상반(相反)되는 가르침이었을까. 만일 그렇다면 잘 알려진 〈법구경(法句經)〉의 다음과 같은 구절은 우리들에게 있어 영영 이해하기 어려운 가르침이 될 것이다.

자기의 의소(依所)는 자기뿐이다.
다른 것에 어떠한 의소가 있겠는가.
자기가 능히 조어(調御)되었을 때
사람은 얻기 어려운 의소(依所)를 얻는 것이다.

비록 어떠한 큰 일이라 할지라도
다른 것을 위해서 힘을 다하며
자기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되리라.
자기의 의무를 알면서
언제나 자기의 의무에 전심전력하라.

만일 자기를 사랑하여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
능히 자기를 지키라.
현명한 사람은 밤의 삼분(三分)가운데,
일분(一分)은 각성(覺醒)하여야 하리라.

곰곰이 검토해 보면 붓다는 결코 인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가장 사랑스러우며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라는 점을 부정한 분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스승의 가르침의 출발점은 어디까지나 인간 그 자체였다. 인간이 원래 갖고 있는 인간적 애(愛)를 이 스승은 결코 압살(壓殺)해 버리라고는 가르치지 않았다. 오히려 거기에서 출발하여 진실로 자기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길을 이 스승은 설법하였던 것이다. 우리들은 그렇게 이 스승의 가르침의 전체를 이해해야 하리라고 본다.

앞에서 지적한 〈애자(愛者)〉라는 이름의 경전은 이런 것을 단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제 그 개요를 말하면 다음과 같다.

그것도 또한 붓다가 기원정사에 있었을 때의 일이다. 오늘도 또 프라세나짓드는, 자기 소견(所見)을 말하면서 이 스승의 가르침을 기다렸다.

"세존이시여, 나는 홀로 조용히 앉아서 홀연히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진실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세존이시여, 어떤 사람이건 행위에 있어서 악을 행하며, 말에 있어서 악어(惡語)를 말하며, 그 뜻에 있어서 악한 생각을 품는다면 그 사람은 진실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비록 그가 〈나는 자기자신을 사랑한다〉라고 말한 다 해도 그는 진실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랑하지 않는 자가 사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행하는 바를 그 스스로에 대해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고로 그는 진실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세존이시여, 어떤 사람이건 그 행위에 있어서 선한 행위를 하며 그 말에 있어서 선한 말을 하며, 그 뜻에 있어서 착한 생각을 품는다면 그 사람은 진실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가 〈나는 자기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해도, 그는 진실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행하는 바를 자기에게 대해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고로 나는 그가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이 이렇게까지 생각하였다면, 붓다는 또 다시 그것에 첨가(添加)할 아무 것도 없었다. 오늘도 붓다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신구의(身口意)에 있어서 선업(善業)에 힘쓰는 자만이 진실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며 왕을 위해서 하나의 게(偈)로써 설법하였다.

자기를 사랑해야 할 것으로 알았다면,
자기를 악(惡)에 결부(結付)하지 말지니라.
악한 업(業)을 영위하는 사람들에게
안락(安樂)은 얻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무아(無我)와 인간애(人間愛)의 긍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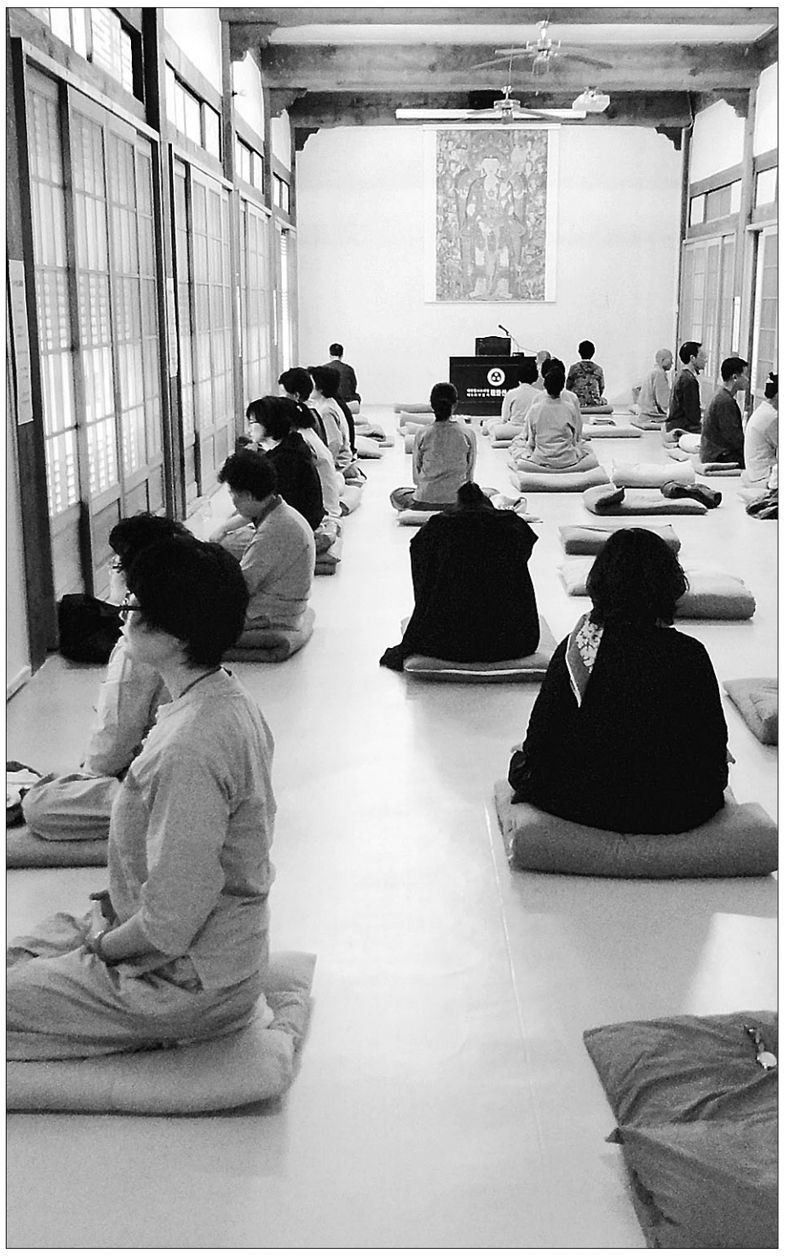
불교는 본래 인간의 문제를 그 근본으로 한다. 기독교가 '신(神)의 종교' 라고 불릴 수 있다면 불교는 바로 '인간의 종교' 라고 불려져야 할 가르침이다. 그런데 이때까지의 불교의 이해에 있어서 이 근본을 저버리고 중요한 점에 있어서 오해에 빠진 일이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욕망의 문제에 있어서도 종래의 불교이해는 자주 그 진상을 그르치고 있었다. 붓다에 있어서는 욕망 그 자체는 어디까지나 무기(無記)였다. 이 스승은 다만 그 악한 행위를 없애며 욕망을 정리하며 경작(耕作)하여 보다 좋은 인격을 만들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런데 후세의 불교 이해에 있어서 그 가르침은 가끔 인간 욕망을 송두리째 없애는 가르침인 것처럼 오해되었다. 이 오해도 또한 '인간의 종교' 로서 근본을 그릇되게 해석한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인간적 애(無)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 붓다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사랑, 그 인간적 애를 없애라고 설교한 사람은 아니었다. 오히려 거기에서 출발해서 진실로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르친 사람이다. 물론 이 스승은 무아(無我)의 가르침을 설명하였다. 그것은 언뜻 보기에는 인간적 애의 포기를 가르치는 듯 보인다. 그러나 이 스승의 참뜻은 진실로 자기를 사랑하는 길은 무엇인가를 명백히 하는 데 있었다. 그는 투철한 눈으로써 인간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집착해서는 안 될 것에 집착하고 있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였다. 그것이 무아의 가르침인 것이며, 그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들은 비로소 진실로 자기를 사랑하는 길을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무아의 가르침과 인간적 애(愛)의 긍정은 조금도 모순되는 것은 없다. 그 뿐만 아니라 진실로 자기를 사랑하는 길은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며 붓다의 가르침을 받으려는 사람으로서는 비로소 무아의 가르침의 참뜻에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뜻에서 나는 그러한 인간적 애의 문제를 말하는 여러 경전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새로운 각도에서 그 참뜻을 음미해야 하리라고 생각한다.



재가 수행자들의 참선 모습. 인간의 존재를 탐구한 불교는 집착이 인간을 어리석게 만든다고 지적했으며, 무아의 가르침을 설했다. 그 가르침은 우리들이 진실로 자기를 사랑하는 길을 열어준다.

다시 읽는 유석질의론

(함허 스님 저, 송재운 교수 역)

佛法이 국가에 도움되는가

문 지금 그대가 증거한 가르침이 갖추어졌으니 이로써 윤회를 초탈하여 본성을 보고 부처를 이루는 학문인즉 옳거니와, 그 도와 그 가르침이 지리(地理)에 무엇이 관여되는가. 전조(前朝)에 왕씨(王氏)가 창업(創業)할 때 그 백성을 수고롭게 하며, 재물을 허비하여 국가의 폐단을 지으면서 구구히 수천백(數千百)의 가람(伽藍)을 건립하여 비보(裨補)가 된다 호칭하였는데, 그 까닭은 무엇인가. 불교 가운데도 이 같은 이치가 있는가.

답 진실로 이러한 이치가 있다. 부처님의 법은 지극히 자비로움이 있어 사랑할만 하며, 지극히 착함이 있어 표창할만 하며, 지극히 신령하여 위엄스러움이 있으며, 지극히 싱그러움이 있어 공경할만 하며, 지극히 오묘함이 있어 함부로 하지 못하며, 지극히 밝음이 있어 속이지 못한다. 이것을 삼계 각황(覺皇)의 가르침이라 말하는데, 그 명령이 이르는 곳에 유명(幽明)이 복종하험이 있기 때문이다.

전조(前朝)에 왕씨(王氏)가 통합(統合)하여 다행히 성모(聖母)인 도선국사(道詵國師)의 유촉(遺囑)을 받들고, 동중(洞中)에서 여철(如哲)의 지휘(指揮)를 달게 받아 부처님의 법을 빌려 약쑥을 삼고 산천의 통양(痛痒)한 땅을 치료하였다.

부족한 자는 보완해 주고, 지나친 자는 억제하며, 달리는 자는 그치게 하며, 배반하는 자는 불러들이며, 해치는 자는 막아 주고, 다투는 자는 금지하며, 훌륭한 자는 수립(樹立)하고, 길(吉)한 자는 드날리니, 비보(裨補)를 설치함은 삼천(三千)에 이르렀고, 선원(禪院)을 지음이 오백에 가득하여 산천의 병구(病咎)가 잠복되지 않음이 없었다.

비보한다는 것은 병을 치료함을 말함이고, 선찰(禪刹)이라는 것은 마음을 고요하게 함을 말함이다. 병이 없고 마음이 편안하다면 생민(生民)의 복이고 국가의 이익이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병은 그치지 않았는데 약을 문득 버린다면 국토의 강영(康寧)함을 보존하지 못할까 함이니, 그 비보(裨補)를 설치한 까닭에 가서는 아

부처님 법은 지극히 자비롭고 공경할만 하다
삼계 각황의 가르침을 누가 모독할 수 있나

거니 누가 감히 모독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경에 말씀하기를 "이 경을 따라서 설하되 사구게(四句偈) 등에만 이르더라도 일체 세간 · 천인 · 아수라가 다 공양하기를 부처님의 탑묘(塔廟)와 같이 하여 예(禮)를 짓고 위요(圍繞)하며 모든 꽃과 향으로 그 처소에 흩으리라"고 함이 이것이다.

그러므로 그 법의 오묘함은 베풀어서 옳지 않음이 없는데, 그것을 약(藥)에다 비유한다면 만 가지에 응하는 영단(靈丹)이라 하겠다. 그 때문에 부처님을 또한 대의왕(大醫王)이라 호칭하는 것이다.

그것으로써 몸을 다스린다면 재앙과 병이 소멸하고, 그것으로 마음을 다스리면 번뇌가 없어지고, 그것으로 산천토지(山川土地)를 다스리면 흉해(凶害)가 변하여 길리(吉利)가 되는데, 비보(裨補)의 설이 어찌 근거가 없다 하겠는가.

또 약쑥이란 것은 세상에 훌륭한 약이지만 병이 없는 자가 그것을 보면 썩은 흙과 같아서 비록 집안의 정원에 있어도 캐는 일이 없다. 만일 병이 있는 자라면 그렇게 하지 않고 훌륭한 의사를 얻어 뜸을 뜨면 깊은 병이 홀연히 치유됨이 그림자나 메아리 보다 빠르다. 비록 만금(萬金)의 중함이 있다해도 여기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은 그 효과에 신기한 영국(俄國=朝鮮)에 있어서도 폐지해서는 안된다. 만일 "선대의 왕이 치평(治平)의 정사(政事)를 알지 못하고 허망하게 이익없는 일을 하여 집안과 나라를 번거롭게 하였으니 우선 그것을 제거하여 그 길흉(吉凶)을 관찰함만 같지 못하다"고 말한다면, 병든 사람이 그 의사가 치료하는 것을 꺼려하여 말하기를 "이 의사가 효과 없는 약을 허망하게 사용하여 나의 삶을 잔해(殘害)하니 우선 그것을 제거하여 그 낫는가 안낫는가를 관찰함만 같지 못하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후세의 인군(人君)으로 선왕(先王)의 법기(法器)를 지키는 자는 선왕의 법도(法度)를 폐지하지 않고 옛날의 정치를 따라 진실하게 편다면 유신(惟新)의 천명(天命)을 성취할 수 있으리니 이는 한 사람(王)에게도 경사로움이 있고, 억조의 백성들도 의뢰하는 바이다.

서경(書經)에 말하기를 "은나라를 살펴보는 것이 멀지 않고 하후(夏後)의 세대에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가깝다 하겠다.

〈유석질의론〉 번역 저본은 동국대 역경원이 1984년 발행한 것(송재운 교수 역)을 발췌한 것이다.

佛紀 2559年 乙未年 Buddha's birthday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

봉 축

대한불교 법성종

종 정 장허 덕암
총 무 원 장 능허 혜운

중앙종회의장 일허 혜승
규 정 원 장 조허 혜운
교 육 원 장 설허 만원
문 화 원 장 락허 혜운
총무원부원장 도원
교육원부원장 법정
포교원부원장 보안 현철
재 무 부 장 옥천 류옥순
포 교 부 장 보현 조보현
총 무 부 장 백봉 성관
교 육 부 장 일초
종 무 부 장 보현 유옥임
문 화 부 장 문순재


종 정 장허 덕암


총무원장 능허 혜운



대한불교 법성종 총무원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81-14 TEL 02)747-2202, 02)762-2459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목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두 가지 인연이 있어서 업을 지으니 자신 과 다른 사람의 두 경우이다. 만일 싸움을 걸어오는 이가 있을지라도 지혜로운 이는 맞서 싸우지 않는다."

- 대루탄경 -

사 찰 안 내

▶ 청정지역 토굴 안내◀
- 위치: 경남 고성
- 총부지: 970평 건물:4동
- 청정지역지정, 자연산 약초 (봉삼, 비비초, 산초, 제피, 엉개, 각종산나물 등등)
- 요양처 최적지(환우 있는분)
- 가액:1억 8천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 관광 사찰 안내 ◀
- 위치 : 동해 바닷가 근처
- 총부지:1,900여평
- 건물 : 법당48평 및 요사채 38평, 원주실15평 세계불교박물관 (5,400여년 전 벼락 맞은 대추나무화석등 석물 300여점보유) 관광버스 대형주차장 650평
- 가액 : 6억 5천 인수(은행 5억 별도)

※전국사찰 30년 역사※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사

직통 051-863-6622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 505호 (만덕동 302 다산타워)

사 찰 안 내

- 위치 : 원주 도심사찰 양도
- 목조법당과요사채(방사7).산신각.창고
- 토지730㎡.납골터.텃밭.주차장.노천불
- 양도금액 : 5억 6천만(융자2억)
- 원주횡성 5분거리. 최고위치임

010-5369-4154 (주지스님)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시 중랑구 시장(부근) 사거리 코너
- 평수 : 약 30평 2층, 도시가스
- 가액: 전세 2,000만원, 월세 70만원
시설비 2,400만원(조절가능)
- 즉시법회

010-4667-5658

별장같은 토굴안내

순천 최고의 신도시 백화점뒤에 사찰
- 사찰창건 : 20년
- 대지 700평, 자연녹지 500평
- 대웅전(木) 22평, 삼성각 (木) 6평
- 요사채 (슬라브 2층) 방 6개 주차장(15대 완비)
- 200M 거리 아래 : 백화점, 법원, 만(10,000)세대 아파트 단지
- 순천 최대 둘레길 완공 순천,여수,광양 2015년도 광역시 통합 예정
- 가액 : 6억 8천만원, 조절가능

010-3855-7885
010-3604-5477

토 굴 안 내

- 위치 :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대방리
- 대지 101평, 법당 20평
- 공양간 7평, 화장실 1칸 사무실겸 스님방 욕실 9평
- 비구니 스님 적합
- 꼭 하실분만 전화주세요
- 가액 : 1억 3천만원

010-9183-0654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해남토굴 ◎ 위치 : 경기
◎ 부지 : 134평 ◎ 종교용지 : 220평
◎ 목조법당 : 30평 ◎ 법당 : 40평
◎ 한옥요사 : 30평 ◎ 요사 : 40평
◎ 양도 : 5천만원정 ◎ 양도 : 6억8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공양주,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석불,골동품,탱화,고서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전국사찰수백건보유.방문접수 비밀보장>

* 위치 : 목포 도심사찰 급 양도
* 2층 편백 법당 60㎡, 황토요사채 90㎡
* 토지 200㎡ 편안한 포교사찰
* 양도가 : 3억2천만원(융자 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108호(대표: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토 굴 안 내

- 위치 : 김천시 대덕면
- 대지 380평, 건물 2동
- 가동 : 법당40평, 홑구조물 조립식, 스님방1, 해우소1 나동 : 요사채40평, 콘크리트 블럭구조, 넓은거실
- 주방, 화장실, 방大2개, 겨울 따뜻, 여름시원
- 넓은주차장 마당, 텃밭, 연못, 조용하고 깨끗한절
- 비구니 스님들께 아주 적합한 절입니다
- 가액 : 2억 3천(대출5천만 포함) 다소절충가능

017-217-1919

사 찰 안 내

- 위치 : 원주 치악산 자락
- 종교부지 1,200평 정도
- 목조 전통 법당 28평
- 요사채 2동(각 30평) 창고 60평
- 지장보살 좌불 노천불 모셔져 있음
- 삼성각 4평

010-9476-9800
자세한 것은 전화로 문의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부근
- 대지 324평, 법당 34평
- 삼성각 6평(목조)
- 요사채 1, 2층 100평(목조)
- 사용할 수 있는 땅 1,200평
- 가액 : 20억

010-4069-7723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전시 서구 둔산동
- 4층 건물 2층 40평
- 대웅전1 , 서재 1, 큰방 1, 작은방 1, 주방겸 거실 1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산신탱화, 108소불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45만원 시설비는 협의 가능

010-8653-3216

사 찰 (급)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 절 앞에 낙동강 물이 흐르고 경치가 좋음
- 평수 : 120평
- 인법당 27평, 삼존불, 지장보살, 소불 100여불, 삼성각
- 큰방 2, 친견실 1, 공양간
- 집기일체 양도
- 잔디밭 마당에 7미터 지장보살
- 가액 : 1억 2천 5백만원

010-5555-8744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토 굴 안 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에서 20분거리
- 바닷가 5분거리 뒷산을 끼고 경관수려
- 별장 및 전원주택지, 채전밭 황토찜질방, 주차 6대
- 임법당 30평, 가건물 20평
- 토지 150평(등기 78평, 국유지 72평)
- 인근 대규모 아파트 개발 중
- 가액 : 1억 7천 300만원
- 법당 및 주방시설 완벽

010-4392-2468

사 찰 안 내

- 신도시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옆에는 산이 있어 포교와 포행하기 좋은 곳입니다
- 위치 : 울산광역시
- 대지 149평 법당 20평, 기와단청 요사 17평, 요사 10평
- 가액 : 6억 8천만원

010-3811-5466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 대지 104평,법당24평,요사채 1동
- 스님친견실 1동, 산신각
- 사용가능 평수 약 200평, 주차장 20-30대, 주차가능
- 가액 : 2억 6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055-232-7151

신축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용주면 봉기리 431번지
- 면적: 413평, 계곡물 사철 흐름
- 법당: 동남간(25평) 목조, 기와
- 사채: 25평, 방2, 화장실2, 컨1동
- 가액: 융자 3천 안고, 2억 2천만원

010-8868-701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사하구 감천동 큰도로변 버스정류소 옆 2층
- 약 60평, 큰법당, 삼존불, 신중단
- 칠성단, 산신단, 용왕단, 영가단 큰공양간, 샤워실
- 큰방1개, 작은방 2개
- 위치 환경 특 A급
- 가액 : 보증금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500만원(조절불가)

010-7337-1727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중구 서울역 부근
- 대지: 114평, 건평 240평
- 지하1층, 지상3층(2,3층 법당)
- 문화재급 목불 불상있음
- 가액 : 30억(절충가능)

010-6728-833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무안
- 대지 183평, 인법당 20평 요사채 60평 (큰방 4개, 큰거실 2개, 화장실 2개)
- 가액 : 2억 6천만원

010-2060-2790

포교원 안내

- 위치 : 원주시 풍물시장 중앙시장 중간
- 상권과 교통 요충지
- 평수 38평, 3층 건물에 3층 옥상이용가
- 법당, 주방 모든 집기 고루 갖추어져 있음
- 소임 관계로 14년 운영하던 포교원을 부득이 양도코져 함
- 가액: 보증금 500만원에 시설비 2,700만원 / 월 25만원
- 보시면 깜짝 놀람
- 즉시법회 가능

010-3813-6174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도량 총 1,420평
- 법당, 관음전, 종각, 요사채
- 방은 총 13칸, 공양간, 창고, 차고외 부하장실 등등
- 건물은 총 13동 대형버스주차장, 소형주차장 등
- 가액: 3억 9천만원
- 스님 건강상 문제로

010-4628-5699

사 찰 안 내

- 위치 : 거제시 중심부
- 대지 2.103㎡, 건평(법당,요사) 329.4㎡
- 창고 기타 약 15평 외 25평은 기초공사 완료되어 있음
- 석등 외 조형물 다수 있음
- 주차장 넓고 경관이 좋음
- 가액: 현장 답사 후 협의

010-7582-0098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진주성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중 2층
- 구조 : 삼존불 모셔져 있고 방 2개 주방, 남녀 화장실 별도
- 가액 : 월세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답사 후 결정) 최고시설

010-5534-3939

사 찰 안 내

- 위치: 전남 광양시와 순천시 접속지역
- 도시 한복판이면서 숲속 뒷산은 울창한 소나무
- 절 앞은 큰 시냇물과 유원지내 대형 분수
- 시내 건너편에 아파트 밀집촌
- 대지 730평, 임야 3,700평, 대웅전 30평 요사 2채 50평, 방 5개, 창고 등
- 가액: 4억 5천만원

010-2124-3620

법당,포교원, 명상, 치유센터 자리안내

- 위치: 안산IC 서울외곽순환도로 바로진입 위치좋은 역세권
- 경기 부천-시흥-안산 복선전철 2015년 6월 개통
- 유동인구많고 교통편리,안산시 본오동 대로변 위치
- 전철,농수산물시장 10분거리
- 상가형성 잘 되어있고, 종교행사 민원 없음
- 4층독채, 실평수50평, 법당, 주거겸용 풀 리모델링 (상담실겸, 기타옵션, 다실접객용도 최적)
- 가액: 합 5,000만원(보증금 1000/95 시설 4,000만원)
- 충남대전에 사찰불사관계로 부득이하게 내놓게 되었음

010-5913-7239/010-3145-8626

청평 한옥 안내

- 대지 199평, 건평 30평
- 전통한옥에 실내는 현대식으로 꾸며져 있음
- 방 3개(큰방1, 작은방2 중 1개는 구들방임)
- 욕실2, 거실, 주방, 패치카, 석유보일러
- 현재 스님이 거주하고 있음
- 가액 : 2억 6천만원(조절가능)

직거래 010-9411-5302

포교원안내

- 위치 : 경북 문경시 점촌동
- 상가 2층, 약 30평
- 법당, 주방, 거실, 방2, 욕실1
- 역학스님 적당함
- 보증금 700만원, 월35만원
- 불필요 전화사절

010-3522-9391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북구 구포동 782-41
- 근린시설, 담보대출 없음
- 1, 2, 3층 도시가스 보일러, 방 6개(일부)
- 즉시법회 가능
- 삼존불 일체조성, 주차가능
- 가액 : 보증금 3천만원 월40만원 시설비, 일체 없음, 선착순

010-2071-8484
011-586-4648

사찰부지 안내

- 위치 : 충주시 앙성면 능암리 산 32-6-5
- 19,808평
- 경전철 예정, 능암리 온천지역
- 농림지역외 복숭아 과수원 약 2,000평
- 평당 3만(조건부 절충가능)

010-5203-1326

암 자 안 내

- 위치 : 전남옥과, 적송림 7부능선 사자앙천혈 인접
- 산 : 1만 2천평 종교부지 : 650평
- 건물 : 경량철골 3동, 합 52평
- 특징 : 암자, 연수원, 선원, 별장, 광주 20분거리, 암반식수
- 양도 : 3억 7천 (장난전화사절)

010-8224-1688

별장 토굴 안내 및 전세

- 위치 : 경북 성주군 용암면 대구시내 20분, 고속도로 IC 3분
- 대지 및 임야 830평
- 멋진 별장주택 40평(실 45평)
- 심야 전기 보일러
- 야산 밑 정남향 조용하고 전망 좋음
- 가액 : 양도 2억 5천만원 / 전세 8천5백만원

주인직접 : 010-3531-5562

한 옥 주 택

산자락 예쁜한옥 비움과 회향하는 마음으로 주인께 드립니다

- 위치 : 경남 창녕 부곡 부곡리
- 대지 167평, 건평 30평
- 목조, 기와
- 가액 : 2억 7천 5백만원 (황토방, 정자)

010-3703-587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혁신도시
- 시내 10분거리
- 대지 300평, 대웅전 단청
- 건평 60평 1동, 50평 1동
- 방사10개, 종무소, 사무실 등등
- 가액 : 2억 5천만원 (대출 1억 포함) 교환도 가능

010-8725-3196

선 원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금수면 무학3길 136-1
- 대지 163평, 전답 790평
- 건평 40평 1채(준공5년),
- 황토집 12평 1채(준공1년)
- 원두막1채, 각종 과실 나무와 약초재 배중
- 경치좋고 사찰하실분께 추천
- 가액: 총 2억3천만원(조정가능) 1억3천만원(전세도 가능)

010-8591-1076

사찰(급)안내

- 위치: 구미 근교
- 시내와 아주 가까우면서 삼면이 산으로 병풍처럼 감싸있고 사계절 용천수가 흐르고 양쪽계곡에는 가재가 살고 있는 청정수월 기도도량입니다
- 토지 : 2천 700평(법당,요사,임법당)
- 양도가 : 3억 8천만원(절충가능)
- 사정상 시세이하로 계산함

010-3007-5611

포교원 안내

- 위치: 광진구 구의동
- 약 60평 2층에 2층
- 법당 30평, 요사 30평
- 방2개, 화장실 겸 욕실 2
- 가액:2,000만원에 120만원 시설비 삼천만원

010-5497-7667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효목로 11
- 아담한 법당, 포교활동 최적지
- 평수 : 30평 3층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0-7740-6004

사 찰 안 내

- 위치 : 풍기 IC에서 약 15분거리(감천)
- 산사 평수 약 3,500평, 대웅전, 산신각
- 지장전, 요사채, 주택1, 차고1
- 사찰 옆 과수원 1500평을 택지로 조성중 텃밭 약 300평, 소나무숲
- 사찰까지 진입로 포장 되어있음

※경관 최고로 직접방문하면 대만족 할 것임

- 가액 : 3억 5천(절충 가능)

010-5203-1326
010-8829-6325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 주변에 주택가 밀집지역
- 금정산자락을 등지고 있음
- 지하철역에서 도보 10분거리
- 대지 208평, 건물 146평(2개동)
- 넓은 대웅전법당(45평), 공양간
- 요사채(140평), 참선방(30평), 샤워실2
- 가액 : 9억

010-5645-5577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시 수영구 망미 2동 팔도시장 인근
- 3층 중 2층 약 48평
- 시설 일체 완비, 몸만들어오시면 됨
- 가액:보증금 5백만원 월 44만원 시설비 1천 8백만원

010-3868-7435

포교원안내

- 위치:서울동대문구전농동미주상가건너편
-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정류장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4천 8백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99만원

010-7409-0490
02) 957-0824

사 찰 안 내

- 위치 : 안동시 소재 남안동 IC 10분거리
- 법당 좌우로 실개천이 흐르는 합수머리
- 종교용지 대지 약 590평
- 법당 15평, 목조 기와 단청
- 산신각1동, 요사채 2동 1동에 2층 황토방 원룸
- 법당, 집기, 공양간, 일체집기
- 가액: 2억 8천

010-5114-0172
010-4320-8842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옥천군 옥천읍까지 7분거리
- 대지 505평 등기 필
- 요사채 38평, 후면 창고 15평
- 요사채 위 법당 20평 2층
- 옥외화장실 6평 내 창고재중 6층석탑(제주석)
- 가액: 현평당 50만원
- 건물 전체 5,000만원 (건물양호 · 절충가능)

010-7517-7037

경내로 청정수가 흐르는 조용한 수행 도량임

- 위치 : 포항시 북구 죽장면
- 대지: 1408(약 425.92평)
- 전 : 83㎡(약 25.1평)
- 임야 : 103㎡ (약 75.02평) (주차장 완비)
- 가액: 3억 6000만원 (금액조정가능)

010-5479-5779(공산)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 위 150년된 암자
- 법당, 요사채, 예당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천하에 명당자리
- 약 2만평 관상수 주목 10년생
- 만평, 장뇌삼 5천평
- 요사채 및 창고
- 소유주, 직접매각(가격협의)

010-5097-3468

포교원 (급) 안내

- 위치 : 대구 달서구 성당동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칠성탱화, 소불
- 영가단, 종, 음향시설, 냉 난방기, 조명 등 집기일체
- 2014년 11월 신조성, 건강상 문제로 급 안내 2차선 대로변 2층,
- 가액: 보증금 300만, 월 35만원 시설비 1,200만원 합 1천 5백만원, 절충 없음, 방없음

053-651-1514

목조건물 공사 안내

- 칠성각, 산신각, 종각, 독성각 건립하실분은 성심 성의로 저렴하게 공사해 드리겠습니다
- 목공기술 자격증 소지하고 있습니다
- 공사경력
  · 제10교구 경산 천년고찰 경흥사 대웅전, 요사채 등 공사하였고 전국에 사찰 향교등 목조건립 공사 많이 하였습니다 경흥사 신도입니다

연락처 : 011-507-5181

포교원안내

- 위치:서울동대문구전농동미주상가건너편
- 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 버스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4천 8백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99만원

010-7409-0490
02) 957-082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동상동
- 평수 : 대지 248평, 법당 23평, 요사채 2동
- 텃밭(마당 잔디), 방가루, 조경, 전망 좋음
- 시청,은행 등 관공소 도보 10분거리
- 뒷산 지상공원 확정
- 가액: 5억 7천만원 (대출 3억 안고 양도금액 2억 7천)

010-5019-538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주시 조암동 아래전단 인근
- 대지 540평, 건평 100평
- 본채, 법당, 산신각 건물 양호암
- 산밑 아담하고 조용한 동남향
- 사정상 급 양도
- 가액 : 3억(조정가능)

010-5464-653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신녕면 매향리
- 팔공산 뒤자락 아름다운 풍경을 지닌 토굴(절)
- 대지 약 600평
- 건평 30평
- 가액 : 9천만원

053-986-1080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울산시 남구 남산로(무거동 태화강변)
- 평수 40평, 큰방 2, 공양간
- 몸만오시면 법회가능 • 건강상 문제로 급 안내
- 가액 : 전세 2,000만원 월세 30만원/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사찰, 요양원 및 팬션 오토 캠프장 가능

- 위치 : 경주 산내면 • 평수 : 5,000평
- 요사채 : 80평 • 가액 : 7억 5천

010-2259-3630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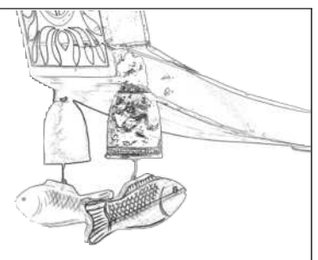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어리석게 살지 말라. 남의 흉내를 내면서 살지 말라.
잘못된 생각에 끌려가지 말라.
그리고 물질에만 너무 탐닉하지도 말라.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살풀이,극락무,회심곡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010-5511-7000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 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범 음 범 패 대 학
학인모집 실전교육
작법,천수바라,법고,송주북,
정근북,태징,양고장,난타
경남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417
금륜사(구, 용화사) 대진 합장
055)745-3624
010-7579-8200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1577-9657
031-842-1070
010-9944-1075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60세 이하, 부산)
010-7311-5335



명리첩경의 저자 - 혜공
혜공철학원
지리산 청학동에서
명리공부와 수련 하실분
010-4482-4684
010-3054-3345

분원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학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청 소
- 이사, 입주, 상가,
공장, 사찰 청소
- 제초, 벌초작업
코끼리 청소가 하면 다릅니다
(서울 경기 지역)
(주)코끼리청소 1566-8986

침술, 뜸, 부항,
한약,역학 (명리)
카이로프랙틱(척추교정요법)전
문학원. 외국한의사,
침구사 자격시험대비반.
수강생 수시모집
www.macsj.kr
네이버 검색 「맥승정」 클릭
010-8862-1908

벽조목 진품
(벼락맞은 대추나무)
신지기기(神知奇知) 신비의 명물
벽조목으로 제액처방
비법전수,부귀공명,입신출세,빙의,간질,매매
*직접오셔서 진품을 구경하시고 주문하세요. 벼
락맞은 대추나무 진품을 치시면 구경가능
경북 군위군 고로면 화북2길 136 지장선원
054-383-8553 / 010-8585-4908
cafe.daum.net/JJUJUbe

신심있는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가평)
010-3774-409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제주도)
010-3639-8500

기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김해)
010-6671-5885

기도하며 일 도우실 부전스님, 행자스님 모십니다
011-288-8311

부전스님 모십니다
(사물을 조금
하시는 분, 울산)
010-9986-0091

도반인연 공고
강원도 평창 발심사
전법도반 사부대중
심사 후 모십니다
010-9393-4965 중덕
033-334-0729 발심사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원하는 대로 이루는 기도
• 아주 특수하고 묘한 기도법을 원하는스님께 확실하게 전수 합니다
• 인천행 지하철 부천북부역 소명 4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 032)664-0048 / 011-741-0867

천 기 누 설
누구나, 최면술과
사주를 바꾸는 비법을 1대 1
특별 전수합니다
성봉사 회주 현오 합장 010-5656-3915

역학 수강생 모집
5~10년씩 배우십니까?
기초에 상관없이 한 번의 수강만으로도 최고의
사주도사가 될 수 있는 효타비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효타비결 (상, 하권) / 신수비결 (12권)
이름대사전의 저자 효타 스님 직강
■ 토,일반 : 토, 일요일 (15-17시) (6개월) 수강료 : 18만원
■ 주간 반 : 화, 목요일 (15-17시) (6개월) 수강료 : 18만원
010-7121-9406 / 부산 동래구 명장2동 514-3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강의!
- 화, 금요일 오전반, 목요일 저녁반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희 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 문의 ☎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에니멀 에너지 힐링 세미나
* 반려동물(개,고양이 등)을 가족처럼 기르고 있는 분들에게 희소식! 반려동물의가벼운 병과 나쁜 버릇을 스스로 치료해주어 마음 고생을 덜으세요. 여기와서 (디바인 하트) 라는 기 에너지를 교육 받으시면 됩니다.
* 교육시간 : 오전11시부터 ~ 오후 4시, 교육은 단 하루에 끝납니다
* 교 육 비 : 20만원, 미리 예약필요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www.Reiki.co.kr 02)720-5682. 010-8392-2557

사단법인 종단 인수하실 분
종단명 : 사단법인 0000조계종
복지사업 병행가능함. (필요시 종단명칭 변경가능)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랍니다)
문의전화 : 070-7717-2276 (영의스님)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퇴마 (빙의) 최면, 심리치유 (개인지도 및 상담)
상처받고 풀리지 않는 인연고리를 풀어드립니다.
퇴마, 빙의, 우울증, 불안, 분노, 공포증, 자신감 향상 등
감정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풀지 못하는 현상들 치유가능.
* 퇴마 배우실 분은 (스님 및 무속인에 한함)
(佛)대한불교조계종 만경사 / 부산시 수영구 연수로 401번길 7
전화 051)757-7925. 010-3156-6414

구성학+현공풍수양택 지역별 무료공개강의 및 개강일
서울지역 무료공개강의 : 5월 26일 화요일 오후1시-4시
대전지역 무료공개강의 : 5월 28일 목요일 오후1시-4시
개 강 일
■ 서울지역 : 6월 2일 화요일 오후 1시 - 5시 (매주 1회 과목별 2시간씩 16주)
■ 대전지역 : 6월 4일 목요일 오후 1시 - 7시 (매주 1회 과목별 2시간씩 16주)
강의장소
■ 서울지역 : 서울 관악구 봉천4동 865-2번지 세종오피스텔 317호)
■ 대전지역 : 대전 서구 용문동 243-18 2층 (지하철 용문역 8번출구에서 1분거리)
010-5116-9313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성학학회 강남 안병내 배상

雲門寺僧伽大學 明德 圓海堂 興輪學長스님의 永訣式 奉行에 대한 感謝의 말씀



귀의삼보하옵고

지난 5월 8일 입적하신 운문사승가대학 학장 원해당 흥륜스님의 영결식을 5월 10일 운문사에서 엄숙히 봉행하였습니다.
먼 길에 직접 찾아와 학장스님의 마지막을 함께 해주신 종단의 원로 대덕스님들과 각 승가대학의 주지스님, 학장스님 그리고 운문사 동문스님들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감사의 예를 올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 올림이 도리인줄 아오나 우선 지면으로 인사올림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스님의 가르침과 유지를 잘 받들어 더욱 수행정진 하겠습니다.

불기 2559(2015)년 5월 12일

〈 49재 안내 〉
- 초재 : 5월 14일 (음 3월 26일) - 운문사
- 2 재 : 5월 21일 (음 4월 4일) - 운문사
- 3 재 : 5월 28일 (음 4월 11일) - 운문사
- 4 재 : 6월 4일 (음 4월 18일) - 운문사
- 5 재 : 6월 11일 (음 4월 25일) - 운문사
- 6 재 : 6월 18일 (음 5월 3일) - 양산 내원사
- 막재 : 6월 25일 (음 5월 10일) - 운문사

虎踞山 雲門寺 葬禮委員長 住持 眞光
明德 圓海堂 興輪스님 門徒 合掌

佛紀 2559年 乙未年 Buddha's birthday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

대한불교 승가회

총 재 무 공

회 원 일 동

■ 주 소 : 경남 사천시 곤명면 경서대로 2821-46길 신해사
■ 전 화 : 055)855-1772

창원시 무료급식(점심) 단체 지정사찰

樹山慈悲禪院

이 사 장 法 相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도계로 50번길 5-4
전화 : 055)277-7626, 011-558-7626, 010-6586-3088
팩스 : 055-277-9101 / 이메일 jebs0314@hanmail.net

하나는 여럿을 위하여! 여럿은 하나를 위하여!

의료생협 자비요양병원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217번길 6
전화 : 055)288-6300
팩스 : 055)265-0051

요양급여 1.2.3등급 수용 복지시설 (중풍,치매,노인성질환)

사단법인 자비마을 (보건복지부 인가시설)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도계로 50번길 5-4
전화 : 055)237-4564
팩스 : 055)237-4563

행복의 등불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명곡한의원

주소 :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도계로 4번길 20
전화 : 055)288-6500
055)237-7589

봉 부처님 오신 뜻 자비 나눔 실천 축

김해불교단체연합회

◆명 예 회 장 주 영 길
◆회 장 조 유 식
◆수석부회장 김 진 령
◆부 회 장 이원달. 오재환. 박정규. 이춘옥 장숙자. 조영숙. 김경희. 손명호 이정희. 서유란. 노혜자. 남상후 우정락
◆감 사 노 순 득

■ 경남 김해시 가락로 29번길 4(김해불교회관)

佛紀 2559年 乙未年 Buddha's birthday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

한국불교태고종 광주전남종무원

원로의원 지허, 지암, 도수, 무봉, 금용, 혜림, 금명, 설봉, 성천

종무원장 호산
종회의장 시각 부 원 장 월인
부 의 장 법진 총무국장 보각
교무국장 인산 재무국장 법진
규정국장 연봉 문사국장 보겸
종회의원 자원, 혜광, 지공, 보응, 도안, 원일, 상종, 현응, 보현, 여허, 성법, 원문, 고성, 법진, 지명, 승범

■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운천길 85-15 전화 062)375-1820 / 팩스 062)381-0944

佛紀 2559年 乙未年 Buddha's birthday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

익산시 부처님 오신 날 봉축위원회

위 원 장 덕 림(관음사)

사 부 대 중 일 동

■ 총무원 : 전북 익산시 갈산동 32번지 063)854-1578

봉 부처님 오신날 축

108염주 합장주 천주 특별할인행사



대한민국 염주 최대물량 보유회사 —
평관헌 염주공장 (구. 삼공사)
1661-0304/010-2641-8115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용화사
- 주 소 : 경남 함안군 영운2길 192
- 주 지 : 용환 (정해숙)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정법사 20년 불사 완성…마산 도심 포교 효시

5월 12일 만불전서 대불 점안식… 3천여명 참석

통도사 마산 포교당 정법사(주지 지태)가 만불전 대불 봉안 및 점안식을 봉행했다. 5월 12일 정법사 신축 법당 만불전에서 봉행된 이번 점안식은 점안 및 불공에 이어 타종 3타, 삼귀의, 반야심경으로 시작돼 주지 지태 스님의 봉행사, 법어, 격려사 및 윤한홍 경남 부지사, 창원 안상수 시장 등의 축사 및 이향연화 신도회장의 발원문으로 마무리됐다.

증명 법사로 참석한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과 조계종 원로의원 성파 스님, 통도사 율주 혜남 스님을 비롯해 윤한홍 경남부지사, 안상수 창원시장 등 30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해 점안 법회를 축하했다.

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은 법어를 통해 "오늘 정법사 점안 법회는 진실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지혜의 눈을 뜨는 의식이며 또한 모든 이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기 위해 자비의 마음을 일깨우는 시간이어야 할 것이다"며 점안 법회의 참 뜻을 강조했다.

정법사 주지 지태 스님은 봉행사로 "20년 동안 진행하고 있는 불사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며 "정법사를 통해 이 지역이 불국토가 되도록 할 것이다"고 의지를 밝혔다. 또한 스님은 "많은 불자들이 자발적으로 불사 모연에 동참해주며 함께 힘을 모아줬다"며 "도움을 준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성파 스님은 정법사의 지역적 역할에 대해 "문화 활동으로 많은 이들의 참가를 이끌어 내고 도심 포교당 역할을 더욱 잘하고 정진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높이 4.2m 석가모니 대불이 점안돼 대중들에게 환희심이 가득한 하루가 되었다. 김수진(56) 씨는 "절로 환희심이 나고 너무 기쁘다"며 "마산에 정법사가 있어 너무 좋고 큰 원력으로 불사를 진행하신 스님들께 감사드린다"며 기뻐했다.

2002년 중창불사추진위 창립
유치원, 종각 등 다양한 불사 진행
만불전, 1500평에 4층 규모


마산 정법사가 5월 12일 신축법당 만불전에서 대불 봉안 및 점안식을 봉행했다.

특히 이번 점안식은 정법사 주지 지태 스님의 20년 불사 가운데 신축 법당인 만불전 회향을 앞두고 이뤄져 그 의미를 더했다. 정법사 만불전은 대지 4950여㎡(약 1500평)에 지상 4층 지하 1층, 연면적 6800㎡(약 2700평)으로 3000명 이상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대 가람이다.

1912년 당시 통도사 주지였던 구하 스님이 일제 치하에서 어려움을 겪던 민족을 구제하고 민족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창건 한 정법사는 초대 주지 경봉 스님에 이어 지은 스님, 서원 스님, 지안 스님과 함께 지역민들을 위한 포교 활동을 펼쳐 도심 포교의 효시로 불린다.

1996년 정법사 주지로 부임한 지태 스님은 불법 홍포를 위한 시민의 사찰을 거듭 나길 발원하고 2002년 8월 정법사 중창불사 추진 위원회를 창립했다. 지태 스님은 2010년 7월 중창불사 기공식을 시작으로 예산 약 300억원의 대규모 중창불사를 진행해 왔다. 그간 정법사는 대자 유치원 신축, 문수 · 보현보살 봉안, 종각 이설 등 다양한 불사를 이루어 왔으며 현재 만불전 회향을 앞두고 있다. **하성미 기자**

부처님 오신날 맞아 전국은 지금 축제의 물결

범어사 삼층석탑 점등식 개최 등

봉축을 맞아 지역에서는 다양한 축제가 열렸다. 대구 달구벌 관등놀이, 부산불교연합회의 제등행렬, 전북 익산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 봉축법요식과 연등축제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돼 눈길을 끈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수불)가 진행하고 있는 부산 송상현 광장 전통등 전시에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불교연합회 박용하 사무국장에 따르면 "5월 1일~17일까지 전통등 전시를 찾은 예상 관람 인원이 총 50만명에 이른다"며 "17일 제등행렬에는 10만명의 시민들이 함께 축하하며 인산 인해를 이뤘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부산 경남 각계 각층에서도 부처님이 나투신 기쁨을 함께 전하며 축하하는 자리가 열렸다. **부산 범어사**(주지 수불)는 5월11일 부산 중구 광복로에서 '범어사 삼층석탑' 봉축탑 점등식을 봉행했다. 범어사 삼층 석탑은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것으로 보물 제250호로 지정된 국가유물이다. **울산불교종단연합회**(회장 만초)과 울산불교신도회(회장 김복광)는 5월 9일~10일 울산 태화강연등축제를 봉행했다. 5월 9일에는 발우공양 체험 및 불교우수상품 전시, 청소년 체험 행사, 봉축 점등식, 태화강 불꽃놀이, 소원등 뛰우기, 장엄물 전시 등 시민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으며 법요식 및 제등행렬은 10일날 개최됐다.

이와 함께 **부산 기장군불교연합회**(회장 정오)는 5월 10일 기장중학교 운동장과 강당에서 '기장군민과 함께하는 연등문화축제' 를 봉행했으며, **부산지방경찰청 경승실**(실장 수불)도 5월 14일 부산지방경찰청 1층 대강당에서 봉축법회를 봉행했다.

대구불교총연합회(회장 덕문)가 주최하는 달구벌 관등놀이 연등행렬 행사가 5월 9일 두류공원 일대에서 열렸다. 사부대중 2만여 명이 참여한 행사에는 희망등 날리기 등의 부대 행사가 이어졌다. **태고종 대구 동대사**의 봉축 점등 대법회가 5월 10일 경내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천태종 원로위원 용월산 스님의 상월원각대 조사법어 봉독에 이어 조동문 스님이 상단 권공 및 축원을 올렸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빛고을 사찰들의 나눔잔치도 이어졌다. **광주 원효사**(주지 현지)는 5월 10일 경내에서 '봄김치나눔 200세대' 를 개최하고, 스님과 신도, 후원자들이 담근 봄김치를 지역단체에 전달했다. 이날 나눔행사에는 원효사 신도회와 청년회, 공옥진나눔밥차 후원으로 진행됐다.

광주 동원사(주지 지장)도 5월 12일 자비신행회(이사장 이화영)와 공동으로 무등산 지산교에서 지역 어르신 초청 무료 점심공양과 문화공연을 개최했다.

익산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위원장 덕림, 관음사 주지)는 5월 9일 익산 중앙체육공원에서 봉축법요식과 연등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법요식에는 금산사 주지 성우스님을 비롯한 지역스님들과 전정희 국회의원, 박경철 익산시장 등 지역 기관장과 불자 500여명이 동참했다.

하성미 기자 · 손문철 대구지사장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조동제 전북지사장


익산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가 5월 9일 중앙체육공원에서 봉축법요식을 개최했다.

부산불교聯 17일 봉축제등행사

대구불교聯 9일 희망등 날리기

광주 김치나눔 · 어르신공양잔치

익산봉축위 9일 법요식 및 연등축제

"일상 벗어나 힐링의 시간됐어요"

익산 숭림사, (주)한국삼공 신입사원 템플스테이

기업체 신입사원 연수가 산사에서 펼쳐져 눈길을 끈다. 중견기업인 (주)한국삼공은 5월 11~12일 익산 숭림사(주지 지광)에서 신입사원 20여명이 참가하는 연수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입재식에서 주지 지광 스님은 "템플스테이 참여를 계기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와 자신의 삶과 회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참가 신입사원들은 발우공양, 참선, 예불, 걷기 명상, 범종 타종체험, 예불, 스님과의 대화, 다도체험 등을 통해 불교의 수행문화와 전통문화에 대해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 보리개떡 만들기, 미륵사지 트래킹, 입점리 고분 탐방 등이 이어졌다.

박성석 한국삼공 인사팀장은 "신입 직원들의 인성교육 차원에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선택했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템플스테이를 통한 연수를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주)한국삼공은 익산 숭림사에서 신입사원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군산 사암연합회, 국제이주민 화합한마당



군산지역 스리랑카 노동자들과 10여개국 이주민, 새터민들을 위한 한마당 축제가 열렸다.

새만금 이주민센터(대표 황재동 목사)와 군산불교사암연합회(회장 도연)는 5월 10일 군산 오식도동 생말공원에서 '제4회 국제 이주민과 선주민 화합 한마당 축제' 를 개최했다.

올해로 4번째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도연 스님, 흥천사 법희 스님, 은적사 석초 스님, 성흥사 송월 스님, 정안사 정안 스님, 수도암 무진 스님 등 군산사암연합회 스님들과 스리랑카 출신 스님, 문동신 군산시장, 티샤 위제라트네 주한 스리랑카 대사, 흥천사 가족법회 회원, 스리랑카 노동자 등 200여명이 동참했다.

스리랑카 설날을 맞아 군산에 거주하는 약 6천여명의 국제 이주민들과 선주민들 간의 화합을 위해 마련된 행사에서는 스리랑카 전통 오일램프 점화식을 시작으로 각 종교지도자들의 기도 등이 포함된 개회식과 함께 크리켓, 줄다리기, 베개싸움 등이 진행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울산 정토사, 대불삼보원 봉불개원식



조계종 울산 정토사(주지 덕진)는 5월 13일 정토사에서 '대불삼보원 봉불개원식' 을 개최했다. 점안식 1부에서는 봉불 점안과 불상 및 공덕비 제막식, 2부에서는 정토사 주지 덕진 스님의 축원에 이어 발원문, 경과보고, 기념사 및 내빈들의 축사,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의 법어 등이 이어졌다.

특히 개원식에서는 대불삼보원 불사를 위해 무주상 보시행을 실천한 ㈜덕양 이덕우 前회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점안식에는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 정토사 주지 덕진 스님, 前 조계사 주지 도문 스님 등 사부대중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하성미 기자**

불교용품 전문·고급 연등·봉축 현수막

2015 연등 특별공급 (한정분)
모든 연등 8cm 기준 전국 어느 상점에서나 3,000원에 구입 할 수 있습니다.

▶연등 및 각종 전선, LED 전구
▶세로거치형 현수막
▶종이등표
▶종이주름등
▶봉축 리본
▶지하철현수막
▶어깨띠
▶법보시 염주
▶비닐만월등(연꽃/일반)
▶봉축현수막
▶가야자비연등 · 가야자비연등 6cm 줄등용
▶차걸이 · 연꽃차걸이/광명등연꽃차걸이
▶고급 칼라연등 : 진분홍, 연분홍, 보라, 다홍, 오렌지 8cm
▶설화등 : 다홍, 연분홍, 진분홍, 오렌지, 보라 8cm
▶가야 궁단등 : 연분홍, 오렌지, 진분홍, 다홍, 보라 8cm
*궁단/실크/수입사등 : 진분홍, 개방형(오렌지), 밀폐형(다홍) 8cm
*황금등 : 8cm
*자비연등 : 8cm
가격할인예외품목

불교장엄용품전문
가야기획
※가까운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상담하십시오.

진심으로 내가 나를 발견하는 데 역점을 두십시오!


그림 · 최주현

(지난 호에 이어서)

그럼으로써 여러분이 병고에 휘달리는 것도 다 해결할 수 있고, 또 '자빠져도 코가 깨져. 왜 이렇게 안돼?' 그러는 것도 해결할 수 있고요. 껄껄 웃으면서 '참 즐겁구나.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즐거울 줄이야. 허무함이 없이 이렇게 즐거울 줄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갈 수 있는 그 느긋함, 원력, 그것이 한데 합쳐서 에너지로 화해서 누구든지 길을 가다가도 소가 죽어 갈 때 아프지 않고 죽어서 그 모습을 화하게 만드는 그런 여건이 주어집니다, 무명만 벗겨 주는. 이러한 능력을 여러분이 다 가질 수 있을 때 여러분이 보살이며 부처며 법신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다 충만히 가지고 계시리라고 믿으면서, 앞으로 복수비자인가 뭔가 그것도 모릅니다만 그거를 내게 되면 수차 자주 올 겁니다. 알래스카에도 지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한마음으로 다지고 다져서 이 공부를 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때는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야, 그 사람을 꼭 만나야만 내가 뭘 일러 줄 텐데 이걸 어떡하면 좋은가?' 하고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천 리 밖에 나갔다가도, 그 사람은 그래도 이 안테나가 좀 움죽거리는 사람이니까 '아이고, 이거 스님이 부르시는구나!' 하고 빨리 옵니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우리가 전화가 있어도 전화번호를 모르면 못해. 그런데 하물며 이 사방을 다 통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공부도 할 겸, 또 한 가지 부탁할 것은 여러분 가정에 화목을 가져오는 데는 속이 상하는 일이 있고 여자가 잘못하든 남자가 잘못하든 어떠한 거를 무릅쓰고 '아! 주인공 당신밖에는 해결을 못할 거야.' 남편이 술을 아주 과하게 먹는다거나 또 안 들어온다거나 또는 성질이 이상하다거나, 또 병이 들었다거나 그래도 '당신밖에는 해결 못해. 당신이 해결할 수밖엔 없어.' 하고선 그냥 거기다 맡겨 놓고 말로는 좋게 해 드려요. 언제나 따뜻한 데 사람이 고이게 돼 있지 냉랭하고 추운 데 고이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 뜻을 아주 잘 짐작하세요. 언제나 사랑하면서 이 말로 좋게 얘길 해 주면, 아무리 속 썩이는 말을 하고 속 썩이는 일을 하고 들어왔다 할지라도 "여보, 당신 참 피로하지요." 하고서 좋게 얘기해 주고 (가슴을 짚으시며) 여기다가 하소를 하란 말이야. 그러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무척 잘못하고 들어왔는데도, 번연히 알면서도 좋게 말해 주거든. '이거, 이거 내가 자중할 수밖에 없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럭하다 보면 '아! 이거 안 되겠구나.' 그때는 사랑이 하고 싶어져. 그래서 가정으로, 따뜻한 데로, 피로하면 자꾸 따뜻한 데로 들어오게 돼 있어.

모두 여러분의 탓이지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나는 어떤 때는 그럽니다. 야, 네가 때에 따라서는 여자도 됐다가, 또 동생도 됐다가 누이동생도 되고 딸도 되고, 어떤 땐 할머니도 되고 어머니도 돼 드려라. 그렇게 안 하면 따뜻하질 못해서 때에 따라서 속상하면 나가게 돼 있어. 그런데 나갔다가도 들어오게 돼 있다 이거야. 속상하면 들어오게 돼 있어. 그러니 얼마나 가정이 화목해지고 좋을 수 있겠느냐. 사람이 화목하게 질서 있게 또는 능력 있게 자유스럽게 아주 사랑하면서, 진짜 이 도리를 알아야 사랑할 줄 아는 겁니다. 사랑을 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거 참,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런데 그렇질 못하면 만날 만나면 싸우고 눈 노리고 좋은 말 안 하고 이렇게 되니 가정이 뭐가 따뜻해. '아, 들어가면 또 그럴 걸.' 하고 나가. 나가서 술 한 잔 먹고 이리저리 풀다가 들어오거든. 바깥에서 속상하는 일이 있으면 안에 와서 풀어야 할 텐데 그렇질 못하다 이거야. 여러분이, 남편은 아버지가 돼 줄 때가 있고 할아버지가 돼 줄 때가 있고 또 친구가 돼 줄 수 있고 때로는 남편이 되고 때로는 동생도 돼 봐라 이거야. 그러면 화목한 회전이 돼서 우리가 참 단란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 불법은, 불이라는 것은 생명을 말하고, 일체 모든 생명을 말하고 법이라는 것은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불교나 불법이나. 그건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좋은 말씀을. 그냥 말해서 떨어지는 거는 한데 떨어지는 말입니다. 그러니 불교라고 하면 가톨릭교나 기독교나 전부 그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건 진리니까. 불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 없고 마음 낼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게 불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생활이에요. 여러분 몸뚱이가 화두요, 생활이 참선이요, 우리가 그대로 행하는 것이 전부 참선이자 진리이자 생활입니다. 그러니 둘로 보지 마세요. 법당에 들어오면 벌써 저 부처님하고 내 형성된 이 몸뚱이하고 둘이 아니요, 그 부처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둘이 아니요, 그 도리를 알게 되면, 둘이 아닌 도리를 알게 되면 저런 이파리하고도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나라에 어떠한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저런 이파리 하나가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저 이파리 생명체, 저 이파리 하나하나가 다 군사가 돼서 나라를 보존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싸움터에 나가서 싸우고 호국 불교를 한다고 몸뚱이가 나가서 했지만 지금 시대는 그렇질 않습니다. 앉아서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조절해야 싸움을 이기든지 말든지 하지 않습니까? 또 장사를 해도 그래요. 직원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그리고 조절할 줄 알아야 그 회사를 잘 운영해 나가지. 나라뿐만 아니에요. 가정도 그렇습니다. 그럼 사회도 다 그렇죠. 상업을 해도 그렇고 공업을 해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죠. 무역을 해도 그렇고 말입니다. 그것도 상업이니까. 정치를 해도 그렇습니다. 그럼 국방부에서 군인들을, 육해공을 다 그냥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실천이 없는 것을 거짓으로 그냥 말만 해 드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주, 그 뭐라고 말할까요? 진심으로 내가 나를 발견하는 데 역점을 두십시오. 그럼 내가 말한 이 외의 것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광대무변한 거 난 처음 봤어. 이 허공에도 생명들이 이렇게 우글거리는구나. 아하,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가 이렇게 그냥 못 뜨는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지리 혈맥도 알게 되고, 우리가 지리학이라고 하는 것도 진짜 지리학을 써 놓질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 지리학이라기보다도 이 지리 혈맥, 모든 청룡 황룡 백호, 이 전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도리를, 나를 발견하십시오. '나'라 그런다고 또 '나'를 이러지 말고요. 여러분이 나입니다. 예수가 '나를 믿어라' 이러니까 전부 자기 하나, 이걸 믿으라는 줄 알고 말입니다. '나' 하면 벌써 일체 한마음입니다. 그러니 이 벽을 치면 봇장이 울려야지. 나를 따르라 그랬지 '나' 한다고 나를 믿으라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같이 한 나지, 어째서 개별적인 나입니까? 그러니 기독교든 가톨릭교든 불교든 둘이 아닙니다. 지금 지구라는 것이 항아리라면 항아리 속에 같이 살면서 웬 말이 그렇게 많고 그렇습니까? 항아리 속에 같이 우글우글하면서 아니, 내 집 네 집 찾을 게 뭐 있습니까, 한 항아리 속에서.

난 그게 딱하다 이겁니다, 모두가.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도리를 몰라 가지고야 어찌 지구 바깥을 나가서 우주의 섭리를 다 터득하겠습니까? 아무리 권력자고 아무리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나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 어차피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다 주인공한테 맡겨 놔. 뭐가 그렇게 억울합니까? 그렇게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다 맡겨 놓는 반면에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그 계기가 와요. 저승길에 들어가야 저승 이치를 알지 어떻게 압니까? 안 그렇습니까? 허허허. 그렇기 때문에 너는 저승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너를 버려라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저승에 들어가기는커녕 살았다고 바둥바둥하는 겁니다. 그렇게 바둥바

☞ A30면으로 계속

佛紀 2559年 乙未年 Buddha's birthday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본사

古佛叢林白羊寺

방장 학봉지선
주지 원일

총림대중일동



홈페이지 : www.baekyangsa.org

전남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6번지 전화 061)392-7502 / 전송 061)392-2081

佛紀 2559年 乙未年 Buddha's birthday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

해동불교 임제조계종

총무원장 혜륜동진

종회의장 벽송
장로의장 진성
호법원장 벽안
교육원장 법산
감사(찰)원장 벽송
문화원장 자원
포교원장 종문
전국비구니회장 무운

대외협력원장 보현
총무부장 벽산
감사(찰)부장 일현
재무부장 약왕보살
사서실장 상범

서울교구원장 보현
울산교구원장 혜운
경북교구원장 현담
경남교구원장 명각
강원교구원장 원광
광주교구원장 정인
부산교구원장 지익
충북교구원장 무운
충남교구원장 봉정
대전교구원장 천장

종도일동

해동불교임제조계종 총본산 극락사

경남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172-1번지 / 전화 055)855-0191

道라는 것은 위대하고 당당하고 신비하고 도도한 것!

☞ A29면에서 계속

둥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니까 저승에 들어갈 수가 없죠.

예전에 어느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 길을 걷다 보면 그게 낮이 되면은 뜨끈뜨끈합니다. 그래서 밤에도 뜨끈뜨끈합니다. 거기 드러누워서 밤에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세금을 달랍니까, 누가 자리를 달랍니까? 가랍니까, 오랍니까? 말이 없단 말이야. 얼마나 편안합니까, 조용하고. 하늘을 쳐다보니 별이 총총하고. 근데 그 총총한 별이 나란 말입니다. 나와 둘이 아니요, 이 세상이 다 나와 둘이 아니요, 내가 발 없는 발이 수없이 두루 할 수 있는 법이 있는 거고 또 손 없는 손이 두루 내 손이니 얼마나 거룩하고 좋습니까? 그러니 아주 몸뚱이가 없어지는지 있어지는지 그것조차도 모르는 거야, 얼마나 좋았던지.

그랬는데 아, 그러고 가니까 길 없는 길을 내 자성이 나를 가르치는데 아, 가다 보니까, "야! 이 길은 길이 아니야." "어떤 것이 길인데요?" "저기 저게 길이지." 하고 저기를 가리키는데 거기는 천야만야한 산이라. 거길 가리키는 거야. '좋아! 내가 일단 나를 버린 이상에야.' 미련퉁이지, 얼마나 미련스럽습니까? 그 산을 그냥, 그냥 드어 잡아 선 거야. 밤이나 낮이나 허, 발도 옮기지를 못해요, 그믐밤에는. 나무가 그냥 찹찹 쌓이고 그러니까. 그때는 누가 나를 인도하느냐 하면 산비둘기, 낭떠러지가 있으면 벌써 그냥 모두가 울어 주는 거야. 햐, 여기 낭떠러지라고 말이야. 그러면은 낭떠러진 줄 알고 주춤하고 섰으면 틀림없어. 뱀이나 비둘기나 새나 전부 친구들이야, 모두가. 그거를 실천적으로 내가 알았을 때 야 참, 이 무르팍을 쳤다니까. '이렇게 공감이 될 수가 없구나. 내가 말로만, 이 뜻으로만 안 거하고 실천을 이렇게 해 놓은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다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그때서부터 뭐든, 지나가는 소의 눈만 봐도 눈물이 글썽글썽해져요. 왜? 그것이 내가 아닌 게 없기 때문이야. 죽으러 가면서 그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하단 말이야. "응, 너 아프지 말고 그 몸을 벗어." 그러면 벌써 그 영혼은 나하고 체인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때리니 아나, 죽이니 아나. 우리 마취한 거나 마찬가지지. 그러면 그냥 좋게 벗는 거지, 뭐.

콩깍지도 익은 거는 건드리기만 해도 싹 벗겨지고 익지 않은 거는 벗기면 그 살이 그냥 콩에 짝짝 붙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픕니까? 그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이 도리를 알면 아프지 않고 내가 삶의 보람을 가지고 살다가 왜, 옷이 그렇게 헤지지 않았어도 부자는 좀 벗어서 놓지요, 가난한 사람은 그냥 다 헤지도록 입어야 되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좀 더 부유하게, 마음을 넓게, 물리가 터지게, 지혜가 있게 이렇게 이 마음의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다음에 또 만나면 실천에 좀 옮겨서 '아, 내가 이렇게 해 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얘기 좀 들려주십시오. 꼭 그러기를 믿습니다.

내가 그래도 한국에서는 덜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남편이 일을 하다가도 집에서 뭐 급한 일이 있으면 벌써 무슨 일이 있나 하고선 전화를 하면 영락없죠. 그런 것도 그렇고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여보, 빨리 들어와.' 하면 그냥 거기서 벌써 '아,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거 같은데.' 이럭하곤 빨리 들어오고 그러니 그것이 바로 통신이라, 무전통신. 자력의 무전통신기. 그렇기 때문에 그 엄마도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일이 닥쳐도 눈 하나 깜짝거리지 마세요. 다 거기다 맡기고 '네가, 모든 것을 당신이 하시는 건데….' 그러고 딱 맡기고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도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자기가 몰라요? 예? 얼마나 좋은 법인데 이 부처님이 가르쳐 준 팔만 사천 법문을 책에서만, 금강경을 달달달달 외우면 우리 집안이 좋아질 텐데, 아픈 것도 나을 텐데 이러고 외우지 마시고 전체 이걸 보세요. 세상 돌아가는 걸 보시면 끼리끼리들 모여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병원엔 아픈 사람만 모이고, 허허허. 아니 아, 생각해 보세요. 한번 휘이 둘러보세요, 안 그런가. 사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끼리끼리…. (녹음 안됨)

집을 하나 지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금방 설계가 나왔어. 이게 과학이 아닙니까? 그래 설계가 나오니까 또 집이 턱 섰어. 이게 과학이 아니에요? 내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밥을 턱 갖다 놨는데 아니, 이게 과학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신비합니까? 여러분은 신비한 걸 모르고 살아요, 진짜 신비한 거를. 그리고 공기가 있어서 내가 사는 거를, 그 신비한 걸 몰라요. 우리가 물이 없어도 못 살고 하여튼 지수화풍이 없으면 못 살아요. 내 몸도 지수화풍이기 때문에 지수화풍 없이는 못 살아요. 전부가 다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공기를 사서 쓴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물을 사서 쓴다, 바람을 사서 쓴다, 또는 불을 우리가 사서 쓴다, 일일이 이렇게 사서 쓴다면, 다른 것은 다 사서 써도 좋지만 이 공기만은 사서 쓴다면 정말 난리 납니다. 허허허.

그러니 여러분이 요가를 한다 뭐를 한다 하는 그것도 도(道) 안에 즉, 내 자동적인 심성을 깨달으면 도라고 합니다. 그 안에 다 들어 있는 겁니다. 춤출 줄 몰라도 저절로 손이 돌아가면서 몸이 흔들어지면서 춤을 추게 되니 그것도 운동이요, 춤을 추니 남이 볼 때도 좋은 거요, 잘 추면 보기 좋으니 좋은 거요, 웃으니 좋은 거요, 서로 화목해지니 좋은 거요, 전부 좋지 않습니까? 춤뿐이 아니에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일상생활이 전부 그렇단 말입니다. 손을 하나 이렇게 드는데도 내가 이거 운동하려고 강제로 막 그러면 이게 참 부자연스럽지 않아요? 좀 하다 보면 아프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렇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몸이 자기 멋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힘이 안 들어요, 각자 여러분이. 그러니까 춤출 때도 춤도 스스로서 추어지게끔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모두 여러분 주인공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여러분의 질문이 있으면 합니다. 또 지루하시면 그만두시고요. 지루하시면 그냥 우리….

대중 가운데서 스님이 지루하시지요.

큰스님 아니, 나는 지루한 것도 없고 지루하지 않은 것도 없고 이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냥 물 흐르듯이 말입니다. 이 도라는 것은 너무나 위대하고 당당하고 참 신비하고 도도한 겁니다. 이 도리들을 모르시고 항상 '하나님이시여, 주여, 부처님이여' 이러고 이름만 가지고 뭐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벗어나서 자기 이 몸이 집이요, 법당이요, 그 안에 언제나 부처가 계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발견한다면 '왔다' 죠, 뭐 지금 말로. 허허허.

그러니 우리 한번 진행해 봅시다. 얼마큼 진전이 있나. 우리 저 선원에서는 진전이 많습니다, 남녀를 막론해 놓고. 지금 대학원 나온 학생은, 지금 대학원 다니는 학생하고 둘이 좀 통했거든요. 그래서 남들도, 폐병 앓는 친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말없이, 그 사람더러 얘기도 안 하고, 그 사람은 모르니까 자기가 건져 주는 거죠. 그래서 낫게 해 가지고 같이 다니고 그럽니다. 그런 것을, 하나를 해도 자신으로서는 얼마나 보람 있는 얘깁니까? 우리가 물질을 주는 것도 보시지마는 뜻으로써 무주상 보시 하는 것도 보시입니다. 말해 주는 것도 보시요. 그러니 세 가지가 다 보시니까 이 보시를 그냥 물질로 주는 한 가지만 보시로 알지 마세요. 고아원에 찾아가서 물건을 갖다 준다 그래요. 그거 먹어치우면 고만이지, 뭐. 뿌리를 도와줄 수 있는, 에너지를 넣어 줄 수 있는 그런 거를 가져야 앞으로 걔들이 생존해 나갈 때 기를 펴고 나가고 빛을 보는 거지. 그게 진짜 무주상 보시예요.

질문자1(남) 제가 다른 사람들 질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큰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 의심이 없고 그런데 도를 얻는다, 도를 깨닫는다 뭐 그럴 때, 사람들이 만약에 자기가 도를 얻었다 그럴 때 어떤 기준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잘못하면 혹세무민하는 그런 경우가 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과연 도를 얻었다는 것이 어떤 상태인지 그런 걸 저희들이 말로라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큰스님 그전에도 선원에서 그런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도를 이뤘다고 그냥 뭐 날뛰고 한 소식을 얻었다고 좋다고들 그랬다는데 천만의 말씀이라고요. 나를 발견했을 때는 바로 그때가 공부할 때라고 봅니다. 그게 한 소식이 아니라 내 스승을 내가 발견했다 이 소립니다. 그래서 내 스승을 내가 발견했을 때는 한 소식 얻었단 말도 하지 마라. 그래서 한 번 죽기 어려워라 했더니 두 번 죽기 어렵더라. 두 번 죽기 어려워라 했더니 세 번 죽기 어렵더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한 번 나를 발견했으면 바로 그것을 스승으로 삼고 자기가 공부를 그때서부터 해야 할 그 단계입니다. 그럴 때에 이것이 스승이 자기를 다지고 공부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귀신으로도 나오고 또 좋은 곳도 이렇게 환상으로 나옵니다. (녹음 안됨)

놔서 그때 다시 보임을 해서 숙달을 해야 합니다. 그때에 둘이 아닌 걸 알게끔 다 숙달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둘이 아닌 까닭에 너와 나와 나툰다 이거야. 내가 네가 되고 네가 내가 될 수 있는, 일체 만물이 그냥 내 한생각으로 한꺼번에 군사를 수만 명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또 한 명도 없앨 수 있는 그러한 그 나툼이 있어야만이 그때에 열반경지에 이른다고 봅니다, 이름해서 그것도. 그러니 그 세 단계, 단계 없는 단계를 다 넘어서 우리가 그대로 손가락 하나를 들어도 이 우주가 전체, 아까 이 안테나 말했죠. 이 손가락 하나가 안테나라면 이 손가락 하나를 들어도 우주가 전체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소식이라고 이름해서 그것도 그러는 것이니 나를 내가 참,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깨달은 게 아니라 발견한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 깨달았다는 말은 하지 말라 이거야. 허허허. 한 소식 얻었단 말도 하지 말고. 단, 내가 나를 발견했다 하면 '발견은 했으나 지금부터 공부지, 뭐.' 이렇게 나가야죠. 자기가 겸손하지 않는다면 이 우주의 섭리와 더불어 같이 한마음으로서 회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자기가 높기 때문입니다.

개구리 속에 개구리를 건지러 들어가려면 내가 개구리가 돼야 개구리를 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높아서 개구리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간다면 개구리가 모두 달아나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뱀 소굴에 들어가려면 뱀이 돼야만이 뱀을 건질 수가 있고 또 짐승들 속에 들어가려면 내가 짐승이 돼야 돼. 사자굴에 들어가려면 내가 사자가 돼야 하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려면 내가 호랑이가 돼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건 둘이 아닌 까닭에 내가 네가 될 수 있고 호랑이가 될 수 있고 호랑이가 내가 될 수 있다면 무명만 쳐도 그것은 나로다가 바로 화해서 그냥 요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남전 스님인가? 이름도 잊어버렸네. 그 스님이 고양이를 들고 "동당 서당의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대답 한마디 해 봐라. 너희가 대답 한마디 한다면 이것을 죽이지 않고 너희가 대답을 못한다면 내가 목을 칠 것이니라." 이랬는데 그것을 그렇게 남전 스님이 칠 때에 그건 고양일 죽인 게 아니라 그 도반들로서는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방편으로 보였고 또 진실로서는 그 고양이의 허물을 즉, 무명을 쳐 줬고 그 고양이는 바로 그 당시에 자기가 된 겁니다. 그래도 두드러지지 않았으니 얼마나 묘합니까? 참 이렇게 좋은 법을 우리가 앞으로 증득해서 우리가 갖는다면 늙고 젊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몸이 있어 가지고 저승에 들락날락할 줄 알아야 됩니다. 허허허.

그러니까 오늘은 이걸로써 설법을 끝내고 우리 앞으로 한마음으로 다지고 다져서 참 이 마음 도리에 감응이 돼 가지고 요다음에 "아이, 생활에서 실천을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그대로 됩디다." 하고 한번 말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지십시오. 우린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몸이 집이요, 법당이요,
그 안에 언제나 부처가 계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위 법문은 1987년 5월 24일 산호세지원 개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도천사 시민선원

하안거 결제대중 모집

●모집인원 _ 00명
●모집기간 _ 하안거 결제전까지 (수시 입방가능)
●선원위치 _ 2호선 잠실역 7번출구에서 5분거리 (향군회관옆, 장미상가 건너편) 더샵 스타파크 A동
●정진시간 _ 새벽 4시 ~ 저녁 10시
●문 의 _ 02) 415-3696

■ 수요참선법회 ■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도안스님의 참선 법문으로 올바른 수행방법과 함께 불교의 핵심사상을 정립시켜 드립니다.
• 동참금 없이 무료로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 도안스님은 경허~한암~고송 대선사로 이어진 부처님의 정법을 대중들에게 전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서울 도 천 사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14 잠실 더샵 스타파크 A동 204호(법당), 502호(시민선원)

평화로운 마을 향기로운 세상 佛紀 2559年 乙未年 Buddha's birthday

대한불교조계종

운 문 사

회주 명 성
강주 일 진
주지 진 광

사부대중 일동



■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 TEL 054)372-8800 FAX 054)371-0359
www.unmunsa.or.kr

불자 세상보기

'잔혹동시', 어른 욕심에 희생된 동심



김형중
문학평론가
동대부중 교감

5월은 어린이날 · 어버이 날 · 스승의 날 · 부처님 오신 날 등 가장 소중한 가족과 감사해야 할 스승과 부처님의 은혜를 기리며 생각하게 하는 감사와 가정의 달이다. 그런데 이렇게 의미있는 달에 5월 5일 어린이날에 가문비어린이 출판사에서 출간한 '10세 이순영 어린이의 ' 솔로강아지 '의 동시집에 실린 ' 학원가기 싫은 날 '에 나타난 '엄마를 씹어 먹어' 등 잔혹한 내용과 함께 피투성이 된 고기(어머니)를 먹고 있는 어린이가 등장하는 삽화의 폭력성을 보도한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 충격과 격앙된 반응이었다. 동시로 적합하지 않다는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로 출판사의 사과 성명과 함께 전량 수거하여 폐기 처분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문제가 된 '학원가기 싫은 날' 의 동시 전문은 다음과 같다.

"학원에 가고 싶지 않을 땐/ 이렇게// 엄마를 씹어 먹어/ 삶아 먹어 구워 먹어/ 눈깔을 파먹어/ 이빨을 다 뽑아 버려/ 머리채를 쥐어뜯어/ 살코기로 만들어 떠먹어/ 눈물을 흘리면 핥아 먹어/ 심장은 맨 마지막에 먹어// 가장 고통스럽게"

이것은 동시가 아니다. 변태 엽기적인 시이다. 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옥에서나 있을 수 있는 악마의 시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에 이 땅의 학부모들이 똥바가지를 둘러쓴 짜증나는 날벼락이다.

고금에 아버지를 살해한 일은 있다지만 자기를 낳아 핥아서 키워 준 어머니를 이렇게 잔인하게 표현한 글은 없었다. 더구나 10세 어린이의 동시라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이 시는 어린이의 글이 아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교육적으로 이 어린이는 어머니와 함께 정신병원에 가서 정신 상담과 치료를 받아야 할 내용이다.

막말 사회로 세상이 거치러지고 있는데 어린이가 어머니에 대한 금기 언어를 이처럼 거침없이 퍼붓는다면 그 폐악이 심대하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있고, 말과 글이 있다. 금기어가 있다. 이 제어장치가 풀리면 말법 세상이 되고 말 것이다.

어떤 사람은 우리 사회의 학부모들의 조기교육열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어린이의 저항시로 보아야 한다고 평하는 사람도 있으나 필자는 이 시를 빨리 머릿속에 지워버리고 싶을 뿐이다.

글은 생각의 집이다. 자신의 생각이 걸러져서 글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나타난다. 시는 인간이 창조한 언어문자의 결정체로서 아름다운 문자로 아름다운 마음을 진솔하게 표현하여 독자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예술의 한 분야이다.

동시는 천진난만한 어린이의 꾸밈이 없는 순수한 생각과 아름다운 마음을 쓴 시이다. 그래서 동시는 어린이들의 천진한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에 동시의 내용이나 표현 또한 그만그만 담박하다. 동시의 내용이나 표현 형식이 파격적이거나 충격적일 수 없다. 어린이는 미래의 시인으로서 자랄 그야말로 새싹이다. 새싹에서 쓰고 달고, 짭짤한 맛, 구수한 맛을 기대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다.

펜의 힘은 칼보다 무섭다. 자신이 내뱉는 말과 글은 책임을 져야한다. 특히나 정식 유통과정을 거친 출판물은 더욱 그렇다. 이번 소동을 피운 동시집에 대하여 어린 아이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것은 마땅히 출판사와 출판을 주선하고 시 창작을 지도한 부모가 져야 한다.

튀고 싶고 유명해져서 돈도 벌고 스펙도 쌓고 싶겠지만 이것은 아니다. 어린이가 날 넘어서 날다가는 떨어져서 넘어져 다친다. 이 아동은 자칫 잘못된 동시집의 출간에 대한 짐과 굴대를 평생 쓰고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쓰레기를 왕관이라고 착각하면 잘못된 것이다.

멀리 가려면 천천히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학교 친구들과 함께 동시집을 내기를 권한다. 오염되지 않는 어린이의 마음과 이웃과 친구 그리고 자연을 사랑하는 자비로운 마음이 묻어 있는 합동 동인시집을 권하고 싶다.

여유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 사랑스럽고 기특한 모습이 많이 보인다. 어른의 욕심과 조급증으로 아들을 쥐어짜지 말자. 부처님 말씀에 "무엇을 더 닦으려고 발버둥치지 말고, 본래의 천진한 마음을 더 이상 오염시키지 말라. 그러면 그대로 부처이다"고 하셨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봉축수상

연등 아래에서 더 가난해져야 한다



현진 스님
청주 마야사 주지

지금 살고 있는 절로 거처를 옮기고 네 번째 맞이하는 불탄일이다. 사월초파일에 즈음해서 활짝 피는 불두화(佛頭花)향기가 좋아서 여기 오자마자 묘목을 구해 와서 법당 뜰에 심었다. 올해는 봉축이라도 하듯이 때맞추어 만개하였는데 눈송이를 뭉쳐 놓은 듯 순백의 향연이 더 곱다. 봄꽃이 차례차례 피었다 지고 난 뒤 눈부시게 그 신비한 생명을 여는 불두화는 오월의 꽃이라기보다는 봉축의 꽃이라 불러야 할 것 같다.

며칠 전 밤새 비바람이 휘몰아 칠 때도 나는 마음이 편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소담하게 핀 불두화 가지가 꺾이고 쓰러질까봐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아침에 여기저기 흩어진 꽃가지들을 정리하면서 간밤의 불청객이 원망스러웠다. 마치 단정하게 손질한 머리가 엉망으로 엉클어진 것 같아서 오늘 저녁나절에도 전지가위로 손을 보고 들어왔다. 가지 부러진 불두화는 내방으로 옮겨와서 화병에 담아 두었더니 연분홍 연등과 잘 어울린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불쑥 꽃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자비심을 이야기하고 싶어서다. 매사의 작은 눈길에도 자비심이 결여되어 있다면 부처님 오신 뜻을 등지고 사는 삶이기 때문이다. 교리 공부를 할 때는 부처님은 도솔천에서 하강(下降)하셨다고 배우지만 엄격히 따지면 자비심에서 오셨다고 해야 할 것이다. 열반경 범행품에 '모든 보살과 여래는 자비심이 근본이다' 는 표현이 있다. 따라서 부처님은 그 어디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비심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명확한 의미는 자비심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 해도 무방하다.

새삼 이 시점에서 우리가 왜 부처님을 오신 날을 봉축하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 그것은 자신의 일상에서 자비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라는 뜻이기도 하다. 불교의 목표는 개인적으로 지혜를 완성하는 일이지만 그 지혜는 자비심으로 실현될 때 수행의 완성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종교든 지혜만 있고 자비심이 없다면 날개 잃은 불구자 신세나 다름없다.

인생의 키워드가 되고 있는 성불, 행복, 평화, 건강, 출세 등 이러한 목표와 소원들이 모두 중요하지만 이것은 자비심이 근원이 될 때 생의 보람과 의미로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금은 국민소득 삼만 불 시대를 살고 있는 물질적 풍요 속에 있지만,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보다 더 불행한 것인지를 살펴봐야 된다. 경제학자 잉글하트 교수는 개인 소득이 만 오천 불 이상이 되면 소득이 증가해도 행복지수가 더 이상 상승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이와 같이 물질의 충족이 보상해 주는 행복의 한계는 분명한 것이다.

사월초파일이 다가올 때마다 빈자일등(貧者一燈)의 가르침을 다시 해석해볼 필요가 있다. 이 일화를 일찍이 경전에 소개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마음이 가난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따져 물을 것도 없이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욕심 없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 삶은 이미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가난해질 수 없는 인생은 아닌지 살펴보라는 뜻이다. 따라서 만족하지 못하는 욕망의 삶이 행복을 방해하는 원인이라는 것을 연등 불빛 아래서 새롭게 배워야 한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왜 행복하지 못한가?' 를 질문하고 그 대답을 부처님 오신 뜻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자비심과 만족이 없는 삶은 우리를 불행으로 이끄는 요인이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소욕지족의 가르침은 이 시대에 더 유효한 법어(法語)일지도 모르겠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당나라 때의 걸출한 스승이었던 향엄선사는 "어제의 가난은 가난이 아니다. 금년의 가난이 진짜 가난이다"라는 법어를 남겼는데, 여기에서 재물이 부족하여 가난한 것은 가짜 가난이고 진짜 가난은 마음이 가난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은 어제보다 더 가난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번 사월초파일은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더더욱 가난해져야 한다.

社說

통일·세계평화 선포한 특별한 '봉축'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여느 해보다 특별했다. 깨달음의 법석과 부처님이 오신 것을 축하는 축제의 자리가 한데 어우러졌기 때문이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인 5월 25일에 앞서 진행된 축제인 연등회와 '광복 70주년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 는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한국불교 사상 최대 법석을 보여줬다.

조계종은 5월 16일 광화문 광장에서 '광복 70주년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 의 메인 행사인 '간화선 무차대회' 를 개최했다. 이날 광화문 광장은 종단을 넘어 전국에서 운집한 30만 명의 불자로 가득 찼다. 한국불교의 힘은 사부대중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그대로 입증한 순간이었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간화선 무차대회에서 철저한 공부를 통해 자신의 본래 마음자리를 찾아야 한다고 대중들에게 당부했고 방편으로 육바라밀을 실천할 것을 전했다. 또한 세계 평화와 한반도 통일을 위한 마음 평화 수행법으로 '간화선' 을 제시하는가 하면 국가와 사회의 안정을 위해 희생된 영령과 세월호 참사, 네팔 지진 희생자에 대한 애도도 잊지 않았다.

불교적 통일 담론을 담은 '2015 불교 통일 선언' 과 앞서 열린 세계 종교인 평화회의에서 채택한 '세계평화 기원문' 이 간화선 무차대회를 통해 발표된 것은 '선(禪)을 통해 자신의 마음 자리를 밝혀 세상을 불국정토로 만들겠다' 는 한국불교가 세계를 향해 던진 메시지였다.

간화선은 한국불교가 자랑하는 수행법이다. 하지만 대중화가 이뤄졌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특히 재가 수행자에게는 끊임없이 화두를 들고 의심해야 하는 간화선은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종정 진제 스님은 그간 꾸준히 간화선 대중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신학자 폴 니터 교수와의 대담도 뉴욕 리버사이드 교회에서 이웃 종교인을 대상으로 법어를 설한 것도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행보였다. 이제는 후학들이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원력을 이어가야 한다. 그래야 이번 무차대회는 완성될 수 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희망나누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5월 12일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에게 네팔 돕기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전달식에는 노령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집에 거주하는 김군자(90) 이옥선 할머니(89) 등 3명이 동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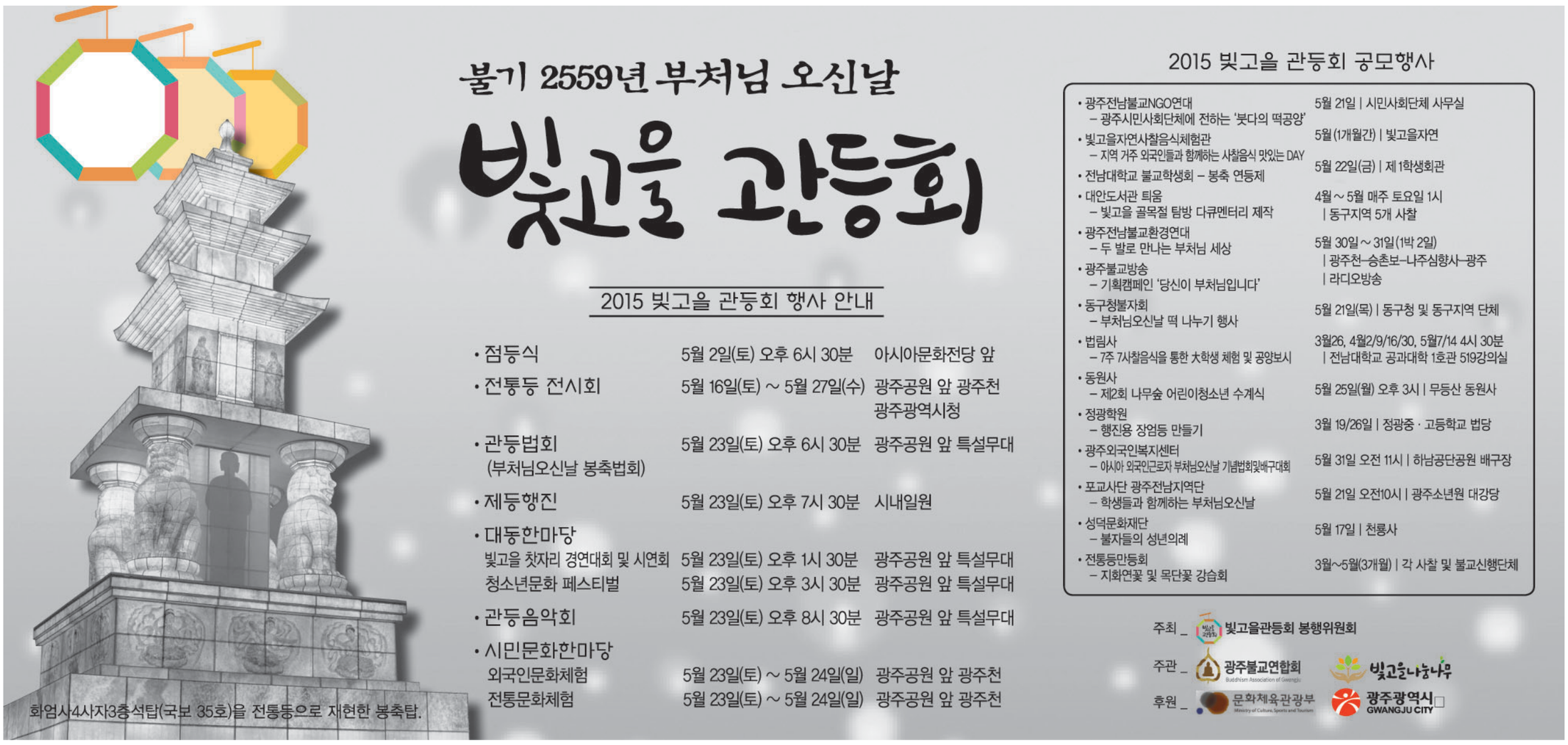
이날 전달된 성금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 10명이 정부가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과 나눔의집 후원금 등을 십시일반으로 모은 것이어서 그 감동이 배가됐다. 할머니들의 성금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당신들도 아픈 기억속에서 고통스럽게 사시면서 더 힘든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태겠다는 그 숭고한 마음이야말로 보살심의 발현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번 성금모금에 참여한 할머니들은 네팔 지진 발생 직후 고통 받는 이재민들의 소식을 듣자마자 주저없이 선뜩 내놓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모금 소식도 훈훈했지만 할머니들이 한말이 더욱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우리도 피해자로 힘든 삶을 살았지만 전 세계인들의 도움을 받아 희망을 갖게 됐다며 작은 정성이 지진으로 모든 것을 잃은 네팔 국민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좋겠다고 할머니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자신들이 받은 것을 회향하겠다는 메시지다. 할머니들의 이타적 실천은 바로 부처님이 우리곁에 오신 참의미이기도 하다.

봉축을 맞아 들려온 이 아름다운 울림이 온 시방세계에 퍼져 인류가 동업중생이라는 부처님 가르침이 우리 대중들에게 되새겨지길 바란다. 아울러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고 실의에 빠진 네팔 국민들도 우리 할머니들의 희망나누기 소식을 듣고 부디 오뚜기처럼 다시 우뚝 일어서길 발원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봉 의료법인 남경중의대학 병원 축

고려대학교 의학융합연구소 협약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계율 청정 불교조계종에서는 대덕스님들과 사부대중 불자님들의 크나큰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에 위치한 불교조계종의 새로운 종합의료 단지 및 복합적인 요건을 갖춘 CL타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종단 종도스님들과 항상 기도와 수행으로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불자님들의 원력으로 오늘 이 불사를 원만 회향 할 수 있게되어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불사는 앞으로 불교조계종 종단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며, 우리 불교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불교조계종 종정대행 겸 총무원장 혜인 합장



◇불교조계종 병원개설 기념 법회 후 CL타워 앞 종도 스님들

▶경기도 오산시 세교동에 위치한
불교조계종 종합의료건물 CL 타워
(건평 7,000평-지상 10층 지하 3층)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불교 조계종

계율청정종단

■종 정
총무원장 : 혜인 사서실장 : 대산

율 원 장 : 혜일
중앙선원장 : 도일

■원 로 원 : 성민, 혜일, 혜정, 일봉, 혜경, 천불, 수원, 혜원, 지성, 춘담

방 장 : 대련, 혜경, 혜정, 일봉

의산장(경기도무형문화재) : 수원

▣총무원

부 원 장: 동안, 도불, 서봉금산
총무부장: 천산
재무부장: 혜만
교무부장: 혜일
사회부장: 정덕
문화부장: 지운
총무국장: 남산
재무국장: 정일
교무국장: 지성
사회국장: 법일
문화국장: 해인
문화재관리국장: 진각

교육원장: 상산
교육부원장: 덕산
교육부장: 태산
교육국장: 진산

포교원장: 정산
포교부장: 법진
포교국장: 무량
국제포교원장: 중산청목

기획원장: 혜타
기획실장: 노사나

호계원장: 천불
호계부장: 태산
규정부장: 월성, 서산
규정국장: 영암, 지산
호법부장: 성산, 지호
호법국장: 법성

감찰원장: 정오
감찰부장: 백산지견
감찰1국장: 법산
감찰2국장: 수산
감찰3국장: 인산

비구니 회장: 지성
부장: 혜승
교수사: 덕산
총무: 금산
부회장: 해월, 혜산, 월산
재무: 도은, 정해
교무: 본각, 수정
교육: 법신, 성담
문화: 남산, 수옥
포교: 보명, 홍산
강원: 각원, 현타
복지: 향인, 화광
감찰: 서호, 보현
불화: 혜담, 인산, 진화
의식: 련성, 지해

▣지방교구 종무원장

서울종무원장: 상산
경기종무원장: 도불
경기서부종무원장: 자명
경기남부종무원장: 해인
인천종무원장: 혜원
강원종무원장: 광덕
충북종무원장: 학산
충남종무원장: 혜덕

경남종무원장: 백산 지견
경남남부종무원장: 천산
경남서부종무원장: 지명
경남창원종무원장: 지원
경북종무원장: 덕운
부산종무원장: 서봉금산
부산북구종무원장: 수산
전남광주종무원장: 지각

전북종무원장: 법성
제주종무원장: 청호
울산종무원장: 법철
일본오사카종무원장: 인해
일본동경종무원장: 정대
미국뉴욕종무원장: 성산
중국남경종무원장: 해산
중국청도종무원장: 중산청목

▣불교조계종 신문사

발행인: 혜인 편집인 문화부장: 태산
편집기자: 권소라 문화국장: 용산
사회부기자: 이근진, 유현석 사회국장: 법산
이사 : 혜원, 정산, 각원, 덕산, 향인, 금산, 해인, 정해, 지성, 보현, 법신, 도은, 수옥, 서호, 성화, 해월, 화광

▣종단법인

사단법인 불교조계종
학교법인 삼화학원
사단법인 천지무예도협회
사단법인 행복한사회
의료법인 효성
재단법인 가평그린공원
사회복지법인 정향
사회복지법인 인주

▣총 림

서울총림 해인사
삼화총림 백화사
부산총림 흥국사
경남총림 백천사
강원총림 조주선관
충북총림 청룡사

▣종단사업부

대표이사: 노사나

불교조계종
좋은상조: 김호철
H&G: 이영호
금융사업본부

▣전국신도회

고문: 김윤주
회장: 설주성
사무처장: 이상훈
부산신도회장: 허민
강원신도회장: 김현재

▣청년신도회

회장: 손영진
홍보처장: 박영실
총무계장: 조일
기획실장: 심원일

◇ 학교법인 삼화학원 ◇

▣불교조계종대학림
학 장 : 혜일 부학장 : 일봉
교 수 : 해운, 월곡, 봉선, 혜정, 정산, 박수구, 김수정, 김동균
조 교 : 손정, 최정화
운영이사 : 성산, 원명, 본각, 일현, 정현, 지각, 탄공, 해남, 법해, 청호, 현덕, 일행, 동명, 무진, 만공, 무공, 가산, 진법, 용산, 여연, 도원, 대각, 법신, 혜능, 대산, 지성

▣불교조계종대대학림
원 장 : 혜인
교 수 : 상산, 정수, 송암, 성민
운영이사 : 광운, 도의, 영봉, 성해, 성하, 지원, 혜법, 성공, 수원, 법우, 혜현, 지운, 지해, 도각, 동덕, 무량, 혜철, 정현, 철산, 덕산, 덕송, 진평, 동안, 진제, 연각, 성묵

▣중국남경중의약대학
총 장 : 오멘화 부 학 장 : 정오, 남산
한국총장 : 손혜인 중고등학교장 : 손영진
학생처장 : 손영진 조 교 : 심미, 유위, 손정 국제부교무과장 : 이안산
운영이사 : 법정, 혜담, 보현, 본각, 수옥, 향인, 수정, 현조, 금산, 지해, 지성, 원산, 해월, 성담, 화광, 진화

종무원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6길 8 (논현동2-14 2층)
종무국 (02)511-2026~7 / 팩스 (02)511-2028
종단사업부 : (02)549-1918
총무원장실 (02)511-1080
불교조계종신문 (02)511-2026~7
일간동국신문사 (02)511-1080
인터넷주소: 불교조계종.kr(www.shbuddhism.or.kr)
불교조계종신문: www.jogaejong.or.kr
불교조계종학림: www.njutcm.co.kr
남경중의약대학: www.njutcm.co.kr
E-mail 주소: samhwade@hanmail.net
samhwade@naver.com

청년 포교 '적신호'…한국불교 기둥 흔들리나

청년 포교, 왜 중요한가

"젊은 세대가 살기 힘든 사회다. 취업 때문에 동아리는 사치라고 할 정도다. 친구는 도반이 아닌 경쟁상대다. 행복해 지고 싶어 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찾고 싶어 한다. 또 법우들과 함께 가고 싶어 한다. 20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그동안 포교가 사람을 모으는 포교였다면, 앞으로는 청년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이해한 포교가 필요하다."



2012년 7월 해남 미황사에서 처음으로 열린 조계종 교육원이 주최한 '청년 출가학교'에서 참가자들이 스님들과 포행을 하고 있다. 첫 해임에도 불구하고 30여 명 정원에 270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20대 역시 '대안적 삶'에 대한 관심이 많음을 입증했다. 청년 포교의 시작은 그들의 고민은 듣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는 지난 2월 24일 마곡사 한국문화연수원에서 '불교, 미래세대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에서 이뤄진 이채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의 브리핑 중 일부다.

실제 현재 한국 대학생들의 1인당 등록금은 평균 704만 원이며 152만 명이 학자금대출을 받아 졸업할 때 2000만 원 정도를 빚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한다. 한국사회의 대다수의 20대는 사회에 진출하면서 빚부터 갚아야 한다. 그러다 보니 결혼자금을 모으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한국 평균 결혼비용은 1억 2000만원. 20대 평균 임금을 반영하면 10년이 돼야 지원없이 결혼할 수 있는 자금이 모인다. 26세에 취업한다면 36세에 결혼할 여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3~7포 세대'라는 신조어가 나오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청년들이 지친 삶의 의지처로 종교에 귀의할만 하지만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다. 현재 한국 종교 지형에서 2030세대의 이탈은 가파른 상승세이며, 한국 3대 종교 중 불교의 청년 감소세는 제일 두드러진다.

한국갤럽(대표 박무익)이 2월 12일 내놓은 〈한국인의 종교 1984~2014〉의 조사 결사를 살펴보면 한국 종교는 전반적으로 정체 내지는 침체 일로에 있다.

종교를 믿고 있는 인구는 1984년 44%, 1989년 49%, 1997년 47%, 2004년 54%로 증가 추세였지만 2014년에는 50%로 떨어졌다. 반면, 비종교인 비율은 반대의 입장을 보여줬다.

특히 20~30대의 종교 이탈이 심각하다. 10년 전 조사에서는 종교를 믿는 20대 비율이 45%였지만 2014년 조사에서는 31%로 14% 감소했다. 30대 종교인 비율 역시 10년 전 49%에서 이번 조사에서는 38%로 11% 줄었다.

종교인구 감소 부분에서 불교는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젊은 세대의 이탈이 3대 종교 중 가장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3040세대 경우 불교 인구는 지난 30년간 6%이상 감소했다. 그러다보니 2014년 조사에서는 2030세대 비율이 10% 내외, 5060세대가 30% 이상으로 연령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미 불교 신도는 연령 양극화 현상이 급격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연령별 종교인 분포 1984-2014 (%)

	19~29세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84	'97	'04	'14	'84	'97	'04	'14	'84	'97	'04	'14	'84	'97	'04	'14	'84	'97	'04	'14
불 교 인	10	10	15	10	17	15	21	11	28	21	27	21	29	30	35	32				35
개신교인	20	19	23	18	19	22	23	20	14	22	21	20	13	18	19	23				24
천주교인	5	6	6	3	7	8	6	7	5	8	9	9	6	7	6	5				8
비종교인	64	64	55	69	55	53	51	62	51	47	43	49	47	44	38	40				32

* 1094~2004년의 50대는 50세 이상을 의미. 2014년부터 60세 이상 별도 구분

출처=한국갤럽

종교 전반 걸쳐 청년 감소 추세

불교, 기성 종교 중 가장 하락

신도 노령화로 연령 양극화 현상

청년 고민에 불교 부응 했었나

연령별 욕구 맞춤형 포교 필요

젊은이를 위한 불교 공간 만들자

관심도 열정도 부족한 청년포교

한국갤럽의 설문결과를 전부 일반화할 수 없지만, 청년들이 불교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체감된 사실이다. 이는 그동안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어린이 · 청소년 포교 저하로 인한 폐해가 단적으로 드러난 결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현재 2030세대를 위한 포교 환경은 어떨까. 현재 청년포교 체계는 20대에 집중에 돼 있다. 대학생과 군인이라는 걸출한 포교 계층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린이 · 청소년 포교만큼이나 열악하다.

포교원이 2월 대중공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사찰 258곳 중 어린이법회를 운영하는 곳은 37곳에 불과하고, 청소년법회는 76곳, 대학생회는 125곳 정도다. 전국적으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조직은 23개 지역 150여 개 지회로 구성돼 있지만 신입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필화 성균관대 교수(우리는 선우 이사장)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불교동아리를 모집하는데 지난해에는 1명이, 올해에는 15명이 왔다"면서 "취업과 연결되지 않으면 학문도 동아리도 외면받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대학가 현실에서는 취업문제가 너무나 큰 문제로 다가오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면서 "극단적으로 불교계에서 만이라도 종무원을 비롯해 불교계 내의 일자리를 늘리거나 불교계 기업과 청년 불자들을 연결시켜주는 노력을 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군불자는 매년 10만 명의 새로운 장병들이 수계를 받고 있지만 실질적인 군불자수는 8만 명 정도이다. 그렇지만 군 환경이 좋아지고 종교활동을 의무화하지 않는 등 군불교환경이 변하면서 군법회 참가 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게 수계를 받았어도 대학이나 사회로 신행이 연계되지 않고 있어 효율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전역 장병 연계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제시된 과제다. 장성화 조계종 군종교구 기획실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포교종책연찬회에서 "군포교가 단순히 씨를 뿌리는 작업으로 끝내서는 안된다"면서 "전역 불자 장병 명단을 종단에 연계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전에도 전역 장병 명단을 종단에 연계했지만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사장됐다"면서 "종단은 이를 지역별로 분류해 본사, 포교당, 청년회, 대불련 등과 연계해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 무엇을 할 것인가

그렇다면 청년 포교 활성화를 위해 불교계는 무엇을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고뇌하는 젊음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채워줄 때 포교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조계종 교육원이 출가 장려를 위해 2012년 개설한 '청년 출가학교'는 대안적 삶을 모색하는 자리로 20대 청년들의 높은 호응을 받았다. 시행 첫해 30~40명 정원에 270명이 몰렸다. 서울대, KAIST 등 재원들도 상당 수였다. 당시 이들 대다수는 '행복이란 무엇일까'라는 근원적 질문을 가지고 있었다.

이채은 대불련 회장은 "취업과 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기 때문"이라며 "불교는 방황하는 청년들을 위로하고 올바른 삶의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로자나국제선원 주지 자우 스님은 "무엇보다 청년들에 대한 사랑이 가장 필요하다. 불자가 아닌 젊은이에 대한 공감과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종단에서 청년 불자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사찰들이 다리 역할을 해서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젊은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법회도 중요하다. 당장 〈반야심경〉을 주제로 법회를 한다면 그들의 삶에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코칭해주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무엇보다 자신의 가치 추구에 관심이 많은 현 세대에 대한 맞춤형 포교 · 명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조계종 포교부장 송묵 스님은 "지금 서양에서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불교의 명상에 바탕으로 둔 리더십 개발이 큰 유행의 물결을 타고 있다. 실제 구글, 애플, 야후, 나이키, 실리콘 벨리의 유수한 기업체들, 도이체 방크 등 내로라하는 기업체에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명상 프로그램이 인기리에 운영 중이다"이라고 소개했다.

스님은 "명상을 통해서 젊은이들의 취업과 관련한 실용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결국에는 마음의 평화와 자비를 길러준다면 그것은 바로 불교의 가르침과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며 "나아가 젊은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명상센터 운영 또한 필요하다. 사찰에 젊은이들이 편히 와서 쉴 수 있는 공간과 명상실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사회 신조어로 본 2030세대

7포부터 이케아 · 달관 세대까지 '웃픈' 청춘에 희망을 주려면

이케아(IKEA)세대, 취업깡패, 5포 · 7포 세대, 달관세대…. 장기불황으로 꽁꽁 얼어붙은 올해 채용시장의 상황을 나타내는 신조어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취업난에 지친 구직자들의 힘든 모습을 반영한 말이 대부분이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은 최근 이케아(IKEA)세대, 취업깡패, 화석선배, 5포세대, 빨대족, 달관세대, 취업 9종 세트 등 올해 채용시장 신조어 7개를 소개했다.

'이케아(IKEA) 세대'는 뛰어난 스펙을 갖췄지만 낮은 급여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젊은 세대를 가구 브랜드 이케아에 빗대어 표현한 말이다. 이케아는 실용적이고 세련됐지만 저렴한 가격의 가구 전문 브랜드다. 요즘 청년들을 보면 각종 자격증과 어학연수, 인턴경험 등 스펙을 보유하고 있지만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낮은 급여를 받으면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

'취업깡패'는 다른 학과보다 취업이 잘 되는 학과를 일컫는 말이다. 예전에는 경영학과가 취업시장에서 각광을 받았다면 몇 년 전부터는 공대생의 힘이 강해지고 있다. 주요 대기업이 이공계 출신 채용 비율을 높이거나 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대생 중에서도 일명 '전화기(전자 · 화공 · 기계)' 분야 전공자들이 대세다.

극심한 취업난으로 취업 전까지 학생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졸업을 미뤄가며 학교를 오래 다니는 고학번 선배들이 '화석'으로 비유되고 있다. 새내기 입장에서는 고학번 학생들이 오래된 조상처럼 느껴진다는 의미로 삼엽충, 시조새, 고려청자 등으로도 불린다. 이들은 등록금 등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 후배들의 눈치를 받으며 심리적 부담까지 안고 있다.

연애, 결혼, 출산, 내 집 마련, 인간관계 등 다섯 가지를 포기하는 '5포세대'도 늘고 있다. 사람인의 자체 조사 결과 20 · 30대 10명중 6명(57.6%)은 이 다섯 가지 중 하나 이상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취업과 희망까지 포기한 '7포세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취업난으로 구직자들의 평균 연령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다 보니 30대가 넘어서도 부모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기대어 살아가거나 아예 부모의 노후자금까지 자기 돈처럼 사용하는 자녀를 비꼬아 '빨대족'이라고 부른다. 실제로 사람인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구직자 절반(48.4%)이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구직활동을 하고 있었다.

'달관세대'는 일본의 사토리 세대에서 시작된 말로 욕심 없이 현재에 만족하며 무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세대를 지칭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웃지 못할 2030세대 신조어

이케아(IKEA)세대 |
뛰어난 스펙을 갖췄지만 낮은 급여와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젊은 세대를 가구 브랜드 이케아에 빗대어 표현한 말이다.

3~7포 세대 |
3포 세대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면 4포 세대는 내 집 마련을 5포 세대는 인간관계를 포기 항목을 늘렸다. 최근에는 취업과 희망까지 포기한 '7포세대'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달관 세대 |
일본의 사토리 세대에서 시작된 말로 욕심 없이 현재에 만족하며 무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세대를 지칭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고통을 안아줄 프로그램 필요
훌륭한 전문가 양성도 시급

시작된 말로 욕심 없이 현재에 만족하며 무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세대를 지칭한다. 절망적인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현재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낫다면서 인생을 초월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높은 청년 실업률로 인해 이미 좌절한 청년들이 희망도 의욕도 없이 무기력해진 모습을 반영한 것이다.

이런 신조어들은 2030세대의 '웃픈' 현실을 그대로 대변해준다. 또한 이들이 원하는 것은 주로 취업과 진로 등 '가치 추구'에 대한 매진이다. 이들에 대한 포교도 '가치 추구'의 욕구를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조계종 포교부장 송묵 스님은 "지금 2030세대는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면서 "절망에 빠진 젊은이들에게 자신감과 용기,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역경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해 주는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사찰과 스님이 열려 있어야 하며, 이들의 고통을 안아주고 치유해주는 시설과 실질적인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훌륭한 지도자 양성도 필수 요소"라며 "젊은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명상센터 운영 또한 종단이나 교구본사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청년 불자 부족은 기성 불자의 책임"



최 용 춘 교수불자연합회 명예회장

"청년들을 불자로 이끌지 못하는 것은 기성 불자들의 책임입니다. 청년불자들을 위해 참된 스승이 필요한 때입니다."

최용춘 교수불자연합회 명예회장(상지영서대 교수)은 13 · 14 · 15대 교불련 회장 재직시 대학생 포교에 관심을 갖고 지도교수들의 활동을 장려해왔다. 최 명예회장은 청년포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지도교수를 비롯한 이끌어 주는 스승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요즘 청년들은 불교가 재미가 없다고 합니다. 토익, 취업특강 등에 있어 진로와는 별개라고 느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들을 불교로 들어온다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끌어주고 필요한 부분에 도움을 주는 멘토역할이 필요합니다. 불교 안에 스승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최 명예회장은 "교수들조차 사실 각자의 연구 · 강의활동 등으로 인해 학생들을 지도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털어놓는다"며 "하지만 불자들의 미래를 위해 조금씩 이타심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명예회장은 "법조인을 꿈꾸는 청년들에게는 불자 법조인을 멘토로, 제빵사를 원하는 청년에게는 제빵업에서 일하는 불자들을 멘토로 연결해주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들은 '마음 쉴 곳'이 필요하다

"불교는 청년들이 어디로 가야하는지 방향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이끌어주고 그들이 가진 화두에 공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선우YB 회원 이치훈 씨는 서울대 재학 당시 학교 근처 성불암 법찬 스님을 만나기 전까지 신행 활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는 "20대 초반 신행에 관심 가지기 시작했지만 부모님 외에는 길을 일러주는 이가 없었다"며 "마음공부 하고 싶어 하는 청년들에게 수행 · 신행 방법을 알려주는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한다. 불교는 이 통로가 부재되어 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그는 "점점 각박해지는 사회에서 청년들은 바쁨에 익숙해지며 채우고, 쌓고 또 쌓는 데에만 치중하게 된다"며 "이상 아닌 '현실'로 청년들을 이끌어주고 그들이 가진 화두에 공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그는 사찰과 종단 내 운영되고 있는 청년회의 한계도 언급했다. 그는 "청년회에 소속되면 종단과 사찰을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하는 책무를 갖게 된다"며 "이 시대의 청년들은 '내 얘기를 들어줄 곳'과 '내 마음이 쉴 곳'이 더욱 필요하다. 절망에 빠진 이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과 힘을 제시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불자 이 치 훈 뉴아더스 대표



4인 4색 청년포교
현장에서 듣다

2030 세대는 고달프다. 일선 포교 현장에서 이들 위로하고 불법을 전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다. 또한 같은 세대로서 함께 호흡하고 불법을 전하는 20, 30대도 있다. 기성세대부터 2030세대까지 이들이 바라보는 청년 포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신성민 · 노덕현 · 박아름 기자

'어떻게 살 것인가' 함께 고민해주세요



이 채 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

"'시간이 부족하다'는 말이 딱 맞네요. 방학에도 쉴 시간이 없어요. 아르바이트, 계절학기, 어학연수 등 1, 2학년은 좀 괜찮은데 3, 4학년은 당장 현실에 직면하죠."

이채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 회장은 요즘 대학생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내외적으로 자신의 '종교'를 생각하기에는 힘든 현실이라는 것이다. 기존 포교 방식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다.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고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닌 숫자에만 집착한다는 것이다.

"현재 포교 방식을 보면 사람을 모으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포교는 한 사람이 불교적 인재로 변화하는 데 중심을 둬야 합니다. 청년 포교도 이에 맞춰야 합니다."

이 회장은 종교가 현재 젊은이들에게 호응을 못 얻는 것은 자신에게 지남(指南)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종교가 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분명 20대는 취업과 진로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합니다. 이 같은 고민 안에는 삶의 방향에 대한 고뇌가 함께 합니다. 취업과 진로 등을 놓고 고민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야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방황하는 청년들을 위로하고 올바른 삶의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회장은 2030세대의 포교에 있어서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생산적인 콘텐츠 개발도 불교계에 요구하는 부분이다.

"힐링 콘텐츠로 청년에게 다가가야"

"청년포교의 황금어장으로 불리는 군포교도 이제 옛 말입니다. 힐링콘텐츠로 청년 불자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군포교 현장에서 SNS를 통한 데일리 법문과 락밴드 등을 통한 신세대 포교에 나서고 있는 여정 강건욱 법사는 최근 군대 내에서도 비종교인들이 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강 법사는 "예전과 달리 군 내에서도 같은 시간대에 종교행사에 참여해 얻을 수 있는 유익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생활관마다 스카이라이프 등 케이블 방송이 들어오며, 예전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이기 때문에 종교시설을 찾는 이들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 법사는 이어 "최근의 종교계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일이 늘며 청년세대들에게 더욱 종교를 멀리하게 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다"며 "기성세대가 무감각한 것들이 청년들에게는 크게 와닿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 법사는 최근 군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는데 불교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법사는 "결국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스스로를 컨트롤 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며 "불교가 가진 강점은 마음 수행에 있기에 이런 부분을 선점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법사는 끝으로 "군에서 장병들이 자존감이 많이 상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며 "이는 최근 젊은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에 불교계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육군 5사단 여정 강 건 욱 법사





신세대 포교 현장 이곳을 주목하라

“수행·봉사 등 불심과 친목을 동시에”

젊은 불자들이 변하고 있다. 청년포교의 위기가 지적받고 있지만 청년불자들의 활동은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 그동안 단순히 법회를 찾는데서 다양한 봉사활동과 취미활동 등을 공유하는 것이 청년 불자들의 신행활동의 특징이다.


선우YB 성지순례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봉사로 하나 되는 청년 불자

사찰의 청년회는 봉사활동을 통해 신행생활을 함께 하고 있다. 먼저 조계사 청년회는 사찰 청년회 중에서도 100여명이 활동하는 대규모 단체이다. 매주 2회(화요일 저녁 7시 30분, 토요일 오후 4시) 조계사에서 정기 법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방생법회 · 사찰순례 · 여름 수련회 등 자체 프로그램을 기획해 청년 신행 활동에 힘쓰고 있다. 조계사 청년회는 다섯 분야로 나뉘어 활동한다. 회원들은 예불수행부 · 참선수행부 · 사찰문화부 · 찬불수행부 · 생활불교부에 속해 분야별 신행활동에 집중한다. 특히 요즘은 공식홈페이지 외에도 카카오톡, 밴드 등 SNS를 통해 서로 신행활동을 교류하고 있다.

봉은사 청년회도 매주 토요일마다 50여명의 청년들이 모여 함께 법회를 본다. 봉은사 청년회 소속 불자들이다. 청년회는 봉사부, 정진부, 지혜부, 합창부 등 4개부서로 되어 있는데, 정진부는 참선, 지혜부는 경전공부, 봉사부는 사중 봉사와 승가원 봉사활동 등을 담당한다.

매월 첫째주 일요일에는 장애아동보호시설인 승가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며, 각종 사중 행사에서 자원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봉은사는 계층법회가 활성화돼 30여명의 학생들로 구성된 대학생불자회가 따로이 존재한다.

매주 수요일 화계사에서 법회를 여는 화계사 청년회의 경우 강북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때로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물품 바자회도 청년회 차원에서 여는 것이 특징. 김상진(남 · 30)씨는 “우리 모임의 장점은 불교를 잘 모르더라도 관심만 있다면 함께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JGO 등을 통해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하는 진각종 청년회와, 지난해 40주년을 맞은 삼광사 청년회를 비롯한 천태종 청년회 또한 모두 다문화가정 보살핌 등 부처님 가르침을 사회적으로 실천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대학생 중심의 활발한 활동 ‘눈길’

청년포교에 있어 가장 주요한 대상은 대학생들이 될 것이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뿐만 아니라 대학가에서는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최근 다양한 불교 소모임이 발달하고 있다. 먼저 불교지킴이를 의미하는 ‘불킴’은 동국대 식품공학과 내 불교 소모임이다. 식공과 학생들과 불교의 인연은 2012년 72학번 이황씨가 발심해 불자 후배들을 모아 시작됐다. 현재 회원은 26명, 이들은 주 1~2회 정각원 법회에 함께 참여하는 한편 1년에 두 번 수원 봉녕사 템플스테이 및 불교박람회 참여, 봉은사 김장 담그기 봉사, 어린이템플스테이 지도봉사 등에 열심이다. 신행활동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일손이 필요한 사찰을 도우는 일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회장 14학번 박진호씨는 “요즘 취업 준비, 학점 관리로 ‘노는 대학생’이라는 말도 다 옛말인데 불킴 활동은 바쁜 생활에 여유를 찾아준다”며 “스님의 법문을 듣고 서로 생각을 공유하다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성장해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직장생활을 막 시작한 청년불자들을 대상으로는 직능별 불교동아리가 인기다. 동아대 로스쿨 불교동아리 ‘법등회’(회장 전효철)와 부산대 로스쿨 불교동아리 ‘향성’(회장 김진욱) 등은 로스쿨 입학생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 등을 진행한다. 현재 그 회원 수가 100명을 넘어섰으며 대학 근처에 있는 사찰과 연계해 법회를 자체적으로 열고 있으며 지역의 독거노인 등 소외 받는 이웃을 위해 정기 봉사활동 찾아 나설 예정이다.

팟캐스트 등 SNS 활용한 커뮤니티

최근에는 페이스북과 팟캐스트 등을 활용한 다양한 커뮤니티도 인기다. 청년불자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성지순례를 비롯해 다양한 문화생활을 함께 공유한다.

대표적인 몽미은 ‘절오빠 절언니’이다. 2013년 4월 꾸려진 ‘절오빠 절언니’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가볍다이다. 젊은이들이 모여 불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 서로 모이는 것만으로도 소통은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모임은 인터넷 팟캐스트 사이트 ‘팟빵’을 통해 중계된다. 크리스마스 등에는 함께 파티를 열고 즐겁게 놀기도 한다. 현재 누적 참여인원은 60명에 달한다. 개중에는 불교에 관심있는 가톨릭 신자도, 한국에 유학온 외국학생도 있었다. 보통은 대학생들과 직장인이 다수다. 이들 모임은 향후 청년포럼을 비롯한 심도깊은 자리를 마련하고 문화포교 등으로 영역을 넓혀갈 예정이다.

20대만으로 이뤄진 선우YB도 신행 방법에 한계를 두지 않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선우YB는 매월 1회 정기모임 외에도 밴드 등을 통해 소통한다. SNS 법어(法語)를 공유하고 사찰 봉사. 문화행사 정보를 공유해 다방면에서 활동한다. 선우YB는 대학생 · 교사 · 기자 · 작곡가 · 배우지망생 등 약 20명으로 이뤄진다. 모임의 시작은 동국대 학생 중심이었지만 회원 개개인이 ‘청년포교사’로써 주변에 은둔한 청년 불자들을 모아 현재에 이르렀다. 지인들로 모임이 구성된 만큼 결속력도 대단해 신행 활동 외에도 취미생활과 친목모임을 함께하고 있다.

‘평화의 친구들’은 청년불자 수행 모임이다. 평화의 친구들은 이혜봉 선생이 운영하는 ‘청년 멘탈 강화 프로젝트-행복수업’에 참여했던 학생들 중 60여 명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만들었다. 이들은 5월 16일 서울 탄허기념박물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행 활동을 시작한다. 붓다의 가르침을 핵심으로 불교명상수행을 교육한다는 이혜봉 선생의 지도에 따라 위빠사나 · 보리심 수행 · 선 수행 등 통합적 수행법을 배우게 된다.

특히 이들은 서울 면목동에 ‘숨 집’이라는 쉐어하우스를 마련해 공동 수행 생활을 하고 있다. ‘숨 집’은 ‘(숨을) 쉬는 공간’이라는 의미다. 이혜봉 선생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인 만큼 수행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다”며 “개인의 수행과 명상에 집중하는 것 뿐 아니라 수행을 토대로 사회에 기여할 방법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 박아름 기자


동국대 식품공학과 불교 소모임 ‘불킴’


‘평화의 친구들’ 소속 청년불자들의 ‘행복수업’ 장면.


정토회 청년회의 해외 성지순례 및 자원봉사 모습.

■ 신세대 트렌드에 포교 성패가…

‘친근한 소통’으로 패러다임 변화

최근 젊은 세대들의 특징은 ‘즐거움’이다. 개인의 삶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며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일에는 서슴없이 뛰어드는 것이 요즘 세대의 젊은이들이다. 이들을 위해서는 특별한 포교 방법이 필요하다.

강민지 절오빠절언니 공동대표는 “즉각적인 재미와 트렌드를 따르는 현재의 2030세대는 종교의 ‘딱딱함’을 달가워하지 않는다”며 “불자는 아니지만 템플스테이를 가거나 명상을 하는 청년들이 있다. 이들의 핵심 니즈가 무엇인지 파악하면, 불교의 포교 프로그램이 자연스럽게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신세대 트렌트의 큰 흐름은 SNS활용이다. 하루 생활을 스마트폰으로 시작하고 먹거리 쇼핑부터 모든 것을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인터넷으로 해결한다. 젊은세대들은 심지어 라면 끓이기나 떡볶기 만드는 방법도 인터넷을 통해 배운다. 불교계에서도 이들을 불자로 만들기 위해 이들의 트렌드를 잡는데 노력하고 있다. 가장 먼저 혜민 스님을 비롯한 젊은 스님들은 SNS포교를 진행하고 있다. 스님들은 ‘맞춤형 법문’을 설한다. ‘대국민 멘토’로 올라선 법륜스님과 혜민 스님 등 직문즉답 위주의 SNS상담을 비롯해 계원 스님과 원빈 스님 등 좋은 문구를 소개하는 방식도 유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이 좋아하는 매체를 활용한 포교도 관심을 요한다. 불교일러스트레이터 양경수 작가(32)는 일러스트를 통해 포교를 진행하고 있다. 2014년 불교박람회 ‘붓다아트페스티벌’ 등에도 출품한 그의 작품세계는 만화가 4명이 불교를 만화로 표현한 만만한뉴스에도 이어지고 있다. 영화 또한 명량 등에서 나온 의승병들의 모습 등 불교적 내용을 보고 불교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차차석 불교문예연구소장은 “창의성을 개발하고 젊은이들에게 위안을 주고, 소통할 수 있다면 외면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佛紀 2559年 乙未年 Buddha's birthday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

銀 海 寺

조 실 포산 혜인
관 장 포봉 돈명
주 지 운곡 돈관

총무국장 법성 재무국장 혜안 호법국장 성본 사회국장 진성
포교국장 묘청 문화국장 호경 원주국장 선국

사 부 대 중 일 동

♣ 학교법인 동곡학원
영천 선화여자고등학교
054) 333-3431



경북 영천시 청통면 청통로 951(치일리 479) 전화 054)335-3318 www.eunhae-sa.org

佛紀 2559年 乙未年 Buddha's birthday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

大韓佛敎 曹溪宗 第14敎區 本寺

禪刹大本山 金井叢林 梵魚寺

방 장 지유 대종사
주 지 수불

수 좌 인각 율학승가대학원장 수진 승가대학장 용학 박물관장 경선
부 주 지 범산 총무국장 혜성 기획국장 원걸 교무국장 승련
재무국장 무관 사회국장 보산 문화국장 성공 포교국장 지장
호법국장 강하 연수국장 오산 사서국장 법성 원 주 석산
신도회장 이윤희

총 림 대 중 일 동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 (청룡동 546번지) www.beomeo.kr 종무소 ☎ 051)508-3122

佛紀 2559年 乙未年 | 전면광고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 | B4

부처님의 경전을 전하는 것은 세상을 크게 이익되게 하는 것이다. 경전을 전해 받는 사람은 큰 경사를 얻고 일체 중생은 윤택함을 얻는다. 〈불본행경〉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산 통천사

주지 선지
(대구불교사암연합회 회장)

『부처님 진신사리 모신 적멸보궁』

사부대중 일동

■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1동 3-1(아양교옆)
TEL 053)941-3503, 053)953-448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울산지원

지원장 혜안

사부대중

■ 울산광역시 북구 천곡동 927-7
TEL 052)295-2335
FAX 052)295-2336

한국불교태고종

지 안 사

주지 지안

■ 경북 성주군 벽진면 매수리 775
TEL 054)932-8443

재단법인 선학원

기원정사

주지 우록

■ 대구광역시 동구 불로동 1152-5
TEL 053)982-9329
FAX 053)983-1698

대한불교천태종

대 성 사

주지 류화산

〈부설〉
· 동해유치원
053)652-5760
· 대구금강불교대학
053)624-0133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동 520-3
TEL 053)624-0542 / FAX 053)623-0265
홈페이지 www.daesungsa.or.kr

대한불교천태종

대구 동대사

주 지 김도산

신도회장 임응호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고모동 667-1
TEL 053)795-1357,795-1733
FAX 053)795-1731

대한불교법화종

무우소 가람 수 참 사

주지 영암

신도회원 · 관음회원 일동

고통의 삶에 기적은 일어난다.
한가지 소원만 말하세요.
'30년 전통 맞춤형
방편 전문도량'

■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로 137-1
(평리6동 640-5)
TEL 053)561-3129

대한불교원효종 부산교구종무원

자 비 원

'불자의 안식처'

종무원장 석 불
주 지 법 선
무진 · 무운스님
사무국장 이홍순

■ 부산광역시 동구 조천4동 883-8
TEL 051)644-8361
FAX 051)642-8361

"생활불교 실천불교"

대한불교진각종 대구교구청

교구청장 정 효

대한불교 진각종
jin-gak buddhist order

■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 3동 584-1
TEL 053)255-1450,1411
FAX 053)252-9703
홈페이지 www.jingak.or.kr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포항지원

지원장 혜문

사부대중

■ 경북 포항시 북구 우현동 13-1
TEL 054)232-3163
FAX 054)241-3503

보건복지부지정

(사)생명나눔실천본부 대구지역본부

'자원봉사자,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본부장 박종명

장기기증 / 헌혈지원사업
환우지원사업 / 결연사업

■ 후원계좌 안내
대구은행 188-13-073651
농 협 301-0031-1553-61
국민은행 805501-01-375024
예금주:생명나눔실천본부 대구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북로 324(구.신암동)
TEL 053)945-0007/FAX 053)945-0008
■ 산하기관 : 행복나눔지역아동센터
TEL 053)944-0007

'달리는 법당, 거리의 포교사'

대구 운불련 호출택시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 대구지회)

회장 성승길

■ 대구광역시동구 용계동 763-11
053)766-7777,053)323-7777
053)566-7777,053)744-8888
053)764-0763~4
FAX 053)764-0766

'큰사람을 키우는 민족사학'
자비와 지혜를 배우는 전법도량

학교법인 능인학원

능인중·고등학교 상아유치원

이 사 장 자 현
능인중학교장 김상만
능인고등학교장 조상승
상아유치원장 정인애

■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7(지산동 800)
TEL 053)2322-9176
FAX 053)763-1807

학교법인 동곡학원

선화여자고등학교

이 사 장 운곡 돈관
교 장 장정익
교 감 이희명
행정실장 김인수
법인사무국장 강희중

「새롭게 도약하는
선화여자고등학교에
새로운 교육의 가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 경북 영천시 화룡동 산 7번지
TEL 054)333-3431
FAX 054)333-3432

高靈瓦 Goryeong Rooftile Making Co., Ltd.



(주)고령기와가
불교 건축문화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주)고령기와는 국내 1위
한식형 그을림기와 전문업체로서
지난 60년간 국내 주요 사찰을 비롯해
궁궐 및 각종 문화재 복원사업과
그 외 주요 건물에
기와를 생산, 공급해 왔습니다

(주)고령기와
Goryeong Rooftile Co., Ltd.
www.rooftile.co.kr

경상북도 고령군 개진면 구곡리 400-1번지
Tel 054-954-8008(代) Fax 054-954-8308

“청년포교, 다차원적 접근·지혜 전하자”

청년포교 활성화 전문가 제언



김응철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의 여름 수련회이자 포교대회인 2008년 8월 ‘제27차 한국불교 1600년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환하게 웃어보이고 있다. 침체된 청년불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 젊은이들의 욕구와 라이프스타일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에 부합하는 포교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청년 감소, 어린이 포교 부재 원인
20~30대 포교, 범불교적 관심 요망
생활패턴·욕구 부합하는 콘텐츠 개발
문화·스포츠·취업에 불교 관심 가져야

한국 사회에서 불교가 다수 종교의 지위를 위협받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종교인구 변수를 포함시킨 1985년 이후 청년기 인구 중 불자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이웃종교의 청년기 인구 비율은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가톨릭의 청년인구 비율은 20년전 전에 비하여 약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인구의 변화는 사회적 지형을 바꾸고 구성원들의 가치관과 인식태도, 문화의 양태를 변모시킨다. 특히 미래사회는 현재 살고 있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어떤 종교적 가치관을 수용하는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게 된다.

가장 최근에 시행된 2005년도 조사결과를 보면 청년기의 불교인구 비율은 20대 전기 19.7%, 20대 후기 18.9%, 30대 전기 18.4%, 30대 후기 20.7% 등이다. 개신교 인구 비율은 20대 전기 18.7%, 20대 후기 17.1%, 30대 전기 17.5%, 30대 후기 17.9% 등으로 나타났다. 가톨릭 인구 비율은 20대 전기 12.2%, 20대 후기 10.2%, 30대 전기 9.7%, 30대 후기 10.0% 등으로 주요 종교들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가톨릭은 이미 전체 청년기 인구의 10%를 넘어서서 불교와 개신교의 존립을 위협하는 교세를 확보하였다. 2015년도에도 이와 같은 조사를 실시할 계획인데 불교인구 비율은 지난 10년 전의 조사에 비해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 미래불교 연결고리

불교계가 현재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문제는 어린이와 청소년 포교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청년들의 종교 활동은 어린이와 청소년기의 종교와 연속선상에 있다. 청년기에는 종교 활동이 다소 위축되는 경향은 있다. 그러나 20대의 경우 군입대시 훈련소에서의 포교활동 결과에 따라 새로운 종교를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종교적 활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또한 대학을 진학할 경우 대학생활에서 종교를 선택하면서 삶의 양식이 바뀔 수도 있다.

반면에 30대의 종교 활동은 오히려 어린이들에게 더 적극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 대부분 청년들은 30대에 자녀를 갖게 되고 그 아이들을 종교시설로 데려가는 것은 부모들이기 때문이다. 30대의 종교인구 비율은 바로 영유아 및 어린이들의 종교인구 비율과 상관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년 포교는 미래 불교를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불교계의 청년 불자들은 자신의 종교를 잘 내세우지 않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불자라고 해도 정기적으로 사찰을 방문하거나 적극적으로 신행활동을 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30대 청년들의 소극적인 신행활동은 불교의 사회적 활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반면에 불교 청년들의 적극적인 신행활동은 불교계 전반에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 주고,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원동력이 된다.

욕구·취향 알고 맞춤형 포교를

침체에 직면한 불교계에서 청년포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청년기의 생활패턴과 사회적 욕구 등을 고려한 포교전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같은 청년기라고 해도 성별에 따라 그리고 연령별로 20대와 30대는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을 고려한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즉,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포교전략은 성별, 연령별로 나타나는 사회적 특성과 종교적 욕구, 그리고 종교성의 정도에 따라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20대 전기의 남자들 중 다수는 군대에서 생활하고 20대 중기는 대학생활을 하고, 20대 후기는 직장생활에 들어가게 된다. 반면에 여자는 20대 전기에 대학생활을 하고 20대 중반 이후부터 학업을 마치고 사회생활에 돌입하게 된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20대의 남자는 군대, 대학 등을 중심으로 포교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반면에 여성들은 대학과 직장 중심의 포교활동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군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포교활동을 제외하면 20대는 포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교수들이 교수불자연합회에 가입하고 정기적으로 신행활동을 하는 사례들도 있다. 이들은 사비로 장학금을 조성하여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기도 하고, 대학생 불자회를 지원하기도 한다. 이러한 활동은 대학생 포교는 물론이고 대학이 위치한 지역사회 포교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한다. 속초 설악산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 신흥사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웃종교계에서는 서울 지역의 주택난을 고려하여 학생들이 숙식을 해결할 수 있는 숙소를 지어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장 효과적인 포교 방법 중 하나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법이다. 최근 학비가 너무 비싸져서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에 내몰리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장학생을 선발하고 4년간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각 종단과 주요 사찰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

20대는 취업·대안적 삶을

최근 20대 청년들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취업이다. 때문에 각 대학에서도 취업관련 동아리는 문전성시를 이루는 반면에 종교관련 동아리는 거의 운영이 안 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한다면 청년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고 미래에 불안감을 털어버릴 수 있는 지혜를 증장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청년 포교의 핵심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20대 청년층들 중에서는 국제적인 안목을 키우기 위해 외국을 방문하거나 어학연수 및 단기 취업비자로 해외에서 일자리를 찾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여 해외에 있는 사찰들과 연계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지구촌공생회 및 정토회 등과 같은 국제구호 단체와 연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템플스테이 이용자의 연령분포를 분석해 보면 20대 및 30대 참가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월정사 단기출가학교에도 20대와 30대의 참여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20대와 30대 청년층이 문화체험에 특히 관심이 많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청년층의 문화체험은 향후 종교 활동 및 수행체험과도 연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각 사찰에서는 지역의 청년층이 거부감 없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30대는 생활체육·자녀교육을

30대 청년층은 가정을 이루고 직장생활을 시작하는 시기로 종교 활동과 여가 활용이 많이 부족한 세대에 해당된다. 그렇지만 젊은 패기로 도전하며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향해 진격하는 세대이기도 하다. 30대 청년층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여가활동은 생활체육이다.

특히 30대는 스포츠 동호회 활동과 친구들 사이의 친목도모를 일치시키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같은 연령대의 동료들과 허심탄회하게 만나고 스포츠를 통해 여가와 건강을 동시에 추구하는 특징도 보여준다. 이러한 시대적 조류를 반영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여러 종목별 생활체육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생활체육에 대한 열풍 때문에 종교단체에서는 경기장을 마련하고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불교 사찰들은 주로 농어촌에 많이 위치하고 있고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찰들도 있다. 이들 사찰들은 생활체육에 필요한 운동장을 확보하고 스포츠 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중요한 포교방법이다. 이러한 생활체육 포교는 30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20대부터 60대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층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성공사례로는 ‘설악산 신흥사배 축구대회 및 전통문화 가족한마당 축제’가 있다. 설악산 신흥사는 설호 축구단과 야구단을 창단하였으며 2001년부터 지금까지 5회에 걸쳐 축제한마당을 개최하고 있다. 축구단의 경우 30대부터 60대까지 4개 부에 각기 약 16개 팀이 참여하여 경쟁을 하고 있다. 야구팀도 연령대별로 세분화하여 토너먼트를 통해 우승자를 가린다. 여기에 어린이와 청소년 등이 함께 참여하는 80여 가지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연인원 약 2만 명이 참여하는 큰 행사를 만들었다.

신흥사의 한마당 축제는 기획부터 행사당일의 프로그램 진행에 이르기까지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활동력이 좋은 30대를 필두로 하여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그 가족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기회를 활용하여 30대 청년층은 부부, 부모, 자녀, 친구 등과 함께 참여함으로써 포교 성과를 거두는데 기여하고 있다.

가톨릭 등 이웃종교에서는 30대를 중심으로 하는 ‘아버지 학교’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아버지와 자녀들의 소통을 확대하고, 시행착오 없는 아버지의 역할을 경험하도록 지도한다.

청년에게 도움되는 포교정책을

청년포교 활성화를 위해서는 종단, 교구, 단위사찰, 청년단체 등에서 다차원적 접근이 필요하다. 종단 차원에서는 전국의 청년들이 불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이미지 제고와 상징체계 구축, 미래의 비전과 지혜를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특히 종단에서는 청년들이 불법승 삼보에 의지하여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다른 어떤 삶보다도 유익하고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교구차원에서는 해당 지역사회의 종교 환경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청년들의 종교적 욕구, 이용 가능한 시설과 동원 가능한 자원들을 파악하고 청년포교에 활용하는 방법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 해인사에서 백중 우란분절에 미혼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행사를 주관하는데 이는 결혼이 늦어지고 있는 청년들의 삶을 고려한 적절한 포교방법이다.

각 사찰에서는 지역 청년단체들과 연계하여 함께 의미 있는 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천태종 구인사에서는 지역 청년들이 재배한 농작물을 매입해 줌으로써 농촌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만들어 주고 있다. 그리고 지역 청년들이 구인사에서 종무원으로 일하거나 자원봉사 활동을 하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것이 지역 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청년포교활동의 사례이다.

청년포교는 각 종단과 사찰에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청년들은 아직 경제적으로 완전한 자립을 하지 못하였고, 가정적으로도 육아부터 주택마련에 이르기까지 경제적 지출도 많아지기 시작하는 때이다. 또한 청년 전기의 연령층들은 직장을 구하는 것부터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때에 불교계에서는 이들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종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청년 시절이 신행활동 참여는 불교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주요한 요소가 되고 있음을 불교계가 자각해야 한다.

佛紀 2559年 乙未年 Buddha's birthday 평화로운 마을 향기로운 세상

대한불교조계종 제16교구 본사
고 운 사

조 실 현봉근일
회 주 송암혜성
동 당 원남각호
주 지 송원남전운
부주지

총무국장 도륜 기획국장 용담
교무국장 성공 사회국장 등안
호법국장 정우 포교국장 동우
연수국장 현조

고운노인요양원 원장 석우
의성노인복지관 관장 선주
영주장애인복지관 관장 도윤
안동청소년문화센터 관장 등원
사찰음식체험관 관장 해견
연화마을관장 구이
안동장애인복지관 관장 호걸

◆사찰음식체험관 :
사찰음식강의, 청국장, 두부만들기체험
템플스테이 둘째·넷째주 토 ~ 일 (1박 2일)
신묘장구대다라니철야정진 매월 첫째주 토요일

사부대중일동

• 경북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길 415 (구계리116) ☎ 054)833-2324
• 사찰음식체험관 ☎ 054)834-2324 템플스테이 833-6933 / 전송 834-6935 (www.gounsa.net)

佛紀 2559年 乙未年 Buddha's birthday 평화로운 마을 향기로운 세상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며,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유가종찰·미륵성지
대한불교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모악산 금산사

조 실 태공월주
회 주 금산도영
주 지 자산성우

총 무 원 혜
기 획 화 평
교 무 대 형
재 무 혜 소
사 회 덕 림
호 법 원 성
포 교 지 월

신도회장 청광 김백호 외 사부대중 일동

부설
전북불교회관 전북 김제시 금산면 모악 15길 1
서원노인복지관 전화 063)548-4440~2 / 팩스 063)548-1390
룸비니 어린이집 홈페이지 www.geumsansa.org 이메일 geumsansa@hanmail.net

佛紀 2559年 乙未年 | 전면광고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 | B6



만약 물이 항상 있다면 우물이 무슨 소용이 있으랴.
만약 욕심이 전혀 없다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구하리. 〈소부경전〉

대한불교조계종
정혜결사도량 오백나한기도도량
팔공산 거조사(암)

주지 태관

■ 경북 영천시 청통면 신원리 622
TEL 054)335-1369
FAX 054)335-2609

'수행, 지혜, 자비, 교육의 복지실천도량'
팔공총림 동화사 말사 **관오사**

■ **관오사 교육 및 수행**
· 공부내용 : 경전공부 + 좌선 행선
· 교 재 : 초기경전, 초기불교이해
매주 (화) 오전 11시(낮반)
매주 (월) 저녁 7시(저녁반)

■ **강독(니까야)**
· 일시 :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법사 : 다묵스님(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교수사)

'어둠이 없는 밝은 사회'를 향하는
불교사회복지회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동 417-10
대표이사 지도스님 회주 자광스님
선원장 명언스님 주지 지우스님
■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26길 9
TEL 053)471-6640
모든 존재들이 안락하고 행복하고 평화로우며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관 운 사

주지 지산

■ 경북 성주군 성주읍 경산길 38
TEL 054)931-7777
FAX 054)933-0808
www.gwanusa.org

대한불교조계종
최정산 광덕사

주지 운성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190-2
TEL 053)763-0068

대한불교조계종
문 수 사

주지 덕화
(포항불교 사암연합회장)

사부대중 일동

■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읍 인두리 151
TEL 054)285-8516

대한불교조계종
보 경 사

회주 법달
주지 철산
재무 지범

사부대중 일동

■ 경북 포항시 북구 송라면 중산리 622
TEL 054)262-1117 FAX 054)262-0149

'부처님의 가피를 가족과 함께하는…'
대한불교조계종
문수급식센터

센터장 효신

급식센터봉사자 일동

「매월 둘째 토요일-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점심무료급식」

■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인2동 1470-5
TEL 053)637-0900

'수행과 교육의 산실'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동화사 직할포교당 **보현사**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중구 문우관길 65
TEL 053)431-5400
FAX 053)255-5629
Email : bohyunsa5400@hanmail.net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천년고찰 팔공산 **불굴사**

주지 덕조

신도일동

■ 경북 경산시 와촌면 강학리 5
TEL 053)854-0440
http://cafe.daum.net/bulgulsa.ok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태실기도도량 선석사

주지 선견
부주지 선오
총무 도갑

사부대중 일동

■ 경북 성주군 월항면 세종대왕 자태실로 616-33
TEL 054)933-9800
www.seonseoksa.org

대한불교조계종
송 림 사

사부대중 일동

■ 경북 칠곡군 동명면 구덕리 61-6
TEL 054)976-8116
FAX 054)976-6802

대한불교조계종
월 인 사

주지 포전 혜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로 85길 52
TEL 053)767-3971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비슬산 은적사

은적사 부설 룸비니 유치원

주 지 원일
신도회장 권정행성
봉사단장 김대용해
합창단장 김대각화

부설] 룸비니유치원 원장 이수련화

■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3동 1572
TEL 053)653-1572
FAX 053)653-2765

대한불교조계종
¡ff″¸ˆ+· ˜ℬ»¸fi ,ஜ ß‚Œ″,–ˆ ¡fl
비슬산 용연사

주지 활중

신도일동

불교입문과정
불교학당
경전반 운영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반송리 882
TEL 053)616-8846
FAX 053)616-0408

대한불교조계종
팔공산 파계사

관음기도도량

봉축
파계사 원통전
보물 제1850호 지정

조실 청운 도원
회주 무봉 성우
주지 남명 허운

■ 대구광역시 동구 파계로 741(중대동)
TEL 053)984-4550
FAX 985-7118
www.pagyesa.org

佛紀 2559年 乙未年 | 전면광고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 | B7

사람이 항상 노력하면 소원을 반드시 이룰 것이니 이미 법과
진리를 구해서 얻었다면 안락함을 누리리라. 〈별역잡아함경〉



대한불교조계종
감 천 사
■ 대구광역시 동구 진안동 151-1
TEL 053)982-0562 / FAX 053)983-6668
■ 사회복지법인 감천복지재단
후원계좌 : 대구은행 179-04-153377-001
(예금주: 감천복지재단)
■ TEL 053)986-5522~3 / FAX 053)986-5524
www.gamchun.com

대한불교조계종
팔공산 구룡사
주지 효재
■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 2리 328
TEL 054)975-9045, H·P 010에9045또9045

대한불교조계종
대 덕 암
주지 혜송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250
TEL 053)763-7164

대한불교조계종
대 운 암
주지 지자
■ 경북 청도군 청도읍 유호리 산1번지
TEL 054)372-1433

대한불교조계종
망 월 사
주지 동진
사부대중 일동
■ 경북 칠곡군 지천면 달서1리 421-4
TEL 054)972-2700

대한불교조계종
법 륜 사
주지 법성
■ 경북 영덕군 영덕읍 덕곡1리 171
TEL 054)734-1258

대한불교조계종
법 성 사
주지 부용
■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6동 386-3
TEL 053)553-5371

대한불교조계종
보리사 보리불교대학
학장 증악
대중일동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신묘장군대다라니독송법회(문화강좌안내)
선체조 / 다도 / 어린이 천자문 교실
■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동 958-10
TEL 053)522-7611 FAX 053)522-7612

마음청정 · 국토청정
대한불교조계종 보 현 암
하루헌 · 영남불교문화원
보현회신도회 일동
사 부 대 중
■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257
TEL 053)767-0274 FAX 053)762-8950
휴대폰 010-3534-8950

대한불교조계종
불광사·경북불교대학
"나와 이웃과 자연이 함께하는 삶"
학장 운곡 돈관
■ 대구광역시 수성구 욱수동 444
TEL 053)792-1353, 1181 FAX 053)791-4951

대한불교조계종
석 가 사
주지 경암
■ 대구광역시 수성구 이천동 97-3
TEL 053)791-8137
FAX 053)792-0784

대한불교조계종
성 화 사
주지 진공
신도일동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1동 521
TEL 053)625-9030

대한불교조계종
아 미 사
주지 덕현
신도일동
■ 대구시 동구 지묘동 팔공로 91길14(지묘236)
TEL 053)983-1816

대한불교조계종
영 혜 사
사부신도일동

대한불교조계종
원 만 사
약사여래대불
주지 법홍
원만사 부설 유치원 사부대중일동
■ 대구광역시 중구 동산동 708
TEL 053)257-1914

대한불교조계종
화악산 적 천 사
주 지 정광
신도회장 변숙현
반야회장 정광심
구도회장 양해성
신 도 일 동
■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원리 981
TEL 054)373-0307

대한불교조계종
청 량 선 원
[부설] 아헹가 요가센터
사부대중 일동
■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41-17
대구본원 053)981-3553
대구범어동센터 053)753-3550
서울센터 02)599-8150

대한불교조계종
청 수 사
[부설] 청수어린이집
청수유치원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 4동 117-36
TEL 053)741-2562
[청수어린이집] TEL 053)753-2561
[청수유치원] TEL 053)753-2563

대한불교조계종
향 림 사
주지 정관
사부대중 일동
천수경 에세이집
「마음을 주는 손」 - 저자 정관스님 -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우록리 산1번지
TEL 053)767-7504

관음보살협찬 기도도량
까치산 길 조 암
주지 보현
■ 경북 성주군 용암면 본리 3리 471
TEL 054)931-5204

대한불교 원효종
귀 원 사
주지 보덕
회장 이희남
총무 김명숙
■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7동 1856
TEL 053)555-7377

대한불교 원효종
대 원 사
창건주 대원행
주지 원정
회장 홍주환
총무 김정희
■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오리 산 46
TEL 053)768-0887

한국불교대각종 총본산
동천강 대 각 사
관음기도 참회도량
주지 무연대각
해수관음회
불교문화대학 일동
■ 울산시 중구 대황 13길 37-9
TEL 052)296-0908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무 학 사
주지 법등
■ 경북 포항시 북구 기계면 문성리 511-1
TEL 054)243-1751

우리불교 우리절
용암산 미 륵 사
주지 석청송
■ TEL 053)981-1199
FAX 053)982-0683

관음기도도량
수 국 사
주지 지원
■ 경북 성주군 초전면 대장 3리
TEL 054)932-9847

대한불교 법화종
용 화 사
주지 혜각
■ 경북 영천시 신녕면 화석리 740
TEL 054)332-0235

해 운 정 사
주지 청명
관음회 신도일동
청명노인복지센터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2동 1928-13
TEL 053)621-6237

수행과 회향 자정과 혁신의 공동체
참여불교 대구·경북재가연대
대표 김주동
■ 대구시 중구 남산2동 536번지 동아빌딩 4층
TEL 053)427-0108 / FAX 053)254-9348

佛紀 2559年 乙未年 | 전면광고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 | B8

어떤 사람을 친근히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행과 같아져서 혹은
착해지기도 하고 착해지지 않기도 한다. 〈제경요집〉



대한불교조계종 17교구

익산 관음사

주지 덕림
관음사 성지순례단
신도 일동

이리 불교대학
학 장 덕림
부학장 김진수

■ 전북 익산시 갈산동 31-9
TEL 063)854-1578, 842-6652

대한불교조계종 24교구

능가산 개암사

주지 재안

사부대중 일동

■ 전북 부안군 상서면 개암로 248번지
TEL 063)583-3871
http://www.gaeamsa.org/

대한불교조계종 17교구

금 선 암

주지 덕산

사부대중 일동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인동 1192-1
TEL 063)221-8486

대한불교조계종 24교구

월명산 동국사

주지 종걸

사부대중 일동

홈페이지 : http://www.dongguksa.or.kr/

■ 전북 군산시 금광동 135-1번지
TEL 063)462-5366

대한불교조계종 17교구

남 고 사

주지 원혜

사부대중 일동

■ 전북 전주시 동서학동 2가 724
TEL 063)284-9640

대한불교조계종 24교구

성 불 사

주지 월은 종명

명예회장 : 진여심
신도회장 : 금강지
거사회장 : 성문수

사부대중 일동

■ 전북 군산시 경암동 서래내길 34
TEL 063)445-3266
http://seungbulsa.com/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함라산 숭림사

(보물 제825호 보광전)
템플스테이 지정사찰

주지 지광

신도회 관음회 일동

■ 전북 익산시 웅포면 송천리 5번지
TEL 063) 862-6394
홈페이지 : http://www.sunglimsa.com/

대한불교조계종 제24교구

청량산 문수사

주지 태효

사부대중 일동

■ 전북 고창군 고수면 은사리 48
TEL 063)562-0502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장 각 사

주지 일행

사부대중 일동

■ 전북 익산시 오산면 장신리 865-5
TEL 063)857-6533

용성진종조사 탄생성지

장수 장안산하 죽림정사(竹林精舍)

주지 지광 법륜
법사 유수
사무국장 정강 김규준

세계불교 청소년 교화후원회
지도법사 불 심 도 문
회 장 수승행 한명옥 합장

■ 전북 장수군 번암면 죽림2길 31
TEL 063)353-0108 FAX 063) 353-8500
http://www.juklim.com/

나한도량

군산 성 흥 사

성흥사 불교대학
(행자전문 교육도량)

주지 송월 법원
사부대중 일동

■ 전북 군산시 성산면 둔덕리 133-3번지
TEL 063)453-0050, 010-3677-9454

대한불교조계종

미륵산 심곡사

사부대중일동

■ 전북 익산시 낭산면 장암길 113
TEL 063)855-2001
http://www.simgoksa.co.kr/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 전북지역단

단 장 주정기
수석부단장 고태용
부 단 장 이택익
감 사 이의식, 구강식
군포교총괄팀장 이성강
어린이청소년1팀장 이미옥 / 어린이청소년2팀장 이정상
군포교1팀장 여영만 / 군포교2팀장 박갑기
군포교3팀장 박운성
교정교화1팀장 이재홍 / 교정교화2팀장 김진구
염불봉사1팀장 강석춘 / 염불봉사2팀장 송동기
사찰문화해설1팀장 권대택 / 사찰문화해설2팀장 이택회
지역봉사팀장 이연자
자원봉사1팀장 황화기 / 자원봉사2팀장 이용순
3팀장 김생곤
홍보팀장 백덕기
호스피스팀장 박미숙

전북포교사 일동

■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56-5
전북불교회관내
TEL 063)252-4940

해동제일 명승 관음기도도량

내장산 내장사

주지 혜산
총무 무진

사부대중 일동

■ 전라북도 정읍시 내장산로 1253
☎ 063)538-8741 FAX 063)538-7414
http://www.naejangsa.org/

지장보살의 사상을 실천코자 노력하는

대한불교조계종

오봉산 영 선 사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꿈을 실천하고 있는
등용청소년공부방
사단법인 사람과 희망

■ 전북 남원시 인월면 상우리 산 32번지 TEL 063)636-2195
http://www.youngsunsa.org/
http://cafe.daum.net/youngsunsa

다큐에서 예능까지 TV로 봉축 맞이

각 방송사 봉축 특집 다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KBS 1TV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에서부터 SBS 스페셜의 법륜 스님 즉문즉설을 주제로 하는 다큐, BTN의 '큰스님 다큐-보성 스님(송광사 방장) · 법정 스님', BBSTV 특집다큐 '붓다의 혼을 불어넣다, 불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됐다.

KBS 1TV 다큐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는 파란 눈의 수행자 아잔브람 스님을 통해 이 시대 행복의 의미를 묻는다. 아잔 브람 스님은 행복을 찾는다면 비우고 멈추고 명상하라고 이야기 한다. 윤양석 PD는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는 남반구 최초의 사찰인 호주 보디냐나 사원과 세계적인 명상스승 아잔 브람 스님과의 만남을 통해 국민행복지수가 OECD 국가 34개국 중 33위, 10년째 자살률 1위인 우리를 되돌아본다. 그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무엇이며 행복에 이르는 명상의 비밀은 무엇인지 밀착 취재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에서 아잔 브람 스님을 알려온 각산 스님을 통해 국내의 수행 현장도 찾는다. 방송은 5월 25일 KBS 1TV 오전 11시.

BTN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다양한 장르, 풍성한 프로그램의 특집을 마련한다. 세계최초 부처님생애 장편드라마 '드라마 붓다'를 비롯해, 큰스님 다큐멘터리-보성 스님(송광사 방장) · 법정 스님, '해탈의 길 스님의 길' 등이 방영된다. '범일 보성 스님 할 하심 하란 말이오'는 효봉 스님 구산 스님의 법맥을 이어받은 장자 올해 88세 미수의 보성 스님의 구도와 수행이야기를 담았다. 17세 때 김천 수도암에서 출가한 이후 평생 계율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며 살아온 스님. 조계종 전계대화상을 역임하며 현재 승보종찰 송광사 방장으로 수행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범일 보성 스님을 영상으로 만날 수 있다. 5월 24일 오전 12시 30, 5월 25일 오전 9시 방송.

'법정 스님, 불일암에서 만나다'는 법정 스님의 수행과 너무도 닮은 곳 불일암을 찾는다. 5월 24일 오전 10시 방송, 5월 25일 오전 7시 30분 방송. 이밖에도 장편 '드라마 붓다'는 5월 25 오후 9시 1부가, 오후 10시에 2부가 첫 방영되며 행자에서 중견 스님까지의 인터뷰를 통해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해탈의 길 스님의 길'은 5월 24일 오후 9시 방영된다.

KBS-아잔브람 통해 행복 의미 찾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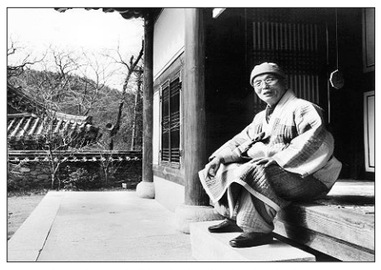
SBS-법륜 스님 즉문즉설 집중 조명

BTN-보성 · 법정 스님 생애 다큐로

BBS-한마음선원 봉축 준비 담아

BBSTV 부처님오신날 특집다큐 '부탁해! 주인공'은 부처님오신날을 한달 앞둔 한마음선원의 합창단과 청년회, 어린회, 학생회 등 선원내 각 신행단체들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하나 완성돼 가는 장엄등, 청년들의 일상과 고민을 담아낸 자작 뮤지컬 '우리 이야기', 부부합창단이 이뤄낸 아름다운 선율이 울려퍼지면서 마침내 장엄등에 불이 켜지고 그동안 힘들기만 했던 과정들이 기쁨과 행복의 눈물로 5월의 밤하늘을 적신다. 방송은 5월 25일 오후 5시, 5월 27일 오후 8시, 5월 29일 오후 11시.


KBS 1TV 다큐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는 파란 눈의 수행자 아잔브람 스님을 통해 이 시대 행복의 의미를 묻는다.


BTN '보성 스님 할 하심…'의 한 장면.


SBS 힐링캠프는 방송인 김제동 씨가 존경하는 스승 법륜 스님을 초대한다.

부처님오신날 특집 다큐 '붓다의 혼을 불어넣다, 불모'는 불모의 삶을 통해 부처님을 만난다. 방송은 5월 25일 오후 8시, 5월 26일 오후 7시다.

SBS 역시 법륜 스님에 관한 다큐와 예능을 준비해 눈길을 끈다. SBS스페셜은 지난 3개월 동안 해외와 한국을 오가며 '일과 수행의 통일'을 실천하고 있는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의 발자취를 영상에 담았다. 이 프로그램은 스님의 '즉문즉설'을 통해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해졌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환경, 통일 운동에 매진하고 있는 스님의 일상도 더불어 보여준다. 방송은 5월 24일 오후11시 10분. 또한 힐링캠프(5월 25일 11시 15분)는 방송인 김제동 씨가 존경하는 스승으로 법륜 스님을 찾을 예정이다. 이밖에도 EBS에서는 5월 25일 오후 12시 10분 특집영화 '만다라'를 방영한다. **정혜숙 기자**

추상화로 보여주는 선의 세계

비공 스님 개인전 5월 26일까지

불교의 선 사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비공 스님의 개인전이 5월 20일~26일 갤러리 이즈에서 열린다. 스님은 이번 전시에서 문인화법 추상 작품으로 대중들을 찾아간다.

선방에서 공부하는 것과 그림을 그리는 것이 다르지 않다고 스님은 말한다. 그래서 그림 그리기가 곧 수행이라 강조하는 스님은 유채화와 수묵화를 통해 불교의 선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스님은 이번 전시에서 문인화의 추상적인 해석을 보여줘 눈길을 끈다. 신항섭 미술 평론가는 "붓 또는 다른 도구를 이용하여 활달하고 호쾌한 이미지의 선을 드러내는 표현방식을 보면 문인화적인 요소가 적지 않다. 기존의 회화적인 질서에 개의치 않는 자유롭고 경쾌하면서도 절제된 선을 구사해 문인화적인 흥취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불교의 선사상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비공 스님의 작품.

비공 스님은 1968년 밀양 표충사에서 출가한 뒤 봉암사 등 전국 선방을 돌며 15년 넘게 수행정진해왔고 30여년 간 '공'의 세계를 표현한 현대선화를 그려왔다.

정혜숙 기자

통도사 서운암 '장경각이 품은 비천상전'

허길량 개인전 5월 22일~6월 7일

불 · 보살에 대한 공경과 찬탄하는 마음을 일깨우는 33 비천의 형상이 소나무 조각으로 탄생했다. 허길량의 '장경각이 품은 비천상' 전이 5월 22일~6월 7일 통도사 서운암에서 열린다.

비천상은 작가가 소나무를 통째로 조각해 10년 동안 작업한 작품이다. 소나무를 좋아했던 작가는 기상 있는 소나무와 천상계를 자유로이 날아다니며 공양을 올리는 비천과의 접목을 염두에 두고 작업에 임했다고 설명한다.

작가는 "도리천 중 33천을 의미하는 33 비천상을 작품으로 탄생시켰다. 구름을 타고 날아오르는 비천의 옷자락이 바람에 날리는 장면을 표현하기 위해 정교하고도 섬세한 작업이 필요했다. 또한 소나무의 질감을 최대한 나타내기 위해 사포를 사용하지 않고 조각도의 칼날만을 이용해 작품을 완성했다"고 전했다. 또한 서운암은 허길량 개인전과 함께 6월 6일~7일 염색축제도 함께 연다.

한편, 허 씨는 15세의 나이에 목공예에 입문 서수연 이인호 선생으로부터 불화와 단청 작업을 사사받았다. 1980년 우일 스님 문하생으로 입문 도상 의식기법을 전수받았으며 2001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으로 지정받기도 했다. 2002년 '33 관음 속으로'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2014년 예술의 전당에서 '소나무 비천이 되어' 展을 개최했다.


소나무 조각으로 완성한 허길량의 비천상.

정혜숙 기자

'사찰전경' 앵글에 담아 산사의 감동 전해

20주년 맞은 한국불교사진협회 회원전… 5월 26일까지 불일미술관서


한국불교사진협회는 5월 26일까지 회원전을 갖는다. 작품은 김동암의 '전등사'.

제 20회 한국불교사진협회 회원전이 5월 20일~26일 불일미술관에서 열린다. '사찰전경'을 주제로 한 이번 전시는 회원 63명의 작품이 전시된다.

△전제우의 디스켓곰파(북인도 라다크 누브라밸리) △박정숙의 능인선원 국녕사 △유승배의 '연주암' △최우성의 '석천암' △이한규 '영산정사' △김동암의 '전등사' 등이 선보인다.

눈 온 뒤의 전등사 전경, 가을 입구에 든 내소사, 봄소식을 알려주는 운주사, 단풍의 절정을 보여주는 백양사 등 사찰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다양한 작품들이 자연과 어우러진 절집의 아름다움을 담아낸다.

특히, 이번 전시는 한국불교사진협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개최돼 더욱 주목된다. 전제우 회장은 "저희 한국불교사진협회가 20주년을 맞아 축제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회원들이 정성들여 만든 불교사진 작품이 관람객들에게 감동을 주고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다면 더 없이 영광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보다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 다시 산사로, 다시 불법 홍포의 장으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격려해주신다면 30년, 40년을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다짐을 전했다.

이번 전시는 서울을 거쳐 6월 15일~21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도 열린다.

또한 이와 함께 불교사진협회는 제 9회 청소년 불교사진공모전 수상작 전시도 마련했다. 대상 '스님과 함께한 소풍'(해동고 3) 등 10점의 작품이 선보일 예정이다.

(02)733-5322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대조사 산사음악회 5월 26일

김수희 최백호 등 출연…나눔 장터도

부여 대조사 산사음악회가 5월 26일 오후 2시 대조사 경내에서 열린다. 김수희, 최백호, 와이키키브라더스밴드, 지구밴드, 김진웅, 여성 싱어송라이터 선주, 김형준(MC) 등이 출연해 흥겨운 한마당을 펼친다.

대조사는 "음악회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후원자들이 기증한 물건들을 활용한 나눔장터, 인기 웹툰작가 낭낭의 그림을 전시하는 숲속 갤러리, 관람객 모두가 참여하는 소원편지 쓰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산사음악회를 찾는 불자들에게는 산채비빔밥과 다과도 무료로 제공된다. (041)833-2510

정혜숙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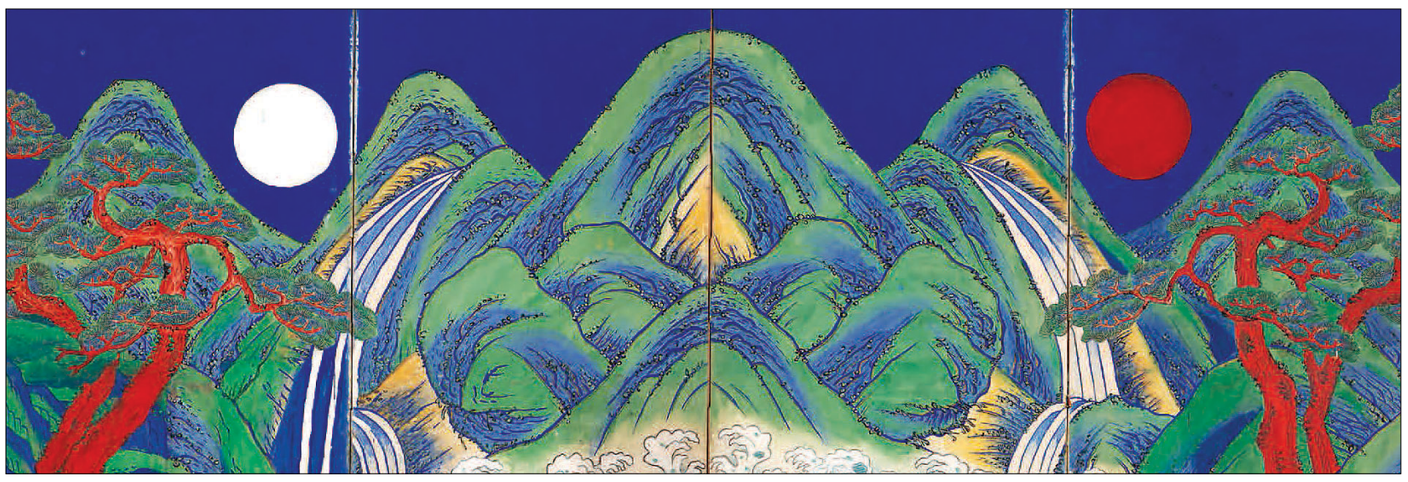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4/14~5/20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꽃잎이떨어져도꽃은지지않네	여백	법정,최인호
2	무비스님의발심수행장강의	(주)조계종출판사	무비스님
3	붓다가말하는인간관계의지혜	문예출판사	타가미타이슈/원영
4	불교기독교를논하다	모과나무	이제열
5	당신, 전생에서 읽어드립니다	김영사	박진여
6	숨만제대로쉬면무병장수문제없다	사유수	수신오도
7	신묘장구대다라니기도법	효림	우룡큰스님,김현
8	꿈을깨면 내가부처	정토	서암스님
9	아미타경을 읽는 즐거움	민족사	동봉지음
10	행복한불교이야기(오대산정념스님이들려주는)	담앤북스	자현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일월오봉도. 비단에 채색한 4폭 병풍, 19세기 작품으로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돼 있다.

도판 펼치니 피카소 빰칠 그림에 눈이 호강하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한국의 채색화 전 3권

정병모 기획 | 다할미디어 펴냄 | 각권 20만원

30여명 10년 이상 도판 등 정리
궁중화 · 민간민화 870여점 집대성
도판중 70프로 첫 공개되는 명품들
제대로 만든 한국 최초의 민화 도록

민화는 가장 한국적인 그림이다. 특히 우리 조선 민화는 일본 사상가 야나기 무네요시(1889~1961)가 극찬한 예술품이다. 일제강점기부터 일본 민예관을 통해 조선 민화를 수집한 야나기는 일치감치 예언했다. 민화의 가치가 높이 평가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이제 60여년이 지난 지금 현실로 나타났다. 소리소문없이 부는 민화 열풍과 함께 국내 민화 연구자들의 향학열과 예술혼으로 870여점의 국내외 전통 민화들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게 집대성 했다. 민화 전문가인 경주대 정병모 교수가 총괄 기획한 이 도록은 '260*380mm' 특별 판형으로 400쪽에 걸쳐 총 3권으로 구성됐다. 제1권은 산수화와 문인화를, 제2권은 화조화를, 제3권은 책거리와 문자도를 중심으로 편집했다. 방대한 프로젝트에 걸맞게 관련 전문가들도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끈다. 윤범모 가천대 교수, 윤열수 가회민화박물관장, 이원복 경기도박물관장, 외국 피에르 캄봉 프랑스 기메동양박물관 수석 큐레이터, 백금자 미국 샌프란시스코아시아박물관 명예큐레이터, 보송니엔 중국 중앙미술학원 교수 등이다. 원고 집필자로는 이성미 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기시 후미카즈(岸文和) 일본 도시샤대학 교수, 김성림 미국 다트머스대학 교수가 참여했고, 도판 해설에는 19인의 국내외 학자들이 참여했다. 연구자 총 30여명은 이 기획을 위해 10년 이상 공을 들였다.

민화가 가장 많이 소장된 우리나라와 일본은 물론 미국, 독일, 프랑스 등의 미술관, 박물관, 등 50여곳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도판을 찍고 관련 정보를 취재했다. 국내의 경우 삼성미술관 리움, 국립고궁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등 30여 개 소장처의 작품을 소개했다. 외국의 경우는 프랑스 기메동양박물관, 독일 함부르크민족학박물관, 일본민예관, 미국 필라델피아박물관, 캐나다 로열온타리오박물관 등 20여 개 소장처의 작품을 실었다. 기존에 사랑을 받고 있는 명품과 처음 발굴된 명품과의 적절한 조화를 꾀했다.

역사드라마의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는 임금이 앉은 용상 뒤에 내걸던 해와 달이 공존한 궁중장식화 '일월오악도', 용맹을 자랑하는 호랑이 모자의 모습을 담은 호랑이 출산도, 왕족들의 사냥 장면을 담은 호렵도 등 도판을 보고 있노라면 눈이 호사를 누린다. 피카소 그림을 빰칠 정도의 생동감 넘치는 걸작들이 대거 들어있다. 도판 가운데 약 70% 이상이 처음 공개되는 귀한 작품이라고 한다. 궁중회화와 민화는 한국적 특색이 가장 뚜렷할 뿐만 아니라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에 행복을 빌어주는 상징의 힘까지 갖춘 복합적인 이미지라는 것이 이들 채색화의 뛰어난 덕목이다. 궁중장식화는 '화원들이 그린 궁중 장식용의 병풍그림'을 가리키고, 민화는 '서민화가들이 그린 일반 국민 수요의 그림'을 말한다. 이들은 서로 수요가 다르지만, 제재나 화풍에서 많은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그런 이유로 지금까지 민화라는 큰 범주 속에 두 장르를 아우른다. 하지만 궁중회화는 고급스럽고 화려하며 장식적인 채색화이고, 민화는 자유롭고 해학적이며 현대적인 채색화라는 점에서 각기 다른 매력을 갖고 있다.

조선시대 이후 지금까지 화단은 사대부들 주도의 수묵화 및 문인화 위주로 편향돼 왔다. 하지만 우리의 가장 전통적이고 본질적인 분야는 채색화다. 이의 부흥을 통해 그동안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궁중회화와 민화를 재인식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한국의 궁중회화와 민화는 이미 19세기 후반부터 외국에서 관심과 인기가 높아, 유명 박물관과 미술관, 개인소장자에 의해 수집되었다. 이번 도록에서는 새롭게 조사된 해외 소장 작품들을 포함하여, 미국의 뉴아크미술관, LACMA, 샌프란시스코 아시안미술관, PEM, 브루클린미술관, 필라델피아미술관, 일본의 일본민예관 등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민화 걸작들을 소개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민화도록 출간은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앞섰다. 이미 40년 전인 1975년 일본의 대표적인 출판사인 고단샤(講談社)서 〈李朝の民畵〉라는 도록을 펴냈다. 그런데 그동안 국내서 간행된 민화도록들은 아쉽게도 이를 뛰어넘지 못했다. 그래서 〈한국의 채색화〉는 지금까지 나온 민화뿐만 아니라 미술 도록 가운데 가장 수준이 높은 것을 목표로 제작했다. 이 도록은 앞으로 영문판, 일본판, 독일어판 등으로 제작하여 우리 채색화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릴 예정이다. 김영애 다할미디어 대표는 "도록 출간 과정서 클라우드 펀드라는 출판계에서 유례가 없는 투자 개념을 도입했다. 이 기획을 신선히 여긴 500여 민화작가들이 사전예약을 해주는 등 깊은 관심을 보여 줬다"며 "주부들을 비롯한 아마추어들로 시작된 민화의 붐은 이제 한국미술계의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성장했으며, 그런 면에서 이 도록은 현대 민화를 더욱 진작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적이면서 현대적인 이미지는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이모디콘 등의 다양한 문화콘텐츠산업의 원소스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총괄 기획자 정병모 교수는?

전 세계의 민화를 찾아 20여 년 우리나라의 박물관은 물론 해외의 박물관과 개인 컬렉션을 조사했다. 〈반갑다 우리민화전〉 등 다수의 민화전시회를 기획했고,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의 여러 대학과 박물관서 민화강연을 했다. 한국민화학회도 창립한 민화전문가다. 현재는 경주대 문화재학과 교수로 있으며, 한국민화학회 회장과 한국민화센터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무명화가의 반란 민화〉 〈한국의 풍속화〉 등이 있다.

죽음 고통서 벗어나 영원한 삶 살려면?

마지막 그림자가 사라지기전에

빼뚤 린포체와 딜고 켄체 린포체 지음
고수연 옮김 | 민족사 펴냄 | 1만 3800원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인재 사고로, 얼마 전 일어난 네팔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갑자기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온 가족, 친지의 죽음에 오열하고 괴로워한다. 죽음은 언제 어느 때 닥칠지 모르는 인간의 근본적인 고통이다. 고통인 줄 알면 벗어날 길도 열린다.

이 책은 티베트의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 불리는 빼뚤 린포체가 지은 게송에 딜고 켄체 린포체가 주석을 붙였다. 이 책은 죽음의 고통서 벗어나 영원한 삶을 사는 길을 열어준다.

'빼뚤 린포체의 수행으로 빚은 마음보석' 이란 부제처럼 문자사리 같은 책으로 전 세계인들의 정신적 지도자인 14대 달라이 라마는 "죽은 자를 되살리는 생명의 불사약과 같다"고 극찬했다. 세첸 코리아의 용수 스님도 "가장 아끼고 좋아하는 책, 평생 옆에 두고 보는 수행의 안내서로서 보고 또 봐야 할 도반 같은 책"이라고 강력 추천했다.

읽기만 해도 세상을 바로 보는 견해를 갖추고 윤회에서 벗어나고픈 수행 정신이 깃들게 되며, 현교와 밀교의 핵심을 첸레직(관세음보살) 수행을 바탕으로 명료하게 정리한 이 책은 크게 3장으로 나눠져 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한다. 행복하기 위해 내 몸 · 내 마음 · 내 이름에 집착하며 싫어하는 것을 밀어내고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려 한다. 이 책에서 빼뚤 린포체와 딜고 켄체 린포체는 이러한 집착의 저변에 깔린 자아가 고통과 윤회의 뿌리임을 알게 해 주고, 더 이상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진정한 행복을 열어가는 길을 일깨워준다.

1장 '말법시대의 허물에 대하여' 에서는 행복을 위한 행위들의 파괴적인 영향을 기술함으로써 요즘 시대의 부조리한 상황들에 대한 인식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이러한 말법 시대의 부정적인 것들에 맞닥뜨려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조언한다. 아울러 윤회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해 주고, 어떻게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일깨워주고 본격적인 수행으로 입문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 책의 2장 '대승의 견해 · 명상 · 행위' 에서는 현교와 밀교의 핵심 내용을 세세하게 밝힌다. 수행의 주춧돌인 올바른 견해, 모든 현상의 공함을 아는 견해를 우리 내면의 경험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명상, 모든 상황 상황마다 언제나 견해의 경험을 유지하는 행위에 대해 빼뚤 린포체는 게송으로 표현하고, 딜고 켄체 린포체는 자세한 해설을 붙여 붓다 가르침의 핵심인 대승의 세계를 보여주고 윤회의 원인인 모든 망상의 해독제를 보여준다.

이 책에 제시된 견해 · 명상 · 행위 이 세 가지 조합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수행의 과실이 무르익게 되는 것을 체득할 수 있다. 특히 2장에서는 자비의 화신인 첸레직(관세음보살의 티베트어) 수행이 말법시대의 희망임을 역설한다. 첸레직 수행인 '옴 마니 반메 훔', 불교의 본질과 관세음보살의 정수를 함축하고 있는 육자진언 염송을 강조한다. 염송하기 쉽고, 즉시 무량한 가피

관세음보살 수행 바탕으로 정리
윤회에 대한 설명 명확히 제시

를 입는 육자진언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우리나라에도 널리 퍼져 있는 염송 수행에 대한 이해와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마지막 3장 '세간의 일을 뒤로하고 떠나기' 에서는 세상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삶을 찾는 방법과 가르침과의 조화에 대해 보여주면서 '갑자기 죽음이 들이닥치면 어찌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통해 수행의 절박함을 강조한다.

윤회의 고통을 알면 망상에서 깨어나고 마지막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다르마를 수행하고픈 마음이 확고해 진다. 수행을 통해 앎과 일상생활, 번뇌에서 자유로워지고 고통의 원인인 집착에서 벗어나 대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 오로지 마음을 세간의 목표에서 멀리하고 자유롭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수행함으로써 깨달음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 당신은 살아 있고 다르마를 수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중략〉이제는 죽음을 준비할 시간입니다"라는 한 마디 한 마디가 불안한 시대의 희망이 무엇인지 이 책은 분명히 일깨워 준다.

김주일 기자

ACE 잘가르치는대학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파라미타칼리지에서 참사람인재를 키운다!

파라미타 칼리지 (PARAMITA College) 란?

- 불교종립대학인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가 건학이념을 바탕으로 **참사람 인재를 양성하는 교양 학부대학**입니다.
- 신입생들이 대학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여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사지도교수가 전담하여 지도합니다.
- 신입생 **기숙형 대학(레지덴셜 칼리지)을 운영**하여 기숙사 생활에서 개인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운영합니다.

* 파라미타는 불교 용어 '바라밀다'의 산스크리트 발음을 음에 따라 옮긴 말입니다.

DONGGUK UNIVERSITY GYEONGJU

http://web.dongguk.ac.kr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 佛紀 2559年 乙未年 Buddha's birthday

자연에서 함께하는 부처님 도량

고 당 사 (구, 천국사)

주지 혜정

사부대중일동

납골당 6천기 봉안도량
(어버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불자님을 모십니다)
www.cheonguksa.co.kr
(인터넷 천국사효자당)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 (옥계폭포 입구) 전화 043)742-4414. 010-4115-7960

佛紀 2559年 乙未年 | 전면광고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 | B11

정성을 다해 훌륭한 스승 모시기를 부처님 섬기듯 하며, 성냄과 질투와
탐욕의 마음을 내지 말고 경의 가르침을 베풀되 대가를 바라지 마라 〈반주삼매경〉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회 장 자 승(조계종 총무원장)
부 회 장 성 문(조계종 종회의장)
부회장겸 이사장 도 산(태고종 총무원장)
부 회 장 춘 광(천태종 총무원장)
부 회 장 회정 정사(진각종 통리원장)
부 회 장 홍 파(관음종 총무원장)
사무총장 법등 정사(총지종 통리원장)

여성부
회 장 백명숙(대일심)
부회장 박동희(만월심)
총 무 방정자
재 무 김명애

■ 서울사무소 :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45-19 불교대학 3F 전화 02)702-1708
부산사무실 : 부산 부산진구 동천대로 24 종로학원 전화 051)818-3427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사부대중 일동

멀리가지 않아도 만날 수 있는 도심 속의 힐링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템플스테이
'대장부템스'
사무국 070-4650-5535

■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23-26(동삼동)
TEL 051)403-7077
FAX 051)403-1077

持戒念佛萬日修行道場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부산분원 **관 음 사**



〈사회복지법인〉 늘 기 쁜 마 을
〈재단법인〉 관음선행 장학회
사부대중일동

■ 부산 사하구 제석로 79번길 33
051)294-9300
cafe.daum.net/gwanumsa1

대한불교조계종 고려선찰

만 덕 사

(부산지방문화재 3호 만덕사지)

주 지 금산 박혜명

사부대중 일동

■ 부산광역시 북구 구만덕로 63-13(만덕동)
TEL (051)334-3009

삼천배 참회기도 근본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감 로 사**

조 실 법 희
주 지 혜 총
부주지 경 성
총 무 경 원
재 무 경 증

사부대중일동

■ 부산시 부산진구 진남로 432(전포동)
TEL 051)809-0926 / FAX 803-0188

(감로사에서 운영하는 복지기관)
용호종합사회복지관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부산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 가릉빈가언어치료센터 ■ 용호치매노인주간보호센터
■ 용호방문요양파견센터 ■ 용호어린이집
■ 양정노인주간보호센터 ■ 용당어린이집
■ 무료급식(매일 400여명) ■ 노인대학(매일 200여명) 등

■ TEL 051)628-6737 / FAX 628-6562

마음 편한 절 · 관음기도도량
대한불교조계종
용두산미타선원

주 지 하 림

사부대중 합장

"가장 행복한 공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행복禪수행학교
명상심리상담센터 '희망과 사랑'

■ 부산시 중구 광복로 77번길
용두산공원 에스컬레이터 첫 번째 하차점
051)253-8687~8 / www.mitazen.net

대 한 불 교 조 계 종
대광명사

대광명불교대학
해운대백병원 불교법당

주 지 목 종
신도회장 신익철

사부대중 일동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로데오아울렛 3층)
TEL 051)742-7610 / FAX 051)742-7606
www.daekangmung.com

보건복지부지정 장기이식등록기관

사)생명나눔실천본부
부 산 지 역 본 부

본 부 장	원범
부본부장	자인. 목종. 이경순. 문수용
감 사	심산, 박분희
총무이사	해암, 이동권
기획이사	마나, 이욱태
재무이사	성관, 김법영
홍보이사	혜산, 이승표
자살예방위원 이사	하림

이 사 일 동

■ 생명나눔부산 자살예방센터 051) 442-0429
■ 부산 동구 고관로 67, 3층 (수정동 대성빌딩)
TEL 051)853-0429 / FAX 051)853-0439
www.bslisa.or.kr / www.bsmy-life.or.kr

正法弘布를 위하여
進一步 登一段하는

釜山佛教實業人會
妙 光 禪 院

회 장	김윤환
고 문	강병중, 서춘석, 최 찰 이상태, 하문원, 박수복
부 회 장	조재원, 이근철, 이달수 황인관
감 사	지호경, 이광재
총무이사	이환길
재정이사	송우근
사업이사	이종환
관리이사	이규인

회원 및 마야부인회 회원일동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 37 부산불교실업인회관 4층
TEL 070-8133-9917 / FAX 051)818-9914

(사)부산파라미타
청소년협회

총 재	수 불
부 총 재	원허, 진효
사무총장	지장
협 회 장	백명숙
중등부지회장	정진완
고등부지회장	김영일
사 무 처 장	김진화

■ 부산시 연제구 연산 5동 1330-9번지 부산불교신도회관 4층
TEL 051)513-4306 / FAX 513-4307

대한불교 조계종 弘法寺

주 지 심 산
(深山)

■ 부산광역시 금정구 두구로 33번길 202
TEL 051)508-0345
FAX 051)508-6561

대한불교조계종 황령선원

홍 제 사

선원장 혜 국
주 지 성 문

사부대중 일동

· 매월(음) 초하루 - 초사흘 신중기도
· 음력 보름 인등 기도

사회복지법인 화엄도량
노인요양시설 효 림 원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진남로304번길 34(전포동)
TEL 051)802-0130 / FAX 804-1037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기도도량

운 수 사

사부대중 일동

■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로 219번길 173(모라동)
TEL 051) 313-3300



(사)부산불교지도자포럼

회 장	박수관
상임고문(직전회장)	박순곤
고 문	허인구 김재운 김재진 박민식 조효식 최칠관 설동근 이윤희 박홍대 권청길 이시영 장남인 박영근
상임부회장	김수현 이상수 신재철
부회장	최삼섭 양재생 배상진 최금식 최주덕
감 사	박형주 윤경석
사무총장	공영석
재무총장	정연식
친목이사	공정근
홍보이사	이현수
기획이사	최대경
섭외이사	배도정
조직이사	박창근
사업이사	최상곤
대외협력이사	장병주

이사회원 일동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로 71, 9층(부전동,정산빌딩)
TEL 051)334-0108
FAX 051)898-2674

대한불교조계종
범어사 금 강 암

주 지 정 만

사부대중일동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동 546
TEL 051)508-4509
FAX 051)051)508-4870

대한불교조계종
청 량 사

주 지 운암 현엽

신도일동

■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 445
TEL 051)271-2774

佛紀 2559年 乙未年 | 전면광고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 | B14

남편은 아내를 예절로써 대하고 위신을 지키며 항상 의복과
음식을 넉넉히 대주어야 한다. 〈육방예경〉



팔봉산 하남사

주지 성각
원주 법연

신도일동

■ 경남 하동군 하동읍 신기 궁항길 88-14
TEL 055)884-4642
010-3571-6300
010-4582-0716

봉래산 영선사

주지 연각
총무 혜언

신도일동

■ 부산시 영도구 영서4가 산 32번지
TEL 051)416-8502
010-3871-5330

대한불교조동종 종정 주석사찰

보 리 사

주지 덕찬 지명

신도일동

■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부곡리 627-2
TEL 031)829-4882

대한불교조동종 부종정 주석사찰

두리봉 행운사

회주 덕룡 법공
주지 행천 수임
총무 지현

■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삼성리 216번지
TEL 010-9189-3346
010-3781-0218

대한불교조동종 총무원장 주석사찰

수락산 도선사

주지 대은 덕우

신도일동

■ 서울시 노원구 상계4동 산 154번지
TEL 02)938-1405

대한불교 조동종 포교부장 주석사찰

자 비 암

주 지 청 정
신도회장 김정순
총 무 김경주
관음회장 박춘옥
부 회 장 주숙자
연꽃회장 최진욱
홍보부장 김상곤
사 무 장 정 욱
재 무 박정은

신도일동

■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추산동 81-3번지
TEL 055)241-1176

대한불교조동종남해교구원장주석사찰

미 륵 암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도량
사월초파일 부처님친견사리법회봉행

주지 청운

신도일동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63번지
TEL 055)867-0776

대한불교조계종

문수산 축서사

주지 무여

- 법회안내 : 초하루 법회
  매월(음) 1일 오전 10시 30분
- 적멸보궁기도 : 매월 (음) 1일 ~ 3일
- 철야정진법회 : 매월 (양) 셋째주 토요일
  오후 8시
- 템플스테이 : 휴식형.수행형.상시운영
- 문수선원.보궁기도.템플스테이.불교대학

사부대중일동

■ 경북 봉화군 물야면 개단리 1번지
TEL 054)672-7579.7535
TEL 054)673-9962(템플스테이)
FAX 054)672-7567
http://www.chooksersa.org

대한불교조계종

용 문 사

주지 청안
사부대중일동

- 예천 용 문 사에는 국내 유일한 보물 대장전의 윤장대와 목조삼존불 목각탱화 보물이 있다.
- 대장전안에 설치되어있는 것으로 내부에 불교경전을 넣고 손잡이를 돌리면서 극락정토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돌리는데 윤 장 대는 유일한 중요한문화재이다. 회전식 장경각이다.
- 성보박물관에는 탱화와 영정. 불상 등 많은 불교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 사찰문화를 체험할수있는 템플스테이도 운영

■ 경북 예천군 용문면 용문사길 285-30
TEL 054-655-1011

대한불교조계종 제8교구 직지사말사

주흘산 혜국사

주지 보천
사부대중일동

꿈나무아동센터 운영

- 문경읍 상초리 주흘산에 있는 사찰로 부속암자.안적암.은선암.용화암이있다. 신라말에 보국사가 창건. 임진왜란 때 절에서 의승이 많이 나와 나라를 구하는데 크게 공헌하여 절 이름을 혜국사로 지었다.

■ 경북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 13
TEL 054)571-0341

행복을 지키는 건강지킴이

풍 남 정

- 풍삼정 홍삼은 직접재배 가공하여 만들어진 양질의 홍삼만을 선별 연구하여 차별화된 홍삼액제조공장의 저온 숙성 발효단계를 거쳐져 온에서 72시간 이상을 숙성발효시켜 만든제품으로 홍삼이 가지고있는 유효사포닌(32종이상)과 그밖의 유익한 성분들이 그대로 살아있는 최상의 건강식품
- 종류 : 풍기정품홍삼액(명품).순홍삼액골드. 인삼향기홍삼액(골드).홍삼먹은사과즙. 풍삼정쥬니어홍삼액.풍삼정홍삼환

영농법인 풍기정품인삼제조창
풍 삼 정

■ 경북 영주시 풍기읍 동부리 241-2번지
TEL 054) 636-2174
H·P 016-815-2174

대한불교조동종 감찰원장 주석사찰

봉제산 우 암 사

주지 덕성 행성

신도일동

■ 서울시 강서구 화곡본동 24-197번지
TEL 02)2698-6100

대한불교조계종 직할포교당

진여원불교대학
(사)진여사회복지원

회 주 혜 총
주 지 무 성
원 장 남보타월
봉사단장 정보덕심
사부대중일동

■ 부산 광역시 북구 구포2동 930-8
TEL 051)338-1008. 337-1080

대한불교조계종

문 수 사

문수불교문화원

회 주 법 흥
주 지 지 원
신도회장 최묘각심
신도일동

■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산 51-8
TEL 051)624-3754,7848/624-3754

한국불교태고종

천 불 정 사

주 지 고 담
부 전 창민. 심일

신도회장 이정민
부 회 장 진재화. 임영미. 허순인
총 무 백서연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강로 230-9(장전동)
TEL 051)583-9233 주지실 518-6362

대한불교조동종 종회의장 주석사찰

약수산 명 덕 사

주지 행봉 해륜

신도일동

■ 강원도 홍천군 남면 명동리 산 55번지 2반
TEL 033)432-7345

사람을 귀히 여기는 절

대한불교 조계종 **길 상 사**

[부설] 삼계선원 · 불교대학
성현덕회 · 가비라회
참선반. 목욕봉사단

주지 만제 혜수
사부대중

■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로69번길 15(삼계동)
TEL 055)333-8202 / FAX 055)333-8203

부산여성불자회

회 장 왕선자
자문위원 백명숙 양은순 천양자
부 회 장 정정자 양외금
총 무 박정림 김선미
재 무 서점례 손하영
이사 · 회원 일동

■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1동 393-12(불교회관4층)
TEL 051)817-3166, 3168

화(Anger)-화가 풀리면 인생도 풀린다

틱낫한 스님(승려 · 평화운동가)

〈7 · 끝〉 화 감싸안기

火를 확인, 몇분간 감싸면 마음이 편해진다

타인을 위로하면 내가 위로받는다

화가 났을 때, 절망에 빠졌을 때, 우리는 의식적인 호흡과 보행을 실천해 자각의 에너지를 생성시킨다. 이 에너지가 우리의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모두 파악해서 끌어안아 준다.

자각의 에너지가 충분히 강하지 못할 때는 함께 수련하는 형제 자매 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다. 그들과 함께 앉아서 호흡하고 걷고 명상을 하면 그들이 가진 자각의 에너지가 우리에게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다.

자각을 수련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혼자서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친구들의 도움을 받는 편이 훨씬 나을 때도 있다. 그들의 자각에너지가 우리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보살피는 데 큰 힘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과도 함께 수련을 할 수 있다. 우리의 자식이 매우 고통스러운 감정의 물에 빠졌을 때 우리는 그의 손을 잡아주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얘야, 심호흡을 해봐, 아빠하고 엄마하고 같이 천천히 심호흡을 해봐." 또 우리는 자식의 손을 잡고 함께 걸을 것이다. 자식의 손을 잡고 걸음 옮길 때마다 그의 고통이 가라앉기를 간절히 바랄 것이다. 그렇게 자식에게 우리의 자각 에너지를 전해주면 자식은 이내 마음이 진정될 것이고, 그리하여 자신의 감정을 끌어안을 수 있을 것이다.

자각의 첫째 기능은 확인을 하는 것이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다. 지금 마음속이 화로 들끓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 우리는 그것을 감싸 안을 수 있다. 화를 감싸 안는 것이 자각의 둘째 기능이다. 마음속에서 어떤 고통스러운 감정이 일어났을 때, 그것과 맞서 싸우지를 않고 잘 보살펴준다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경험이다. 화를 감싸 안는 방법을 알면 반드시 무언가가 달라질 것이다.

그것은 마치 감자를 삶는 것과 같다고 앞서 여러 번 얘기 했다. 냄비 뚜껑을 덮어서 불 위에 올려놓으면 이윽고 익기 시작할 것이다. 감자를 제대로 익히기 위해서는 적어도 20분쯤 불을 켜놓아야 한다. 자각은 화라는 감자를 삶기 위한 불이다. 화를 확인해서 몇 분 간 감싸안고 있으면 무언가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마음이 어느 정도 편안해질 것이다. 화가 아직 마음속에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리 고통스럽지 않다. 그 아기, 곧 화를 보살피는 방법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자각의 셋째 기능은 화를 달래고 위로하는 것이다. 화가 아직 거기에 있지만, 이제는 보살핌을 잘 받고 있다. 이제는 그리 혼란스럽지가 않다. 우는 아기가 혼자 버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아기를 품에 안고 잘 보살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어머니는 누구인가? 그 어머니는 우리 안에 살아 있는 부처다. 자각에 이르는 능력, 이해하고 사랑하고 돌보는 능력이 곧 우리 안에 살아 있는 부처다. 자각의 에너지를 일으킬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부처가 살아나게 된다. 부처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 마음속에 부처가 계속 살아 있게만 하면 모든 일이 다 잘 풀려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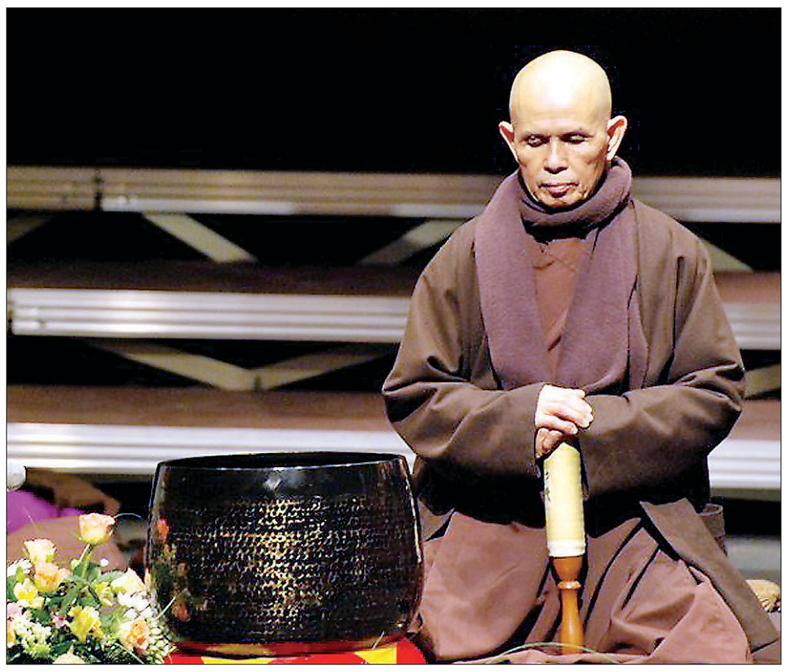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부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화가 났을 때도 절망에 빠졌을 때도 늘 우리의 마음속에는 부처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에도 자각을 실천할 수 있으며, 자신과 남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안에 있는 부처를 느끼기 위해서 우리는 의식적인 호흡이나 보행을 실천해야 한다. 의식 속에 들어 있는 자각의 씨앗을 느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부처가 현현해서 화를 감싸안아 줄 것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다만 호흡과 보행을 지속적으로 자각함으로써 부처를 우리 안에 살아 있게 하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질 것이다. 부처가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확인하고 감싸안아 준다. 부처가 우리를 위로하고 화의 실체를 깊이 들여다봐 준다. 부처가 우리를 이해해준다. 그리고 그 이해가 우리에게서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자각의 에너지는 집중과 통찰을 위한 에너지가 함께 들어 있다. 정신을 집중하고 있을 때는 자신을 성찰하기 위한 에너지가 한층 더 강해진다. 그리하여 통찰로 나아가기 위한 추진력이 생긴다. 통찰은 늘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힘을 갖고 있다. 통찰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힘이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 바로 통찰이다. 그것은 우리의 화를 보살펴주는 부처의 마음이다.

화의 씨앗을 자극하지 마라

고통과 슬픔과 화와 절망은 그 씨앗이 충분히 커지면 지하실에서 거실로 올라오려고 한다. 우리에게 자기를 봐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대면하기가 괴롭기 때문에 그것이 거실로 올라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억누르려 한다. 그저 지하실에서 소리 없이 잠이나 자고 있어주길 바란다.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다른 손님들을 잔뜩 거실에 초대한다. 그러나 10분에서 15분 지나면 무엇을 어찌 해야 할지를 모르는 지경이 되고 만다.



지하실에 있던 고통이 거실로 올라오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걷어내면, 우리는 그 고통을 감당하지 않을 수 없다. 그걸 피할 수 있는 길은 없다. 부처가 우리에게 고통을 감싸안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가르쳤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자각을 실천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도 바로 이것이다. 강력한 에너지원을 만들어내면 그 부정적인 에너지들을 파악하고 감싸안고 보살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는 자각의 에너지라는 부처가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처의 도움을 받아서 마음속의 올가미들을 감싸안을 수 있다.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거실로 올라오지 않으려고 하면, 꾀어서라도 올라오게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한참 동안 감싸안아 주면, 지하실로 돌아가서 다시 씨앗이 될 것이다.

부처는 누구나 공포의 씨앗을 갖고 있지만 대다수가 그 씨앗을 억눌러서 어두운 곳에 감추어두고 있다고 했다. 또한 그 공포의 씨앗을 확인하고 감싸안고 돌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 나는 반드시 늙는다. 그것을 피할 길은 없다.

> "내 안의 부처 느끼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호흡과 보행 실천해야 자각 통한 강력한 에너지원 만들면 부정적 에너지를 감싸안는 힘생겨"

● 나는 반드시 질병에 걸린다. 그것을 피할 길은 없다.

● 나는 반드시 죽는다. 그것을 피할 길은 없다.

●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소중한 것은 모두 그대로 있어 주지 않는다. 그것을 피할 길은 없다. 나는 아무것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나는 빈손으로 왔으므로 빈손으로 돌아가야 한다.

● 내 행동만이 나의 진정한 소유물이다. 나는 내 행동의 결과를 피할 길이 없다. 내 행동만이 내가 이 세상에 서 있는 토대다.

우리는 날마다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이 다섯 가지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 그러면 공포의 씨앗이 정신 속에서 순환하게 된다. 우리는 그 씨앗을 불러내어 감싸안아 주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 되돌려 보내면 그 씨앗이 훨씬 작아질 것이다.

공포의 씨앗을 그렇게 보살펴줄 때 우리는 화를 보살피기 위한 장치도 더 잘 갖출 수 있다. 공포는 우리의 삶에 화를 준다. 공포가 마음속에 있을 때는 평화를 가질 수 없고, 따라서 화가 크게 자랄 토양을 마련해주게 된다. 공포는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고, 무지는 이해의 결핍이 빚어내는 것으로서 화의 주요 원인이 된다.

자각으로 마음속의 고통의 씨앗을 씻어줄 때마다 그 씨앗들이 일으킬 고통이 가벼워지고 덜 위험스러워진다. 그러므로 화와 절망과 공포를 날마다 잘 씻어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수련이다. 자각이 없는 상태에서 그 씨앗들이 고개를 들면 참으로 견디기가 힘겨워진다. 그러나 자각의 에너지를 일으키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날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그 씨앗들을 불러내어서 감싸안아 줄 수 있다. 며칠이나 몇 주일 동안 날마다 그 씨앗들을 불러내어서 감싸주고 다시 돌려보내면, 정신의 순환이 마침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정신적 질병의 징후들이 사라질 것이다.

마음이 너그러워지는 5가지 훈련

△첫 번째 자각 훈련: 삶을 존중하기

삶이 붕괴될 때 빚어질 고통을 깨닫고, 나는 인간과 동물과 식물과 광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애정을 기르고 그 방법을 배울 것을 다짐한다. 나는 내 손으로 살상을 하지 않을 것이고, 남에게 살상을 시키지도 않을 것이며, 마음은 물론 실제 상황에서도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살상 행위도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자각 훈련: 너그러움

착취와 사회적 불의와 도적질과 억압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고통을 깨달음으로써 나는 인간과 동물과 식물과 광물의 생명에 대한 자애심을 기를 것이고, 그 안녕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나는 나의 시간과 힘과 재산을 진실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준다. 나누어주는 너그러움을 기를 것이다. 나는 도적질을 하지 않을 것이며, 남의 재산을 탐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남의 재산은 존중할 것이고, 그러나 인간과 다른 생명들의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 자각 훈련: 성에 대한 책임

부정한 성관계로 인해서 빚어지는 고통을 깨달음으로써 나는 개인들과 부부들과 가족들과 사회의 안전과 고결에 대한 책임감을 기를 것이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배울 것이라고 다짐한다. 나는 사랑이 없고 장래에 대한 언약이 없는 성관계를 맺지 않을 것이다. 나 자신과 타인들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나의 각오를 존중하고 타인들의 각오도 존중할 것이다. 나는 어린이들에 대한 성적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부부들과 가족들이 부정한 성관계로 인해서 파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다.

△네 번째 자각훈련: 깊게 귀 기울이기와 사랑의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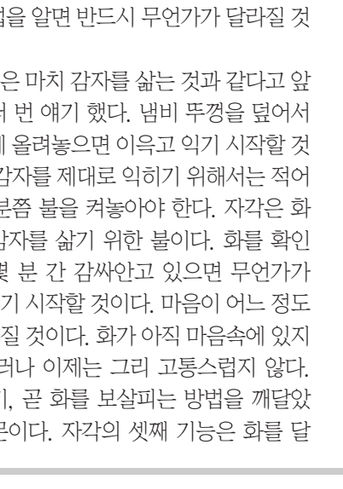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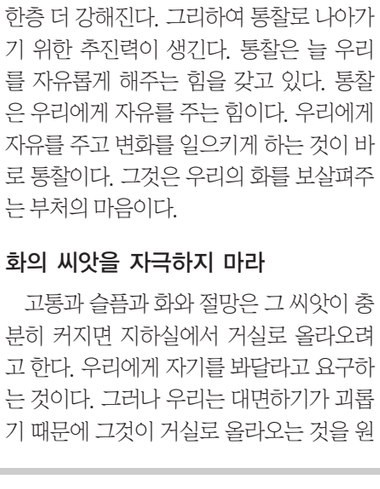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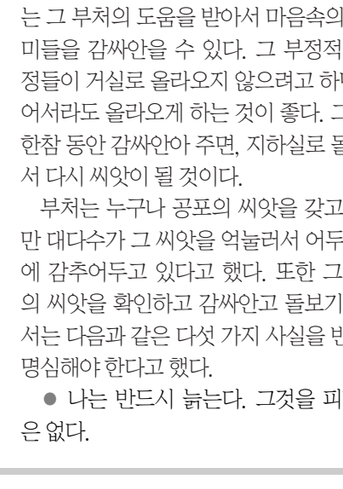
건성으로 남의 말을 듣거나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능력이 없는 탓으로 빚어지는 고통을 깨달음으로써, 나는 남들에게 행복을 주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사랑의 말로 대화를 하고 그들의 말에 깊이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한다. 우리의 말이 행복을 줄수도 고통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므로, 나는 자신감과 기쁨과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말을 진심으로 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나는 내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남들에게 퍼뜨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남을 비난하거나 경멸하는 어조의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분열과 불화를 일으키고, 가정과 사회에 해악을 끼칠 말을 삼갈 것이다. 나는 아무리 사소한 갈등이라 하더라도 갈등이 빚어졌을 때는 반드시 화해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다섯 번째 자각 훈련: 의식적인 소비

아무 생각없이 소비하는 데서 빚어지는 고통을 깨달음으로써, 나는 먹고 마시는 등의 모든 소비를 의식적으로 하여 나 자신과 가족과 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다짐한다. 나는 나의 몸과 마음, 나의 가족과 사회의 평화와 안녕과 기쁨을 보존해줄 음식만을 먹을 것이다. 나는 술을 비롯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모든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독소가 들어 있는 TV 프로그램, 잡지, 책, 영화 같은 것을 보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 같은 독소로 나의 몸과 마음에 해악을 끼치는 것은 조상과 부모와 사회와 후손을 배신하는 행위임을 깨달을 것이다. 나는 적절한 식생활이 나 자신과 사회의 변화를 위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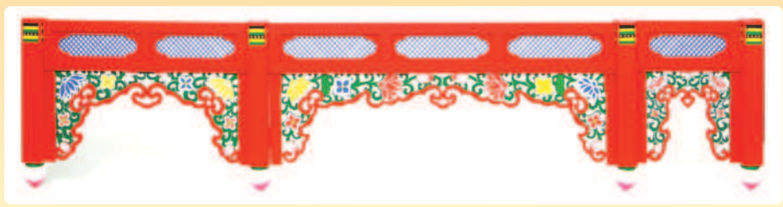
이 글은 〈화(Anger)-화가 풀리면 인생도 풀린다〉(명진출판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대원불교미술원
청동불사 조성(제작) 전문
청동불상, 개금, 탱화, 단청 일체
진실과 원칙, 최고의 재료로 부처님 조성에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 많은 조언과 믿음으로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스님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원장 임영달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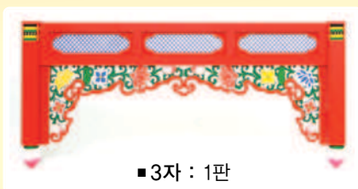




경기 포천시 내촌면 진목 1리 915-14
전화 031)532-3722 | 010-7171-2636 | 팩스 031)533-3722
이메일 lyd5798@naver.com

목각단청운각
(간편조립)
법당장엄 5층 목탑
전통적인 연꽃 단청과 문창살문양으로 부처님을 모시는 법당을 보다 장엄하게 설치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대웅전, 산신각, 포교당, 소법당 등의 천장에 누구나 간편하게 직접 조립할 수 있게 제작



■3자 : 1판



■2자 : 4판



■1자 : 4판

※ 단청운각 1세트 17자 (5m, 10cm) / 가격 : 90만원



■ 크 기 : 높이 120cm / 하단 가로 45cm
보급가 : 900,000원 (배송비 포함)
*내부 조명등 있습니다.



■ 크리스탈사리탑
높이 45cm / 가로, 세로 20cm
가격 : 35만원

고전상사
전화 : 031)442-3168 / 010-3772-3165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618-185번지
계좌번호 : 농협 356-1008-993643 (예금주 : 김판희)
모든 제품은 입금 후 우편 배송하여 드리며, 제품에 문제가 있을 경우 교환 및 환불하여 드립니다.

佛紀 2559年 乙未年 | 전면광고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 | B16

작은 죄라고 해서 막아서 지키지 않으면 모두 지옥의 원인이 되나니 비유하자면
작은 불씨가 산과 숲을 태워버릴 수 있는 것과 같도다. 〈제법집요경〉



대한불교조계종

성 륜 사

주 지 명 원

사부대중일동

■ 전남 곡성군 옥과면 산 1
TEL 061)363-0081

대한불교조계종 • 무등산

證心寺

주 지 연 광

사부대중일동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56번지
전화 062)226-0108 / 전송 062)222-5997
www.jeungsimsa.org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광주포교당

성 거 사

주 지 혜 공

사부대중일동

■ 광주광역시 남구 서2동 143-2
TEL 062)676-1080



대한불교 조계종

문 빈 정 사

사부대중 일동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96번지
TEL 062)222-2202

한국불교태고종

세 심 정 사

회 주 지 암
주 지 보 응

사부대중 일동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길 57-15

대한불교조계종

미 륵 사

주 지 덕 룡

백양실버타운
원 장 김영학

내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 전남 나주시 봉황면 송현리 649-62
TEL 061-333-5622

대한불교조계종

관 음 암

주 지 인 성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514-35
TEL 062-266-0108

대한불교조계종

만 경 사

주 지 증 현

■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산49-4
TEL 062)263-3180

대한불교조계종

광 덕 사

주 지 효 진

■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31-5
TEL 062)652-6050

대한불교 조계종

연 화 사

주지 명 신

[부설]
연화유치원, 어린이집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2동 448-2번지
TEL 062)227-7295 / 유치원 227-0173

현수막 제작 · 인쇄물 기획제작

부다기획

도서출판
수미등

현수막, 도서출판, 사보, 법요집
신문, 달력, 포스터, 카다로그
리플렛, 초대장, 봉투, 상장
상패, 수첩, 수료증, 명함, 스티커

광주시 동구 산수동 570-1
TEL 062)225-8825
FAX 062)225-8826

대한불교 조계종

무등산 원효사

주 지 현 지

신도회 일동

■ 광주광역시 북구 금곡동 846
TEL 062)266-0326

대한불교 조계종

완도 신흥사

주 지 법 일

사) 완도문화21
청소년교육문화단체 장보고 아카데미
완도불교문화대학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성내리 168번지
TEL 061)554-2634
홈페이지 www.sinheungsa.net

佛紀 2559年 乙未年 | 전면광고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 | B17

고뇌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 고뇌에서 벗어나 즐겁게 살자. 〈법구경〉



대한불교조계종

송광사 광주포교당 길 상 사

주지 도제

- 새 벽 예 불 – 매일 오전 5시
- 유식학 강의 – 매일 오전 5시 30분
- 일요가족법회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 어린이 법회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 목련합창단 연습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 사찰요리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불교기초교리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로 5번길 7
전화 062)955-4407
www.kilsang.kr

대한불교조계종

도 갑 사

주지 설도

■ 전남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 8번지
TEL 061)473-5122

대한불교조계종

동 원 사

회주 지각

주지 지장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1-6
TEL 062)227-3516

대한불교조계종

비 전 사

사부대중 일동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2동 489-22번지
TEL 062)951-3562

녹 야 선 원

꿈이 이루어지는 우리절
종교법인 녹야선원

■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777-3번지
TEL 062)365-0108

빛고을 재가불자들의
아름다운 자비나눔 공동체

(사)자비신행회

■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 55-1
TEL 062-234-0090

광주동구불교협의회

6대 임원

회 장 **무등스님**(천룡사)
부회장 **증현스님**(만경사)
부회장 **무진스님**(법림사)
부회장 **호산스님**(무유사)
감 사 **혜법스님**(미륵사)
감 사 **원묵스님**(선덕사)
총 무 **소궁스님**(관음사)
재 무 **지장스님**(동원사)
포 교 **수연스님**(연화약사사)

■ 광주광역시 동구 용연길 26-23
TEL 062)234-1338

광주전남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법일, 무등, 시각,
행법, 이성기, 정범도

(부설) 어린이청소년공동체
나무숲 대표 지장

■ 광주광역시 동구 필문대로 96-1
TEL 062-223-3623

아 주 미 디 어

대표 오태준

콘서트. 체육대회,
대학축제, 지역축제
음향, 무대, 조명, 의자

■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 42-6
TEL 062)381-8052
FAX 062)381-8056
010-3624-2321

한국불교태고종

보은산 금 곡 사

주지 보각스님

■ 전남 강진군 군동면 파산리
1012-2번지
전화 061)433-3407

지장도량 미 륵 사

주지 혜법

사찰음식 전문점
수 자 타

■ 광주광역시 동구 운림동 469-3
TEL 062)222-1145

한국불교태고종

만 덕 사

주 지 시각
신도회장 무진화

신도회 일동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1로 74-11
TEL 062-652-4920

대한불교 조계종

법 림 사

대해노인복지센터

주지 무진

■ 광주광역시 동구 내남동 649-1번지
TEL 062)234-2207

추월산 죽림정사

사부대중 일동

■ 전남 담양군 용면 쌍태길 13-13
TEL 061-383-5580



김호석화백의
화폭속 선지식
법정 스님 ㊒

스님처럼 삶이 그렇듯 죽음에 충실하고 싶다

최근 많은 시간을 내 자신을 위해 투자했다. 혼자 명상에 잠긴 적이 많았다. 자기 삶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런 여유를 갖는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최악으로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단단함이 있다는 것이 힘이었다. 돌이켜보니 참 행복한 시간이었다.

현대 사회에서 나의 삶과 인간을 이해하고 나아가 나를 통해 대상을 이해하는 것이 어찌 말처럼 쉬운 일이던가? 역설적이게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고독한 시간이 자기와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자기 스스로 담론하고 덜어내면서 진취성을 잡아내는 시간이었다. 어쩌면 자유로움에 대한 동경은 스스로에게 체화 되도록 이끌었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스님께서 남긴 글들을 읽으며 불현 듯 지나 온 경험의 잔상이 떠나지 않았다. 농사철이다. 농부는 모를 심기 위해 흙을 갈아엎고 물을 댄다. 논바닥을 고르게 하기 위해 써레질을 하고 한편으로 논물이 새 나가는 구멍을 메우며 논둑을 다

> **집착을 놓고 자유로움을 찾는 것**
> **물질적 욕망을 내려놓지만**
> **자족, 검박, 만족하는 것이**
> **스님의 가르침 무소유일 것이다.**

듬는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마친 후 아버지께서는 논 가까이에 있는 대나무를 낫으로 툭툭 거칠게 쳐 준비를 마친 논에 세운다. 그리고 대통 속에 물을 채우고 논 주변에 개울가에 핀 찔레꽃 가지를 잘라 꽂아 놓았다. 어느 때에는 삐비 꽃을 꽂아두기도 했다. 대통은 천연 꽃병이었다. 나는 이런 행위에 대해 물어 보지는 않았다. 그저 농사를 짓기 위해 준비가 끝난 논에 대한 정갈함과 생명의 아름다움 그리고 희망을 표시한 것으로 생각했다. 다르게는 길섶을 지나는 사람에게 화심을 전달하자는 의도도 있다고 추정할 뿐이었다. 모두가 생활의 건강함이요 아름다움이다. 생활현장에서 느끼는 일상의 맑고 투명한 마음들이다.

나는 이 일상적인 행위가 어떤 의미인지 생각지도 않았다. 그저 농사 준비를 할 때마다 본능적으로 이런 행위를 보았고 느꼈을 뿐이었다.

어느 해인가 아버지께서는 이런 연례행사에 대해 말씀하셨다.

"자기가 소유하고 일을 하는 공간에 대한 공경심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인간이 자연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다."

아, 자기 공간에 대한 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가르침으로 다가왔다. 참 아름다웠고 경건했다.

나는 법정스님의 글들을 읽으며 이런 과거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이유를 생각해 보았다.

인간은 자기가 인식한 것, 좋다고 생각한 것의 이미지가 강하다. 그 이미지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편견이다.

속세란 자기만 존재하는 세계이다. 상대가 있지만 오욕칠정의 파도 속에서 울고 웃는 것이 아닌가? 같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 상대를 자기 소유로 만들어 버리는 현실이 학교이고 삶의 교과서이다.

집착을 놓고 자유로움을 찾는 것, 물질적 욕망을 내려놓지만 자족, 검박, 만족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무소유 일 것이다.

무소유, 불교적으로 보면 성립하기 어렵다. 부처는 한쪽으로 치우쳐 말하지 않았다. 내가 아는 한 불교는 어떤 것도 인정하거나 규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정 스님께서는 무소유라 했다.

법정 스님은 충분히 가질 수 있었으나 갖지 않았고 높아질 수 있었으나 높은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다. 오히려 은일했다. 안으로는 마음의 여유를 얻고 고고함을 지켰다. 삶은 깨끗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자존심과 정신의 자유를 만족시켜 주며 누리게 했다. 스님은 버리고 떠났지만 명성은 널리 알려졌다.

스님은 맑게 살면서 맑음을 찬양했다. 더러운 것을 지적하며 더럽게 사는 것을 쳐 내는 역할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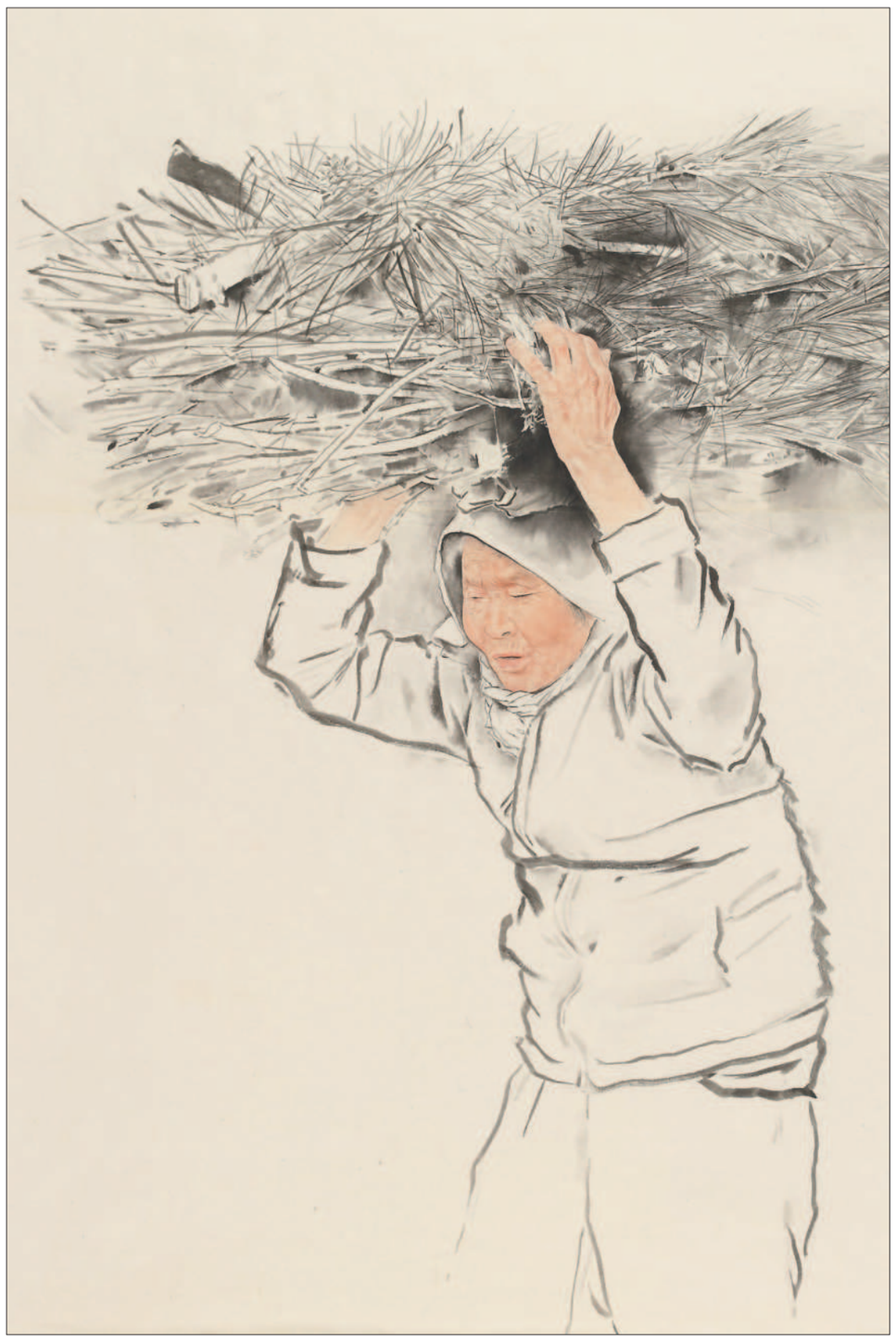
자신의 삶과 유리되지 않고 갇혀있는 자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것 그러면서 안으로는 공고해지나 밖으로는 한없이 경계를 허무는 자유자재의 삶은 자기 수행의 결과일 것이다. 그것이 자기 향상이고 희망이며 긍정이다.

나는 스님의 말씀을 덮으면서 우리 시대에 스님과 같은 대선사가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시대 여전히 법정 스님의 정신은 유효하다. 나의 이런 희망이 나무꾼 대선사를 그리게 했다.

내가 만난 나무꾼은 나는 나이고 너는 너였다. 칭찬과 고마움도, 원망도 추켜세움도 없고 자연을 낮추어 보지도 않았다. 때 되면 밥 먹고 시간되면 산에 나무하러 간다. 이런 생활이 편하고 바랄 것이 없다. 시비나 고저장단도 없다. 자기 본분에 충실할 뿐이다. 그러면서도 고뇌나 번뇌가 없다. 삶이 그렇듯 그저 죽음에 대해서도 충실할 것이다. 그림자를 벗 삼아 무정한 사물과도 교유하는 삶, 세상 어느 곳이나 모두가 도량이고 수행처이다. 대 해탈이고 윤회이고 자유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대선사가 있다.



'관음' 풍경은 고양이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고있다.



'나무꾼 대선사' 불교는 당신한테 있습니다. 당신한테 있는 불교를 찾으십시오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70번째 저서 출간!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수덕사 이어진 법맥과
만공·전강선사로 이어진

신간! 실증설 5개국어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불법의 참뜻을 보이기 위해 홀연히 펜을 들어 일시에 써내려간 실증설! 실증한 이가 아니고는 설파할 수 없는 도리로 가득한 이 책이 드디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국어를 더하여 5개국어로 편찬되었다.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5권



과학도 밝히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사를 밝혀놓은 환단고기. 근본성품으로부터 비롯하여 전우주, 지구촌으로 이어온 광대무변의 역사와 진리를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일체종지를 통달한 명안종사의 안목으로 밀밀하게 바로보였다.

www.zenparadise.com 참조 ☎ 031-534-3373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동상 / 특허청장상 수상 CE 인증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전동운반차의 선구자! 근우테크㈜



KW-B4D300DP(덤프&리프트 겸용)



4륜구동의 강력한 파워



KW-BRD300



360° 제자리 회전
평지 200kg 운반가능
KW-BS200

사찰 사용 모습



경사지 공양 제수 운반 / 고소 연등 설치 / 전자브레이크 장착으로 내리막도 안전 / 오르막 오를 시 수평유지

"전동운반차 1회 충전으로 3~4일 운전 가능"



써스펜션 (강력한 추진력)

"사찰에 최적화된 다섯가지 특장!"

1. 안전한 공양 및 제수 운반!
2. 간편하고 안전한 사용법!
3. 저렴한 유지비!
4. 안전한 연등 설치 작업대!
5. 소음 걱정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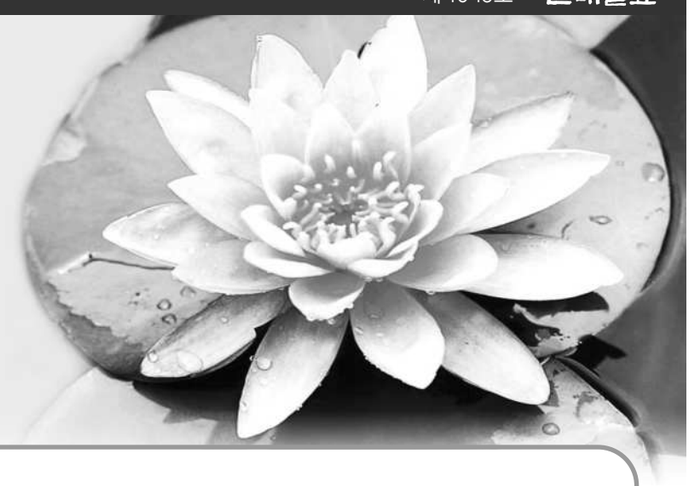
※ 종단 / 교구 / 지역 / 신도회별 단체상담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근우테크㈜ KEUNWOO TECH Co., Ltd.
문의전화 : 010-7518-7854, (053)801-7897, 7895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 공단로 82-6(검단동 887-160번지) www.kw-tec.co.kr

佛紀 2559年 乙未年 | 전면광고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 | B19

때와 처지를 살필 줄 알고 부귀와 쇠망이 교차함을 알라.
이것이 지혜로운 불자의 삶이니라. 〈잡보장경〉



대한불교조계종

갑 사

템플스테이 지정사찰

사부대중일동



충남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52번지
전화 041)857-8981~2
www.gapsa.org

한국불교화엄종

구이정각사

「경각산 극락도량」

주지 벽송

사부대중일동

■ 전북 완주군 구이면 불제로 824-35 (덕현리 산176)
TEL 063)222-2555~6



대한불교조계종 제12교구 본사

해인사 원당암

"혜암 큰스님께서 주석하시던 도량"

사부대중일동



경남 합천구 가야면 치인리 10 (해인사) 전화 055)932-7308

한국불교태고종 대구경북 교구

종무원장 강 관 정(칠곡비룡사)

행정부원장 **임법운**
(대구 관음사)

재정부원장 **김도법**
(김천 칠장사)

지방종회의원 종회의장 **김만허**
(대구 대원사)

종회부의장 **추원진**
(대구 죽림사)

종회부의장 **권금륜**
(칠곡 광명사)

총무국장 **홍영범**
(창녕 우포정사)

교무국장 **서지산**
(김천 월정사)

사회국장 **강법성**
(칠곡 비룡사)

규정국장 **김지형**
(성주 자은사)

경북 칠곡군 가산면 인동가산로 1045 (구. 송학리 235-3)
전화 054)975-4339 / 전송 054)975-0206

대한불교 조계종 제9교구본사

동화사 신도회

신도회장 손창수

신도일동

대구광역시 동구 동화사1길 1(도학동 35)
TEL 010-980-7900 사무국장 이달용

참선과 자비도량 참법 기도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안 흥 사**

주지 대웅

세월호 희생자와 실종자를 위한
기도와 연등을 올립니다.



경북 경산시 상방동 71번지 전화 053)815-4030 FAX 053)814-5142

대한불교조계종

성주 취운향당

주지 능혜

■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도성리 845
TEL 054)933-6371~2/FAX 054)933-6373

정 안 사

주지 정안

신도일동

■ 전북 군산시 회현면 고사리 310번지
TEL 063)466-6055

대한불교조계종

등명낙가사

주지 청우

신도일동

■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 1리
TEL 033)644-5337, 5475

남북통일 기원청도대불봉안도량

대한불교 조계종 **각원사 각원사불교대학**

조실 경해 법인
주지 및 학장 대원
각원사불교대학총동문회 일동
신도일동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각원사길 217(안서동)
TEL 041)561-3545 / FAX 041)556-1425

대한불교조계종

화엄도량 부석사

주지 근일

사부대중일동

■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148
TEL 054)633-3464

대한불교조계종

영주 포교당

주지 도선

금강불교대학.대학원

사부대중일동

■ 경북 영주시 영주2동 411-1번지
TEL 054-632-3767

대한불교조계종

소백산 부석사

주지 성공

사부대중일동

■ 경북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TEL 054)638-5033

불교교육 전법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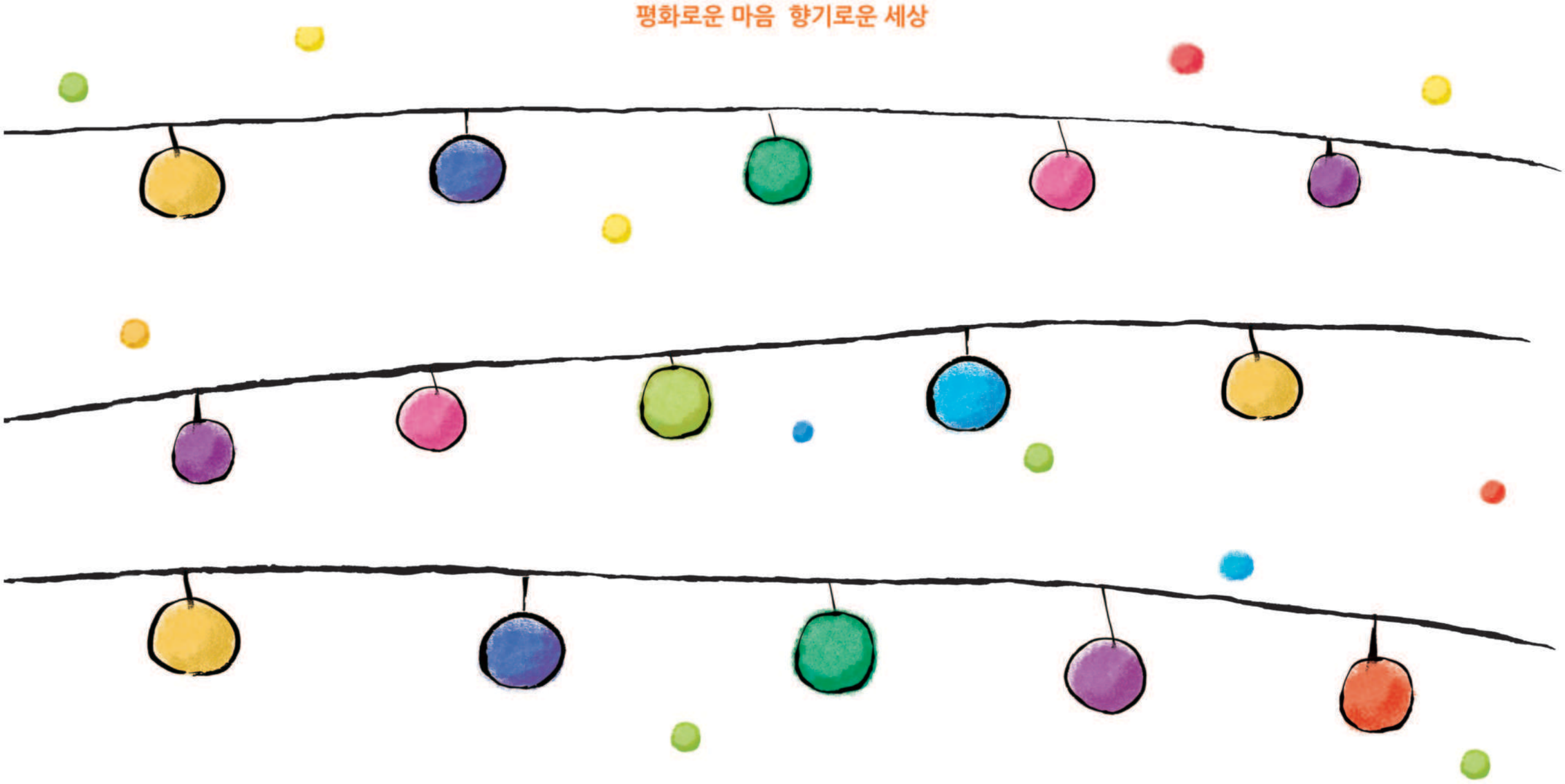
동산반야회 동산불교대학

학 장 법산경일
이사장 이종현
봉축위원장 안동일
동산가족일동
www.dongsanbud.net

■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
TEL 02)732-1206 /FAX 02)732-1207

자성의 불을 밝히는 생활 속의 참선수행도량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



내 한마음 깨우치면
오늘의 내 마음이 영원한 오늘이요
부처님 오신날일세

주지 혜 원

사부대중 일동

국내지원

- 광명선원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대금로 1402 TEL(043)877-5000 FAX(043)877-2900
- 제주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황사평6길 176-1 (영평동) TEL(064)727-3100 FAX(064)727-0302
- 부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함지로 79번길 23-26 (동삼동) TEL(051)403-7077 FAX(051)403-1077
- 광주지원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204번길 23-1 (치평동) TEL(062)373-8801 FAX(062)373-0174
- 울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 달래골길 26-12 (천곡동) TEL(052)295-2335 FAX(052)295-2336
- 대구지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41길 76 (중동) TEL(053)767-3100 FAX(053)765-1600
- 중부경남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하계로 35 TEL(055)345-9900 FAX(055)346-2179
- 진주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미천면 오방로 528-40 TEL(055)746-8163 FAX(055)746-7825
- 공주지원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위안양골길 157-61 TEL(041)852-9100 FAX(041)852-9105
- 포항지원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창로 59 (우현동) TEL(054)232-3163 FAX(054)241-3503
- 청주지원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교서로 109 TEL(043)259-5599 FAX(043)255-5599
- 강릉지원 강원도 강릉시 하평5길 29 (포남동) TEL(033)651-3003 FAX(033)652-0281
- 통영지원 경상남도 통영시 여황로 131 (도천동) TEL(055)643-0643 FAX(055)643-0642
- 목포지원 전라남도 목포시 상동 952-19 TEL(061)284-1771 FAX(061)284-1770
- 문경지원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봉서1길 10 TEL(054)555-8871 FAX(054)556-1989

국외지원

- 미국 뉴욕 플러싱지원(NewYork) 144-39, 32 Ave. Flushing, NY 11354, USA TEL:(직통)070-7883-5239 TEL:(1-718)460-2019
- 미국 워싱톤지원(Washington D.C.) 7807 Trammel Rd. Annandale, VA 22003, USA TEL:(1-703)560-5166 FAX:(1-703)560-5166
- 미국 로스엔젤레스지원(Los Angeles) 1905, S. Victoria Ave. L.A., CA 90016, USA TEL:(1-323)766-1316 E-mail : hanmaumla@naver.com
- 미국 시카고지원(Chicago) 7852 N. Lincoln Ave. Skokie, IL 60077, USA TEL:(1-847)674-0811
- 캐나다 토론토지원(Toronto) 20 Mobile Drive North York, Ontario M4H 1H9 CANADA TEL:(1-416)750-7943 FAX:(1-416)981-7815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지원(Buenos Aires) Miró 1575, CABA, C1406CVE, República Argentina TEL:(54-11)4921-9286 FAX:(54-11)4921-9286
- 아르헨티나 뚜꾸만지원(Tucumán) Av. Aconquija 5250, El Corte, Yerba Buena, Tucumán, T4107CHN, República Argentina TEL:(54-381)425-1400
- 독일지원(GERMANY) Broicherdorf Str. 102, 41564 Kaarst, Germany TEL:(49-2131)969551 FAX:(49-2131)969552
- 태국지원(THAILAND) 86-1 soi 4 Ekkama, Sukhumvit 63, Bangkok, Thailand 인터넷전화:(070)8258-2391 TEL:(66-2)391-0091
- 브라질 상파울로지원(Brasil) R. Newton Prado, 540-Bom Retiro-Sao Paulo-CEP: 01127-000 - Brasil TEL:(55-11)3337-5291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www.hanmaum.org (본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101-62 T. 031-470-3100 F. 031-470-3116

감사편지 당선작



2015 '감사편지' 당선작 시상식이 5월 11일 동산반야회 회관에서 거행됐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한주영, 강희숙, 이대원성 회장, 무구 스님, 법산 스님, 이란 원장, 이종현 이사장, 류소영, 윤정란 씨. 뒷줄 왼쪽부터 홍사성 시인, 김승억 원장, 이준협, 이무성 씨, 최정희 편집이사. 사진=노덕현 기자

"감사는 보은… 불자의 마음가짐"

현대불교 · 수효사 효림원 '2015 감사편지' 공모 시상
대상 강희숙 등 9명 수상… 젊은층 응모 35%

현대불교신문사(대표이사 혜월)와 사회복지법인 수효사 효림원(이사장 무구)은 5월 11일 서울 종로 동산반야회 2층 강당에서 '2015 감사편지 당선작'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감사편지 공모에서는 강희숙 씨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최우수상에는 이무성 씨가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류소영 씨와 한주영 씨가, 입선에는 윤정란 · 신지웅 · 정재인 · 최혜경 · 강태정 씨가 각각 이름을 올렸다.

지난 4월 25일까지 한달여 간 진행된 감사 편지 공모에서는 182명이 부처님, 스님, 스승, 부모에게 전하는 감사 편지를 응모했다. 특히 첫 회임에도 불구하고 20~30대 참가자가 63명(34.6%)에 달할 정도로 젊은 층의 참여가 두드러졌다.

시상에 앞서 법산 스님은 법어를 통해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기를 불자들에게 권했다. 〈금강경〉의 마지막 구절인 '일체유위법(一切有爲法) 여몽환포영(如夢幻泡影) 여로역여전(如露亦如電) 응작여시관(應作如是觀)' 을 예시한 스님은 "감사는 비움을 의미하며 불교에서 말하는 '회향' 은 고마음을 되돌려주는 마음"이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면 탐진치 삼독심이 없어진 아름다운 정도(正道)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상을 시상한 수효사 효림원 이사장 무구 스님은 글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수행 중 하나임을 되짚었다. "상좌가 외부로 나가 공부하겠다는 편지를 3번에 걸쳐 썼다. 내용에는 은사인 나와 부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었고, 결국 외부에서 공부하는 것을 허락했다"면서 "편지는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유를 할 수 있게 한다. 이 공모가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우수상을 시상한 최정희 현대불교신문 편집 이사는 "디지털 시대에 아날로그적 감성을 담은 편지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이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고 격려했다.

우수상을 시상한 이종현 동산반야회 이사장은 "후원단체임에도 수상자 중 동산반야회 회원들이 없는 게 아쉽다. 기회가 있다면 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박순 원장은 "감사의 마음은 배려를 의미한다. 감사편지 공모를 통해 감사의 생활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입선을 시상한 이대원성 공림공양회장은 "가만히 있는 바위에 부처를 새기면 살아있는 부처님이 되고 법당이 되듯이 감사의 마음이 신심으로 승화해 세상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란 여여원 원장은 "살면서 칭찬과 감사를 이야기할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 수상자들의 편지는 감사의 생활이 말이 되고 글이 되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상자들은 이번 편지 공모를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사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대상 수상자인 강희숙 씨는 "공모를 위해 며칠동안 글을 고치면서 그간 내가 살아온 삶의 반성문 같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모든 인연에 감사드릴 뿐"이라고 말했다.

최우수상 수상자인 이무성 씨는 "나 역시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홍사성 시인은 심사평을 통해서 아침 장엄염불의 '잊어서는 안되는 5가지의 큰 은혜(五種大恩 銘心不忘)' 를 예로 들며 감사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홍 시인은 "수상자뿐만 아니라 응모했던 분들의 모든 편지에는 진솔하고 감동적인 감사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부처님의 법문이 바로 이러했을 것"이라며 "감사는 곧 보은이다. 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불자들의 마음가짐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수상자 명단

상 명		이름
대상	수효사효림원 이사장상	강희숙(43 · 여)
최우수상	현대불교 대표이사상	이무성(27 · 남)
우수상	불교여성개발원 원장상	류소영(34 · 여)
	동산반야회 이사장상	한주영(46 · 여)
입선	공림공양회 회장상	윤정란(56 · 여)
	공림공양회 회장상	신지웅(21 · 남)
	여여원 원장상	정재인(25 · 여)
	여여원 원장상	최혜경(54 · 여)
	수효사효림원 원장상	강태정(54 · 여)



대상 수상자 강희숙 씨(왼쪽)가 수효사 효림원 이사장 무구 스님에게 상패와 부상을 받고 있다.

심사평

효심 · 배려 · 사랑 깃든 진솔한 내용 감동적

본심에 올라온 17편 '감사편지' 중에서 먼저 9편을 추렸다. 우리 심사위원들은 강희숙의 '아버지' , 이무성의 '행복한 미생이 오과장 보다 멋진 최과장님께 올리는 글' , 한주영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류소영의 '사랑하는 당신 준협씨에게' 등 4편을 대상 후보로 놓고 토론했다.

강희숙의 '아버지' 는 성장한 딸이 아버지에게 쓴 편지다. 이 편지는 페인트 일을 하는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던 여고시절을 마치 드라마처럼 회고한다. 그리고 "어리석고 못난 자식을 용서해주세요"라고 지난날을 반성한다.

TV 속에서 '딱 1년만 산다면 꿈을 이루겠느냐, 1억을 받겠느냐' 는 질문에 아버지들은 자식들을 위해 1억을 받겠다고 답한다. "순간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늘 자식이 먼저였던 아버지 모습이…"

가족보다 자신을 위한 마음이 더 큰 것을 확인한 필자는 한없이 부끄러웠다고 고백한다.

"백 권의 책보다, 만마디 격언보다 아버지의 모습이 더 큰 가르침인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이 편지에서 이 대목은 압권이다. 감동적인 편지 '아버지' 는 구성과 문장력이 탄탄하다. "무슨 말로도 아버지에 대한 깊은 고마움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 앞에 엎드려 큰절 올립니다." 맺음말이다. 가슴이 먹먹해진다. 이 편지를 읽는 강희숙 씨의 아버지 마음은 어떠할까?

우리 심사위원들은 가장 감동적이고 효심을 일깨우는 '아버지' 를 대상으로 선정했다. 최우수상의 이무성, 우수상의 한주영, 류소영, 그리고 5명의 입선편지도 모두 진솔하고 감동적이다.

효심 · 배려 · 사랑 등 진정성이 깃든 '감사 편지' 는 따뜻했다. 삶을 돌아보고 관계를 더욱 화목하게 한다. 5월 가정의 달, 그리고 부처님오신날에 누군가에게 감사편지를 쓰자. 행복한 웃음꽃이 필 것이다. 당선자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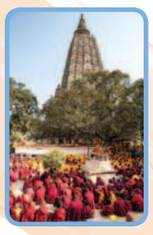
법산 스님(前 동국대 교수)
홍사성(시인 · 불교평론 편집인)



법산 스님(왼쪽)과 홍사성 시인.

마하연투어 예약문의: 02) 365-7747 www.mahayeon.com

대표 청정행 두손모음





1. 직영으로 중간 마진을 뺀 가격 책정(거침없는 상품가격)
2. 오랜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3. 맞춤 순례 운영 *불교행사*
4. 추가경비 일체 없는 가격책정
5. 호텔/행사일정/식사 타사 비교 필수

집중모객

불기 2559년 부처님 오신날

미얀마/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출발일: 5월 27일
[지장도량] 구화산 / [관음도량] 보타산	6일	출발일: 6월 17일
[대한민국 영산] 북경/백두산	5일	출발일: 6월 11일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출발일: 6월 11일

요금 문의

미얀마
- 양곤/바고/시리암 5일
- 양곤/바간/헤호 5일
- BEST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

티벳/부탄
- 티벳 6일
  성도–라싸–얌드록쵸–간체–시가체
- BEST 티벳핵심하늘열차 8일
  중경–라싸–장체–시가체–라싸–난주역–하늘열차
- 네팔/부탄 8일
  카투만두–파로–팀푸–왕디포드랑–통사–푸나카–팀푸–파로–카투만두–나가르콧

인도/네팔/스리랑카
- 인도 9일
  델리–라즈기르–나란다–보드가야–바라나시–아그라
- BEST 인도 11일(8대성지순례)
  델리–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바이샬리–나란다–쿠시나가르–룸비니–카필라바스투–쿠단–산카시아–아그라
- 인도/네팔 15일
- 스리랑카 6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마힌탈레–담볼라–시기리아–플론나루와–알루비하라–캔디
- BEST 스리랑카 완전일주 순례 8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블라–시기리아–플로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아–벤토타

라오스
- BEST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 라오스/베트남 7일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베트남/캄보디아
- 베트남/캄보디아
  [베트남] 하롱베이 [캄보디아] 씨엠립 6일

태국
- 태국
  방콕–아유타야–파타야 5일

대만/홍콩
- 대만 5일
  대만 3대사찰 순례
- 대만/홍콩 5일
  홍콩(2)–대만(1)–화련

중국
- BEST [지장도량] 구화산/황산/항주 5일
- BEST [관음도량] 항주/보타/낙가산 5일
- 상해/항주/구화산/보타산 6일
- BEST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 BEST [문수도량] 북경/오대산 5일
- [민족의 영산] 백두산 5일
-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 훼리 크루즈(수륙대제 가능)
  대룡훼리, 화동훼리, 위동훼리
- 세계3대 트래킹명소 호도협
  곤명/호도협/옥룡설산 6일

세계 문화 탐방 베스트 상품
- 그리스 문화탐방 9일
- 동유럽 문화탐방 8일
- 서유럽 문화탐방 8일
- 하와이 문화탐방 6일
- 미서부 일주탐방 9일
- 미동부 일주탐방 9일

대상

아버지

강희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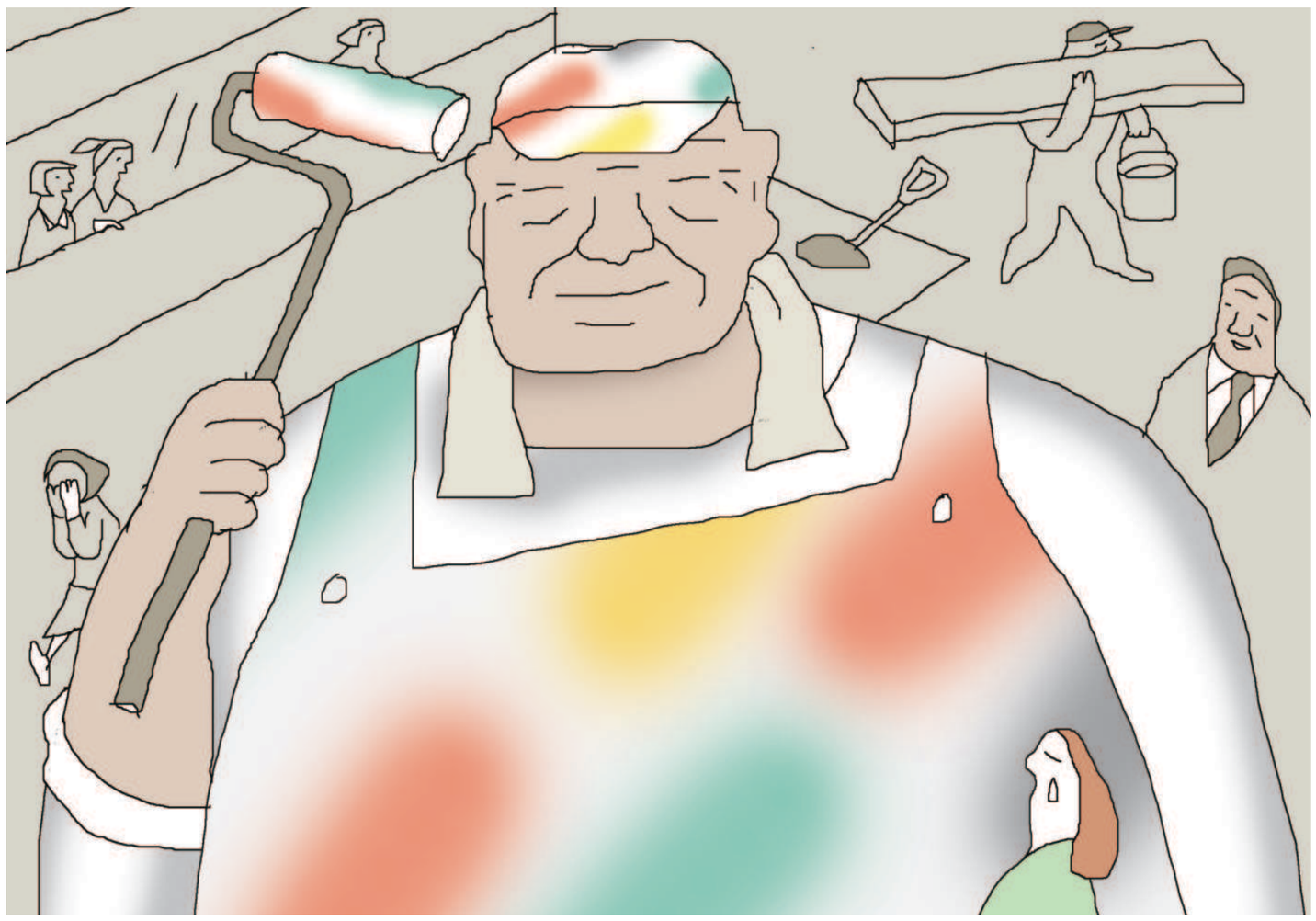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아버지!

나이가 들수록 아버지의 옛 모습이 더 자주 떠오릅니다. 높은 지붕 위에 서서 페인트칠을 하던 모습, 무거운 짐을 나르던 모습, 사시사철 페인트가 묻은 작업복을 입고 계시던 모습, 까맣게 탄 얼굴, 아무리 씻어도 씻기지 않고 남아있던 손톱과 손등의 페인트 흔적들…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한때는 이 모습들이 싫어서 외면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자식들을 위한 아버지의 헌신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때였지요. 그 때는 일만 하는 아버지를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대학 입학 때문에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성적은 시원치 않았고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굳이 학부모 상담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 전체 학부모가 거의 다 상담을 하러 온 터라 저도 어쩔 수 없이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지요.

"선생님께서 진학 상담해야 한다고 학교에 오래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버지는 가타부타 말이 없었습니다.

"다른 애들 부모님들은 다 온대요."

저는 날카로운 말투로 아버지께 쏘아붙였습니다. '꼭 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말씀드릴 생각이었는데 괜히 딴 소리가 나오고 만 것이었습니다.

"바쁘면 오지 마세요. 자식보다 일이 더 중요하잖아요. 대학이고 뭐고 안 가면 되니까요."

쾅! 저는 그대로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무리 기를 써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 몹시 초조해하고 있던 저는 제 자신에게 해야 할 화풀이를 아버지께 쏟아내 버렸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날은 참 햇빛이 쨍쨍한 날이었습니다. 교문을 지나 운동장을 걸어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2층 교실 창문에서 봤습니다. 아버지… 부르려던 제 입을 막은 것은 같은 반 친구들의 수군거림이었습니다.

"저기 봐. 누구야? 누구 아버지야?"

"흑인 아냐? 얼굴이 진짜 까맣다!"

"어디? 어디?"

창가에 몰려 든 같은 반 친구들이 운동장을 가로질러 걸어오는 아버지를 보면서 조잘댔습니다. 쨍쨍한 햇살을 받으며 운동장을 걸어오는 아버지는 평소에 보지 못했던 양복바지에 하얀 셔츠를 입고 계셨지요. 항상 봤던 페인트가 묻은 작업복 차림이 아니었습니다. 그 낯선 하얀 셔츠 때문이었을까요? 아버지의 얼굴은 정말이지 새까맣게 보였습니다.

학부모 상담이 한창이던 때라 그 즈음에는 학교에 학부모들이 많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은 제 부모가 보이면 창가로 달려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도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모습을 확인한 순간, 아니 친구들의 수군대는 말을 들은 순간, 창가에서 얼른 옆으로 숨어버렸습니다. 혹시라도 아버지가 제 얼굴을 확인하고 손이라도 흔들까봐서요.

교무실 창문으로 담임선생님 옆에 앉아 있는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는 들고 온 음료수를 선생님께 건네셨지요. 하얀 페인트가 점점이 묻은 아버지의 까만 손. 저는 눈을 돌려버렸습니다. 일을 하다가 급히 옷을 갈아입고 오신 거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차라리 오지 말든가, 올 거면 손이라도 좀 씻고 오지.' 저는 속으로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깨끗한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온 친구들의 아버지를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교무실에 들어가려던 저는 그대로 돌아서서 교실로 가 버렸습니다. 그 날 학교에서 저는 한 번도 아버지를 아는 척 하지 않았습니다. 두리번거리며 저를 찾는 아버지를 봤지만 저는 문 뒤에 숨어서 아버지가 교문을 나설 때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리석고 못난 자식을 용서해주세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아버지가 얼굴을 새까맣게 태우면서 일했던 그 노력이 아니었다면 저희 자식들은 이렇게 자라지 못했을 것입니다.

얼마 전 텔레비전을 보다가 문득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앞으로 딱 일 년만 살다가 죽게 된다면 당신은 당신의 꿈을 이루겠느냐, 1억을 받겠느냐하는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꿈을 이루겠다, 하더군요. 내 인생이 일 년밖에 안 남았다면 세상에 내 이름 석 자 남기고 죽고 싶다, 하고 싶은 것 해 보고 죽어야 억울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버지들의 답이 나왔습니다. 젊은 사람들과는 반대로 아버지들 대부분은 1억을 받겠다, 라고 답했습니다. 뜻밖의 대답에 저는 텔레비전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나이가 들면 꿈을 이루는 것보다 돈을 더 좋아하게 되는구나!'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죽으면서 처자식들한테 뭐라도 남겨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 돈으로 자식들이 저 하고 싶은 것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좋겠다, 1억이라도 남겨주고 갈 수 있다면 웃으면서 죽을 수 있겠다, 라는 아버지들의 대답을 듣고 말이지요.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이 나이가 되도록 부모의 마음자세를 한 치도 갖추지 못한 철부지였던 것입니다. 앞으로 일 년밖에 못 산다면 당연히 꿈을 이루어야지, 하고 속으로 답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가족을 위한 마음보다 제 자신을 위한 마음이 더 큰 것을 확인하고 보니 한없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늘 자식이 먼저였던 아버지의 모습이… 누군가 아버지께 이런 질문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버지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으셨겠죠? 주저 없이 돈을 택하셨을 것입니다. 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킬 수 있는 그 귀한 돈을 말이지요. 돈이라는 이름의 희생을 말이지요.

머리가 하얗게 센 지금도 아버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는 좀 편히 쉬시라고, 맛있는 것 드시고 좋은 데 구경도 다니시라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고개만 젓지요. 지금도 아침이면 일터로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시는 아버지. 묵묵히 일에 몰두하는 아버지를 보면 숭고하기까지 합니다.

> **백 권의 책보다 만 마디 격언보다**
> **아버지 모습이 더 큰 가르침이라는 걸**
> **이제야 깨닫습니다.**
> **깊은 고마움 다 표현 할 수 없어**
> **그저 엎드려 큰 절 올립니다.**

백 권의 책보다 만 마디 격언보다 아버지 모습이 더 큰 가르침이라는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아버지처럼 살아가리라, 아버지의 발자국을 따라 걸어가리라, 오늘도 다짐해 봅니다.

아버지!

무슨 말로도 아버지에 대한 깊은 고마움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 앞에 엎드려 큰 절 올립니다.

아버지의 못난 자식 올림

내 반성문… '아버지처럼 살자' 다짐

수상 소감



강희숙

5월이면 유독 고마운 사람들이 많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부모와 친구뿐만 아니라 난처한 일을 당했을 때 말없이 도와주었던 사람들의 얼굴까지 하나하나 떠오릅니다.

어쩌면 그 사람들은 그 때 자신이 했던 그 일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기억하지도 못하겠지요. 이번에 편지를 쓰는 시간들은 오롯이 그런 사람들의 얼굴과 마음을 다시 한 번 새겨보는 시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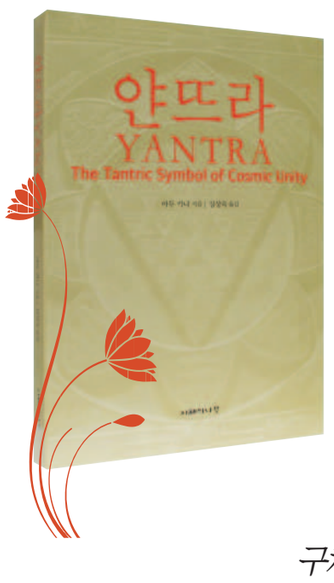
어쩌면 편지란 것은 상대방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쓰는 반성문의 다른 이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쓰는 동안 내내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가득했으니까요.

이번에 이 편지도 아버지께 직접 배달이 된다고 했다면 어쩌면 쓰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때의 그 못된 마음, 지금도 여전히 아버지에게만큼은 들키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말로 뭔가를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쑥스러운 일인지 잘 알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더욱 이 편지는 아버지께 전하는 글이 아니라 제 자신의 깊은 반성이 담긴 글이자 앞으로 아버지처럼 살겠다는 각오가 담긴 글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바람이 하나 생겼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누군가가 밤을 새워 쓴 편지의 수신인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 하는 바람. 그렇게 되려면 아버지처럼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것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이런 좋은 대회를 마련해서, 저에게 이토록 큰 깨달음의 시간을 갖게 해 주신 현대불교신문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너무나 큰 상을 주신 것에 뭐라고 감사의 말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최 측과 심사위원분께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 佛紀 2559年 乙未年 Buddha's birthday



지혜를 들여다 보면
자신이 보인다!!!

얀뜨라 YANTRA
The Tantric Symbol of Cosmic Unit

우주적 합일의 만뜨라 상징 얀뜨라
얀뜨라는 명상과 의례의 도구이며, 복잡한 형이상학적 상징이다.

이 책은 얀뜨라에 대한 이해를 얻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접근이다. 170장 이상의 흑백과 컬러 얀뜨라 이미지를 제공하고 있다. 저자는 근원적 전체로 회귀하기 위한 영적 여정에 도움을 주는 우주적 합일의 만뜨라 상징으로 얀뜨라의 역동적 과정을 차례로 설명한다. 이 책은 매우 중요한 인도의 강력한 상징에 대한 모든 측면을 설명한다. 얀뜨라는 전통적 사원 건축과 조각, 명상에 활용되며, 의례와 만뜨라와 관련된다. 저자는 인도의 흑주술과 백주술 전통 모두에 사용되는 얀뜨라 뿐만 아니라 부적으로서 힘을 가지는 얀뜨라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다.

가격 : 19,800원 | 마두 카나 지음 | 심상욱 옮김

철리와 과학, 수행법을
구체적으로 해설한 부처님 경전

마음은 무엇이며 그 수행은 어떠한 것인가?
천명일 선생의 명쾌한 해설로 부처님 말씀을 생생하게 듣는 듯합니다.

수능엄경 (首楞嚴經)



천명일 해설
가격 : 상 20,000원, 중 20,000원, 하 27,000원 | 세트 전3권 값 67,000원

도서출판 지혜의나무 [전화 02-730-2211]

佛紀 2559年 乙未年 Buddha's birthday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

마음의 정원
{ 랄랄라 진관사 }



· 구수하고 깨달음이 담긴 이야기 보따리가 빵빵 터질 것 같은 느낌이다. 〈세계일보〉
· 진관사의 역사와 전설, 아름다운 경내, 소박한 절밥 전통 등을 총망라한 책이다. 〈미디어붓다〉
· 비구니 스님들의 새벽 예불, 소박한 전통이 남아 있는 사찰 음식, 아름다운 건물과 자연환경 등을 글과 사진으로 담아냈다. 〈연합뉴스〉
· 최근 출간된 '랄랄라 진관사'(클리어마인드)는 도심 사찰도 아니고 산사도 아닌 진관사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 〈조선일보〉
· 많은 이들이 꿈에 그리는 절을 찾아내 널리 알리는 책을 내는 일을 복으로 받아들였다. (중략) '절집 이야기 시리즈' 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 첫번째가 진관사다. 〈불교포커스〉

절집 이야기 1
마당을 거닐거나 법당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절이 있습니다. 나보다는 항상 남을 먼저 생각하게 하고,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 편하게 머물 수 있는 곳! 클리어마인드〈절집이야기〉시리즈는 이런 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황찬익·수경 지음 / 클리어마인드 / 값 15,000원 전화 (02) 2198-5151 / 팩스 (02) 2198-5153 / 이메일 gobs108@hanmail.net

최우수상

행복한 미생이 올리는 글

이무성



그림 · 박구원

행복한 미생이 오과장보다 멋진 최석 과장님께 올리는 글입니다.

과장님, 저 인턴이었던 무성입니다. 쑥스럽지만, 이렇게 글로써 제 감사함을 표현해보고자 합니다. 조금 민망한 마음도 있지만, 제가 느끼는 생각을 제대로 보여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이렇게 편지로나마 전해보겠습니다.

처음 가정용품파트로 배치 받았을 때를 기억합니다. 주변에서 가용파트에는 최석 과장님이 계시니, 잘해주실 것이고 많이 배울 것이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기대와 불안감을 동시에 안고 인턴의 마음가짐을 되새기며 사무실로 들어갔을 때, 과장님이 편한 미소로 환대해주셔서 불안함을 금방 버릴 수 있었습니다. 좋은 분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를 처음으로 느꼈던 첫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인턴 생활 내내 과장님께 힘을 얻었습니다. 가르침 또한 많이 받았지요. 매장근무 때 함께 돌면서 단순한 업무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에 거의 매번 저를 격려해주셨던 게, 저에게는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함께 인턴생활을 한 동기들 사이에서 긍정의 아이콘, 활력 넘치는 사람으로 불릴 수 있었던 기반에는 과장님의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잘할 것이라는 과장님의 격려는 제 자신감이 되었고, 덕분에 인턴 생활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감사합니다.

물론 아찔한 실수의 순간도 기억납니다. 딱 한번, 평소 시간보다 지각으로 출근해서 마음 졸였던 날이 선명하네요. 이제 찍혔구나, 점수 깎였구나 하며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에 미리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티는 내지 않았지만 치명적인 실수라고 생각하며 속상해하고 있었을 때, 과장님은 오히려 밖에서 점심을 사주시며 크게 혼내기 보다는 좋게 넘어가셨습니다.

그 때 얼마나 안도했는지,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덕분에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인턴 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인턴을 하고 있던 동기들 사이에서, 과장님은 언제나 제 자랑이셨죠. 가장 막내급인, 아직 정식으로 회사 사람도 아닌 인턴인 저에게 보여주신 관심과 배려는 다른 동기들의 부러움이었습니다.

보통 까마득한 상사와는 편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할 텐데, 저는 오히려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가끔 예의를 차리지 못할까봐 그것이 우려될 정도였으니까요.

많은 동기들이 제 상황을 부러워했었던 것은 제가 단단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였습니다. 무뚝뚝하고 엄한 분들에게 눈치 보며 마음 졸이는 동기들과, 거침없이 제 의견을 말할 수 있었던 저의 상황은 많이 비교되었으리라 여겨지네요.

짧았다면 짧고, 길다고 하면 길었던 두 달간의 인턴생활이 끝나고, 저는 마지막으로 최종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면접이 끝나고 기다리던 발표의 날. 몹시 안타까웠지만, 결국 저는 완생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즐겁게 일했고 열심히 일했다는 자신감이 있었던 저이기에, 탈락이라는 발표를 받아본 순간 제 눈을 의심했었죠.

합격률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탈락을 하니, 말로 표현 못 할 만큼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해에 가라앉는다는 기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비슷할 것 같네요. 이제까지 저의 노력이 모두 무시당한 것처럼 느껴졌었고, 너무 속상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저를 위로해주려고 만드신 술자리에서 진심으로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거짓말처럼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저를 가까이에서 두 달 동안 지켜보셨고, 직접 평가하셨던 분께서 저 못지않게 많이 속상해하셨던 것은 가라앉아있던 자존감과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특히 따로 댁으로 초대해주셨던 날은 여태껏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자랑했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보내고, 아침에 사우나도 함께 갔었죠. 그리고 인천까지 과장님 차를 타고 가서 바다도 보고 해물칼국수도 먹고 온 일은, 주변 지인들이 모두 입을 모아 대단하다고들 합니다.

그럴 때 마다 제가 이런 말을 했죠. 드라마에 오과장이 있다면, 현실에는 더 대단한 최과장님이 있다고. 나는 비록 미생이지만, 장그래 부럽지 않은 이그래라고 말이죠.

얼마 전 팀 회식에 초대해주셔서 함께 했었지만, 복잡한 자리인지라 하고 싶은 말을 많이 못 드렸습니다. 오히려 그 곳에서도 감사한 마음만 더 받고 온 것 같네요.

이대리님이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쓰고 계시고, 저 때문에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를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다고 하셔서 또 많이 감동했습니다. 감사함을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오히려 더욱 감사함을 받고만 왔던 자리라, 약간은 죄송하고 아쉽습니다.

과장님!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떨어져서 회사를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그간의 좋은 경험들 덕분에, 두 달간의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준 큰 기회였다' 라는 생각이 들 만큼이요. 드라마의 장그래가 새 길을 걸었듯, 저 또한 다른 무궁무진한 기회들이 열려있다고 진심으로 생각합니다. 다시금 취업준비생이라는 힘든 자리로 돌아왔지만, 전보다 더욱 잘 버틸 자신이 생겼거든요. 때문에 감히 저를 행복한 미생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 드라마에 오과장이 있다면,
> 현실에는 더 대단한
> 최과장님이 있습니다.
> 나는 비록 미생이지만,
> 장그래 부럽지 않은 이그래입니다.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친척, 친구들… 하지만 단언컨대 제가 가장 신나서 연락을 드릴 사람은 아마 과장님이 아니실까 생각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신다면, 꼭 조만간 즐거운 소식을 들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교차 큰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만 글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생의 첫 과장님께, 이무성 올림.

"따뜻한 세상 만드는 불자 되겠습니다"

수상 소감



이무성

이번에 편지를 쓰면서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되었고, 또 편지의 대상이 아닌 다른 고마운 분들을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들도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생각하고 좋은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상까지 하게 되어서 정말 기분이 좋고, 감사합니다.

최우수상이라는 큰 상을 받게 되어서 감격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얼떨떨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제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제 편지의 대상인 과장님이 인정받은 느낌이라 더 기분이 좋습니다.

다시금 그분께 감사의 마음을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바른 인성을 토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팍팍하고 살기 힘들다고 말하는 요즈음의 삭막한 세태에서,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신 현대불교신문사에도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감사할 줄 알고, 감사함을 표현하는 그런 불자로서 계속해서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JJUN Heating System Module
"쭌 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스님,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D.I.Y 시공 가능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 설치장소 ■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www.jjunheating.co.kr
특허청 KIBO 기술보증기금 인증 벤처기업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 지역 대리점
서울 : 010-5097-8291 수원 : 010-5211-7260 남양주 : 010-9183-9729
평창 : 010-6433-8612 양산 : 010-6294-6126 김천 : 010-9091-4583
진주 : 010-3583-7139 울산 : 010-4597-5577 서광주 : 010-6890-0365
익산 : 010-6610-2337 여수 : 010-3612-7784 고성 : 010-4578-0961

깨어있는 불자의 참소식
도서출판 좋은인연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http://book.tvbuddha.org
도서구입문의 053.475.3707~6
천일(3년) 청정결사
무문관 첫 백일일기
글과사진 無一 우학스님
무문관 첫 백일일기는 無一 우학스님의 무문관 수행일기로서 천일(3년) 수행 중에서 문을 닫기 7일 전부터 문을 닫은 후 94일까지의 첫번째 100일간의 일기이다. 보잘 것 없이 작고, 내 뜻대로 문을 열 수도 없는 폐관의 공간임에도 무수히 많은 생명들이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모습을 과연 수행자는 어떤 눈으로 보았을까?
저자의 소박한 일상을 따라가다 보면 무료하기만 할 것 같은 폐관의 수행은 결코 무료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 어디에 견주어도 더욱 더 치열하다. 비록 문은 닫혔으나 열린 눈과 열린 마음의 무문관 그곳은 일미진중함시방, 한 티끌이 시방세계를 머금듯 대우주의 아름다움과 질서정연함이 펼쳐져 있음을 느낄 수 있다.
2015년 4월 25일 초판발행 | 컬러 214쪽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살펴본 부처님 일대기
아, 부처님
글과사진 無一 우학스님
길에서 나서 길에서 가신 부처님. 부처님께서 일생 동안 걸으신 그 '길'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책은 오랜 시간 인도 전역을 순례하며 보고 깨달은 바를 생생한 스님의 언어로 독자들에게 전달한다. 2600여 년 전 부처님께서 다녀가신 그 길을 스님과 함께 동행하면, 이제는 아련하게 흔적으로만 남은 그 길을 통해 부처님 당시의 시대와 수행자로서의 부처님 모습을 한층 더 가깝게 접할 수 있게 된다.
2015년 4월 20 재판발행 | 컬러 262쪽

우수상

사랑하는 당신, 준협 씨

류소영



그림 · 강병호

당신, 어느덧 4월도 반이나 지났습니다. 해사하게 피어나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던 벚꽃도 어느덧 바람에 흩날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벚꽃을 보면, 누군가는 아쉬워하겠지만, 나는 막 피어나는 벚꽃보다도 더 반갑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과의 아름다운 추억 때문입니다.

학창시절, 윤리 교과서를 넘기다 '고집멸도(苦集滅道)' 라는 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 말이 멋있게 느껴져서, 종이에 적어 책상 앞에 붙여 놓았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말을 머리로만 받아들였을 뿐 가슴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했나 봅니다.

가진 것도, 내세울 것도 없던 스물일곱 살 가을, 사법시험에 붙겠다는 꿈을 안고 신림동 고시촌에 들어갔습니다. 당신을 처음 만난 곳도 바로 그곳이었지요. 단지 멋지게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시험이었으니, 공부가 잘될 리 없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마냥 시간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당신은 내게 좀 더 성실해지라고 충고했습니다.

성실이란 '온종일 공부에만 매달리는 것' 이라고 여겼던 나는, 공부에 매달리기는커녕 고민이 있으면 들어 주고, 필요한 물건이 생기면 구해 주고,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나눠 주는 당신이 도리어 불성실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성실이란 '온종일 공부에만 매달리는 것' 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것-사람을 대할 때는 사람을 대하는 것에 마음을 다하고,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는 것에 마음을 다하고, 책을 볼 때는 책을 보는 것에 마음을 다하는 것' 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그러니 당신 눈에는, 놀 때 공부 걱정을 하고 공부할 때 놀 궁리를 하며 마음만 바빴던 내가, 얼마나 불성실한 사람으로 보였을까요?

당신, 2012년 사법시험 1차 합격자 발표 날을 기억하나요? 그해는 당신과 내가 마지막으로 사법시험에 도전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합격자 발표 날, 명단에 당신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신의 나이는 서른넷이었습니다.

내가 붙었다는 안도감보다는 당신이 떨어졌다는 막막함에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딱 하루만 울더니, 이튿날 벚꽃을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늦은 오후, 활짝 핀 벚꽃을 보러 여의도 윤중로에 찾아갔지만, 벚꽃은 이미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떨어지는 벚꽃을 보니 내 꿈마저 시들 것만 같았습니다. 붙었다는 안도감도 잠시, 나는 이미 사법시험 2차를 포기하고 있었지요.

넉넉하지 않은 형편, 늦은 나이, 무엇보다도 아픈 목이 내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하루 12시간을 공부해도 합격하기 어렵다는 시험인데, 목이 아파 의자에 한 시간 앉아있는 것조차 힘든 내가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착각은 자신이 무언가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처음부터 가진 건 없어. 그러니 버리면 돼. 버리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흩날려 떨어지는 벚꽃 아래서, 벚꽃보다 해사한 얼굴로 당신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난 몇 년 동안 성실히 살았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며, 사법시험을 그만두고 취업을 준비하겠다고 했지요. 그러면서 내게 남은 시험을 성실히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돈, 명예, 건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목이 아프면 아픈 대로 하루하루를 충실히 보내다 보면, 그 결과가 꼭 합격이 아니어도 괜찮다면서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시들 것만 같았던 내 꿈이 다시 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당신은 알까요?

그 뒤, 돈이 없다고 걱정하는 것도, 나이가 많다고 푸념하는 것도, 건강했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도 다 그만두었습니다.

나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고 마음먹었지요. 병원에

> **내 삶을 바꾼 당신, 그리고 지금은 곧 태어날 아기의 아빠가 될 당신, 당신을 보면서 꿈을 꿉니다.**
>
> **다음 생이 있다면, 당신에게 더 가까운 사람으로…**

다니는 대신, 아침, 저녁으로 108배를 하면서 마음을 비워 나갔습니다. 목이 아픈 탓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여유로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듬해 사법시험 2차를 치르고 돌아온 날, 당신의 품에 안겨 평펑 울었습니다. 시험을 잘 봐서도 못 봐서도 아니었습니다. 붙을 거라는 기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충실히 보냈다는 기쁨, 이제 사법시험을 내려놓고 다른 길을 갈 수 있겠다는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당신과의 결혼을 서두르고 있을 무렵, 뜻밖에 사법시험에 최종합격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법시험에 붙고 나서도 내 삶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 삶은 사법시험에 붙고 나서가 아니라, 당신을 만나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내게, 오랜 연애 끝에 결혼까지 했는데 어떻게 변함없이 사이가 좋을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나는 활달하고 당신은 차분하니까, 혹시 당신이 많이 참고 사는 것은 아닌지 슬쩍 덧붙이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웃으면서, 당신은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노여움이 없는 사람' 이라고 답합니다. 자신의 잣대로 사람을 대하지 않으니 노여워할 일이 없고, 화난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니 노여워할 일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이에요. 남 흉도 보고, 남이 화내면 같이 화도 내고, 남에게 잘 보이려고 거짓말도 하면서 살던 나는, 당신을 만나고 나서 달라졌습니다.

당신 옆에서, 나 또한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얼마나 평온한지 새삼 깨달아 갑니다. 당신의 넉넉한 성품 역시,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그래서 옳고 그름에 얽매이지 않는-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은 아닐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내 삶을 바꾼 당신, 그리고 지금은 곧 태어날 아기의 아빠가 될 당신, 나는 불교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다음 생이 있는지도 잘 모르지만, 당신을 보면서 꿈을 꿉니다. 다음 생이 있다면, 나는 당신에 더 가까운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억겁의 세월이 흐르고 흐르면, 언젠가는 깨달음을 얻어 번뇌에서 벗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곧 태어날 우리 아기 또한 당신을 닮아서 과거를 후회하지도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한 사람으로 자라면 좋겠습니다. 얽매이지 않기에 번뇌가 없고, '나' 에게서 벗어나 남을 받아들일 줄 아는, 당신처럼 큰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면 좋겠습니다.

'고집멸도' - 당신의 말간 얼굴을 보면서, 이제야 그 말을 조금씩 가슴으로 받아들입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기에,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당신의 말간 얼굴은, 번뇌 없는 평온한 삶이 무엇인지 내게 가르쳐 줍니다. 당신에게 이 편지를 통하여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내년 이맘때에는 당신이랑 나랑 아기랑 셋이, 떨어지는 벚꽃을 보러 여의도 윤중로에 가기로 해요! 그리고 그날까지 마음이 아프면 한 번 더 걷고, 몸이 아프면 한 번 더 웃으면서, 우리 각자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충실하기로 해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사랑합니다!

떨어지는 벚꽃을 보며, 여보, 소영 올림

봄처럼 꽃피는 세상 되었으면

수상 소감



류소영

현대불교신문에서 감사편지를 공모한다는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평소 주위에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분들이 많았는데, 누구보다도 제 옆에 있는 남편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이번 공모에 응모하게 되었습니다.

제 편지가 뽑힐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기에 이미 편지를 남편에게 건네주었는데, 뜻밖의 당선 소식에 어리둥절하기만 합니다. 편지가 뽑힐 줄 알았다면, 남편이 깜짝 놀라도록 조금만 기다려 볼 것을 그랬나 봅니다.

글솜씨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제 편지가 뽑힌 까닭은, 심사하시는 분들께서 편지 안에 담긴 진심을 알아봐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면을 빌어, 남편에게 고마움을 전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마련해주신 현대불교신문사와 수효사 효림원 측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봄입니다. 따뜻한 봄 햇살처럼,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는 우리의 마음까지 활짝 피어나게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좋은 공모를 통하여 매사에 서로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봄 같은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 약사선원
010-2766-7677
북한산 국립공원 올래길
서울 은평구 진관동 대서문길 36-1 북한산성상가 A동 203호

사찰 건축

천년 가람을 이루는 지극한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최신스틸공법 시공 / 대웅전 / 요사채 / 산신각 / 전문시공





스틸한옥의 장점
◆ 단열효과가 높고 유지 보수가 쉬우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 층수에 관계없이 고층 시공이 가능함. 한옥빌라, 한옥빌딩, 한옥아파트 등
◆ 스틸구조에 의해 디자인 면에서도 한옥의 선을 맘껏 살릴 수 있다. 다양한 디자인 한옥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주)만성기업 한중열 합장
부산 사상구 강선로 11번지 / 010-4245-1335

우수상

사랑하는 아들에게

한주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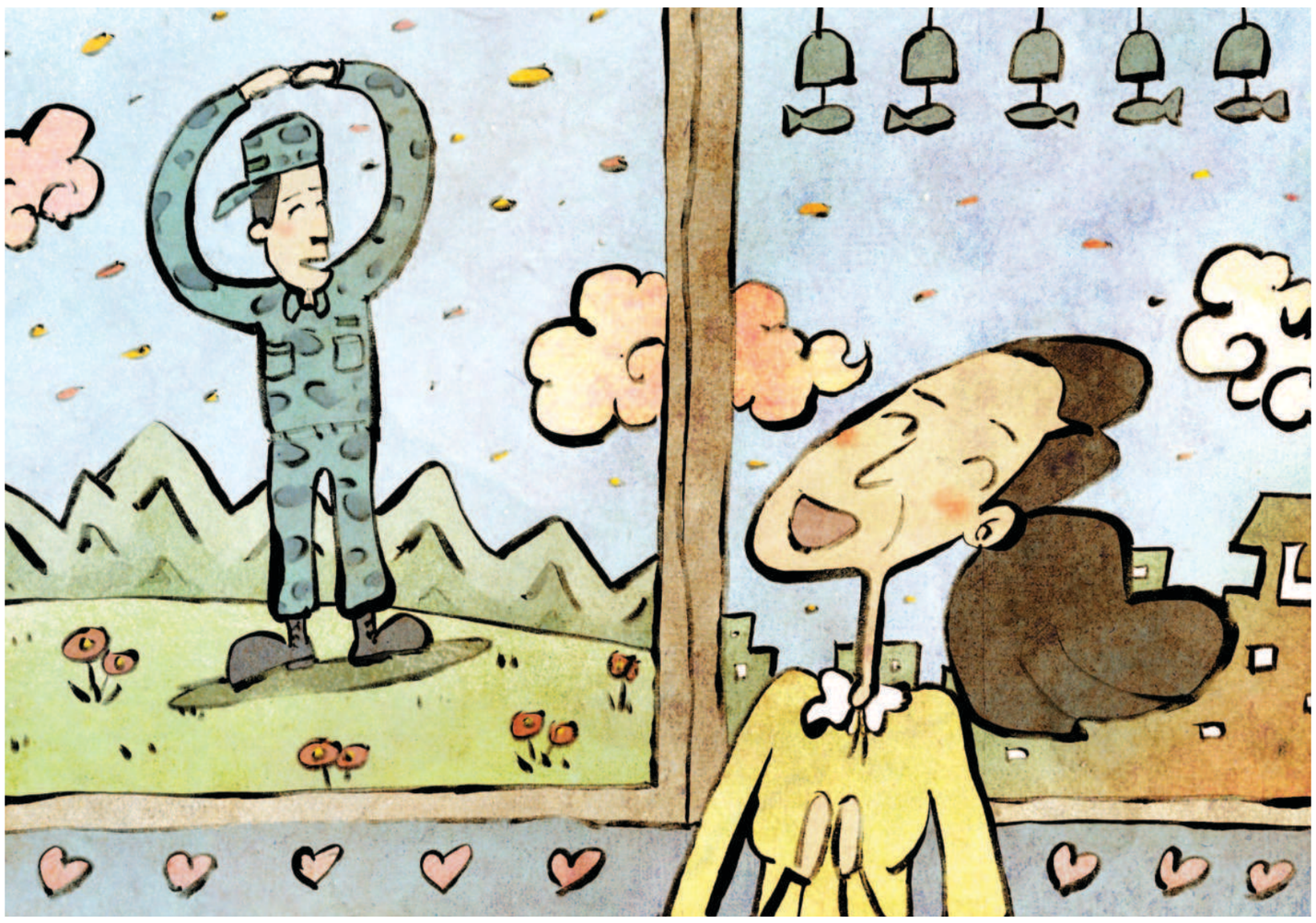


그림 · 강병호

아들아, 잘 지내고 있니?

여긴 개나리, 진달래, 벚꽃 같은 아름다운 꽃들이 봄의 잔치를 벌이고 있단다. 어제는 비가 왔지. 그런데 강원도는 비가 아니고 눈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SNS로 눈쌓인 개나리꽃 사진을 보며, 아름답고 신기하다는 탄성보다 네가 고생할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

네가 입영날짜를 받고 나에게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 봤던 때가 생각나는구나. 그때는 걱정도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아들이 벌써 군대를 갈 만큼 많이 컸구나 하고 뿌듯하기도 했어.

그리고 해군에 입대하기 위해 할머니와 동생들까지 전가족이 함께 진해까지 갔었지, 네가 해군교육사령부에서 입소식을 마치고 부대 안으로 들어갈 때 좀 울컥하긴 했지만 그때까지도 난 담담하게 너를 보낼 수 있었어. 그런데 너를 거기에 두고 집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네가 없다는 사실이 확 다가오면서 나는 엉엉 울고 말았단다. 네가 없다는 것이 이런것이로구나 실감했지, 그리고 너는 그냥 아들이 아니라 장남이잖아. 장남이라는 말을 실제로 잘 쓰지는 않았었지만 네가 가고 나니 장남이라는 자리가 참 컸다는 것을 알겠더라. 그래서 옛날 엄마들이 장남 장남했나보다 싶어.

그날 이후 엄마는 매일 기도를 하게 되었단다. 엄마는 지금까지 한 번도 부처님께 뭘 해달라고 빌어본 적이 없단다. 네가 고3 때에도 나는 공부는 네가 하는 것이고, 대학 진학도 네가 잘 알아서 찾아 갈거라 믿고 너에게 전적으로 맡겼잖아. 네가 쓴 자기소개서를 검토해 주고 가끔 너와 대화를 나누는 정도가 내가 해주는 엄마 노릇이었지.

그런데 너를 군에 보내고 나서 엄마는 네가 안전하게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하며 나도 모르게 불보살님께 굽어살펴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더라. 나이 탓인가? 그 전까지와는 다른 깊은 애틋하고 그립고 염려하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 같아.

새로이 모성애라는 걸 느끼면서 너를 낳았을 때가 생각나는구나. 네가 태어나고 갓 태어난 너를 품에 안았을 때 그 전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감정을 느꼈는데, 그건 단지 내가 너를 내 배 아파서 낳았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작고 눈도 못 뜨는 너를 살게 해야 한다는 원초적이고 무조건적인 감정이었지. 그래서 엄마라는 것이 그냥 애기를 낳아서 엄마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지.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 네가 중학교 때 엄마가 학교에 갔을 때 담임선생님이 "민규는 참 특별해요"라고 말했단다. 반에 새로 전학 온 학생이 있는데 성격이 독특해서 왕따를 당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선생님이 이 문제로 학급에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더구나. 아이들이 그 친구는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그 친구가 왕따를 당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할 때 네가 그랬대. '그 친구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하고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친구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고.

그 때 엄마는 참 기분이 좋았어. 선생님 말씀처럼 너는 참 특별해. 하지만 사실은 특별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없을 거야. 생김이나 성격이나 소질이 다 다르니까, 모두가 다 특별한 거지.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서열을 매기는 경향이 있어. 너를 특별하게 봐 주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구나. 너도 꿈이 선생님이지?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생각해 보니 네 어릴 때 별명이 '준비된 괜찮아' 였다. 친구들이나 사촌들이 네 장난감을 빼앗거나 한 대 때렸어도 그쪽에서 "미안해"라고 하면 너는 즉시 "괜찮아"라고 해서 부쳐진 별명이지. 너무 순하기만 해서 어쩌나하고 어른들이 걱정을 하기도 했지만, 너는 자라면서 네 주장도 분명히 하는 아이였단다.

언젠가 인구주택총조사를 하던 때였는데, 내가 가족들의 종교를 모두 불교라고 표기하자 네가 강하게 "NO"라고 말했지, 너는 불교가 아니라고, 너에게 종교를 강요하지 말라고. 그때 유치원 때 꿈이 부처님이었고, 스님이었던 내 아들이 맞나 싶어서 조금은 서운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마마보이는 절대로 안 될 것이 틀림없어 보여서 안심이 되었다.

> 엄마는 네가 무사히 군복무 마치고
> 돌아오기를 기도한단다.
> 내가 너의 엄마라는 게
> 정말 뿌듯하다.
> 아들로 와 주어 진심으로 고맙다.

그런데 네가 고3이 되었을 때, 학교에서 유교, 불교, 기독교 등 한국의 주요 종교에 대해서 배웠나봐. 너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지. "부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요. 어떻게 그 옛날에 그런 걸 다 아셨을까요?" 그날 밤 너와 나는 연기, 무아, 공과 같은 불교의 교리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 그러면서 너는 몇 가지 의문을 제기 했다. 어떻게 무아인데 윤회를 하는지 뭐 이런거였는데, 아마도 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아.

"네가 알아들었듯이 무아란 것은 나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없어서 조건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뜻이잖아.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에게 집착을 하지. 그 집착을 하는 마음이 죽은 뒤에도 흩어지지 않고 남아 있어서 윤회를 하게 된단다. 불교에서는 흩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그것이 태에 찾아와서 임신이 된다고 본단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부모의 생식세포만으로 사람이 태어나는 걸까? 그렇다면 너하고 네 동생들하고 셋이 다 왜 그렇게 다른 거지? 너희들을 보며 엄마는 유전자가 아니라 어떤 타고나는 것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한단다."

내 얘기가 와 닿았는지 너는 이렇게 말했어. "저는 오늘부터 불교 신자예요. 어떻게 불교를 믿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기독교를 믿을 수 있겠어요?"

네가 아들로 와 주어서 언제나 고마웠지만 그 어떤 순간보다 그때 그 순간이 엄마는 잊혀지지가 않는구나, 너에게 정말로 고마웠다.

얼마 전에 전화로 네가 보초를 서다가 무료해서 걷기 명상을 하다가 큰일 날뻔 했다는 말을 했었지. 군법당에서 배운대로 '들어 올림, 옮김, 내려 놓음' 이렇게 알아차리며 걷기를 하다가 너무 집중한 나머지 차량이 들어오는 걸 몰라가지고 깜짝 놀랐다고. 그래서 다시는 하면 안 되겠다고. 그 말을 들을 때 엄마도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실은 너무 좋아서 막 자랑하고 싶었어.

네가 보낸 편지를 보니 엄마, 아빠 그리고 할머니께 편지를 쓸 때는 그저 잘 있다고만 쓰고 동생한테 쓸 때는 훈련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 수 있게 다르게 썼더구나. 네가 어른들 걱정 안하게 하려고 그렇게 편지를 썼구나 싶어 너의 깊은 배려에 또 한번 감동했다. 네가 자대배치를 받고 좋은 선임을 만났다며 나에게 고맙다고 말한 것도 매일 너를 위해 기도하는 엄마를 추어주는 말이라 역시 고마웠다.

이번 주말이면 그리운 아들 첫 면회를 가는 구나. 그때까지 잘 지내고.

엄마는 오늘도, 내일도, 네가 무사히 군복무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도한단다. 내가 너의 엄마라는 게 정말 뿌듯하다. 아들로 와 주어 진심으로 고맙다. 사랑한다.

아들 바보 엄마가

가족을 더욱 화목하고 행복하게

수상 소감



한주영

현대불교신문사로부터 이번 감사편지 공모에 당선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공모에 낼 때는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지 않았지만 '설마 될까?' 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실제로 당선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실감이 나지 않아 몇 번이고 정말이냐고 되물었다.

우선 행사를 준비해주신 현대불교와 수효사 효림원 등 관련기관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편지의 주인공 민규에게 고맙다. 또한 첫 번째 손주여서 누구보다 애지중지 키우신 시어머니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돌아가신 시아버님께도 감사드린다. 마침 올해 5월 16일은 아들 민규의 양력생일과 시아버님 기일이 겹치는 날이다.

이번 제사에 상패를 올려 드린다면 시아버님께서도 크게 기뻐하실 것 같다. 역시 우리 아들이 효자란 생각이 든다.

이번 편지 공모전에 응모하면서 편지를 남편과 함께 읽고 고치기를 몇 번을 하였다. 남편과도 함께 자식 키우는 동반자로써 더욱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 같다. 수상 소식을 듣고 남편은 자기가 도와준 덕분이라며 기뻐했다.

이번 기회를 빌어 더 많은 분들이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고 가족을 통해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을 얻기를 바란다.

다시한번 우리 가족을 더욱 화목하고 행복하게 해준 현대불교사와 사회복지법인 수효사 효림원을 비롯한 동산반야회, 불교여성개발원, 공림공양회, 여여원과 심사를 해 주신 동국대 법산 스님, 불교평론 홍사성 편집인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입선

대행 큰스님께 드립니다

윤정란

대행 큰스님께 올립니다.

꽃들이 부처님 모습처럼 곱게 웃는 봄날,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행 큰스님께 올립니다. 큰스님! 제가 큰스님을 뵈옵기 전 어느 날이었습니다.

선원 신도 한 분이 저에게 건네주는 현대불교 신문에서 큰스님 법문을 읽고 뭔지 모르게 가슴이 벅차올라 그 신도분을 따라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한마음선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2002년 1월 6일 그날은 '이생 저 생이 통하는 길, 삼세가 통하는 길, 세상만사가 통하는 길' 그렇게 깊은 뜻을 담은 구정탑 봉탑식이 선원 도량에서 거행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처음으로 선원에 도착했을 때는 봉탑식 행사가 끝난 후여서 그 날이 그렇게 귀중한 날인 것도 모른 재 함께 간 신도분을 따라서 선원 이곳저곳을 둘러보기만 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음날부터 며칠 동안 계속해서 새벽 4시에 잠이 깼습니다. 마음속에서 그것은 새벽예불에 참석하라는 뜻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선원을 함께 갔던 신도분께 제가 차로 모실테니 새벽에 함께 선원에 갈 수 있느냐고 물으니 그 신도분은 꼭 가야 하는데 차가 없어서 못 가고 있었다며 손뼉을 치면서 기뻐했습니다. 당시 저는 막 운전면허를 딴 초보였는데도 겁도 없이 1톤 트럭을 몰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서 안양 한마음선원까지 일 년 동안 새벽예불을 다녔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되는 남편의 도박으로 인해서 제가 생활비를 벌어야 했기에 잠은 세 시간 정도밖에 잘 수 없었지만,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렇게 다녔습니다. 도박 중독으로 살아가는 남편의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봐왔던 저는 새벽예불을 다니면서 들었던 생각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 어찌 저렇듯 비참하게 살아야 할까? 제발 사람답게 살 수만 있다면 감사하겠다"는 마음을 편지에 담아 복전함에 넣은 적도 있었습니다.

저는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남편의 삶이 안타까워 남편이 마음을 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사시 예불에 참석하기를 청했습니다. 고맙게도 남편은 제 청을 받아주어서 선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법회에도 참석하고 마음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부처님 오신 날이나 백중날이면 선원 도량에 설치하는 등작업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했습니다.

그러던 5년 전 어느 때 쯤 남편은 하루 두 갑 이상 피우던 담배를, 25년 넘게 그토록 끊기 어려웠던 도박을, 큰스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마음공부를 하면서 모두 끊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 감사함에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아들이 몇 년 전부터 도박 중독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그때 그 심정은 말로는 뭐라고 표현할 수조차 없는 큰 슬픔이었습니다.

하지만 법회 때 큰스님께서 해주시던 법문 중에 "내가 이 세상에 나왔기에 남편도 나를 만나 고생하고 자식도 나로 인해 세상에 태어나서 고생하는 것이니 내가 세상에 나온 탓이지

누구를 원망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제 마음에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자성불 즉, "참나"가 아들의 도박을 끊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 남편은 저와 함께 마음공부하며
> 도박을 끊었습니다
> 저희 부부는 영혼의 손 잡아준
> 스님께 감사드립니다

큰스님! 저는 큰스님을 처음 뵈었을 때나 색신이 안 계신 지금이나 큰스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이 크고 넓고 깊기만 합니다.

"너무 짜면 물 타 먹고, 싱거우면 간장 타 먹는 것이" 그대로 불법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법문을 가슴에 새기면서 일체가 둘 아닌 도리인 마음공부 열심히 해서 제가 옷 벗는 그날 큰스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불제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저희 부부 영혼의 손 잡아주신 큰스님께 뜨거운 가슴으로 감사드립니다.

큰스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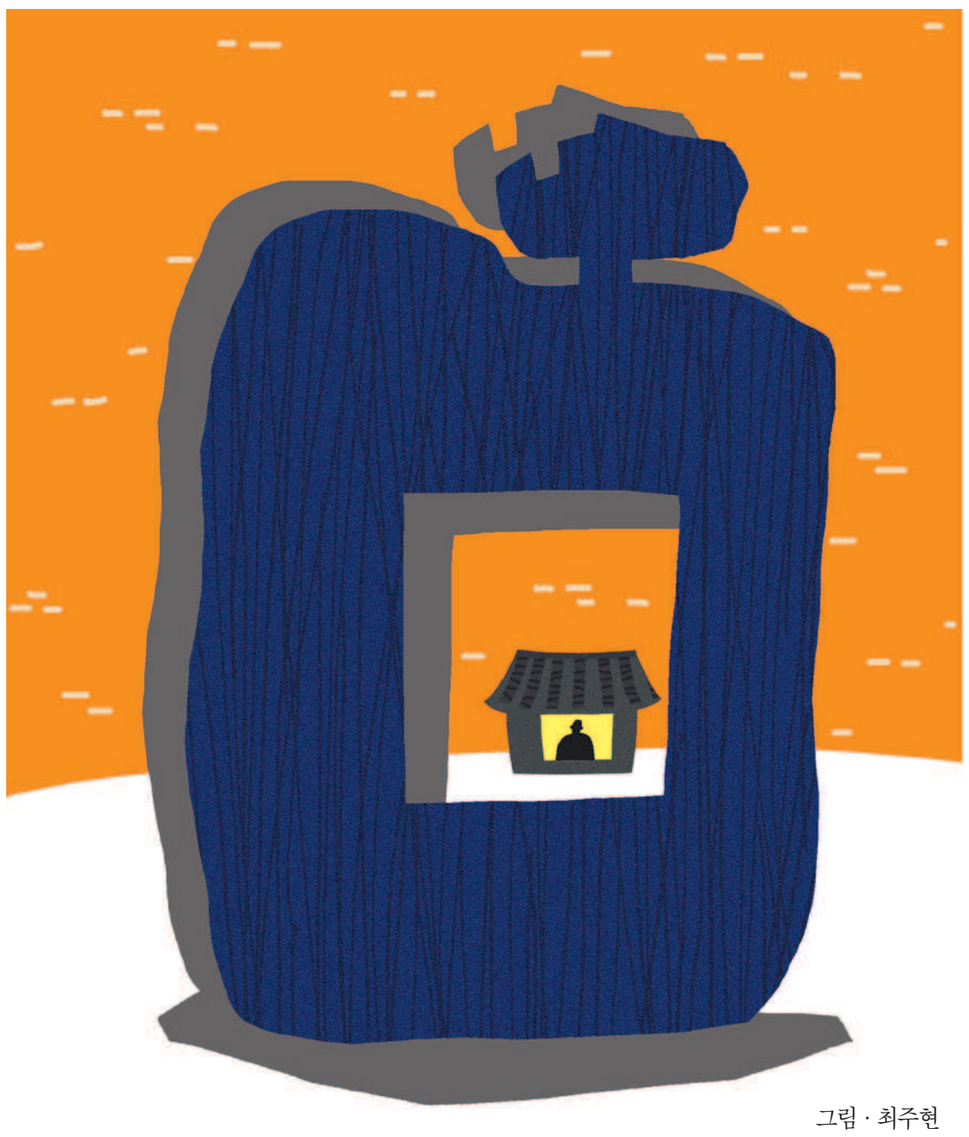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지어진 인연에 '합장'

최혜경

나는 살아집니다.

나는 살아집니다.
울 엄마의 딸로 살아집니다.
형제들과 한 핏줄로
따스히 살아집니다.
엄마라 부르는 아이들과
피붙이로 살아집니다.
나를 세상 밖으로 꺼내준
진실한 인연으로 살아집니다.
나의 아픔을 이해하고 감싸주는 벗들과
더불어 살아집니다.
바른길로 이끌어 주는 스승이
앞장 서 주어 살아집니다.
숨 쉬는 것도 공기의 힘으로 이루어집니다.
호흡만으로도 감사의 기도는 충분합니다.
세상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지도록
인연 맺어졌습니다.
나는 살아집니다.
살도록 조건 지어진 인연들에
겸허히 무릎 꿇고 합장합니다.

깊은 밤.

지금은 나 홀로 깨어 있습니다. 아무도 왜 혼자 깨어 있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오롯이 나에게 진실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거짓도 바라보고 참도 바라보며 내 속에 숨어 있는 양심과 조우합니다. 스스로 부끄러워 마음을 돌리기도 하고 잔잔한 미소에 뿌듯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기쁨보다 아픔이 먼저 고개 들고 나와 가슴을 헤집습니다. 그것도 사람과의 이별이 맨 앞에 섭니다.

누군가로부터 내가 멀어져갈 때 그 까닭이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면 모든 것은 내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의 아만과 교만이 그의 가슴에 상처기를 내었고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한 상대는 나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별을 하고 난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한없이 품어줄 것 같은 사람도 그 인내에는 한계가 있고 받아주는 품은 정해져 있다는 것을 나만 몰랐습니다. 함께 했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난 뒤 내게 남는 회한은 버리지 못한 아상(我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혼자서 잘나고 똑똑하여 무엇이든지 잘 할 것 같았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삶이 아픔으로 남는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사랑의 부족이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냈던 사람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오해, 교만한 시각들이 그를 멀게 했었고 우리에게 이별이라는 문제를 안겨주었습니다.

길고 긴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홀로 남겨진 지금 돌아보면 그간에 다하지 못한 삶에 대한 반성과 관조가, 남아 있는 시간에 대한 해답처럼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좀 더 겸손하게, 좀 더 여유 있게, 좀 더 이해하며 나를 비우고 그를 채울 것을… 나는 왜 그를 채우기보다 나를 채우는 일에 더 마음이 차 있었을까. 진정한 사랑이란 나를 비워 상대를 채우는 일이라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고 그에 익숙하지 못한 것을 보면 나는 아직도 미숙아인가 봅니다. 이 세상을 나 혼자 살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삶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둘러싼 많은 인연들의 보이지 않는 손길은 내가 세상을 살 수 있는 근원이었습니다. 행여나 마음 다칠까봐 조심하며 시간을 지켜봐 준 친정어머니와 형제들, 말없이 기다려준 금쪽같은 아이들과 삶에 대한 의지를 키우려는 나의 확실한 목표가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쉰이 넘은 늦은 나이, 대학원 진학을 하고 석박사 학위를 딴 뒤 대학 강단에 설 수 있었던 것은 나를 믿고 밀어 준 가족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며, 학문적으로 이끌어 주신 여러 은사님들의 과분한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 고열에 시달리는 아이를 안고 찬물수건만 얹어주었던 신혼시절의 가난도, "엄마 우린 왜 이렇게 가난해? 돈이 없어서 내 장난감도 못 사줘? …" 억장이 무너지는 아들의 하소연도 들어주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조건부터 감사하자' 는 마음으로 숨만 쉬는 것도 하늘에 감사한 일이라고 자꾸자꾸 머리를 숙였지만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할 무렵, 우리의 인연은 각자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 앞으로 살기 위해 가야할 길은 멀고도 험한 공부였습니다.

쉰이 다된 해 대학원에 진학해 늦은 학문을 하며 허리를 휘던 시간들을 조용히 지켜주고 바라봐 주었던 내 친정식구들의 사랑과 관심은 오늘의 내가 존재할 수 있었던 지원군이었습니다. 너무도 힘들고 지칠 때 선방에 앉아 하염없이 속울음만 삼키던 시절. 내 삶에도 빛이 비치는 날이 있을까 절망하던

>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 마음의 빚을 진 이들에게
> 보답하는 것입니다.

시절도 있었는데 이렇게 홀로 설 수 있도록 손잡아준 인연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은사님들의 진실한 격려는 내가 학생들 앞에 설 수 있도록 인연 맺어진 고마운 분들입니다.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조건 지어진 인연들에 의하여 살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공기가 주는 숨부터 나의 길을 가는 데 도움을 준 많은 인연들, 그리고 다시 나를 세상 밖으로 꺼내준 소중한 인연들이 있기에 나는 살아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해야 할 일은 마음의 빚을 진 이들에게 보답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필요할 때 함께 걸어주고, 그들이 아닌 어느 누군가가 손을 내밀 때 손 잡아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혼자의 인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무수한 인과관계 속에서 꽃 피고 열매 맺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 인연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과의 이어짐이 바로 자신의 삶임을 깨달아 앞으로 나를 증명하는 내 인생으로서 그들 앞에 바로 살아야겠습니다. 그들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하루하루 살아지는 날들이 투명하도록 본자리에서 바로 보는 삶이도록 하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나와 맺어진 모든 인연들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살을 서원하며

강태정

부처님, 안녕하세요?

감히 부처님의 제자 자리에 끼고 싶은 중생 해탈월입니다. 제 마음 속에서는 진정으로 부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매일..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말은 사랑과 감사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사랑 형식적인 감사가 난무하다보니 가치가 떨어지긴 했지만 천만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고 천만번 말해도 공덕이 되는 말은 감사하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린시절 저희 집에는 두 점의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소녀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인데 그 그림 옆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또 하나의 그림은 낟가리를 쌓아 놓은 부부가 고개를 숙여 기도하던 모습 밀레의 '만종' 이였습니다.

감사를 생활화하라고 붙여놓은 그림일진데 저희 집 식구들은 감사보다는 미움과 질타, 한숨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기울기 시작한 가세 때문에 저는 어두운 어린시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감사와 사랑이 넘쳐나는 즐거운 우리집은 책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였고 늘 어둡고 불안하고 절망스런 시간을 보냈으니 감사가 어디 있으며 감사하고 싶은 마음도 건덕지도 없었습니다.

아! 있다면 누군가가 저에게 고마운 일을 해줬을 때 "고맙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인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와 같은 의미의 …

부처님. 이랬던 제가 지금은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감사 감사를 하고 있으니 제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하고 있는 일이 잘되어서 명예와 부를 얻어서일까요? 앓고 있던 병이 다 나아 건강해져서일까요? 아니면 자상하고 능력 있는 남편과 말 잘 듣고 똑똑한 자식을 두어서일까요?

부처님, 위에서 열거한 것들은 모두 제가 간절히 원하던 것들이었습니다. 간절히 원했지만 이루지 못해서 괴로워하던 것들입니다. 특히 일에서 많은 것을 성취하고 싶었습니다. 일만 잘되면 나머지 것들은 얻기가 쉬워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부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어리석은 중생이지요? 한 대 때려서라도 정신을 차리게 하고 싶은 중생이지요? 아니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인가요? 부처님은 그저 빙그레 웃으시면서 "언젠가 깨달을 날이 있을 것이다. 네가 알아서 때가 되면 지혜로워질 것이다" 하시면서 자비의 마음으로 보고 계시는 거지요?

지혜와 복덕을 갖추신 부처님,

불제자라고 하면서도 괴로움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저의 인생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그 폭탄의 이름은 '암 2관왕'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동료 친구들은 '당선 2관왕' 도 달성하던데 저는 위암과 유방암을 가진 '암 2관왕' 을 달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탓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한 도반이 말했습니다. "자책하지 마라" 스승님이신 법륜 스님도 법문에서 말씀하셨지요. "제1의 화살은 맞되 제2의 화살은 맞지마라." 이미 벌어진 일 분명 어딘가에서 시작된 인연과보로 이런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받았지만 과거로 돌아가 자신을 탓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오지도 않는 미래를 걱정해서 미리 절망하지 말고 현재 여기에 깨어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어느날 법륜 스님의 즉문즉설에서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하니 스님께서는 "하느님 덕분에 지금까지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특별난 기도문을 주실 줄 알았는데 그리도 간단하게 기도문을 주시니 좀 낫게 해달라고 하면 안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쩌겠어요. 스님이 시키는대로 해야지요.

하나님 대신 지금은 마음 가운데 부처님을 모시고 있으니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덕분에 지금까지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감사한 건지 모르지만 일단은 마음이 편해져야 하고 살아야 하니 부처님께 매달려보자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저의 기도입니다. 필요에 의해 시작한 이 기도가 원력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병원에서도 요양원에서도 저는 열심히 기도생활을 했습니다. 담담히 저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받아들이고 나니, 저에게 이리도 부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놀라웠습니다.

새벽 3시 30분 눈 뜨자마자 방송을 틀어 금강경을 듣고, 행복을 찾는 108배에 맞춰 절을 하고 5시 새벽예불 방송을 듣고 있으면 바로 여기가 절간이구나! 부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면서 행복한 기분이 듭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듣기 좋은 소리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스님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무슨 공덕으로 제가 이런 무량한 복덕을 누리는지요?

저는 지금 아직도 병원 관리를 받는 암환자입니다. 이 암이라는 질병과 죽는 날 작별을 하게 되겠지요. 암이 이기느냐? 제가 이기느냐? 이것만이 저에게 놓여진 실존입니다. 그러나 저는 암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너도 태어날 수밖에 없었겠지. 너도 살고 싶겠구나! 우리 같이 살자. 암아! 비록 수술해서 너를 떼어내 버리고 말았지만, 너를 해치지 않을게 너도 나를 해치지 말아 달라고 아침마다 어루만져 줍니다. 항암치료를 받지 않은 것도 더 이상 암세포를 몰아세워 더 독하게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저는 부처님의 자비로움을 정말 좋아합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제가 제일 갖고 싶은 덕입니다. 날마다 부처님께 기도를 하면 저의 못된 악한 나태한 본성이 녹아내리고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갖춰가겠지요? 아니 저의 악한 본성을 기도로 다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는지 그 생각을 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이런 저를 알아차리는 기도와 명상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너무도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부처님, 이제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일 등 이승에서 이 몸을 이끌고 살아내야 하는 문제가 첩첩산중이지만 저는 이 속에서도 감사함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루일과를 마친 저녁에는 도반들과 감사문자 나누기를 합니다.

어떤 일을 금새 잊어버리니 집착심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몸에 기운이 딸리니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일이 없으니 감사합니다. 돈이 없으니 사고 싶은 물건에 대한 꿈을 꿀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일이 잘 안 풀리니 이것 또한 제가 살아야 할 이유가 되고 노력하느라 권태롭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는 수행을 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이 되니 감사합니다. 저를 괴롭히는 가족이 없으니 감사합니다. 병이 있어도 돈이 없어도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제가 부처님께 드리는 감사편지의 내용입니다. 말로만 글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제 자신이 변하고 진정으로 행복한 감사입니다.

> 저는 암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 이제 두렵지도 않습니다
> 수행할 수 있어 그저 감사합니다

부처님 법 만나 감사합니다. 같이 하는 도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공기와 물 바람 저를 감싸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 있어서 살아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게 해주시니,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땅에 고통받는 중생을 위한 보살이 되기를 감히 기원해 봅니다.

불기 2558년 4월 25일 불제자 해탈월(강태정)이 부처님께 감사의 편지를 드립니다.

입선



그림 · 최주현

엄마 행복하세요

정재인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게 했다고, 줘선 안 될 상처를 남겼다며 내 앞에서 고개를 떨어뜨린 채 울던 우리 엄마. 마음만은 '나는 괜찮아, 엄마 딸이라서 행복해' 라며 엄마 손을 꼭 잡고 말해주고 싶었는데 그땐 내가 너무 어렸나봐. 그만 좀 울라고 소리 지르면서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지. 그때 내가 엄마를 위로해줬다면 엄마는 지금도 내 곁에 있어줬을까?

엄마, 잘 지내고 있어? 엄마가 집을 나간 지 7년이 흘렀어. 그동안 나는 엄마가 몰라볼 만큼 많이 컸어. 머리도 많이 길었고, '이제 시집가도 되겠네' 라는 소리 들을 만큼 성숙한 아가씨로 자랐어. 엄마가 봤으면 "우리 딸이 제일 예쁘다"고 좋아했을 텐데. 엄마는 지금 어디 있을까.

엄마가 내게 연락하지 못하는 건 아마 너무 미안해서 일거야. 항상 엄마는 내게 미안하다는 말만 했으니까. 그런데 있잖아 엄마, 나는 엄마 딸이라서 참 좋았어. 엄마 대신 아빠에게 맞는 날이면 멍 든 얼굴로 학교에 가서 계단에서 넘어졌다는 핑계를 대야 했지만 나는 그게 마음이 더 편했어.

엄마가 아빠랑 싸우다가 크게 다쳐서 중학생이던 내가 엄마를 응급실에 데리고 가서 머리를 꿰매던 날, 의사선생님에게 "산에서 넘어졌다"고 말하던 엄마 앞에서 다짐했거든. 다시는 엄마를 다치게 하지 않겠다고.

내 친구들 엄마 중에서 제일 세련되고 예쁜 사람이 우리 엄만데, 엄마 얼굴에 상처 나면 안 되잖아. 그런데 엄마는 그게 너무 미안했나봐. 마지막 편지에도 "착하고 예쁜 우리 딸, 몸과 마음에 상처만 남기고 떠나서 엄마가 미안해"라고 남겼지. 엄마가 그 말을 쓰며 흘린 눈물자국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 파랗게 번진 그 글자가 파랗게 멍든 엄마 마음 같아서.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짐을 싸며 엄마는 얼마나 울었을까, 차라리 홀가분하게 기쁜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을 텐데 엄마는 나를 가슴에 묻어두고 얼마나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지는 게 이런 거구나' 느낄 만큼 많이 아팠어.

사실 가끔 엄마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때가 있어. 주말에 혼자 쇼핑을 가면 엄마 손 잡고 온 내 또래 여자애들을 볼 때나, 아빠가 내 속옷을 빨래망에 넣지도 않고 빨래를 아무렇게나 돌렸을 때, 그리고 새로 이사 간 집 내 방이 바깥에서 훤히 들여다보여서 예쁜 커튼을 달고 싶은데 아빠는 필요 없다고 해주지 않았을 때 '엄마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 하지만 나는 엄마를 단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어. 엄마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디든 그 자리에서 엄마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내 행복이고 기쁨이야. 그래서 엄마가 7년 동안 단 한번 연락 와서

> 엄마! 미안한 마음 갖지마
> 엄마가 없는 곳에서도 항상
> 부끄럽지 않은 딸 될게요
> 어디서든 아픈 곳 없이 행복하길

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몰라. 엄마는 그 때도 연신 내게 미안하다는 말만 했지만 내 마음은 너무나도 가득히 기뻤어. 꼭 내가 보고 싶지 않더라도 돈이 필요해서건 내 도움이 필요해서건 엄마에게 다시 연락이 온다면 정말 좋을 텐데.

엄마! 엄마가 내 손을 잡고 절에 처음 가던 날 기억해? 아마 내가 5살 땐가, 분명히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이었어. 갈색 브릿지를 넣은 내 머리를 보고 노스님이 가위를 들고 머리카락을 잘라버리겠다고 뛰어오셔서 내가 울면서 도망갔잖아. 엄마는 박장대소하면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고. 그 이후로 겁이 나서 절에 안가겠다고 떼를 쓸 때마다 엄마는 "스님이 또 가위 들고 쫓아오시면 엄마가 막아줄게"라면서 데리고 갔지. 그런데 나는 엄마가 어릴 때 나를 계속 절에 데리고 다녀줘서 엄마에게 정말 감사해. 엄마가 나를 낳아준 것 다음으로 감사해. 지금 나는 부처님 가피 안에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엄마가 집을 떠난 후 많이 아팠던 적이 있어. 작은 수술을 해야 했고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판정을 받았어. 어린 나이여서 아기를 낳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큰일인지는 몰랐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심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어.

그런데 어느 날 엄마랑 다니던 절이 생각나는 거야. 그 곳은 너무 멀고 집 근처 가까운 절에를 혼자 갔어. 부처님 전에 삼배를 드리고 앉아있는데 너무 눈물이 많이 나서 주체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그날부터 108배를 드리기 시작했어. 엄마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절에 가서 108배를 드리고, 돌아올 땐 언제나 환히 웃으며 왔었잖아. 나도 매일같이 108배를 드리다 보니 어느 날은 갑자기 '내가 겪고 있는 아픔은 어떤 이에 비하면 너무 작은 아픔에 불과하고, 나는 지금 내가 가진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다 보니 몸도 많이 건강해졌고 지금은 다른 젊은 여자들과 다를 바 없이 건강해. 아마 원력 덕분이었겠지? 엄마의 빈자리를 부처님께서 가득히 채워주셨어. 절에 다니며 좋은 사람들도 무척 많이 만났고, 좋은 마음을 얻게 돼서 '엄마가 내게 부처님을 남겨주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내게 불법의 연을 남겨준 엄마에게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해.

그러니까 엄마, 혹시 지금도 어딘가에서 내게 미안한 마음을 안은 채로 살고 있다면 그러지 마. 엄마가 내 옆에 없다고 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 나는 밖에서 사람들이 "집에서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아이 같다"라고 얘기할 만큼 밝고 씩씩하게 잘 자랐어. 그건 엄마가 그만큼 나한테 큰 사랑을 줬다는 뜻이야. 엄마가 없는 곳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될 수 있도록 항상 행동하나 마음가짐 하나 하나에 조심하며 살게. 그러니 엄마는 스스로 자책감을 느끼며 지낼 필요도 없는 거고, 오히려 내 감사한 마음을 자부심으로 안고 살아갔으면 좋겠어. 부디 엄마가 어디에 있든 아픈 곳 없이 행복하길, 나쁜 사람들 만나 곤혹에 처하는 일이 없기를 부처님 전에 매일 기도할게. 사랑해 엄마.

엄마 손잡고 휴가를

신지웅

오랜만에 엄마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어요. 항상 가족이란 이름 아래에 함께 있어서 서로의 소중함마저 무디게 느껴졌었는데 떨어져 있는 지금에서야 내게 엄마, 그리고 우리 가족의 존재가 얼마나 컸는지 어렴풋이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참 많은걸 누리고 살았는데 그것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엄마가 아프고 나서야 가족의 건강이 소중한 것임을 깨달았고, 부모님이 이혼하고 나서야 함께 있음이 무엇보다 가치 있는 것임을 알았어요. 이제와 돌이켜보면 무엇보다 소중하고 잃지 말아야 했던 것들인데 당시엔 당연히 누려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오히려 내게 없는 것만 보여서 저는 감사할 줄도 모르고 불평불만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돈이 없다고 불평하고 귀찮다고 불평하고 힘들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흘려보낸 시간들이 돌이켜 보면 제 삶속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나날들이었는데 그땐 왜 알지 못했을까요?

엄마, 비록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짧지만 저는 제 인생의 너무나 많은 부분을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오만하게 살아왔습니다. 내 것이 아닌 돈과 집, 명품, 자동차 같은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는 어리석음 때문이었겠지요. 진정으로 행복한 것은 내게 가까운 것부터 소중히 여기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아마 군복무라는 서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 없었더라면 무신경한 제 성격 탓에 저는 아직도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함께 있음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을 거예요. 군 생활이 때로는 버겁고 힘들 때도 있지만 이 시간 덕분에 그동안 내 인생을 되돌아보고, 그 시간들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엄마와 가족들과 함께한 순간들이 얼마나 찬란히 빛나는 시간들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주위에 사소한 것들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려고 합니다. 제가 겪어온 인생은 짧을지라도 배운 게 몇 가지 있어요. 불평과 불만은 그 자체로 괴로움이 되어 내 삶을 괴롭힌다는 것과 그런 불평불만은 내게 없는 것들에 집착을 할 때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집착이 자신의 삶까지 소홀해지게 하며 결국 이것은 자신의 삶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동안 감사함에 소홀했는데 이젠 제 인생을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 것에 감사하자' 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살면서 갑자기 한 번도 불평하지도 않고 감사로 가득한 삶을 살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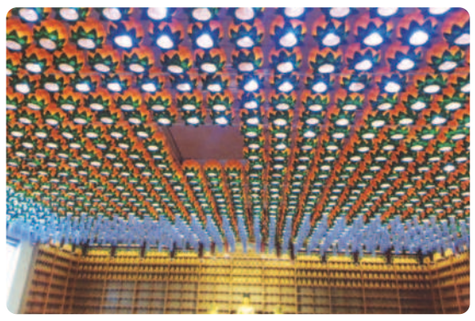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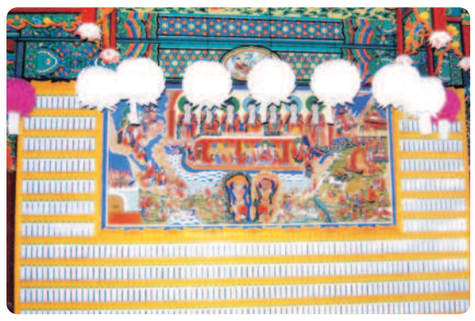
다만 저는 군복무를 하는 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있으며 느낀 이 소중함을 이번 기회로 가족들에게 전하고 제 마음에 새기려고 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들에 욕심내며 목 아프게 올려다보는 삭막한 삶에서 벗어나 사소하고 작은 마음일지라도 가족들을 항상 생각하고 감사하는 즐거움으로 가득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싱그러운 이 봄날 꽃이 피듯 저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고 보니 벌써 봄이네요. 이번에 휴가를 나가게 된다면 엄마 손을 잡고 같이 꽃구경을 하고 싶어요. 꽃처럼 아름다운 엄마가 꽃을 보며 환하게 웃는 모습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마음 한 가득 꽃향기가 피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남은 군 생활동안 제대 후에 우리 가족이 함께 행복할 나날들을 생각하며 기꺼이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다 엄마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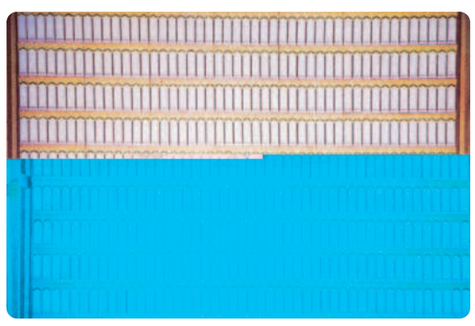
긍정적으로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한 투덜이 아들이 편지를 보냅니다. 두 번의 힘든 시기를 잘 겪어오신 만큼 앞으로 건강하시고 항상 제 곁에 있어 주세요.

사랑합니다. 늘 보고 싶어요.

사찰불사! 정우불교예술원이 함께합니다



정 인 제

제 월 인


월

제 월

인

불 불 불


대한불교조계종 奉恩寺

회주 **덕 민** 주지 **원 학**



부 주 지 원 오
교무국장 정 진
재무국장 성 륜
사회국장 상 법
포교국장 혜 찬
교육국장 담 소
노전국장 선 행
선 감 진 법
원주국장 제 은

사부대중 일동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 奉恩寺 | BONG EUN SA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531(삼성동 73번지) / www.bongeunsa.org
TEL 02)3218-4800 / FAX 02)544-2141

대한불교조계종 낙 산 사

주지 **도 후**

사부대중일동



www.naksansa.or.kr
관음진신주처 관음성지 오봉산낙산사

■ 무산사(양양포교당)
· 낙산유치원
· 낙산사불교대학
· 템플스테이
· 강원파라미타청소년협회

■ 무산 복지재단
· 낙산요양원
· 노인복지센타
· 양양군노인복지관
· 무산지역아동센타
· 의상도서관
· 양양시니어클럽
· 아동청소년장학사업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로 100 ☎ 033)672-2447~8 www.naksansa.or.kr

(재)대한불교조계종

안 국 선 원

사부대중일동



■ 부산 : 부산광역시 금정구 남산동 금단로 124 (남산동 지하철 1호선 두실역 8번 출구)
TEL 051)583-0993 · 0994 / FAX 051)583-0991

■ 서울 :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70(가회동 지하철 3호선 안국역 2번 출구)
TEL 02)732-0772, (744)0772 / FAX 02)744-0779

www.angukzen.org



대한불교천태종

우면산 관 문 사

주지 **변춘광**



부 주 지 김월도
총 무 김진철
교 무 박대거
부 전 전선관
거사부전 이덕법
신도회장 문광진

사부대중 일동

◆ 정기법회 : 매월 첫째, 셋째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옥불보전

■ (우 137-900)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 7길 111 / TEL 3460-5300, FAX 3460-5200

대한불교조계종
삼 각 산 **흥 천 사**

사부대중일동



■ 서울시 성북구 흥천사길 29(돈암동) TEL 02)929-6611



조계사가 준비한 '행복한 절 조계사' 연등. 연등회 제등행렬은 행복, 그 자체 였다.



세계간화선 무차대회에서 선정에든 스님들의 모습.

"상생·통일·평화 발원 오색연등 거리를 수놓다"

중요무형문화재 연등회가 5월 16일부터 17일까지 광화문과 종로, 동국대 일대에서 펼쳐졌다.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간화선무차대회와 함께 열린 연등행렬은 종로일대를 지내 광화문까지 열기를 이어갔다. 지나가던 시민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형형색색의 장엄등에 눈을 떼지 못하고 연신 카메라에 담으며 즐거운 미소를 한가득 띠었다.

16일 저녁 광화문에서 열린 세계간화선무차대회에서는 국내외 불교지도자와 불자 시민 등 30만명이 모여 한반도의 통일과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한데 모았다. 행사는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일감스님의 사회로 세계 각국의 스님들이 함께 한 달마토크와 진혼제, 예불의식에 이어 평화의 타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한반도 통일 선언문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불교계는 통일선언문을 통해 '공존' 과 '상생' 을 통해 다름을 인정하고 통일의 해법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함과 동시에 민족동질성 회복사업, 인도적 지원사업, 북한 불교문화재 복원사업을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특별취재팀(신중일 · 노덕현 · 정혜숙 · 박아름 기자)



세계간화선 무차대회에 앞서 열린 세계종교지도자들의 국립현충원 참배. 한반도 통일과 세계 평화를 발원했다.



광복 70주년에 열린 제등행렬에서는 태극등이 많이 선보였다.

佛紀 2559年 乙未年 Buddha's birthday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

신비령산 소원천지탑
음이온 명상치유 선도량

마이산탑사

회주 원암 혜명
주지 청파 진성
총무 정해

탑사 나누우리 봉사단

갑룡장학회 일동

전북 진안군 마령면 마이산로 367 ☎ 063)433-0012
http://www.maisantapsa.co.kr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 佛紀 2559年 乙未年 Buddha's birthday

백화도량 종남산 송광사

회주 금산 도영
주지 백강 법진

사부대중일동

전북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569번지
TEL 063)243-8091
http://www.songkwangsaor.or.kr




연등회 어울림마당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관욕의식을 하고 있다.


어울림마당에서 소고춤을 추는 외국인. 행복하게 웃고 있다.


연등회 제등행렬에서는 한마음 선원의 세계평화를 상징하는 지구본 연등이 눈길을 끌었다.


신명하는 춤사위를 선보이는 청년불자들.


반야심경 등을 들고 행진하는 불자들.



연등회 어울림 마당에는 2만여 불자들이 부처님 오신 뜻을 기렸다.

佛紀 2559年 乙未年 Buddha's birthday 평화로운 마음 향기로운 세상

원 원

일 동



대 532-274 전 053)767-3100 053)765-1600



양양군 면 진 리 1번지 전 033)671-0093 5 033)671-0525